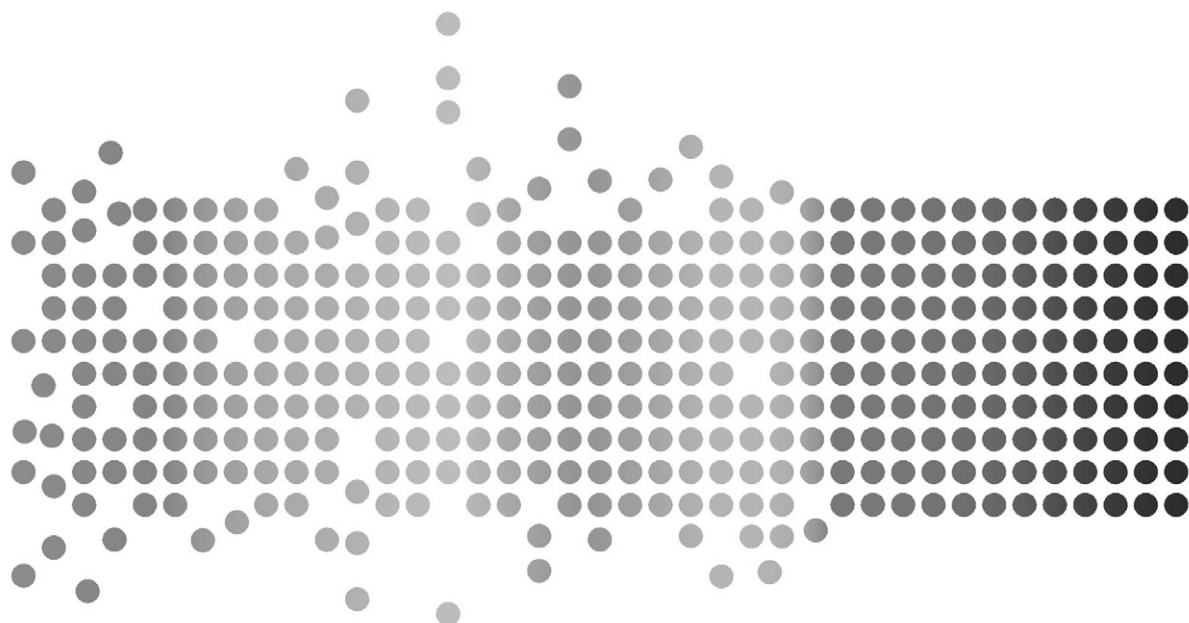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조사 -

Establishing Qualitative Panel Data on Low-income Households
in Complementation to KOWEPS

최현수 · 정혜숙 · 권지성 · 이은미 · 정선욱 · 조준용 · 하경희 · 유진영 · 정희선 · 고지영



연구보고서 2011-2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조사-

발행일	2011년 12월
저자	최현수 외
발행인	김용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전 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대명
가격	10,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ISBN 978-89-8187-797-2 93330



머리말

최근 빈곤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더 이상 빈곤을 단순히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나 물질적 결핍으로만 이해하지 않으며,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인 삶의 조건과 방식으로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심리, 사회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빈곤의 다차원성과 빈곤의 동태적 변화, 즉 역동성을 다루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확장을 가능하게 한 것은 패널자료 구축이다. 한국복지패널은 저소득층의 빈곤실태 변화와 욕구를 동태적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정책 효과성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춰 빈곤의 다양한 측면을 다차원적이며 역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측정 가능한 부분에 대한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질문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연구대상자의 인식과 경험이 데이터로 표현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빈곤 현상과 관련된 경험이 통계적 수치로 축약될 수밖에 없는 양적 자료의 한계와 양적 연구방법에의 편향성에 대한 다양한 한계와 문제의식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계량적 분석으로 생산되는 수많은 통계 수치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며 질적 연구를 통해 빈곤의 역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통찰의 기반을 제공하며 풍부한 설명과 해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질적 패널

자료의 구축 필요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양적 & 질적 연구방법론 연계를 통한 혼합 연구방법론을 통해 질적 패널구축의 의의 및 필요성을 검토하고, 한국복지패널 가구 중에 질적 패널 10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근로 및 탈수급, 가족관계, 정신건강 등 다양한 심리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최근 사회복지학계에 확산되고 있는 질적 연구의 수행 및 양적 연구에서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질적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기초보장연구실 최현수 부연구위원 책임하에 유진영 전문 연구원, 정희선 연구원, 고지영 연구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특히 질적 연구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학회장 정혜숙(서울시립대) 교수와 학회에 소속된 권지성(침례신학대) 교수, 이은미(서울신학대) 교수, 정선욱(덕성여대) 교수, 조준용(한림대) 교수, 하경희(이주대) 교수에 의해 질적 연구가 주도적으로 수행되었다. 모든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적 연구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적 패널자료 구축을 위해 현장에서 심층 면접을 수행하고 방대한 분량의 면접결과를 녹취록으로 작성해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질적 패널가구로 참여하여 심층 면접에 장시간 응해주신 한국복지패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최종보고서를 검독하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이태진 기초보장연구실장과 손창균 연구위원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제1부 양적 & 질적 연구방법론 연계: 혼합 연구방법론>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주요 연구내용 구성 및 연구방법	26

제2장 양적 & 질적 연계 패널구축 관련 혼합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양적 & 질적 연계 혼합 연구방법론 관련 이론 및 동향	36
제2절 빈곤 역동성 측면에서 양적 & 질적 연계 패널 구축의 필요성과 의의	50

<제2부 양적 패널조사 자료구축 및 기초분석>

제3장 저소득층 양적 패널조사 표본추출 및 가구특성

제1절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 표본추출	69
제2절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특성 분석	71

제4장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심리 동향지수 분석

-경제상황 및 복지수준 인식과 전망-

제1절 조사자료 및 분석방법	83
제2절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경제상황 및 복지수준 인식과 전망 분석결과	88

<제3부 질적 패널조사 자료구축 및 기초분석>

제5장 저소득층 질적 패널조사 표본추출 및 가구특성 103

제1절 저소득층 질적 패널가구 표본추출 103

제2절 저소득층 질적 패널가구의 특성 분석 104

제6장 저소득층 질적 패널조사 자료수집과정 분석 119

제1절 질적 패널자료 수집과정 120

제2절 질적 패널자료 수집방법 121

제3절 질적 패널자료 분석방법 134

제4절 질적 패널조사 수행 및 자료 활용 시 윤리적 고려 135

제7장 저소득층 질적 패널조사 결과 기초분석 I:

일과 빈곤, 탈수급 139

제1절 근로 139

제2절 빈곤, 탈수급 관련 역학적 특성 144

제8장 저소득층 질적 패널조사 결과 기초분석 II: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165

제1절 가족 165

제2절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169

제3절 생활실태 만족 및 의식 208

제9장 저소득층 질적 패널조사 결과 기초분석 III:

가족구성원별 조사	229
제1절 여성	229
제2절 아동/청소년	238
제3절 청소년(중·고등학생)	246
제4절 노인	264
제5절 장애인	276

<제4부 양적 & 질적 연계 패널구축 및 활용방안>

제10장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자료 구축계획 및 활용방안	299
--	-----

부록	319
----------	-----

표 목차

〈표 2-1〉 질적 연구방법론의 특징	38
〈표 2-2〉 혼합 연구방법론의 유용성	40
〈표 3-1〉 한국복지패널 원표본 가구 유지율과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 규모	70
〈표 4-1〉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경제상황 및 복지수준 관련 인식 및 전망조사영역별 주요 조사내용 구성	86
〈표 6-1〉 질적 패널 참여가구별 특성 및 심층 면접 응답자	124
〈표 6-2〉 질적 조사영역별 주요내용 및 심층 면접 지침서	133
〈표 8-1〉 생활실태 만족과 의식	209
〈표 9-1〉 청소년(중고등학생)의 경험	247

그림목차

[그림 2-1] 종단적 연구에서의 시간에 따른 변화의 탐색	59
[그림 3-1] 한국복지패널 전체표본가구와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지역별 분포 비교	71
[그림 3-2] 한국복지패널 전체표본가구와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가구주 연령 분포 비교	72
[그림 3-3] 한국복지패널 전체표본가구와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가구유형 분포 비교	73
[그림 3-4] 한국복지패널 전체표본가구와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가구원수 분포 비교	74

[그림 3-5] 한국복지패널 전체표본가구와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소득지위 분포 비교	75
[그림 3-6] 한국복지패널 전체표본가구와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기초보장 수급여부 분포 비교	76
[그림 3-7] 한국복지패널 전체표본가구와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의료급여 수급여부 분포 비교	77
[그림 3-8] 한국복지패널 전체표본가구와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아동가구원 유무 분포 비교	78
[그림 3-9] 한국복지패널 전체표본가구와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노인가구원 유무 분포 비교	79
[그림 3-10] 한국복지패널 전체표본가구와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장애인가구원 유무 분포 비교	79
[그림 4-2]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생활형편, 가계수입 및 소비지출 전망	88
[그림 4-3]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세부 항목별 지출규모 전망	89
[그림 4-4]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경기, 물가, 취업기회, 금리수준 전망	91
[그림 4-5]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경제상황 전망의 주된 영향 요인	91
[그림 4-6]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가계저축 및 가계부채 인식 및 전망	92
[그림 4-7]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자산가치 전망	93

[그림 4-8]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생활 관련 복지영역별 인식 및 전망	94
[그림 4-9]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복지수준 및 사회문제 관련 복지영역별 인식 및 전망	95
[그림 5-1]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지역별 분포 비교	105
[그림 5-2]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가구주 연령 분포 비교	106
[그림 5-3]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가구유형 분포 비교	107
[그림 5-4]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가구원수 분포 비교	108
[그림 5-5]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소득지위 분포 비교	109
[그림 5-6]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기초보장 수급여부 분포 비교	110
[그림 5-7]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의료급여 수급여부 분포 비교	111
[그림 5-8]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아동가구원 유무 분포 비교	112
[그림 5-9]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노인가구원 유무 분포 비교	113
[그림 5-10]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장애인가구원 유무 분포 비교	114

A dark, irregular, ink-blot-like shape with some smaller droplets around it, serving as a background for the title.

Abstract

Against the backdrop of increasing interest in the daily living conditions and quality of life of low-income groups, this study is aimed at developing qualitative data on the welfare entry-exit dynamics and related issues of low-income households. The authors here introduce a mixed approach combin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and examines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qualitative panel data which would further the understanding of the poverty dynamics, everyday experiences and inter-familial relationships of low-income households. This study then establishes qualitative panel data on low-income groups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a sample of 100 households, culled in a way to represent the characteristically varying subjects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about their employment, welfare transitory dynamics, interfamilial relationships, and psychological situations. The authors also present suggestions as to how in combination with quantitative data, the qualitative approach can better contribute to both academic and policy developments.

[Contents]

I. Combin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Theoretical Review of the Mixed Approach

- 1) Theories and trends
- 2) The necessity and significance of combin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panel data in poverty dynamics

II. Quantitative Panel Data on Low-income Households:
Development and Analysis

Chapter 3 Sampling and Characteristics of Low-income Households

Chapter 4 Analysis of Psychological Indicators: Economic Situations and Welfare Prospects

III. Qualitative Panel Data on Low-income Households:
Development and Analysis

Chapter 5 Sampling and Characteristics of Low-income Households

Chapter 6 Process of Data Gathering

Chapter 7 Analysis I: Work, Poverty and Welfare Exit

Chapter 8 Analysis II: Interfamilial Relationships and Psychological Situations

Chapter 9 Analysis III: A Survey of Family Members

IV. How to Combin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Panel Surveys
and How to Use Them in Combination

Chapter 10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Combine and Use

요약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지난 10여년간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함께 다양한 복지정책의 도입과 확대가 추진되었음.

○ 이에 따라, 한편에서는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각 제도가 지닌 빈곤 및 불평등 감소와 관련된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 다른 한편에서는 정확한 대상을 선정하여 적정한 급여가 제공되고 관리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건강한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최근에는 사각지대 발생 원인과 대응과 관련된 다양한 실태와 정책 대안, 그리고 수급자의 근로의욕과 탈수급 동기 및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평가, 부적정 급여 실태와 사후관리 체계의 문제점 및 대안, 기존 자산조사 중심에서 사례관리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의 전환에 대한 관심과 요구,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및 정책대안에 이르기까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유형의 연구가 요구됨과 동시에 수행되고 있음.

-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빈곤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더 이상 빈곤을 단순히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나 물질적 결핍으로만 이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인 삶의 조건과 방식으로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 경제, 심리, 사회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빈곤의 다차원성이 강조되고 있음.
- 한편으로는 빈곤의 실태에 관한 정태적 현황 및 분포뿐만 아니라, 빈곤의 동태적 변화, 즉 역동성을 다루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기존의 정태적 빈곤 연구에서는 일회성으로 양적 조사에 기초한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빈곤층의 인식과 욕구를 분석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
 - 반면, 빈곤의 역동성을 중심으로 한 동태적 연구에서는 빈곤의 진입과 지속, 탈피, 특정 인구학적 집단을 대상으로 빈곤 상태의 변화 등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이는 특정 시점에서 빈곤의 스냅샷(snapshot)을 분석하는 것보다 빈곤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과도 맥락을 같이 함.
- 이러한 빈곤 연구 경향의 변화와 확장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기반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한 패널자료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은 저소득층의 빈곤실태 변화와 욕구를 동태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 효과성을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빈곤의 다양한 측면을 보다 다차원적이며 역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있음.

□ 그러나, 막대한 예산과 지속적 패널가구 관리의 어려움이 수반되는 패널자료의 구축과 활용을 통하여 빈곤의 다차원적 측면을 역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결과가 양산되는 것은 긍정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양적 연구방법에의 편향성에 따른 다양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양적 연구방법으로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는 이미 사회복지학계에서 지적된 바 있음.

○ 특히, 빈곤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양적 연구들은 여전히 빈곤층의 시각보다는 연구자 중심의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며, 빈곤층이 처한 환경이나 사회구조적 맥락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빈곤이라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와 사례를 다루지 못하고 있음.

— 대부분의 빈곤 연구가 공통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으며, 정태적 분석이든 역동성 분석이든 분석결과에서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의식은, 빈곤의 다차원성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연구주체의 한계라는 측면도 있지만, 빈곤 연구방법론이 지나치게 양적 패널자료에 대한 분석에 의존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의 획일성에도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 양적 패널자료는 결국 측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질문을 단순화하는 과정을 통해 구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상적인 생활과 경험이 몇 가지 데이터로 환원되기 때문임.

— 이러한 양적 자료는 복잡하고 다차원적 빈곤 현상과 관련된 경험이 결국 통계적 수치로 축약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국복지패널을 비롯한 수많은 패널자료가 지닌 한계점이라고도

할 수 있음.

- 특히, 연구주제와 관련된 확률과 통계에 근거하여 계량적 일반화를 목표로 하는 양적 연구방법을 확일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결론이나 정책대안 개발에서 차별성 있는 연구가 나타날 가능성이 감소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양적 패널자료가 제공하는 변수들의 활용도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상황에서, 질적 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질적 연구방법론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질적 패널자료의 구축은, 과거 양적 패널자료가 구축되고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광했던 상황과 비견될 정도로 빈곤의 다차원성 및 역동성과 관련된 연구 영역과 연구방법론의 또 다른 확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필요하고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양적 패널자료뿐만 아니라 질적 패널자료의 구축에 의해 양적 & 질적 연구방법의 연계 및 혼합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서 빈곤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일상적인 생활과 관계 등 동일한 현상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된 패널자료를 활용하게 된다면 계량적 분석으로 생산되는 수많은 통계수치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고, 질적 연구를 통해 빈곤의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하여 통찰의 기반을 제공하며 풍부한 설명과 해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기초보장 수급자 및 비수급 빈곤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의 생활실태 등 삶의 질뿐만 아니라 근로 및 소비활동, 가족관계 등 전반적 생활양상과 인식, 경험의 변화에 대한 관심과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책에 대한 평가와 맞춤형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책대안 모색이 향후 중요한 연구과제로 제기될 것임.

□ 이러한 배경에서, 연구진은 기존까지 진행되어왔던 일회성 횡단면 조사에 의한 정책현안에 대한 평가 또는 실태분석과 양적 연구방법 중심의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여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 연계를 통합 혼합 연구방법론에 기반을 두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본 연구는 이로부터 출발되었음.

○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기침체 등 빠르게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일상적인 생활과 다양한 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로 인한 복지 체감정도와 욕구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러한 욕구는 어떻게 표출되고 공공영역의 복지정책 및 사적영역의 네트워크를 통해 어떻게 충족되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복지대상자들의 인식과 삶의 만족도, 가족관계, 근로 또는 수급과 관련된 인식 및 행태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복지정책 확대 논쟁과 관련된 인식이나 최근 도입하였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어떠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일상적인 생활모습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근로 및 탈수급 등 저소득층의 역동성과 관련된 수급자의 인식과 행태의 변화 양상에 대한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의 상호보완적 활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질적 패널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 2011년에 수행된 1차년도 연구는 기초연구로서, 한국복지패널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양적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이와 연계해 질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질적 패널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함.

□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양적 & 질적 연구방법론 연계를 통한 혼합 연구방법론을 소개하고, 빈곤 역동성과 가족관계 등 저소득층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이러한 연구방법론의 활용과 이를 가능하게 만들 질적 패널자료의 구축 필요성과 의의를 살펴보고자 함.

- 또한, 한국복지패널 표본가구 중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질적 패널 조사대상 10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근로 및 탈수급, 가족관계, 정신건강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질적 연구의 수행 및 양적 연구에서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질적 패널자료를 구축 및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정함.
- 특히, 이러한 질적 패널자료의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기초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저소득층의 역동성 및 정책연구에 있어 양적 & 질적 연구방법론 상호 연계 및 보완적 활용을 통해서 학술적·정책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음.

3. 연구내용 구성 및 연구방법

□ 본 연구 주요 연구내용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음.

- 제1부: 양적 & 질적 연구방법론 연계: 혼합 연구방법론

- 2장 1절에서는 한국복지패널과 연계한 질적 패널자료 구축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 연계와 관련된 혼합 연구방법론(mixed research methodology)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함께 최근 활용되고 있는 연구방법의 동향과 사례를 소개함.
 - 특히, 질적 연구방법론의 특징과 장점이 어떠한 측면에서 양적 연구에 대하여 보완적으로 작동하여 기여할 수 있는지 제시함.
- 2장 2절에서는 혼합 연구방법론을 기초로 저소득층 중심으로 구축한 양적 & 질적 연계 패널구축의 필요성과 의의를 빈곤 역동성 연구 측면에서 살펴보았음.
 - 다차원성과 역동성을 중심으로 한 최근 빈곤 연구의 경향에서 양적 연구방법에의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한 질적 연구방법의 활용 필요성을 제시함.
 - 빈곤 역동성 연구에서 질적 종단 연구 및 패널자료 구축의 필요성과 본 연구가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과의 연계를 통한 질적 패널자료 구축이 지닌 의의 및 질적 조사내용 및 질문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봄.
- 제2부: 저소득층 양적 패널조사 자료구축 및 기초분석
 - 2부는 한국복지패널과 연계하여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구축한 양적 패널자료 구축 및 이와 관련된 조사 및 기초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구성됨.
 - 3장에서 한국복지패널 표본가구와 연계하여 구성한 저소득층 양적 패널자료를 구축한 과정과 이들 가구의 일반적인 특성을 제시함.
 - 연구수행 과정에서 저소득층 중심으로 양적 패널구축을 위

한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한국복지패널과 연계하여 양적 & 질적 패널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결정됨.

- 이에 따라, 우선 1차년도 한국복지패널을 기준으로 가구의 경상소득이 전 가구 평균소득의 60% 이하인 저소득가구(7,072가구 중 3,723가구)를 추출하였음
- 이 가운데, 2011년 9월말까지 수행되었던 6차년도 한국복지패널 조사 완료시점에서 최종적으로 1~6차 조사기간 동안 원표본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3,723가구 중 2,960가구)를 최종적으로 양적 패널가구로 구성함.
- 4장에서는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를 대상으로 한국은행의 소비동향지수 조사를 벤치마킹하여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저소득층 가구의 소비심리 및 경제상황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복지영역별 개별 가구의 상황과 사회문제에 대한 지난 1년 동안의 인식 및 평가와 함께 향후 1년간의 전망을 조사함으로써, 경제상황 및 복지수준에 대한 체감정도와 욕구를 파악하여 제시함.
- 경제인식
 - 지난 1년간 가구의 생활형편,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
- 소비지출 전망
 - 향후 1년 동안 가계수입, 소비지출, 지출규모(식비, 주거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문화생활비, 광열비, 이자상환 등)의 변화에 대한 전망
- 경제전망
 - 향후 1년 동안 가구의 생활형편,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물가수준, 취업기회, 금리 등 변화에 대한 전망과 주된 요인

- 자산가치에 대한 인식과 전망
 - 가계저축 및 가계부채 변화에 대한 인식과 전망, 향후 1년 동안 가구의 자산가치(주택 및 상가, 토지 및 임야, 금융저축, 주식) 변화 전망
- 복지영역별 인식과 전망
 - 지난 1년 동안 가구의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된 복지영역(생계, 의료, 주거, 보육, 교육, 취업, 교통통신, 문화여가, 돌봄, 이자부담 등)별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 및 향후 1년간 상황 변화에 대한 전망
 -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문제 및 대상별 복지수준(출산, 보육, 아동·청소년, 교육비용, 청년실업, 주택, 중고령층, 노인, 장애인, 빈곤 등)의 변화에 대한 인식 및 향후 1년 동안 상황 변화에 대한 전망

○ 제3부: 저소득층 질적 패널조사 자료구축 및 기초분석

- 한국복지패널과 연계된 질적 패널자료 구축을 목표로 하는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3부는, 질적 패널조사 자료구축을 위한 표본추출 과정 및 질적 패널조사 영역별 조사내용 및 조사과정과 기초분석 결과가 제시됨.
- 5장에서는 앞서 저소득층 중심으로 구성된 양적 패널가구(2,960가구) 중에서 6차년도 한국복지패널 조사과정 중에 질적 패널조사 참여(녹취·자료제공)에 동의한 362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특성 분포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질적 패널조사 대상 100가구 표본추출 과정 및 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봄.
- 6장에서는 저소득층 질적 패널조사 대상 100가구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질적 자료가 수집된 전 과정 및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함.

- 질적 조사대상 가구별로 1~3회 방문을 실시하여 총 3~6시간 정도의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녹음파일과 약 5,000 페이지 분량에 이르는 녹취록으로 구축함.
 - 질적 패널조사 수행을 위한 연구 설계 및 조사내용 구성과 면접지침서 작성, 심층 인터뷰 수행을 위한 조사원 교육, 그리고 조사영역별 주요내용 및 기초분석 방법 등과 관련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하게 설명함.
 - 또한, 이러한 질적 패널자료 구축과 조사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윤리적 이슈를 검토함.
- 7~9장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축된 질적 패널조사 결과(녹음파일 및 약 5,000p의 녹취록)를 기초로 조사영역별 주요내용에 대한 개방형 코딩 및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함.
- 본 연구의 질적 자료 분석방법은 질적 연구방법론에서 주로 활용하는 개방형 코딩방식으로, 연구자들은 녹취록으로 작성된 심층 면접내용을 읽으면서 조사영역별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담은 단어, 어구, 어절, 문장, 문단 등을 파악하였고 이를 의미 단위의 형태로 전환함.
 - 의미 단위를 파악한 이후 연구자들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위들을 묶어 하위범주를 구성한 뒤 이러한 의미 단위를 포괄하는 이름을 붙이고, 다시 유사한 의미를 가진 하위범주들을 묶어 상위범주로 통합하고 이와 같이 통합된 범주에 적합한 이름을 붙이는 범주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이러한 분석결과로, 연구영역별 상위범주와 하위범주, 의미 단위들이 구성되었으며, 이를 기초분석 결과로 제시함으로써 연구자들의 이해와 질적 패널자료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음.

○ 7장부터 9장까지에서 제시된 주요 영역별 조사결과에 대한 기초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7장: 저소득층 질적 패널가구의 일과 빈곤, 그리고 탈수급
 - 근로 및 빈곤, 탈수급 관련 인식 및 경험
 - 직장 경험 및 구직과정, 고용지원프로그램 참여경험
 - 빈곤 및 탈수급 관련 역동적 특성
 - 빈곤의 경험에 대한 History, 원인, 생활에 미친 영향, 인식
 - 빈곤에 대한 대응: 주위의 반응, 개인의 노력, 국가의 도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수급 경험 및 유용성, 탈수급 인식
- 8장: 저소득층 질적 패널가구의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 가족: 가족에 대한 소개, 가족에 대한 정의
 -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 배우자와의 관계: 부부관계의 질, 만족, 갈등 및 갈등해결
 -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의 질, 만족, 갈등 및 갈등해결
 - 자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의 질, 만족, 갈등 및 갈등해결
 - 정신건강: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정신건강
 - 스트레스, 불안, 불면, 알코올, 우울, 자살시도 등
 -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상담 및 치료 서비스의 이용경험
 - 생활실태 만족 및 의식: 행복체감도, 복지정책 체감도
- 9장: 저소득층 질적 패널가구의 가족구성원별 조사
 - 여성: 양성평등 관점 및 경제활동의 차별, 불이익에 대한 경험, 출산 인식, 가족 관계에서의 폭력 경험
 - 아동/청소년: 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 주관적 빈곤 의식, 미래의 꿈과 부모님의 기대
 - 청소년(중·고생): 생활의 어려움이나 고민거리, 가족·친구·이성·교사 등 관계, 앞으로의 바람

- 노인: 사회참여, 정신건강, 노화에 대한 인식 및 의미
- 장애인: 장애로 인한 어려움, 장애가 미치는 다양한 영향, 장애에 대한 주변 인식과 태도, 장애인정책 경험

○ 제4부 : 양적 & 질적 연계 패널구축 및 활용방안

- 마지막으로, 10장에서는 본 연구가 한국복지패널과 연계하여 양적 & 질적 연구방법론의 통합적 접근을 위하여 처음으로 시도한 질적 패널자료의 지속적 구축 및 활용방안을 제시함.
-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양적 & 질적 패널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및 자료구축의 의의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향후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질적 패널자료 구축을 위한 조사수행 계획 및 고려사항을 제시함.
- 특히, 기존의 양적 패널자료인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공개 및 활용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해 향후 질적 패널자료의 제공 및 활용방안을 제시함.
- 특히, 질적 연구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양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이러한 자료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윤리적인 사항 역시 언급함.

4. 연구의 기대효과: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 활용

- 본 연구를 통해서, 향후 한국복지패널과 더불어 질적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자료로 학술적 연구 및 정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국복지패널 연계 저소득층 중심의 양적 & 질적 패널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제공하고자 함.

- 특히,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개최시 질적 연구와 관련된 분야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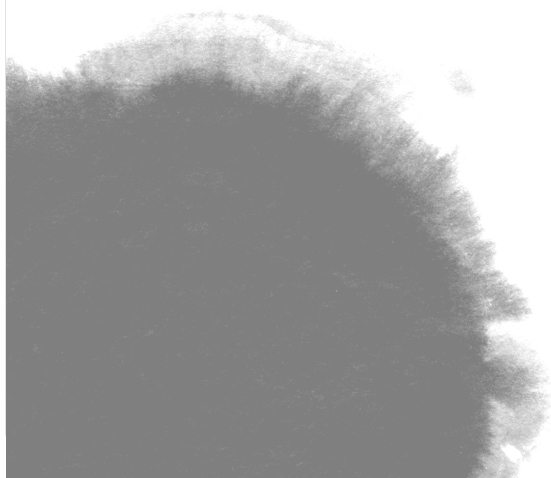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새롭게 추가하여 질적 연구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 통계청의 각종 조사 및 여타 국책연구기관에서 구축하고 있는 양적 패널과의 차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매년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을 확대하여 양적 연구방법론과 함께 질적 연구방법론의 연계 및 혼합을 통해 다차원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하도록 패널자료를 제공하며, 각종 복지정책에 대한 체감도 및 정책수립을 위한 심층조사 표본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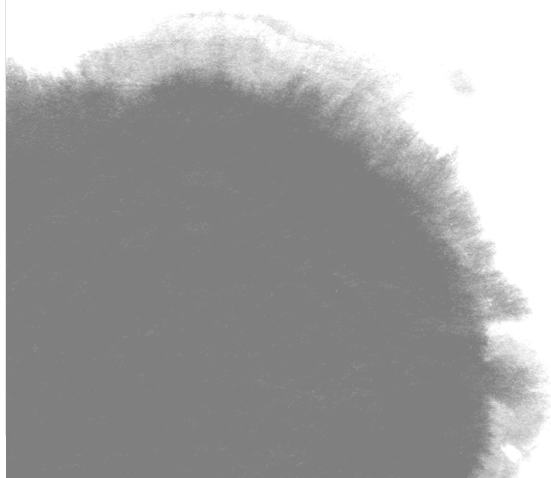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1부

양적 & 질적 연구방법론 연계: 혼합 연구방법론



01

서론



제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지난 10여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다양한 복지정책의 도입과 확대가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한편에서는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각 제도가 지닌 빈곤 및 불평등 감소와 관련된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확한 대상을 선정하여 적절한 급여가 제공되고 관리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건강한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사각지대 발생 원인과 대응에 대한 다양한 실태와 정책대안, 그리고 수급자의 근로의욕과 탈수급 동기 및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평가, 부적정 급여의 실태와 사후관리 체계의 문제점 및 대안, 기존의 자산조사 중심에서 사례관리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의 전환에 대한 관심과 요구,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및 정책대안에 이르기까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다양한 주제와 유형의 연구가 요구됨과 동시에 수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빈곤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더 이상 빈곤을 단순히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나 물질적 결핍으로만 이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인 삶의 조건과

방식으로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 경제, 심리, 사회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빈곤의 다차원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빈곤 실태에 관한 정태적 현황 및 분포뿐만 아니라, 빈곤의 동태적 변화, 즉 역동성을 다루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정태적 빈곤 연구에서는 일회성으로 양적 조사에 기반한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빈곤층의 인식과 욕구를 분석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반면에, 빈곤의 역동성을 중심으로 한 동태적 연구에서는 빈곤의 진입과 지속, 탈피, 특정 인구학적 집단을 대상으로 빈곤 상태의 변화 등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이는 특정 시점에서 빈곤의 스냅샷(snapshot)을 분석하는 것보다 빈곤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¹⁾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빈곤 연구 경향의 변화와 확장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기반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한 패널자료라고 할 수 있다. 대우경제연구소로부터 시작된 패널자료의 구축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의 탄생을 가져왔으며, 이어 등장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은 저소득층의 빈곤실태 변화와 욕구를 동태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정책 효과성을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빈곤의 다양한 측면을 보다 다차원적이며 역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과 지속적인 패널가구 관리의 어려움이 수반되는 패널자료의 구축을 기반으로 하여 빈곤의 다차원적 측면을 역동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가 양산되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양적 연구방법에의 편향에 따른 다양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1) Alcock(2004)은 빈곤의 정태적 분석과 역동성 분석을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비유하여, 특정 시점에서 빈곤을 측정하는 저장(stock) 분석과 긴 시간에 걸쳐 빈곤의 진입 및 탈출을 다루는 유량(flow) 분석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있다. 이러한 양적 연구방법론으로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는 이미 사회 복지학계에서 지적된 바 있다. 특히, 빈곤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양적 연구들은 여전히 빈곤층의 시각보다는 연구자 중심의 분석을 시도하고, 빈곤층이 처한 환경이나 사회구조적 맥락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빈곤이라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와 사례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빈곤 연구가 공통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으며, 정태적 분석이든 역동성 분석이든 분석결과에서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²⁾.

이러한 문제의식은, 빈곤의 다차원성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연구주제의 한계라는 측면도 있지만, 빈곤 연구방법론이 지나치게 양적 패널자료에 대한 분석에 의존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의 획일성에도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양적 패널자료는 결국 측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질문을 단순화하는 과정을 통해 구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상적인 생활과 경험이 몇 가지 데이터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적 자료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빈곤 현상과 관련된 경험이 결국 통계적 수치로 축약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국복지패널을 비롯한 수많은 패널자료가 지닌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연구주제와 관련된 확률과 통계에 근거하여 계량적 일반화를 목표로 하는 양적 연구방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결론이나 정책대안 개발에서 차별성 있는 연구가 나타날 가능성이 감소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양적 패널자료가 제공하는 변수들의 활용도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양적 연구방법만을 활용함으로써 빈곤의 다차원성과 역동성과 관련된 경험과 태도, 행위

2) 김교성(2011)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의 주요 학술지에 수록된 246편의 빈곤 연구를 분석하여, 44편을 질적 연구로 분류하였다. 이 중 빈곤정책의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가 30편이고, 실제 빈곤층이 연구에 참여한 질적 연구는 14편이었다. 빈곤층이 참여한 연구 중에서도 단순히 심층면접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표현을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전통적인 질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5편에 불과하다고 제시하였다.

동기 및 결과, 맥락, 삶의 통찰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적 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질적 연구방법론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질적 패널자료의 구축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양적 패널자료가 구축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광하였던 상황과 비견될 정도로 빈곤의 다차원성 및 역동성과 관련된 연구 영역과 연구 방법론의 또 다른 확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양적 패널자료뿐만 아니라 질적 패널자료의 구축에 의해서 양적 & 질적 연구방법의 연계 및 혼합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빈곤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일상적인 생활과 관계 등 동일한 현상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된 패널자료를 활용하게 된다면 계량적 분석으로 생산되는 수많은 통계수치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고, 질적 연구를 통해 빈곤의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하여 통찰의 기반을 제공하며 풍부한 설명과 해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특히, 기초보장 수급자 및 비수급 빈곤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의 생활 실태 등 삶의 질뿐만 아니라 근로 및 소비활동, 가족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양상과 인식, 경험의 변화에 대한 관심과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책에 대한 평가와 맞춤형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책대안 모색이 향후 중요한 연구과제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까지 진행되어 왔던 일회성 횡단면 조사에 의한 정책현안에 대한 평가 또는 실태분석과 양적 연구방법론 중심의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여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의 연계를 통합 혼합 연구방법론에 기반을 두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을 구축하고자 한다.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기침체 등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일상적 생활과 다양한 관계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로 인한 복지체감도와

복지 욕구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러한 욕구는 어떻게 표출되고 공공영역의 복지정책 및 사적영역의 네트워크를 통해 어떻게 충족되고 있는지, 이러한 과정에서 복지대상자들의 인식과 삶의 만족도, 가족관계, 근로 또는 수급과 관련된 인식 및 행태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복지정책 확대 논쟁과 관련된 인식이나 최근 도입하였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어떠한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일상적인 생활모습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근로 및 탈수급 등 저소득층의 자활과 역동성과 관련된 수급자의 인식과 행태의 변화 양상에 대한 양적 연구 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의 상호보완적 활용을 위해 질적 패널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2011년에 수행된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양적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이와 연계해 질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질적 패널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기초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양적 & 질적 연구방법론 연계를 통한 혼합 연구방법론을 소개하고, 빈곤 역동성과 가족관계 등 저소득층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이러한 연구방법론의 활용과 이를 가능하게 만들 질적 패널자료의 구축 필요성과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복지패널 표본가구 중에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질적 패널 조사대상 10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근로 및 탈수급, 가족관계, 정신건강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최근 사회복지학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질적 연구의 수행 및 양적 연구에서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질적 패널자료를 구축 및 제공한다. 특히, 이러한 질적 패널자료의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기초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저소득층의 역동성 및 정책연구에 있어 양적 & 질적 연구방법론 상호 연계 및 보완적 활용을 통해서 학술적 ·

정책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향후 한국복지패널과 더불어 질적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자료로 학술적 연구 및 정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국복지패널 연계 저소득층 중심의 양적 & 질적 패널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제공하고, 특히,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에서 질적 연구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여 질적 연구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통계청의 전국 가계동향조사 및 여타 국책연구기관에서 구축하고 있는 양적 패널과의 차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매년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는 각종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조사영역 및 조사 내용을 확대하여 양적 연구방법론과 함께 질적 연구방법론의 연계 및 혼합을 통해 다차원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하도록 패널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복지정책에 대한 체감도 및 정책수립을 위한 심층조사 표본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주요 연구내용 구성 및 연구방법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주요 연구내용을 총 4부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먼저, 1부에서는 2장 1절에서 한국복지패널과 연계한 질적 패널자료 구축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 연계와 관련된 혼합 연구방법론(mixed research methodology)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함께 최근 활용되고 있는 연구방법의 동향과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질적 연구방법론의 특징과 장점이 어떠한 측면에서 양적 연구에 대하여 보완적으로 작동하여 기여할 수 있는지 제시한다. 다음으로, 2장 2절에서는 혼합 연구방법론을 기초로 저소득층 중심으로 구축한 양적

& 질적 연계 패널구축의 필요성과 의의를 빈곤 역동성 연구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를 위해, 다차원성과 역동성을 중심으로 한 최근 우리나라 빈곤 연구의 경향에서 양적 연구방법에의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한 질적 연구방법의 활용 필요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빈곤 역동성 연구에서 질적 중단 연구 및 패널자료 구축 필요성과 본 연구가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과의 연계를 통한 질적 패널자료 구축이 지닌 의의 및 질적 조사내용 및 질문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2부에서는 한국복지패널과 연계하여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구축한 양적 패널자료의 구축 및 이와 관련된 조사 및 기초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3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 표본가구와 연계하여 1차 한국복지패널을 기준으로 평균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중 1~6차 패널조사를 모두 완료한 표본가구(2,960가구) 중심으로 저소득층 양적 패널자료를 구축한 과정과 이들 가구의 일반적인 특성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를 대상으로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 지수 조사를 벤치마킹하여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저소득층 가구의 소비심리 및 경제상황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복지영역별 개별 가구의 상황과 사회문제에 대한 지난 1년 동안의 인식 및 평가와 함께 향후 1년간의 전망을 조사함으로써, 경제상황 및 복지수준에 대한 체감정도와 욕구를 파악하여 제시하고 있다. 지난 1년간 가구의 생활형편,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 및 향후 1년 동안 가구의 생활형편,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물가수준, 취업기회, 금리 등 변화에 대한 전망, 향후 1년 동안 가계수입, 소비지출, 세부 영역별 지출규모(식비, 주거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문화생활비, 광열비, 이자상환)의 변화에 대한 전망, 가계저축 및 가계부채의 변화와 자산가치에 대한 인식 및 전망 등이 소비심리 및 경제상황에 대한 조사내용을 구성

하고 있다. 한편, 복지영역별 인식 및 전망과 관련된 조사내용은 가구의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된 복지영역(생계, 의료, 주거, 보육, 교육, 취업, 교통통신, 문화여가, 돌봄, 이자부담 등)별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사회문제 및 정책대상별 복지수준(출산, 보육, 아동·청소년, 교육비용, 청년실업, 주택, 베이비부머, 노인, 장애인, 빈곤 등)의 변화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인식과 평가 및 향후 1년 동안 영역별 상황 변화에 대한 전망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한국복지패널과 연계된 질적 패널자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3부에서는, 질적 패널조사 자료구축을 위한 표본추출 과정 및 질적 패널조사 영역별 조사내용 및 조사과정과 기초분석 결과가 제시된다. 5장에서는 앞서 저소득층 중심으로 구성된 양적 패널가구(2,960가구) 중에서 제6차 한국복지패널 조사과정 중에 질적 패널조사 참여(녹취 및 자료제공)에 동의한 362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특성 분포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질적 패널조사 대상 100가구 표본추출 과정 및 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6장에서는 저소득층 질적 패널조사 대상 100가구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질적 자료가 수집된 전 과정 및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질적 패널조사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구직/근로경험), 빈곤 및 탈수급 관련 역동성, 가족에 대한 인식, 배우자와의 부부관계, 부모-자녀 간의 관계 등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 정신건강 및 심리상태, 생활 만족도와 행복 체감도를 공통적으로 조사하였으며, 가구 구성원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학교생활, 꿈과 희망을, 여성 가구원을 대상으로 성차별 경험, 출산에 대한 인식, 가정 폭력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참여와 노화에 대한 인식 등을,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한 영향 및 주변의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질적 조사대상 가구별로 1~3회 방문을 실시하여 총 3~6시간 정도의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녹음파일과 약 5,000 페이지 분량에 이르는 녹취록으로 구축하고 개방형 코딩 및 기초분석을 실시하여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질적 패널조사 수행을 위한 연구 설계 및 조사 내용 구성과 면접지침서 작성, 심층 인터뷰 수행을 위한 조사원 교육, 그리고 조사영역별 주요내용 및 기초분석 방법 등과 관련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질적 패널자료 구축과 조사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윤리적 이슈를 검토하고 있다. 7~9장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축된 질적 패널조사 결과(녹음파일 및 약 5,000p의 녹취록)를 기초로 조사영역별 주요내용에 대한 개방형 코딩 및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질적 자료 분석방법은 질적 연구방법론에서 주로 활용하는 개방형 코딩방식으로, 연구자들은 녹취록으로 작성된 심층 면접내용을 읽으면서 조사영역별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담은 단어, 어구, 어절, 문장, 문단 등을 파악하였고 이를 의미 단위의 형태로 전환하였다. 의미 단위는 단어나 어구, 어절의 형태로 요약된다. 의미 단위를 파악한 이후 연구자들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위들을 묶어 하위범주를 구성한 뒤 이러한 의미 단위를 포괄하는 이름을 붙이고, 다시 유사한 의미를 가진 하위범주들을 묶어 상위범주로 통합하고 이와 같이 통합된 범주에 적합한 이름을 붙이는 범주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연구영역별 상위범주와 하위범주, 의미 단위들이 구성되었으며, 이를 기초분석 결과로 제시함으로써 연구자들의 이해와 질적 패널자료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7장부터 9장까지 제시되는 주요 영역별 조사결과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7장: 저소득층 질적 패널가구의 일과 빈곤, 그리고 탈수급

— 근로 및 빈곤, 탈수급 관련 인식 및 경험

- 직장 경험 및 구직과정, 고용지원프로그램 참여경험
- 빈곤 및 탈수급 관련 역동적 특성
- 빈곤의 경험에 대한 History, 원인, 생활에 미친 영향, 인식
- 빈곤에 대한 대응: 주위의 반응, 개인의 노력, 국가의 도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수급 경험 및 유용성, 탈수급 인식

○ 8장: 저소득층 질적 패널가구의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 가족: 가족에 대한 소개, 가족에 대한 정의

-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 배우자와의 관계: 부부관계의 질, 만족, 갈등 및 갈등해결
-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의 질, 만족, 갈등 및 갈등해결
- 자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의 질, 만족, 갈등 및 갈등해결

— 정신건강: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정신건강

- 스트레스, 불안, 불면, 알코올, 우울, 자살시도 등
-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상담 및 치료 서비스의 이용경험

— 생활실태 만족 및 의식: 행복체감도와 요인, 복지정책 체감도

○ 9장: 저소득층 질적 패널가구의 가족구성원별 조사

— 인구특성별 가구원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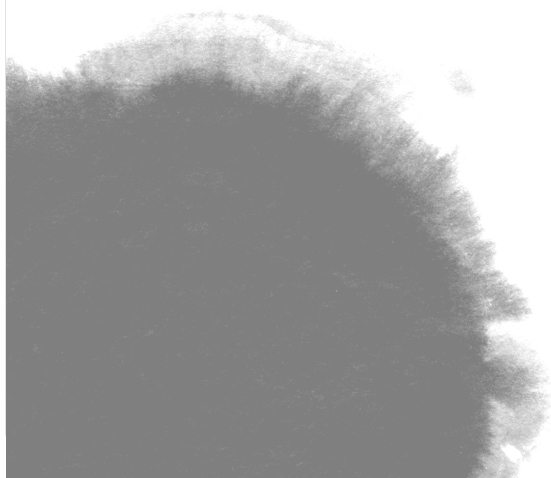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 여성: 양성평등 관점 및 경제활동의 차별, 불이익에 대한 경험, 출산 인식, 가족 관계에서의 폭력 경험
- 아동/청소년: 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 주관적 빈곤 의식, 미래의 꿈과 부모님의 기대
- 청소년(중·고생): 생활의 어려움이나 고민거리, 가족·친구·이성·교사 등 관계, 앞으로의 바람
- 노인: 사회참여, 정신건강, 노화에 대한 인식 및 의미

- 장애인: 장애로 인한 어려움, 장애가 미치는 다양한 영향, 장애에 대한 주변 인식과 태도, 장애인정책 경험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한국복지패널과 연계하여 양적 & 질적 연구 방법론의 통합적 접근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최초로 시도한 질적 패널 자료의 지속적 구축 및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먼저, 본 연구를 통해서 구축된 양적 & 질적 패널기구를 대상으로 조사 및 자료구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향후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질적 패널자료 구축을 위한 조사수행 계획 및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특히, 기존의 양적 패널자료인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공개 및 활용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해 향후 질적 패널자료의 제공 및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한국복지패널과 함께 질적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자료로 학술적 연구 및 정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제공하고, 특히,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에서 질적 연구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여 질적 연구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양적 & 질적 연구방법론의 연계 및 통합의 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계획과 지속적으로 조사영역 및 내용을 확대하여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의 연계 및 혼합을 통해서 다양하고 풍부한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질적 연구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양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 이러한 자료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윤리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02

양적 & 질적 연계 패널공측 관련 혼합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2장

양적 & 질적 연계 패널구축 관련 혼합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

본 연구는 양적 패널조사인 한국복지패널과 연계하여 질적 패널자료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로, 실용주의적 입장과 다원화 관점³⁾에서 두 가지 연구방법론의 혼합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서는 양적 & 질적 연구방법 연계를 통한 혼합 연구방법론(mixed research methodology)에 대하여 소개하고, 빈곤 역동성과 가족관계 등 저소득층의 일상적 생활에 대한 연구에 있어 이러한 연구방법론의 필요성과 의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혼합 연구방법론 관련 이론 및 동향을 살펴봄에 특히 질적 연구 방법론의 특징과 장점이 어떠한 측면에서 양적 연구에 대해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제시한다. 다음으로, 혼합 연구방법론을 기초로 저소득층 중심으로 구축한 양적 & 질적 연계 패널구축의 필요성과 의의를 빈곤 역동성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를 위해, 우선 다차원성과 역동성을 중심으로 한 최근 우리나라의 빈곤 연구 경향에서 양적 연구방법에의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한 질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빈곤 역동성 연구에서 질적 종단 연구 및 패널자료 구축 필요성과 본 연구가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과의 연계를 통한 질적 패널자료 구축의 의의 및 질적 조사 내용 및 질문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본다.

3) 하나의 연구에서 상이한 연구방법(양적 연구방법론, 질적 연구방법론)들을 혼합 또는 결합함으로써 연구대상 및 현상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다원화(triangulation)에 대한 논의가 사회과학의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다(심준섭, 2008). 요컨대, 다원화는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연계 혹은 혼합하는 것의 유용성을 설명한다.

제1 절 양적 & 질적 연계 혼합 연구방법론 관련 이론 및 동향

여기서는 먼저 양적 연구방법론과 대비되는 질적 연구방법론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두 연구방법론이 연계된 혼합 연구방법론과 관련하여 정의 및 유용성, 그리고 최근까지 논의된 혼합 연구방법론의 동향과 질적 연구방법론의 어떠한 장점이 양적 연구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 사례를 살펴본다.

1. 질적 연구방법론의 특징: 양적 연구방법론과의 비교

가. 질적 연구방법론의 정의

질적 연구방법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Denzin 등 (1994)은 양적 연구방법론과 대비되는 즉, 양적 연구와는 다른 일련의 연구방법으로 질적 연구방법론을 정의하였다(유태균 역, 2001 재인용). 질적 연구방법론이 양적 연구와 다르다는 것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서 인식론, 존재론적 가정에 대한 패러다임의 차이를 반영한다. 이와 같이 질적 연구방법론을 양적 연구와는 다른 특징을 가진 일련의 방법론으로 정의하는 것은, 다음의 질적 연구 특징을 통해 보다 명확해진다.

나. 질적 연구방법론의 특징

1960년대에 질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에 앞서 역사적 뿌리가 있었다. 사실상, 질적 연구와 흔히 관련지어지는 몇 가지 지적 흐름(예를 들어,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회과학의 막강한 조류로 질적

연구가 출현하기에 앞서 나타났다. 이처럼 질적 연구의 잠재적 기반을 표면화 시킨 것에는 다음의 몇 가지 요인들이 존재한다. 즉, 과학적인 접근방법(즉, 양적 연구)의 결과에 대한 재인식의 증대, 토마스 쿤과 같은 과학철학자들의 연구 관심에서 비롯된 자기반성의 촉구, 그리고 1960년대 후반의 현상학(phenomenology)과 관련된 사상의 확산이 그런 요인들이라 볼 수 있다(홍동식 외 역, 1992).

질적 연구방법론이 가진 첫 번째 특징(홍동식 외 역, 1992)은 연구 참여자의 시각(눈)으로 사건, 행위, 규범, 가치 등을 관찰한다는 데 있다. 둘째, 일상생활의 아주 피상적이고 사소한 것까지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회적 여건들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강조한다. 일상적이고 하찮은 것들도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현실의 여타 분야들에 대한 단서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셋째, 질적 연구는 사건, 행동 등을 그것이 발생한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기 때문에 맥락주의(contextualism)를 선호하며 이러한 맥락주의는 질적 연구방법론의 또 다른 특징인 총체적(holistic) 접근과 관련된다. 총체적 접근은 사회적 실체들을 총체적으로 그들의 전반적인 맥락 속에서 설명되고 이해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넷째, 질적 연구는 정적인 것보다는 과정적 측면으로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질적 연구에는 종단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질적 연구에서 과정을 강조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관심의 표명이다. 다섯째, 질적 연구는 융통성과 비구조적 성격을 특징으로 한다. 질적 연구자들은 미리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연구할 것인가 결정하기 보다는 비교적 개방적이고 비구조화된 연구 전략을 선호한다. 마지막으로 질적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생소한 인식 틀을 강요하지 않는 연구 전략을 선호한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현장 연구 착수에 앞서 이론 및 개념을 설정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한편, LeCompte & Schensul(1999), Marshall & Rossman(2006), Hatch(2002)들이 제시한 질적 연구방법론의 특징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이들이 제시한 특징을 살펴보면 오늘날의 질적 연구들은 연구의 해석주의적 특성과 연구자와 참여자, 독자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맥락 내에서 연구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역, 2010).

〈표 2-1〉 질적 연구방법론의 특징

특징	LeCompte & Schensul(1999)	Marshall & Rossman(2006)	Hatch(2002)
자연스러운 상황(현장에 초점을 둔)밀접한 상호작용을 위한 자료의 원천	○	○	○
자료수집의 주요 도구로서 연구자			○
말 또는 이미지 등의 다양한 자료 원천	○	○	○
귀납적, 순환적, 상호작용적 자료분석	○		○
참여자의 관점, 그들의 의미, 주관적 시각에 초점	○		
사회적·정치적·역사적 맥락 내의 또는 문화적 렌즈를 통한 인간 행동과 신념의 구성		○	○
엄격하게 미리 형성된 설계라기 보다는 유연한 설계		○	○
기본적으로는 해석적 탐구 - 연구자는 연구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역할과 독자의 역할, 참여자의 역할, 참여자의 역할을 반영		○	
사회현상에 대한 총체적 관점		○	○

자료: 조흥식 외 역(2010). p63

2. 혼합 연구방법론(mixed research methodology):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의 연계 및 통합

가. 정의

혼합 연구방법론(mixed research methodology)과 관련해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고 따라서 혼합 방법론의 다양한 특성들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Creswell 등(2011)은 혼합 연구방법론의 핵심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연구문제에 기초하여)를 일관성 있게 그리고 엄격하게 수집하고 분석한다.
- 이들 두 자료를 결합(combine)(혹은 이들을 병합(merge))함으로써 동시에 두 자료를 혼합(mix)(혹은 통합(integrate)·연결(link))하거나, 하나를 수행하고 순차적으로 그것이 다른 것의 근거가 되게 하거나 혹은 다른 것 내에 하나를 끼워 넣는(embed)다.
- 두 자료 가운데 하나 혹은 양자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 한 연구에서 혹은 연구의 여러 단계에 걸쳐 이러한 절차를 사용한다.
- 철학적 세계관, 이론적 렌즈 내에서 이러한 절차들을 표현한다.
- 이러한 절차를 연구수행 계획을 이끄는 특정 연구 설계와 결합한다.

나. 혼합 연구방법론의 유용성

하나의 연구에서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연구대상, 주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혼합 연구방법론의 유용성에 덧붙여 보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론을 혼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2-2〉 혼합 연구방법론(mixed research methodology)의 유용성

Greene, Caracelli, and Graham(1989)	Bryman(2006)
• 다원화(triangulation): 상이한 연구 방법으로부터 결과의 수렴, 확증, 그리고 관련성을 추구 • 상보성(complementarity): 다른 연구 방법의 결과와 함께, 한 연구 방법으로부터 나온 결과의 정교화, 향상, 설명, 명료화 등을 추구 • 개발(development): 한 연구 방법의 결과를 사용하여 다른 방법을 개발하거나 이해. 이때 개발은 측정 결정뿐 아니라, 표집, 실행 등을 포함 • 창시(initiation): 패러독스, 모순, 새로운 준거들의 발견. 다른 연구 방법으로부터 나온 결과 혹은 질문을 통해, 한 연구방법의 질문 혹은 결과를 재구성. • 확장(expansion): 상이한 연구 요소에 대해 상이한 연구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연구의 깊이와 폭을 확장	• 다원화 혹은 더 큰 타당성: 결과를 다원화, 즉 상호적으로 확증하기 위해 양적, 질적 연구가 결합될 수 있다는 전통적 견해 • 상쇄(offset): 양적, 질적 연구 방법은 각각 장점과 약점이 있으며, 이들을 결합함으로써 강점을 끌어내고 약점을 상쇄할 수 있음 • 완전성(completeness): 양적, 질적 연구 방법을 채택한다면, 연구자가 관심있는 연구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끌어낼 수 있음 • 과정: 양적 연구는 사회 생활의 구조를 이야기하고 질적 연구는 과정을 제시함 • 상이한 연구 질문: 양적, 질적 연구는 각각 상이한 연구 질문에 답한다는 주장 • 설명: 다른 연구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를 설명하는데, 한 연구방법이 사용됨 • 기대하지 못한 결과: 한 연구 방법에서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가 다른 연구방법을 통해 이해될 수 있을 때, 양적 및 질적 연구방법이 유용하게 결합될 수 있음 • 도구적 개발: 질적 연구가 설문지, 측정 항목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맥락을 언급 • 표집: 특정 접근이 응답자 혹은 사례의 표집을 촉진하는데 사용되는 상황 • 신뢰성: 양적, 질적 접근을 채택함으로써 결과의 진실성을 높일 수 있음 • 맥락: 두 방법의 결합은 일반화되고 외적으로 타당한 결과 혹은 서베이에서 발견되지 않은 변수들 간의 폭넓은 관계 등과 결부되어 맥락적 이해를 제공하는 질적 연구의 측면에서 합리화됨 • 예시: 양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질적 자료를 사용. “딱딱한(dry)” 결과라는 ”뼈“에 ”살“을 입히는 것으로 비유됨

Greene, Caracelli, and Graham(1989)	Bryman(2006)
	• 결과의 유용성 증진 혹은 효용성: 두 접근의 결합이 실천가 등에게 보다 유용함 • 확증과 발견: 가설을 만들기 위해 질적 연구를 사용하고 단일한 프로젝트에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양적 연구를 사용 • 견해의 다양성: 양적, 질적 연구를 통해 연구자의 관점과 실천가의 관점을 결합함. 또한 질적 연구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의미를 드러내고 동시에 양적 연구를 통해 변수들 간의 관계를 발견함. • 양적, 질적 결과를 증진 혹은 이것에 기반을 둔: 양적, 질적 연구 접근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보다 많은 양적 혹은 질적 결과를 생산

자료: Creswell et al(2011)., p62-63.

그밖에도 Rossman 등(1985)은 혼합 연구방법론의 유용성으로 확증(corroboration), 정교화(elaboration), 창시(initiation)를 제안하였다. Rossman 등이 제시한 유용성은 첫째, 질적 연구방법론과 양적 연구방법론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얻어진 결과들을 통합하고 수렴하는 이론의 확증(corroboration), 둘째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풍부하고 상세한 내용을 찾아내어 표면화하는 정교화(elaboration), 마지막으로 이러한 증거와 근거에 기반을 둔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새로운 해석을 모색하고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아이디어나 연구주제를 찾아내는 창시(initiation) 등이다(Rossman et al., 1985, 천희란 외, 2011 재인용).

다. 혼합 연구방법론 활용 시 유의사항

앞서 살펴본 혼합 연구방법론의 유용성이 극대화되기 위해서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우선 어떤 목적으로 혼합 연구방법론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연구주제(목적)에 맞는 연구를 결정한다고 할 때, 혼합 연구방법론이 적합한 연구문제는 하나의 자료 원천으로 불충분한 연구문제들, 설명이 필요한 결과, 일반화될 필요가 있는 탐색적 결과 등이다. 혼합 연구방법론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연계하여 시행할 경우 예산과 시간 낭비 등 오히려 더 큰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고려할 점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상호작용 수준에 대한 것이다. 상호작용은 두 가지 연구방법이 서로 독립 혹은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Creswell, et al., 2011). 즉, 연구자는 두 가지 연구방법론이 상호 독립적인지, 상호적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상호 독립적인 경우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독립적으로 수행될 경우를 지칭한다. 즉, 두 가지 연구방법론은 별개이고 연구자는 양적 및 질적 연구 문제, 자료 수집과 분석 등을 별개로 진행한다. 이처럼 연구가 독립적인 경우, 연구자는 연구 말미에 전반적 해석을 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는데 있어서만 두 가지 연구를 통합한다. 반면, 상호적인 수준에서는 양적 및 질적 연구 간에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최종적인 해석 이전에 두 방법은 통합된다. 연구 과정의 다양한 시점에서 다양한 형태로 통합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것은 혼합 연구방법론에 의한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 방법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혼합 연구방법론은 단순히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의 합이 아니다. 혼합 연구방법론 나름의 다양한 연구 절차와 기술이 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혼합 연구방법론의 의미를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특히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을 수행 결과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 더욱 중요하다.

3. 혼합 연구방법론(mixed research methodology)과 관련된 논의 및 동향

실증적, 계량적, 연역적, 서베이 등의 특징을 갖는 양적 연구방법론과 해석적, 비계량적, 귀납적, 참여관찰과 비구조화된 인터뷰 등의 특징을 갖는 질적 연구방법론의 차이점에 대한 강조에서 한 걸음 나아가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두 가지 연구방법론의 연계 혹은 혼합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두 가지 연구방법론을 연계 혹은 혼합(mixed)한 ‘혼합 연구방법론(mixed research methodology)’은 하나의 현상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그러한 현상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적인 맥락과 문제에 얽혀있는 복잡성과 다양성, 차이 등을 심층적으로 관찰하고자 하는 시도이다(Bryman, 2007; Johnson et al., 2007; Wolcott, 2002; 강민아, 손주연, 김희정, 2007 재인용).

Fry 등(1981)은 질적 연구의 장점이 어떻게 양적 연구에 대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6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강민아 외, 2007 재인용). 첫째, 질적 연구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연구하고자 하는 개념들을 좀 더 정제할 수 있는 동시에 기존 사고방식에 대해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며, 둘째, 보다 다양한 설명적 개념이나 유형을 발견하는데 유용하며, 셋째, 양적 연구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설정오차(specification error)를 줄일 수 있으며, 넷째, 더욱 향상된 개념과 문화적으로 관련된 범주에 근거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 다섯째, 양적 연구 자료에서 종종 발견되는 예외적인 현

상(outlier)을 질적 연구를 통해 이해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통찰력, 가설 그리고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국외에서는 질적 연구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질적 연구방법론과 양적 연구방법론의 혼합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론, 특히 질적 조사자료와 양적 조사자료의 결합과 관련된 논의의 기원은 19세기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850년 중반 사회학자 Le Play는 사회현상을 연구함에 있어서 이러한 두 가지 연구방법론을 동시에 채택하고 결합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Erzberger & Prein, 1997; 심준섭, 2008 재인용). 물론 이 때부터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을 혼합 혹은 결합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아니다. 1970년대 이전에 출판된 사회연구방법론 교재들을 보면 거의 자연과학 방법에 따른 양적 연구방법론이 대세였고 바람직하다고 여겨졌다(홍동식 외 역, 1992). 그러나, 1960년대에 현상학에 대한 높은 인식과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동안 정통적인 관행으로 여겨져 왔던 양적 연구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면서 질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 후 1980년대 들어서면서 두 가지 방법론의 연계 또는 혼합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우리의 사정은 어떠한가? 사회복지학계에서도 2000년대 들어 질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 사회복지학계는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두 가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첫째는 양적 연구의 확대 및 고급통계의 지향성이 두드러지는 것이고 둘째는 양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지나친 편향성, 질적 연구방법론의 미성숙과 왜곡된 연구문화에 대한 자성적 고찰이 제기되면서 다양한 연구방법, 즉 질적 연구방법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김미옥, 2007). 사회복지학계에서 질적 연구방법이 활용되기 시작한 역사가 10여년에 불과한 관계로 이 두 방법을 혼합에 관한 논의는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외의 경우 1960년대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1980년대 혼합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는 사실로부터 향후 우리 사회복지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실천 현장을 중심으로 욕구조사, 평가조사 등에서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실제로 행해지고 있다.

요컨대,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의 혼합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각 방법론의 장점을 취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서 연구대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성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이라는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두 가지 연구방법론의 혼합과 관련하여 모든 연구자가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연구에서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과연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이 통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첨예하게 이루어졌다. 통합 논쟁의 핵심은 “인식론적 관점”과 “기법적인 관점” 간의 대비로 이해할 수 있다. “인식론적 관점”에서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은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경우 두 방법은 서로 양립 불가능한 연구과정으로 이해된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서로 다른 인식론적 입장을 가진다는 입장을 가진 연구자들은 사회현상의 실체는 무엇이며 어떻게 연구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양적 연구방법 혹은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두 방법을 통합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반면에, “기법적인 관점”은 양적 연구방법 혹은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특정 연구문제의 적합성에 관한 “기법적” 고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홍동식 외 역, 1992). 다시 말해, 연구문제에 따라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 혹은 둘의 통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용주의자들은 최근에 이러한 혼합 연구방법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집단이다(김미숙, 2006). 실용주의자들은 철학적 독단주의와 회의론의 중간지대에서 역사적으로 동의가 진전되지 않는 오랜 철학적 이원론(이성주의 대 경험주의, 현실주의 대 비현실주의, 자유의지 대 결정론, 사실 대 가치, 주관주의 대 객관주의 등)을 거부하는 대신 이 논의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기초로 철학적 이원주의에 대한 온건하고 상식적인 견해를 선호한다(김미숙, 2006). 한 패러다임에서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의 통합을 지지하는 실용주의자는 방법 혹은 방법의 기저에 있다고 가정된 세계관보다 연구문제를 더욱 중시한다. 이들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론적 도구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구자의 특정 방법론이나 방법의 기저에 있는 패러다임보다는 그들이 제기하는 연구문제를 어떻게 하면 보다 잘 탐구할 수 있는가에 더욱 큰 관심이 있다. 따라서 이들은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방법론이 따라가야 한다고 본다(김미숙, 2006).

최근에는 두 가지 연구방법에 대한 철학적 논쟁보다는 각각의 학문적 독자성과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질적방법과 양적방법을 통합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김미숙, 2006). 물론 여전히 방법론적 순수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의 통합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문제를 더 잘 해결하고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입장에서 통합적인 혼합 연구방법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방법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추세이다(Tashakkori & Teddlie, 2003; 김미숙, 2006에서 재인용).

4. 혼합 연구방법론 활용 사례

많은 질적 연구자들은 교육 및 사회복지실천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질적 연구방법론과 양적 연구방법론을 혼용하는 접근방법을 적용시켰다(유태균 역, 2001). 두 가지 연구방법론을 혼용하는 접근방법에 의한 프로그램 평가가 갖는 장점은 양적 평가를 통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밝힐 수 있고 또한 질적 평가를 통해 어떻게 어떠한 프로그램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질적 연구방법론과 양적 연구방법론을 혼합하는 평가라고 해서 반드시 성공적 평가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연구의 심도와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음은 분명하다(유태균 역, 2001).

프로그램 및 실천 평가와 관련된 국내의 사례로 ‘우리 아이 희망네트워크’ 지원 사업 성과평가가 있다. 2006년에 삼성 사회봉사단의 지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획 사업으로 시작된 우리 아이 희망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아동과 가족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 친구, 친지 등과 같은 비공식적 자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공분야 또는 전문분야 간의 전문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한 마을의 아이들을 서로 돌보고 키우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노혜련·유서구·박화옥·윤민화, 2007). 우리 아이 희망네트워크 지원 사업 성과평가는 네 가지 집단, 즉 희망네트워크 사업을 경험한 서비스 이용자 집단, 사업진행 실무자 집단, 지역사회 연계자원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에 대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성과평가를 통해 희망센터에서 제공된 서비스가 이끌어낸 긍정적 변화를 구체적인 예로 제시할 수 있었고 이러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가장 크게 작용한 요인, 즉 프로그램(개입)의 블랙박스를 발견하는데 기여하였다.

국의 사례로는 뉴욕에서 정신장애인 노숙자 대상 서비스 제공 기관인 Pathways to Housing 사업 평가가 있다. Pathways to Housing 프로그램은 기존의 통제 및 관리 위주 노숙자 사업과 달리 노숙자의 선택과 자율을 중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것으로, 많은 서비스 제공 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성공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실제 이 프로그램에 대해 양적 및 질적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었다(유태균 역, 2001).

London 등(2007)은 미국의 복지개혁 정책을 주제로 패널자료를 구성하고 이와 함께 일부의 추가 표본을 대상으로 질적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결론적으로 혼합 연구방법론은 정책과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에 기여하였고 질적 자료는 양적 자료만으로는 예상하지 못한 통찰을 제공하였다(이현주·안서연·박경희, 2009에서 재인용).

한편, 양적 연구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종단 연구 분야에서도 질적 종단 연구(QLLR, Qualitative Longitudinal Research)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양적 방법의 한계, 실증주의에 대한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비판이 질적 연구에 대한 탐구와 보다 광범위한 활용을 가능하게 했듯이, 양적 연구방법에만 치우친 종단 연구 분야에서도 사회적 맥락에서 시간과 과정에 따른 변화를 탐구하고 이해하는데 기여하는 질적 종단 연구에 점차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경제사회위원회(ESRC, The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는 질적 자료 및 질적 연구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질적 종단 연구 전략을 개발하는 방식을 조사하기 위한 예비 타당성 연구(feasibility study)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Henwood & Lang(2003)은 종단 연구는 이미 수없이 많이 진행된 혹은 진행 중인 양적 연구들과 함께, 질적 연구와도 훨씬 더 많이 관련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 종단 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예산 제약과 연구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질적 종단 연구는 학문, 정책연구 분야, 특히 정책평가의 주요 방법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Holland, et al., 2006 재인용). 이들은 질적 종단 연구의 강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Holland, et al., 2006 재인용). 즉, 양적 연구방법에 기초한 패널 연구는 유동성, 매우 상황 특정한(situation-specific) 경험, 사람들이 사 변화에 대응하고 이것을 다루는 방식을 중재하는 이해와 인식을 사정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질적 연구 방법에서는 깊이 있고 상세한 조치(treatment)를 제공할 수 있다. 질적 연구는 맥락적인 이슈들에 매우 민감하며, 사람들이 인생의 전환기에 자신의 삶에서 발생한 변화(예를 들어, 어머니/아버지로의 전환) 등을 주관적으로 교섭(협상)하는 방식과 같은 중요한 미시-사회적인 과정(micro-social process)을 밝힐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의 일상의 태도와 행동이 사회문화적 변화 패턴 속에 어떻게 내재되는가를 탐구하는 것도 가능하다(사회적 역할에 대해 당연히 여겼던 가정과 신념, 예를 들어 부모 역할의 성적 분화 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같다). 맥락에 대한 민감성의 결과로 질적 연구는 사회적 과정에 대한 미시적 관심과 거시적 관심을 결합할 수 있다.

또한, 양적 연구에서는 평균과 경향에 기초한 비교를 통하여 상세한 것을 없애지만, 질적 연구는 사회적 행동에서 지속적인 것과 순간적인 것을 구별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차이의 중요성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Pollard & Filer, 2002; Holland, et al., 2006 재인용).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과를 유발시키는 차이들을 구별할 수 있고, 변화가 어떻게 개인과 집단에 의해 다르게 경험되고 실행되는가 알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하나의 질적 종단 연구는 심리적, 자서전적 과정(lived through experience)을 통해서 사회적 결과가 발생하고 중재

되는, 바로 이러한 과정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이미 확립된 사회과학 연구 분야에 신선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교육, 심리, 건강 연구, 사회학(생애 과정 및 생애사(life course, life history),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대한 연구, 범죄 연구) 등에서 질적 종단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2절 빈곤 역동성 측면에서 양적 & 질적 연계 패널 구축의 필요성과 의의

1. 최근 우리나라 빈곤 연구의 경향 : 다차원성과 역동성

오늘날 우리나라의 빈곤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빈곤을 더 이상 단순히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나 물질적 결핍으로만 이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빈곤을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인 삶의 조건과 방식으로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 경제, 심리, 사회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다(성준모, 2010; 이상록, 이순아, 2010; 이주하, 2011; 이현주 외, 2009). 또한, 실현능력 접근과 같이 빈곤의 비화폐적 측면을 강조하여 빈곤을 측정하지는 주장들도 나타나(김교성, 노혜진, 2011; 서병수, 2007; 최균, 서병수, 2006; 최균 외, 2011), 바야흐로 다차원적인 빈곤에 대한 이해와 측정, 그리고 이에 기반한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⁴⁾.

한편 IMF위기 이후 빈곤 연구를 살펴보면, 빈곤의 정태적 현황 및 분포뿐만 아니라, 빈곤의 동태적 변화를 다루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전의 정태적 빈곤 연구 경향이 지배적이었던 시기에는 횡단

4) OECD(2001:10)도 빈곤을 소비, 식량, 건강, 교육, 권리, 표현, 보장, 존엄, 좋은 일자리와 같은 실현능력과 관련된 다차원적인 박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적 자료를 사용하여 빈곤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빈곤층의 요구와 의식을 조사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면⁵⁾, 최근에는 빈곤의 진입과 지속, 탈피, 특정한 인구학적 집단을 대상으로 한 빈곤 상태의 변화와 같은 빈곤의 역동성을 살펴보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빈곤의 스냅샷을 분석하는 것보다 역동성 분석이 빈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Alcock, 2004)는 사실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빈곤으로의 진입과 탈피를 관찰할 수 있는 패널자료가 1990년대 후반부터 구축되면서 가능해진 것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종단적 자료를 사용하여 빈곤 역동성을 살펴본 연구는, 황덕순(2001)처럼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패널 데이터로 연결한 경우도 있었지만, 주로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안정적인 구축과 맞물려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강신욱, 2009; 구인회, 2005; 금재호, 김승택, 2001; 김은하, 2009; 석상훈, 2007, 2009; 홍경준 2004). 이러한 연구들은 패널 자료의 특성을 활용하여,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율의 변화, 빈곤 진입과 탈피 경향, 그리고 빈곤의 반복이나 장기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⁶⁾.

한편, 한국노동패널에 이어서 등장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은 저소득층의 실태변화와 욕구를 동태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정책 효과성을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어, 빈곤의 제 측면을 보다 다차원적이며 역동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이해를 시도하여 빈곤 연구의 지평을 확대한 연구로, 주거 빈곤과 이동발달 및 가족생활(임세희, 2010; 임재현, 2011),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노혜진, 김교성, 2010), 빈곤 혹은 관련된 서비스와 가족 갈등(정선영, 정현숙, 2011),

5) 1990년대 이전의 빈곤 연구 경향에 대한 논의는 김영모(1989)를 참조

6) 서구의 경우 역시 양적 종단자료의 구축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노동시장 특성과 빈곤의 진입과 유지기간, 탈피와 같은 빈곤의 역동성에 대한 양적 연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는 탈빈곤정책의 발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Miller, 2007).

요보호 가구원 부양과 가구빈곤(진선미 외, 2011), 빈곤층의 소비패턴(정원오, 이선정, 2011)에 대한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더 나아가 자산 빈곤과 빈곤의 지속(석상훈, 2011), 빈곤과 우울의 종단적 고찰(성준모, 2010), 빈곤지위 변화와 정신건강(이상록, 이순아, 2010), 탈수급 전후 의료서비스 차이(유태균, 이선정, 2011), 근로능력에 따른 탈수급 결정 요인(안서연 외, 2011) 등의 연구들은, 다차원적 빈곤에 대한 이해 및 관련 정책의 다양한 측면을 역동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들이 제시하는 빈곤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은, 정태적인 연구결과와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교성(2011)은 우리나라 사회정책 빈곤 연구의 동향과 과제에 대한 논문을 통해 “빈곤실태 연구는 그것이 스냅 샷인지 혹은 동영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연구가 공통적인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빈곤실태 연구가 정태적 분석을 하든, 역동성 분석을 하든, 거의 모두가 개인, 가구, 노동시장 요인 등이 주요 변인으로 나타난다고 하여, 각각의 분석결과에서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빈곤의 역동성 연구에서 혼합 연구방법론의 필요성과 의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들어 빈곤의 다양한 측면을 역동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는 것은, 빈곤 연구에 있어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패널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양적 연구가 갖는 많은 장점을 포함하는 동시에, 양적 연구방법론에의 편향에 따른 다양한 한계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앞서 제시했듯, 정태적 분석과 동태적 분석이 결과적으로 차별성이 없다는 문제의식은

빈곤의 다차원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연구주제의 한계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러한 다차원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이 지나치게 양적자료에 대한 분석에만 의존하고 있는 양적 연구방법론의 획일성에도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양적자료는 결국 측정 가능한 사건들에 대해서 계량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질문을 단순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대상자의 삶과 경험이 몇 가지 데이터로 환원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Alcock, 2004). 이와 같은 양적자료의 특성은 복잡하고 다양한 빈곤 현상 및 관련 경험들이 결국 통계수치로 축약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국복지패널을 비롯한 수많은 패널자료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확률과 통계에 근거하여 수리적 일반화를 목표로 하는 양적 연구방법론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결론이나 정책대안 개발에서 차별성 있는 다양한 연구가 나타나지 못하는 위험도 증가하게 된다. 더 나아가, 시간이 지나면 궁극적으로 양적 패널자료가 제공하는 변수들에 대한 활용도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양적 연구방법만을 통해 빈곤의 다차원성과 역동성과 관련된 심도 깊은 개인의 경험과 태도, 행위 동기 및 결과, 맥락, 삶의 통찰을 이해하기란 더욱 힘들어 보인다.

양적 연구방법론에의 편향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미 사회복지학계에서 일부 연구를 통해 지적된 바 있는데(강철희, 김미옥, 2003; 김인숙, 2007; 오정수, 2002; 홍경준, 2002), 이러한 논의는 빈곤 연구에 대해 적용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즉, 빈곤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양적 연구들은 여전히 빈곤층의 시각보다는 연구자 중심의 분석을 시도하며, 빈곤층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사회구조적 맥락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빈곤이라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와 사례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김교성, 2011)⁷⁾. 더 나아가 이러한

양적 연구방법에의 편향성은 실증주의 이외의 지식기반에 근거한 빈곤 문제에 대한 새로운 담론 형성을 이끌어내지 못해, 인식론의 다원화를 피하기 힘들게 할 수도 있다⁸⁾).

이러한 상황에서 질적 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질적 연구방법론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Carvalho & White(1997)는 빈곤 연구에 있어서,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 중 어느 하나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대개의 경우 두 가지 연구방법론이 서로 간과하고 있는 질문들을 다룰 수 있으므로, 이를 혼합하는 연구방법론이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질적 연구에서는 누가 가난한지에 대한 질문보다는 왜 가난한지,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빈곤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Barrett(2004) 역시 양적자료에 기반한 빈곤의 역동성 연구를 통해서 단순히 재생 가능한 결과들을 생산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방법론의 연계 및 혼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어떤 대상에게, 어떤 시기에, 어떠한 규모와 내용을 가진 개입을 시도할 때, 삶의 기준의 향상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인과적인 분석을 해야 하는데, 이는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의 혼합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혼합 연구방법론을 통해 동일한 현상에 대해 다양한 출처를 통해 다차원적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게 된다면, 통계 수치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고, 교차 확인(cross-check)을 통해 측정의

7) 김교성(2011)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의 주요 학술지에 수록된 246편의 빈곤 연구를 분석하여, 그중 44편을 질적 연구로 분류하였다. 이들 중 빈곤정책의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가 30편이고, 실제 빈곤층이 연구 동반자로 참여한 질적 연구는 14편이었다. 그나마 빈곤층이 참여한 연구 중에서도 단순히 심층면접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표현을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구체적으로 질적 연구 전통에 따른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5편에 불과하였다.

8) 김인숙(2007)에 의하면, 한국의 사회복지 연구에서 질적 연구는 지배적 지식기반을 비판하고 대항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빈곤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원화(triangulation)를 추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Jick, 1979; Barrett, 2004). 이러한 양적 & 질적 연구방법론의 연계 또는 혼합은, 양적자료의 설문을 질적 자료와 연계되도록 설계할 수도 있고, 질적 분석을 통해서 빈곤과 관련된 지표들을 개선할 수도 있으며, 서로 상대방의 발견에 대해서 인증(confirming), 반박(refuting)하는 과정을 통해 풍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Carvalho & White, 1997).

최근 혼합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수행된 빈곤의 역동성 연구들을 살펴보면, 질적 연구방법론이 빈곤의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통찰의 기반을 제공하며, 그러한 과정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의 역할에 대한 세밀한 관찰까지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Adato et al., 2006; Lawson et al., 2006; Lawson et al. 2008).

3. 빈곤 연구와 관련된 질적 연구 및 혼합 연구방법론 활용 사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질적 연구에서는 빈곤층의 삶의 경험과 빈곤 정책과의 상호작용을 잘 드러낼 수 있다. 나아가, 기존 통계나 사회적 편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빈곤 현실에 대한 통찰과 심도 깊은 이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Edin & Lein(1997)은 “Making Ends Meet”라는 저서에서, 미국의 싱글맘들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복지수급자들이 삶을 유지하는 방법과 경험을 통찰력 있게 전달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미국 통계국의 빈곤에 대한 양적 측정결과와는 별도로 싱글맘들이 생존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방법과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Seccombe(1999)은 “So You Think I Drive a Cadillac?”에서, 미국의 여성 복지수급자들의 복지개혁에 대한 인식과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수급 여성들이 고급 캐딜락 승용차(Cadillac)을 타고 다닌다는 이미지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획일적인 양적 연구방법론에의 편향성에 대한 사회복지학계의 성찰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다양한 질적 자료를 사용한 빈곤 연구들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빈곤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목표로 하는 연구에서도 절대빈곤층의 삶과 경험을 제공하거나(박순일, 1994; 윤석범, 1994), 문학작품에서 나타난 빈곤층의 의식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윤석범, 1994), 엄밀히 말해서 이러한 방법들은 전통적인 질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라기보다는 질적 자료를 사례로 제시하여 소개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일방적 분석보다는 빈곤층의 인식과 목소리를 통해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타나고 있다(권지성, 2008; 김교성, 2011; 백학영, 2006; 이은주, 2008). 홍현미라(2011)는 질적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의 거시적인 실천 과정을 평가할 수 있고, 참여자의 시각에서 사회복지 실천과정의 작동 기제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빈곤 연구에서도 질적 연구방법의 도입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을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블랙박스로서 빈곤정책의 작용기제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함의를 제공한다⁹⁾. 질적 연구방법의 이러한 활용은 자활사업에 참여한 여성가구주의 경험을 중심으로 자활사업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전망에 대한 연구(백학영·고미선, 200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해 수급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9)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를 저술한 Deborah Padgett(1998)도 질적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인식과 생생한 경험을 찾아내고, 프로그램, 혹은 개입이라는 “블랙박스” 내부로 들어가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활용한 연구(이태진 외, 2007, 2008),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연구(이희연, 2009),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수급 관련 인식, 가족관계 및 근로활동에 대한 인식과 전망 등 사회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양적 연구와 더불어 질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연구(이현주 외, 2009),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인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을 평가한 연구(권지성, 2010)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4. 빈곤 역동성 연구에서 질적 종단 연구 및 패널자료 구축 필요성

이상과 같이, 최근 들어 질적 연구방법론이 빈곤 연구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해서, 양적 연구가 지닌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Carvalho & White, 1997). 앞서 제시한 것처럼, 이러한 두 가지 연구방법론의 차이는 상호 보완을 통해 보다 종합적인 연구방법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¹⁰⁾. 하지만, 지금까지의 빈곤과 관련된 질적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매우 제한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빈곤의 다차원성과 역동성이라는 최근의 연구경향에 비추어 본다면, 질적 연구가 향후 빈곤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 빈곤의 다차원성에 대한 질적 연구(김교성, 노혜진, 2011; 이현주 외, 2009; 최종혁 외, 2009)는 그나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빈곤의 역동성과 관련된 질적 연구는 거의 발견하기 쉽지 않다. 이는 무엇보다도 질적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종단적 연구에 필요한 질적 자료의

10) 오정수(1997)는 실증주의의 장점과 비실증주의를 결합하는 형태로 나타난 인식론적인 다원주의를 긍정적인 변화의 방향으로 보고,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의 효과적인 정합은 연구목적과 연구대상의 다양성에 따라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부재로 인해, 질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빈곤의 역동성에 대한 연구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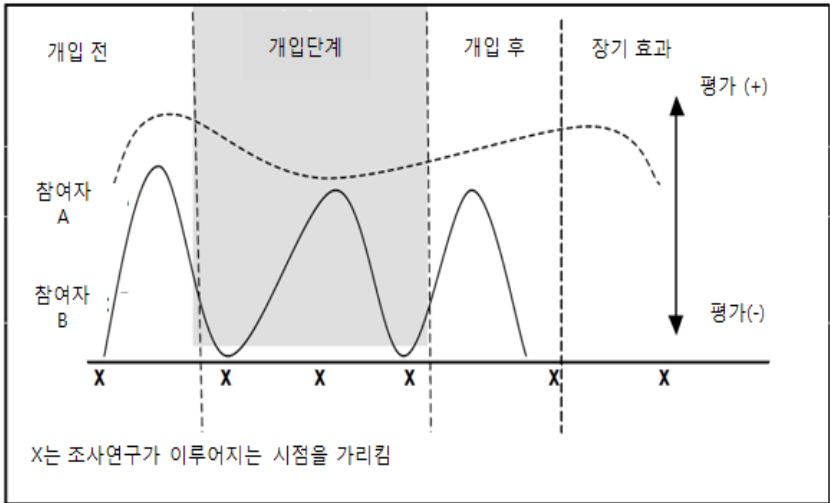
Millar(2007)는 양적 패널자료를 활용한 빈곤의 역동성 관련 연구가 많이 나온 것처럼, 질적 연구를 통해서도 빈곤의 역동성에 대한 연구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그는 질적 종단 연구에 기반한 빈곤 역동성 연구들은 지위변화(transitions), 기간(durations)과 경로(trjectories)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대상자들의 각기 다른 경험들을 잘 보여주고, 이를 통해 이론적, 정책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Farrall(2006)은 질적 연구를 종단적으로 수행할 경우, 양적인 종단 연구나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회성 조사에 의한 질적 연구에 비해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어떻게 사회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되어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탐색할 수 있다. 둘째, 거시적 절차나 사건을 개인의 삶과 환경에 접목시킬 수 있다. 셋째, 프로그램 개입이 효과가 있었는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개입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또한 왜 그런지에 대한 맥락적인 분석과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 넷째, 개입 결과를 개인적 차원에서 볼 수 있다. 다섯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응답자의 삶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된 변화들과 다양한 감정의 흐름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량적으로 의미가 없고 일반화시킬 수 없는 소수의 다양한 응답들이 사장되는 기존의 양적 연구에서와 달리 이들 사례로부터 이론적 성찰을 도출할 수 있다.

Molloy et al.(2002)는 질적 종단 연구란 변화에 대해서 왜 그리고 어떻게 변화가 발생했는지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들은 청년을 위한 뉴딜(New Deal)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하여 질적 연구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사례는 질적 연구를 종단적으로 실시했을 때의 유용성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뉴딜의 구직이나 기본 기술개발과 관련된 경험에 대해 참여자 A, B의 평가 점수를 개입 단계에 따라 연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때 프로그램 참여의 전 과정에 걸쳐 평가점수가 고르게 나타나는 A에 비해, 평가점수가 단계 내에서 위아래로 큰 격차를 보이는 B의 경우, 스냅샷만으로는 프로그램의 경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 질적 종단 연구는 이러한 경우에도 경험의 평가와 관련된 고점과 저점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러한 변화를 설명해줄 수 있다는 유용성이 있다. 실제 연구에서 B의 경우 이러한 고점과 저점이 나타난 것은 뉴딜 참여자의 사생활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A의 경우처럼 극적인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질적 종단 연구는 왜 이 참가자가 완만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어, 프로그램 실행과 정책 입안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2-1〕 종단적 연구에서의 시간에 따른 변화의 탐색



자료: Molloy et al., 2002:12 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질적 종단 연구의 특징은 앞서 제시했던 빈곤의 역동성에 대한 양적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질적 연구가 보다 포괄적으로 양적 연구와 연계되어 함께 사용된다면 더욱 강력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는데(Corden & Millar, 2007), 이는 마치 사람이 한 다리로는 도움 없이 서있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 나가려면 두 다리가 필요하다는 비유로도 설명할 수 있다(Barrett, 2004).

5. 한국복지패널과의 연계를 통한 질적패널 구축의 의의 및 이슈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역시 복잡하고 다양한 빈곤과 관련된 특성들을 수치로 축약해버리는, 양적 패널자료의 특성 및 한계를 지니고 있다. 최근 들어,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개별 연구자들에 의해서 빈곤과 관련된 질적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여전히 빈곤의 역동성과 관련된 분석에서 질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연구성과를 발견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구축된 기존의 양적 패널자료들은 아직 세대를 뛰어넘는 자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대간 빈곤의 역동성을 보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서, 이에 대한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교성, 2011).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본 연구에서 한국복지패널과 연계된 질적 패널자료를 구축하는 것은, 질적 종단 연구를 통한 빈곤의 역동성 연구를 위하여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질적 종단 연구를 통해 빈곤 역동성과 관련된 개인의 관점과 주관적인 경험을 이해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대한 적응과정과 경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Millar, 2007).

이와 같은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자료의 구축을 위해서는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은 빈곤의 역동성과 같은 하나의 연구 영역에 대해 다른 시각과 목적의 연구질문들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이 협력적으로 이루어질 때, 빈곤의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계,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 보다 풍부한 이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질적 연구방법론에 의해서 구축된 패널자료와 이를 바탕으로 수행된 연구는 기존의 양적 패널 연구에서 나타난 다양한 수치를 보다 생생하게 해석 가능하게 하고, 측정의 다원화(triangulation)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서로의 발견에 기초하여 향후 각자의 연구주제와 질문을 수정 보완하여 나가는 실용적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빈곤정책 평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상호 인증과 반박과정을 거쳐 빈곤정책 수립을 위한 통찰력의 기반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연구방법론 연계 및 혼합은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간의 연결 고리(links)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연구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입안자에게 매우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다(Corden & Millar, 2007). 물론, 질적 패널자료 역시 패널의 손실(attrition), 패널 조건화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서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을 연계할 수 있는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Ruspini, 1999).

마지막으로, 양적 자료인 한국복지패널과 연계한 질적 패널조사에서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양적 패널조사와 연계되어 상호간에 보완적인 질문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질적 종단 연구의 특성이나 장점이 잘 나타날 수 있는 질문들을 구성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질적 종단 연구 질문들의 유형을 제시한 Saldana(2003)의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질적 종단 연구를 통해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참여자의 인식과 인간의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을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종단적으로 구축된 질적 패널자료에 대한 분석과정의 틀을

만드는 질문(framing questions), 둘째, 변화에 대한 기술적인 질문(descriptive questions), 셋째는 다양한 변화와 관련된 분석적이고 해석적인 질문(analytic and interpretive questions)이다.

먼저, 종단적으로 구축된 질적 자료에 대한 분석과정의 틀을 만드는 질문들은, “구축된 자료의 풀(pool)이 다음에 어떻게 달라지는가? 언제 변화가 일어나는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개입적 조건은 무엇인가? 시간에 따른 변화의 역동성은 무엇인가? 참여자의 변화에 대한 사전 진술들이 자료 분석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변화에 대한 기술적인 질문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엇이 증가하거나 나타나는가? 무엇이 축적되는가? 어떠한 돌발적인 것들이 생겨나는가? 무엇이 줄어드는가? 무엇이 지속되는가? 무엇이 특징적인가? 무엇이 없어지는가?”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끝으로 변화와 관련된 분석적이고 해석적인 질문들은, “어떤 변화들이 경과에 따라 서로 연결되는가? 어떤 변화들이 본연적인 인간 발달이나 구성된 사회적 과정에 대립 혹은 화합하는가? 무엇이 시간 경과에 따른 국면, 단계, 순환 등과 같은 리듬인가? 무엇이 연구를 관통하는 주제인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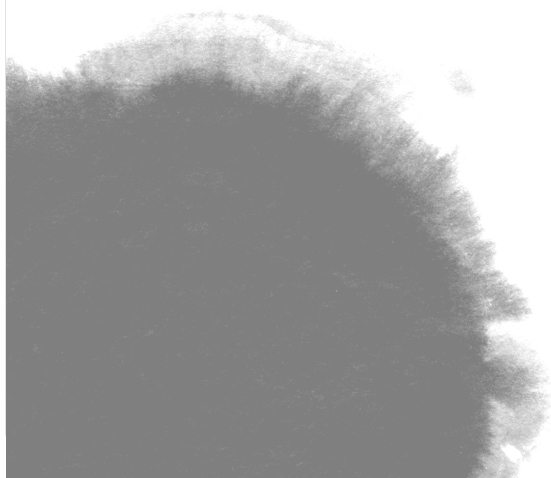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한편, Farrall(2006) 역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종단적 차원에서 구축된 질문과 자료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와 관련된 과정을 탐색하고 측정할 수 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웨이브(wave) 간 어떠한 차이가 발생했는가? 둘째, 언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어떠한 변화가 먼저 혹은 동시에 일어나는가? 셋째, 돌출되는 사건들이 있는가? 넷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엇이 증가하고 감소하였는가? 다섯째,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무엇이 없어졌는가? 여섯째, 변화와 변화의 시기에 영향을 주는 맥락적인 과정은 무엇인가? 일곱째, 어떠한 변화들이 인간의 성장 과정에 도움을 주거나 혹은 가로막는가?

여덟째, 변화들이 응답자들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아홉째, 변화가 실제적인가 아니면 상징적인가?

이와 같이 제시된 질적 패널조사에서의 종단적 질문의 유형들은 향후 빈곤의 역동성 연구를 위한 질문내용의 개발에도 많은 함의를 제공한다. 한국복지패널과 연계된 질적 패널자료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하는 이번 연구에서 질적 조사를 위한 우선적인 질문들은, 양적 패널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질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질적 패널자료 구축의 두 번째 웨이브(제2차년도)의 질적 조사내용과 구체적인 질문은 시간에 따른 차이와 변화와 과정,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건이나 맥락, 의미에 대한 기술적이고 해석적인 질문들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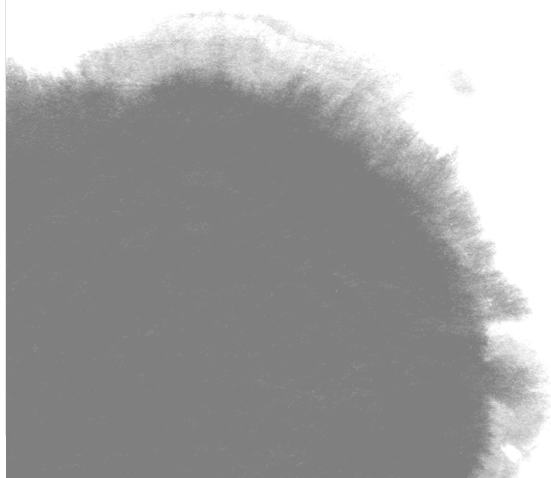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2부

양적 태널조사 자료공측 및 기초분석



03

저소득층 양적 태권조사 표본추출 및
가구 특성



제3장

저소득층 양적 패널조사

표본추출 및 가구특성

2부는 한국복지패널의 표본가구 중에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구축한 양적 패널가구를 대상으로 역동성 분석과 경제상황 및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과 전망 관련 심리 동향지수 분석결과로 구성된다. 여기서는 한국 복지패널 표본가구와 연계한 저소득층 양적 패널조사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된 표본추출 과정과 이들 가구의 일반적인 특성을 제시한다.

제1 절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 표본추출

당초 본 연구의 계획수립 및 연구수행 초기에는 한국복지패널과 상관 없이 별도의 저소득층 중심의 양적 패널가구 표본추출 및 조사수행을 계획한 바 있으나, 연구 수행과정에서 저소득층 양적 패널구축을 위한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존의 한국복지패널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이미 축적된 다양한 양적 자료를 활용하고 여기에 정기적 또는 수시로 필요한 조사내용을 전화조사 방식으로 부가적으로 조사함으로써 활용하여 분석 가능한 변수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자료 구축의 모집단으로 기반이 되는 한국복지패널의 표본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5년을 조사 기준시점으로 하여 2006년도부터 제1차 웨이브에 해당

하는 패널조사가 시작되었으며,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90% 조사구에서 표본이 추출되었으며, 제주도를 포함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본추출 과정에서 표본 배분은 복지욕구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을 과대표집¹¹⁾하였으며 농어가와 읍면지역까지가 표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표본의 대표성이 높은 편이다. 제1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당시 총 7,072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이러한 원표본 가구를 중심으로 패널자료가 구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차 한국복지패널을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기준 중에 가장 확장된 가구의 경상소득 기준으로 평균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저소득층의 개념으로 설정하여 우선적으로 원표본 가구 중에서 3,723가구(원표본 7,072가구 대비 52.6%)를 추출하였다. 이 가운데 2011년 완료된 제6차 한국복지패널조사까지 표본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모든 조사를 완료한 가구는 2,960가구(원표본 7,072가구 대비 41.9%, 최초 평균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3,723가구 대비 79.5%)로, 이들을 중심으로 최종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를 구성하여 기존에 조사되었던 1~5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자료를 결합하여 양적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표 3-1〉 한국복지패널 원표본 가구 유지율과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 규모

(단위: 가구, %)

구 분 (조사 기준시점)	전체 패널가구	원표본 유지율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
1차 웨이브 (2005)	7,072	100.0	3,723 (52.6%)
2차 웨이브 (2006)	6,511	92.1	3,528
3차 웨이브 (2007)	6,128	86.7	3,370
4차 웨이브 (2008)	5,935	83.9	3,270
5차 웨이브 (2009)	5,675	80.3	3,136
6차 웨이브 (2010)	5,333	75.4	2,960 (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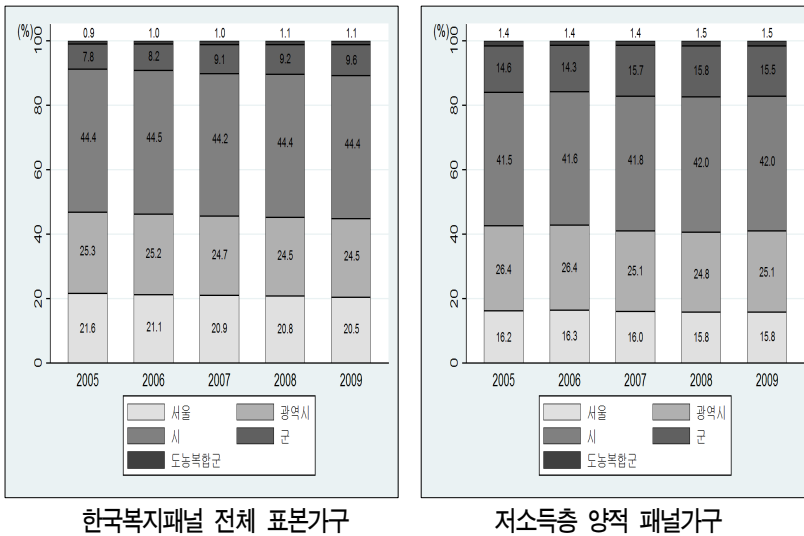
자료: 강신욱 외, 「2010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11) 목표 표본가구의 규모는 7,000가구로 중위소득 60%이하의 저소득층에서 3,500가구를, 그 이상의 일반가구에서 3,500가구를 추출함.

제2절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특성 분석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제1차 한국복지패널 원표본 가구와 연계하여 가구의 경상소득 기준으로 평균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구성된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2,960가구) 중심으로 가구의 일반적 특성이 1~5차 한국복지패널 조사결과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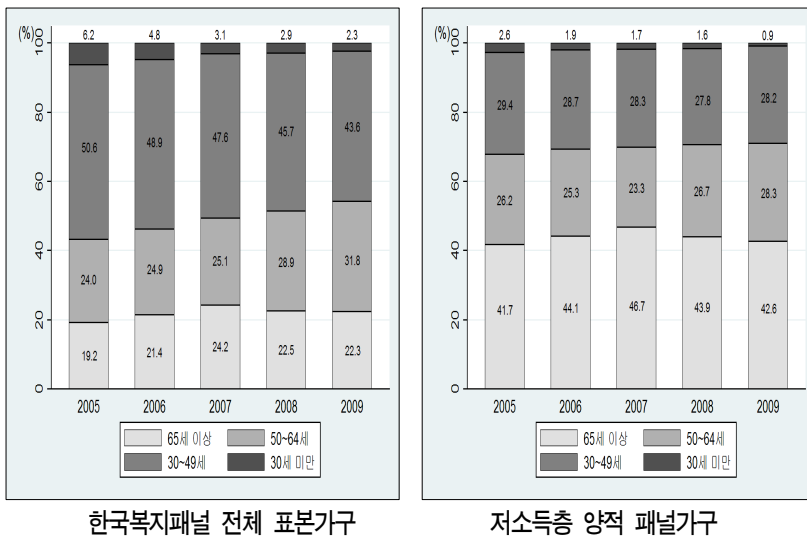
[그림 3-1] 한국복지패널 전체표본가구와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지역별 분포 비교



먼저, 지역별 분포의 변화 추이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경우, 서울은 2005년도 16.2%에서 2009년 15.8%로 나타났고, 광역시에 해당하는 가구는 26.4%에서 25.1%로 다소 줄었다. 반면 시는 41.5%에서 42.0%로, 군 지역 및 도·농복합군에 해당하는 가구 역시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한국복지패널 원표본 가구의 분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1~5차 패널조사에서의 변화 추이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에서는 전체 표본가구에 비해 서울 지역의 경우 약 5%p, 시의 경우는 2~3%p 낮게 구성된 반면, 광역시는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농어촌에 해당하는 군 지역이 6%p 정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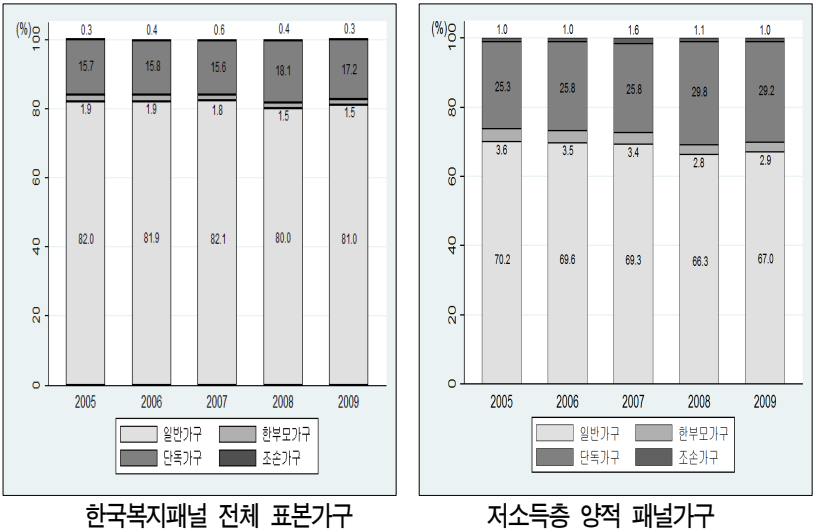
[그림 3-2] 한국복지패널 전체표본가구와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가구주 연령 분포 비교



다음으로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와 전체 표본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구성 및 변화 추이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가구주의 연령별 구성 비율은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한국복지패널 전체 표본가구에서는 1~5차 패널조사 기간 중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30~49세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50~64세 가구주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차 패널조사에서부터 30%를 상회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는 약 20%를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 연구의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가구주 연령대는 65세 이상 가구주 비중이 최근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0~49세 및 50~64세 가구주는 5차 패널조사 기준으로 약 28%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가구주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주 연령대의 변화는 전체 표본가구의 경우 50대 이상이 증가하고 40대 이하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는 전체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가구주 연령별 분포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3-3] 한국복지패널 전체표본가구와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가구유형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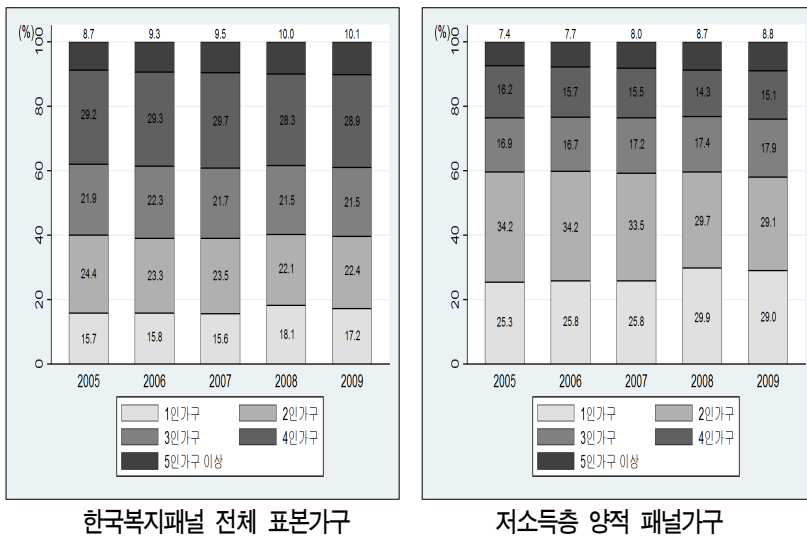


다음으로, 가구유형 분포에 있어서도 한국 복지패널 전체 표본가구와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 사이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단독가구와 한부모가구의 비중에서 차이를 나타내는데, 전체 표본가구의 경우 단독가구의 비율이 15.7~17.2%인 반면에,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에서는 25.3~29.2%로 약 10~12%p 높았으며, 한부모가구의 비중은 한국복지패널에 비해서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에서 약 3% 내외로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반가구의 비중은 전체 표본가구의 경우 80%를 약간 상회하는 반면,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에서는 7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전체 표본가구와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가구유형 변화의 특징은 단독가구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으나,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에서 단독가구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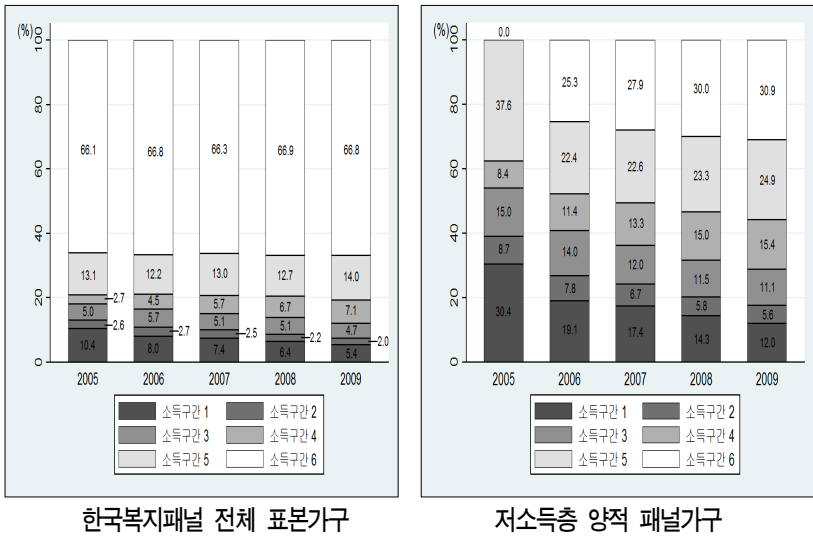
한편, 가구원수 분포에 있어서 전체 표본가구와 저소득층 양적 패널 가구는 역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표본가구(15.7~17.2%)에 비해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경우 1인가구 비율이 25.3~29.0%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2인 가구의 비율 역시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 표본가구에 비해 약 7~1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인 이상 가구의 비율은 5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체 표본가구에서 약 60%를 차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림 3-4] 한국복지패널 전체표본가구와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가구원수 분포 비교



다음으로 가구의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구간²⁾을 구분하여 전체 표본가구와 저소득층 양적 표본가구의 소득지위 분포 및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전체 표본가구의 경우, 평균소득의 60%를 초과하는 가구와 중위소득 50%~평균소득 60%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최저생계비 120%~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가구는 2.7%에서 7.1%로 증가한 반면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구간은 약 18%에서 12.1%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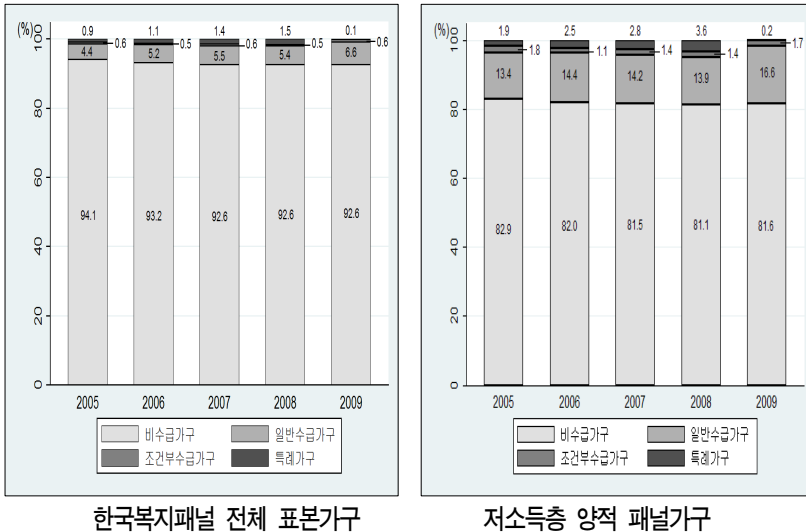
[그림 3-5] 한국복지패널 전체표본가구와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소득지위 분포 비교



12) 소득구간1: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비수급가구
 소득구간2: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수급가구
 소득구간3: 최저생계비 100% 초과 ~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구간4: 최저생계비 120% 초과 ~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구간5: 중위소득 50% 초과 ~ 평균소득 60% 이하
 소득구간6: 평균소득 60% 초과

한편,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추출 기준에 따라서, 1차 패널조사에서는 평균소득 60%를 초과하는 가구가 전혀 없었으나 이후 가구의 소득지위 변동에 따라 평균소득 60%를 초과하는 가구가 2차 패널조사에서부터 약 25%를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비중이 증가하여 5차 패널조사에서는 30.9%로 나타났다. 한편,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구간 1~3의 경우 최초 54.1%에서 5차 패널조사 기준으로 28.7%까지 감소하였다. 이는 1차 패널조사 기준으로 평균소득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경제적 변동에 의해서 소득지위가 높아진 가구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전체 표본가구의 경우 평균소득의 60%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중이 약 66% 정도에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가구의 소득지위가 낮아지는 가구 역시 상당 부분 동시에 존재함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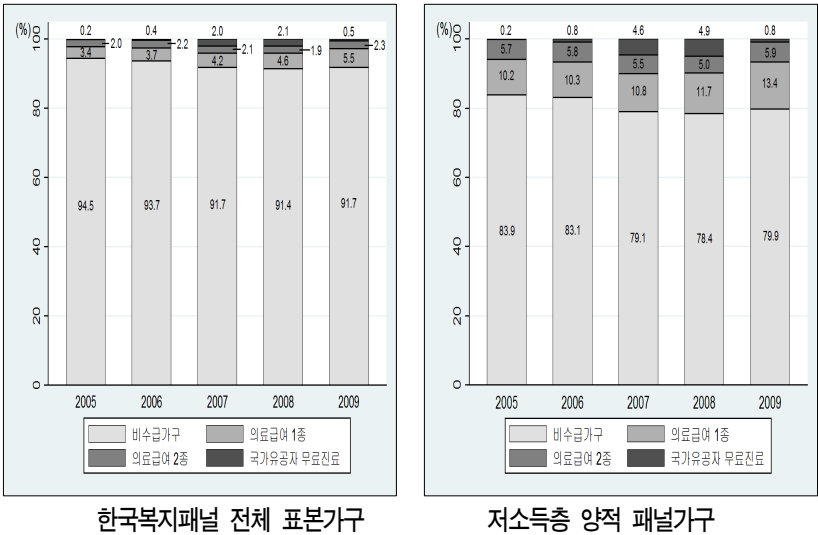
[그림 3-6] 한국복지패널 전체 표본가구와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기초보장 수급여부 분포 비교



다음으로 한국복지패널 전체 표본가구와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기초보장 수급가구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표본가구의 경우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분포는 1차 패널조사 당시 약 6% 수준에서 5차 패널조사 기준으로 약 8%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일반수급가구가 증가하였다. 반면,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경우에도 커다란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수급가구의 비중은 약 17%에서 5차 패널조사 기준으로 약 18.4%로 다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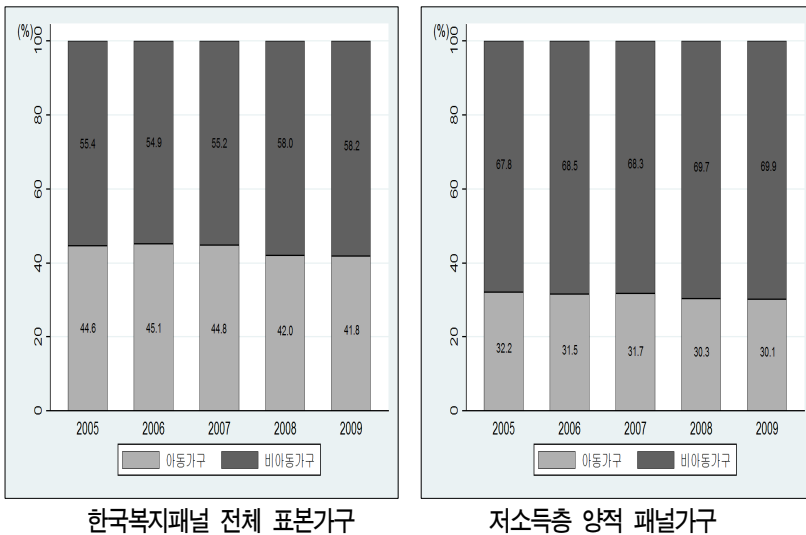
한편,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분포와 마찬가지로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분포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 표본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비중은 약 6%에서 8%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가구 비중은 16.3%에서 19.3%로 3%p 증가하였으며 기초보장 수급가구 비중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림 3-7] 한국복지패널 전체표본가구와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의료급여 수급여부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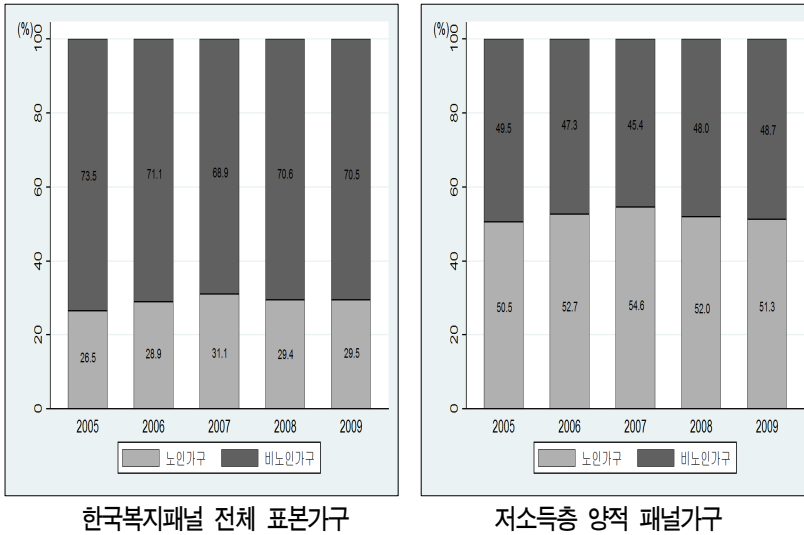
다음으로 가구 구성원 중에 복지대상이면서 질적 패널조사에서 개별 면접 대상인 아동, 장애인, 노인의 유무와 관련된 분포를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구 내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표본가구에 비해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에서 약 11~12%p 낮게 나타났으며, 공통적으로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각각 44.6%에서 41.8%로, 32.2%에서 30.1%로 약 2~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한국복지패널 전체표본가구와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아동가구원 유무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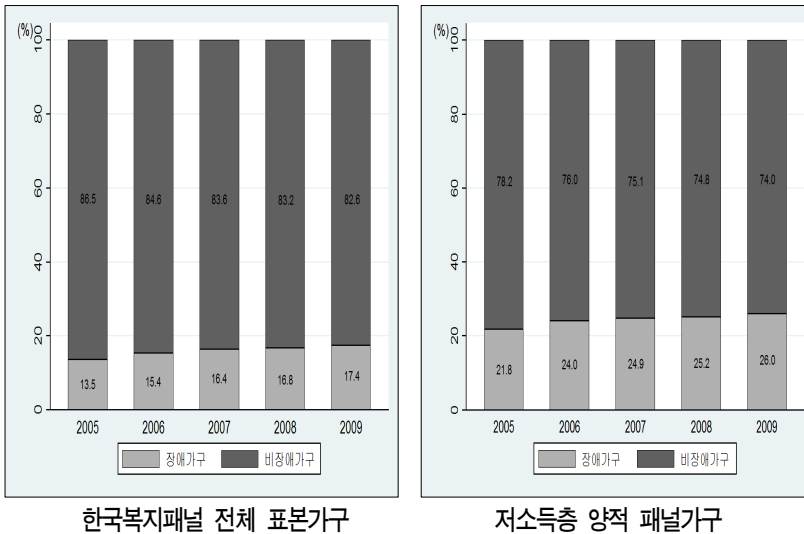


아동과 달리, 노인 및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전체 표본가구에 비해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에서 약 50% 내외로 전체 표본가구(약 30% 내외)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에도 전체 표본가구(13.5~17.4%)에 비해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에서 21.8~26.0%로 약 8~9%p 높게 나타났다. 1~5차 패널조사기간 동안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노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공통적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약 4%p 증가하였다.

[그림 3-9] 한국복지패널 전체표본가구와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노인가구원 유무 분포 비교



[그림 3-10] 한국복지패널 전체표본가구와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장애인가구원 유무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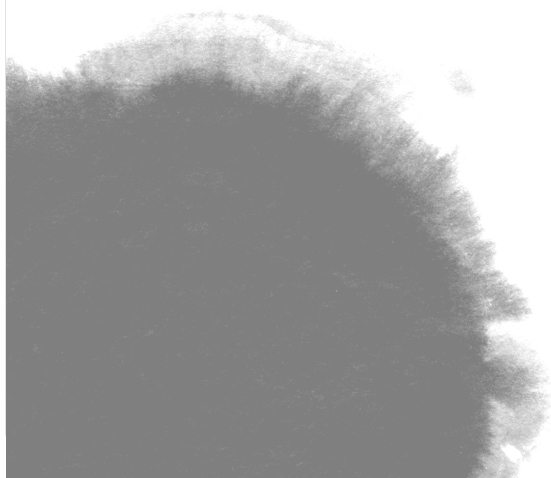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일반적 특성 분포를 한국 복지패널 전체 표본가구와 비교한 결과를 요약하면, 저소득층의 특성이 두드러지는 가구유형 및 가구규모, 소득지위, 기초보장 수급가구, 아동/노인/장애인 가구원의 분포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경우 단독가구와 한부모가구, 1~2인 가구의 비중이 높았으며, 노인 및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에 비해 한국복지패널의 전체 표본가구에서 높았다.

한편,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소득지위에 따른 두 집단 간 가구 특성 분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1차 패널조사부터 5차 패널조사까지의 전반적인 변화 추세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04

저소득층 양적 패널기구의 심리 동향지수 분석
- 경제상황 및 복지수준 인식과 전망 -



제4장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심리 동향지수 분석

- 경제상황 및 복지수준 인식과 전망 -

본 장에서는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를 대상으로 한국은행의 소비자 동향지수 조사를 벤치마킹하여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소비심리 및 경제상황을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복지영역별 개별 가구의 상황과 사회문제에 대한 지난 1년 동안의 인식 및 평가와 함께 향후 1년간의 전망을 조사함으로써, 경제상황 및 복지수준에 대한 체감정도와 욕구를 파악하여 제시하고 있다.

제1 절 조사자료 및 분석방법

1.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구성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심리 동향지수 분석을 위한 전화조사를 별도로 수행하였다. 이것은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소비심리 및 경제상황, 복지영역별 개별 가구의 상황과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전망을 주기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일상생활과 밀접한 경제상황 및 복지수준에 대한 체감정도와 복지욕구의 변화 동향을 파악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사전에 예측하여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심리지수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서

조사하고 있는 ‘소비자 동향조사’를 벤치마킹하여 수정 보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상황 및 복지수준 관련 인식 및 전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가구의 소비심리 및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및 전망, 자산가치에 대한 전망, 복지영역별 개별가구의 체감정도 및 욕구,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 및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전망으로 구분된다.

첫째, 가구의 소비심리는 1년 전과 비교한 현재의 생활형편에 대한 인식과 현재와 비교하여 향후 1년 동안 생활형편, 가계수입, 소비지출의 변화에 대한 전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지출 규모에 대한 인식 및 전망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으로는 한국은행에서 조사하고 있는 항목에 일부 항목을 본 연구에서 추가하여 승용차, TV, 냉장고 등의 내구재 구입액, 의류비(의류, 신발), 식비(외식 포함), 주거비(전세보증금, 월세), 교육비(학원·과외비 포함), 보건의료비, 교양·오락 등 문화생활비, 교통·통신비, 광열비(난방, 취사, 상하수도), 이자상환 지출규모 변화에 대한 전망을 조사하고 있다.

둘째,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전망은 각각 1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상황, 현재와 비교하여 향후 1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기, 물가수준, 금리수준, 취업기회의 변화에 대한 전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향후 1년간 우리나라의 경기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 주된 요인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셋째, 자산가치에 대한 인식과 전망은, 가계저축과 가계부채에 대하여 1년 전에 비해 현재의 상태를 평가하고, 현재와 비교하여 1년 이후에 대한 전망을 조사하였다. 또한 현재와 비교하여 1년 후의 자산가치를 주택 및 상가, 토지 및 임야, 금융저축, 주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한국은행의 소비자 동향지수 조사내용과는 별도로 조사내용을 추가 구성한 복지영역별 체감정도 및 욕구와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 및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전망을 살펴보면, 크게 ‘가구의 생활과 관련된 복지영역’과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 및 사회문제와 관련된 복지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내용은 지난 1년 간 변화에 대한 평가와 현재와 비교하여 향후 1년 동안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전망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가구의 생활과 관련된 복지영역은 생계, 의료, 주거, 보육, 교육, 취업, 교통·통신, 문화·여가, 돌봄, 부채 및 이자상환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대상별 복지수준 및 사회문제와 관련한 복지영역 역시 출산, 보육, 아동·청소년, 교육비, 청년실업, 주택, 중·고령층(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준비), 노인, 장애인, 빈곤 등의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별도로 수행한 ‘경제상황 및 복지수준에 대한 저소득층의 인식 및 전망에 대한 조사’와 한국은행이 조사하는 ‘소비자 동향조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비자동향조사’는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에 대한 인식(평가), 향후 6개월간 변화에 대한 전망을 질문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간을 1년으로 확장하여 지난 1년 동안의 변화에 대한 인식(평가)과 현재를 기준으로 향후 1년 동안 변화에 대한 전망을 질문하였다. 또한, ‘소비자 동향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예측치 전망을 조사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그 밖에도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동향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은 문항을 추가하고 있는데, 소비지출 규모에 대한 전망에서 주거비, 광열비, 이자상환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였으며,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 및 전망과 관련하여 복지영역별 내용을 별도로 구성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표 4-1〉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경제상황 및 복지수준 관련 인식 및 전망조사

영역별 주요 조사내용 구성

대분류	중분류	지표구성
가구의 소비심리	생활형편, 가계수입 및 소비지출 전망	• 현재 생활형편 • 생활형편 전망 • 가계수입 전망 • 소비지출 전망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및 전망	경기, 물가, 취업기회 및 금리수준 전망	• 현재 경기 판단 • 향후 경기 전망 • 물가수준 전망 • 금리수준 전망 • 취업기회 전망
자산가치 전망	가계저축 및 가계부채	• 현재 가계저축 • 가계저축 전망 • 현재 가계부채 • 가계부채 전망
	자산가치 전망	• 주택 및 상가 • 토지 및 임야 • 금융저축 • 주식
복지영역별 체감정도 및 욕구	가구의 생활과 관련된 복지영역	• 생계 • 의료(건강) • 주거 • 보육 • 교육 • 취업(일자리) • 교통·통신 • 문화·여가 • 돌봄(노인/장애인수발) • 부채 및 이자상환
	복지수준 및 사회문제와 관련된 복지영역	• 출산 • 보육 • 아동·청소년 • 교육비(초중고/대학등록금) • 청년실업 • 주택 • 중고령층(조기퇴직/재취업/노후준비) • 노인 • 장애인 • 빈곤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조사대상은 본 연구에서 한국복지패널과 연계하여 구축한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한국복지패널 1차 조사 기준 평균소득 60%이하 가구 중 제1~6차 패널조사에서 표본을 유지하고 있는 2,960가구)로, 이 가구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 가구 중에 2,852가구가 조사에 응답하여 응답률은 96.4%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조사원 20명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조사기간은 2011년 11월 5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15일간 실시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전화조사 결과에 대한 일차적인 분석방법은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소비자 동향조사’의 분석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개별 항목별 지수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다.

$$\text{심리 지수} = \frac{(\text{매우 긍정} \times 1.0 + \text{다소 긍정} \times 0.5 - \text{다소 부정} \times 0.5 - \text{매우 부정} \times 1.0)}{\text{전체 응답 가구수}} \times 100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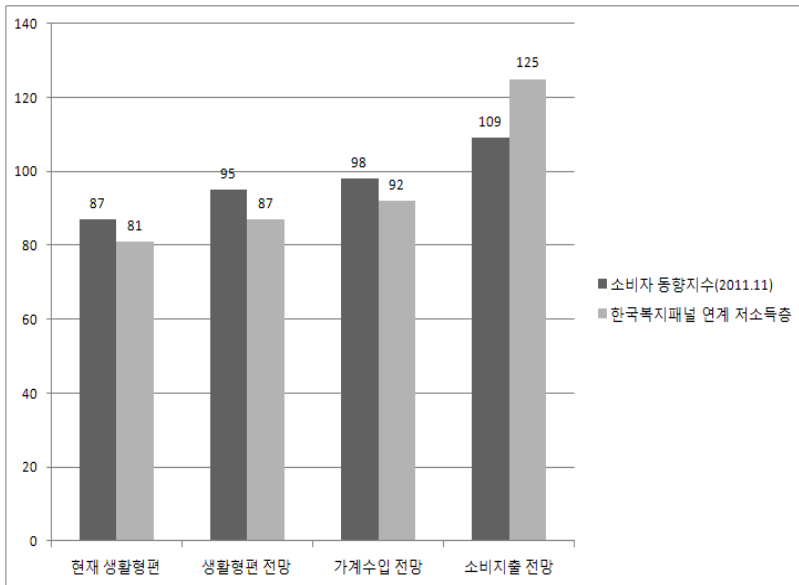
각 항목별 심리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100보다 높은 경우에는 각 지수의 인식 및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보다 낮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물가수준, 금리수준, 가계부채, 이자상환과 관련된 지수의 경우 100보다 높은 경우 물가, 금리, 가계부채, 이자상환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이 하락할 것을 의미한다.

제2절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경제상황 및 복지수준 인식과 전망 분석결과

1. 가구의 소비심리

가구의 소비심리 지표로는 1년 전과 비교한 현재의 생활형편, 현재와 비교한 1년 후의 생활형편, 가계수입, 소비지출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현재 생활형편에 대한 평가는 100보다 낮은 81로 생활형편에 어려움을 느끼는 가구가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구의 생활형편에 대한 전망, 가계수입의 전망은 각각 87, 92로 향후 1년간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이는 지난 2011년 11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소비자 동향지수의 값보다 모두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2]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생활형편, 가계수입 및 소비지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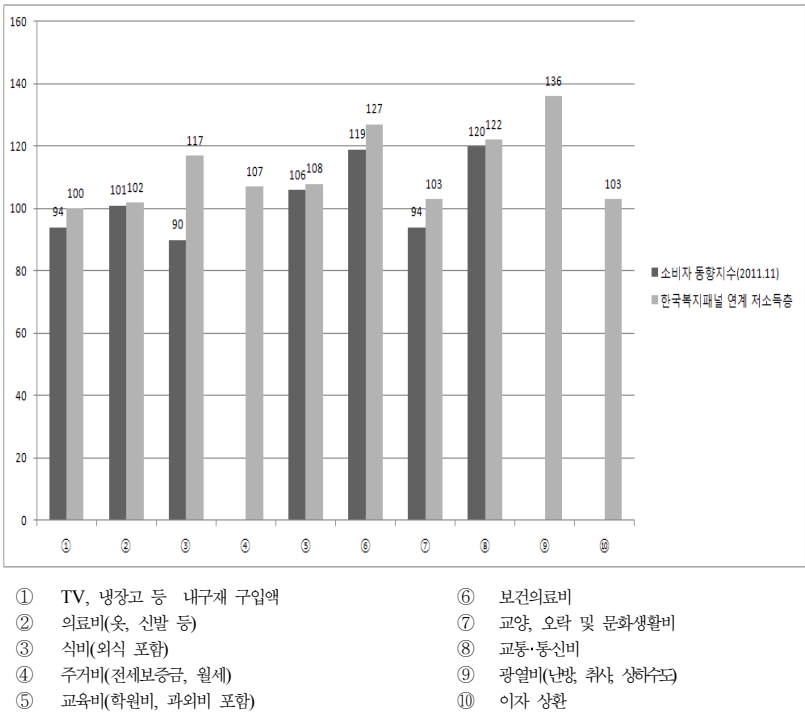


주: 소비자 동향지수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1년 11월 소비자 동향지수 보도자료(2011. 11. 24)를 활용함.

반면, 소비지출에 대한 전망은 125로 경기상황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한국은행의 소비자 동향지수(109)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값으로 현재와 비교하여 향후 1년 동안 가구의 소비지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수가 더 많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의 소비지출에 대한 의미는 경제상황의 개선에 따른 실제 소비지출의 증가에 대한 기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소비지출과 관련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소비지출에 대한 전망을 세부 비목별로 구분하여 한국은행의 소비자 동향지수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3]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세부 항목별 지출규모 전망



주: 1) 소비자 동향지수(2011.11)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1년 11월 소비자동향지수 보도자료(2011. 11. 24)를 활용함; 2) ④ 주거비, ⑨ 광열비, ⑩ 이자 상환은 소비자동향지수에서 조사되지 않음.

먼저, 광열비(난방, 취사, 상하수도)는 136으로 지출규모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보건의료비(127), 교통·통신비(122), 식비(외식 포함)(117) 순이었다. 이러한 지수에 대한 수치는 소비자 동향지수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으나, 식비(외식 포함)의 경우 소비자 동향지수는 90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수가 더 많았다. 그 밖에도 교육비(학원비, 과외비 포함)은 108, 주거비(전세보증금, 월세)는 107로 지출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승용차, TV, 냉장고 등 내구재 구입액은 100으로 분석되어 현재로부터 1년 후에도 비슷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소비자 동향지수 94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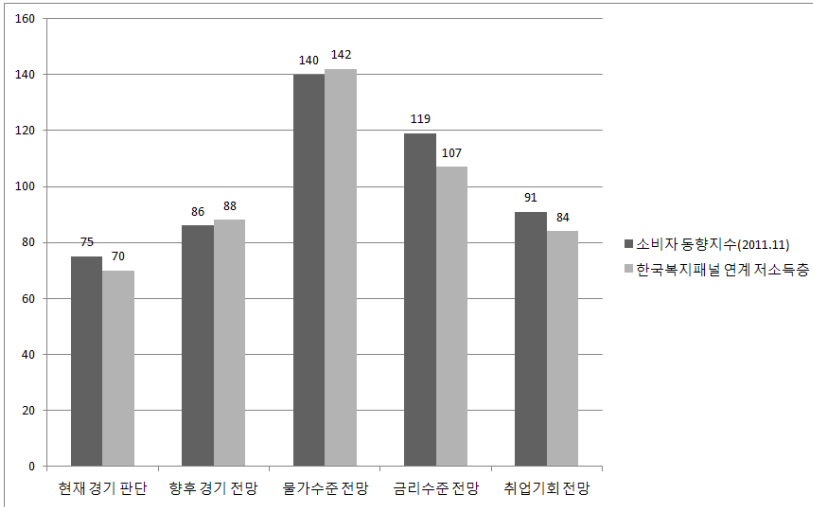
2.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및 전망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1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의 경기에 대한 평가와 현재와 비교하여 향후 1년 후 경기, 물가, 취업기회 및 금리수준 변화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현재의 경기 판단은 70으로 1년 전에 비해 부정적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는 소비자 동향지수의 75보다도 낮았다. 향후 1년 동안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도 100보다 낮은 88로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그 밖에도 물가수준, 금리수준에 대한 전망은 각각 142, 107로 모두 100보다 상회하였으며, 특히 물가수준 상승에 대한 전망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취업기회에 대한 전망은 100보다 낮은 84로 취업기회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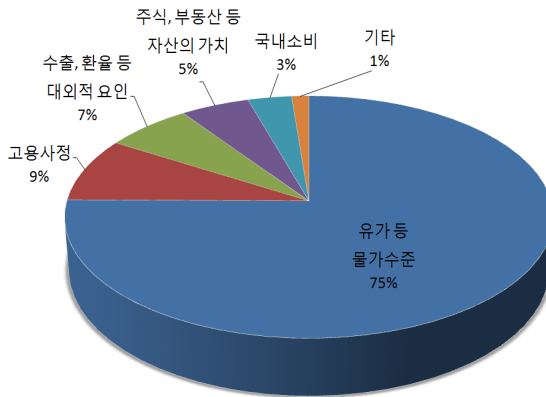
[그림 4-4]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경기, 물가, 취업기회, 금리수준 전망



주: 소비자 동향지수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1년 11월 소비자 동향지수 보도자료(2011. 11. 24)를 활용함.

향후 경기에 영향을 줄 주된 요인을 살펴보면, 유가 등 물가수준이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고용사정이 9%, 수출, 환율 등 대외적인 요인이 7%,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의 가치가 5%, 국내소비가 3%로 나타났다.

[그림 4-5]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경제상황 전망의 주된 영향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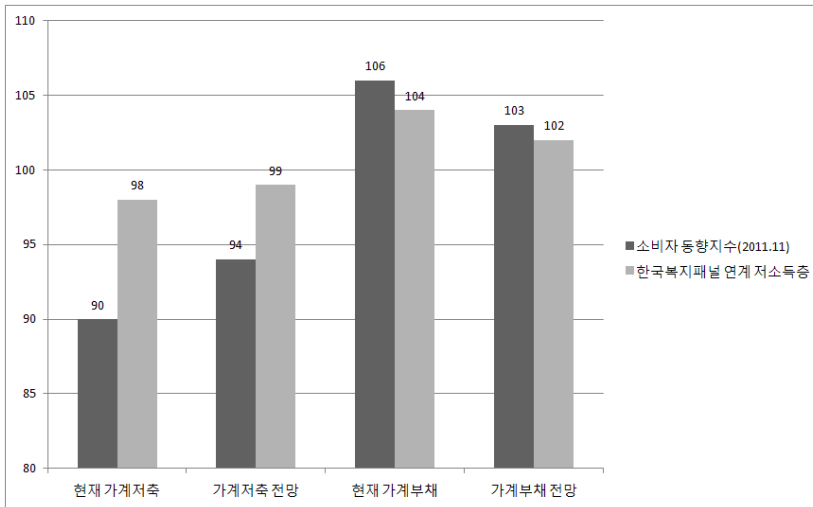


3. 자산가치에 대한 전망

다음으로 자산가치와 관련하여 가계저축 및 가계부채, 자산가치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현재의 가계저축의 평가는 98로 저축이 감소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현재로부터의 1년 후 가계저축의 전망 또한 99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 하였다. 그러나 이 수치는 소비자 동향지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가계부채 평가는 104로 가계부채가 늘어났다고 판단하였으며, 현재로부터 향후 1년 가계부채는 102로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수치에 대한 값은 소비자 동향지수보다 다소 낮게 전망하였다.

[그림 4-6]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가계저축 및 가계부채 인식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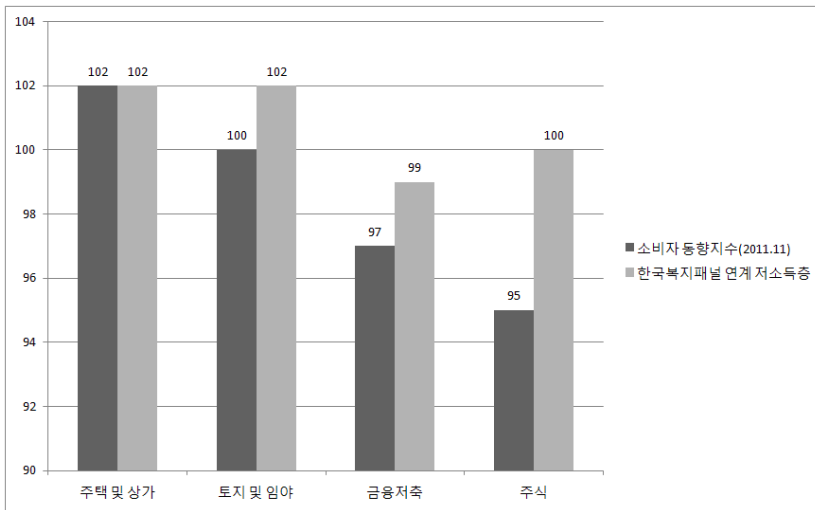


주: 소비자 동향지수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1년 11월 소비자 동향지수 보도자료(2011. 11. 24)를 활용함.

한편, 가계의 자산가치가 현재에 비해 1년 후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택 및 상가(임차한 주택 및 상가의 전세금, 보증금도 포함)와 토지 및 임야(현재와 1년 후의 부동산 시세차익에 대한 평가) 모두 102로 주택 및 상가의 자산가치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편, 금융저축(저축원금에 대해 발생하는 수익변동 평가)은 99로 다소 감소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주식은 100으로 비슷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소비자 동향지수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7]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자산가치 전망



주: 소비자 동향지수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1년 11월 소비자 동향지수 보도자료(2011. 11. 24)를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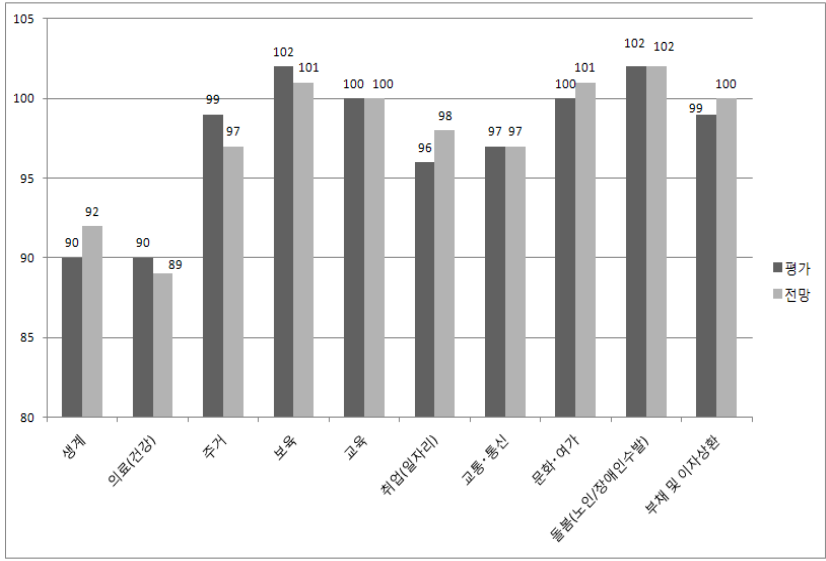
4. 복지영역별 체감도 및 욕구

복지영역별 체감도 및 욕구는 크게 가구의 생활과 관련된 복지영역과 복지수준 및 사회문제와 관련된 복지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먼저, 가구의 생활과 관련한 복지영역을 1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에 대한 평가는 보육, 돌봄(노인/장애인수발)은 100보다 약간 높은 102로 복지정책이 나아졌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교육과 문화·여가의 경우는 100으로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평가)하였다. 반면, 주거, 교통·통신, 취업(일자리), 생계, 의료(건강)은 10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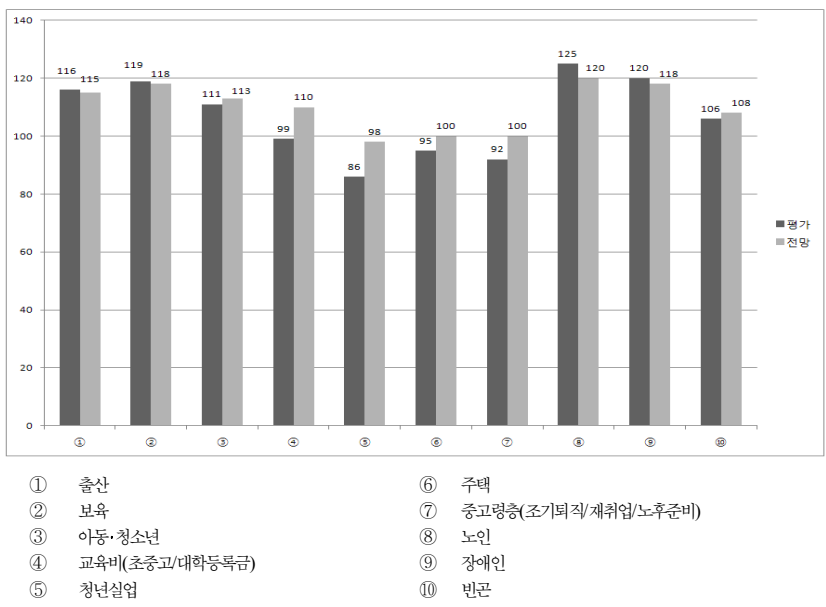
한편, 복지영역별 전망은 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돌봄(노인/장애인수발), 보육, 문화·여가, 교육이 100이상으로 비슷하거나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취업(일자리), 교통·통신, 주거, 생계, 의료(건강)은 100보다 낮게 나타나 부정적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의료(건강)에 대한 응답은 89로 가장 낮았다.

[그림 4-8]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생활 관련 복지영역별 인식 및 전망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생활과 관련한 복지영역별 평가와 전망을 비교하여 보면, 생계, 취업(일자리), 문화·여가만이 1년 전과 비교한 현재에 대한 인식보다 현재와 비교하여 향후 1년 동안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교육과 돌봄(노인/장애인수발)은 1년 전에 비교한 현재 수준이나 현재와 비교하여 1년 후 동일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의료와 주거 등의 복지영역에서는 현재보다는 향후 1년간 더욱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4-9]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복지수준 및 사회문제 관련 복지영역별 인식 및 전망



다음으로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 및 사회문제에 대한 복지영역은 개별 가구와 관련된 복지영역에 대한 평가 또는 전망보다는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복지수준이나 상황에 비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거나

다소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복지영역 중 노인에 대한 복지수준은 125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장애인, 보육, 출산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중고와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주택 문제, 베이비붐 세대로 대표되는 중고령층의 조기 퇴직, 재취업, 노후준비에 대해서는 100보다 낮게 나타나 부정적으로 인식(평가)하였으며, 특히, 최근의 심각한 청년실업 수준을 반영하여 이에 대한 인식은 86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서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와 비교하여 1년 후의 복지수준은 청년실업을 제외한 모든 복지영역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가장 높게 평가한 복지영역으로는 노인이 120, 보육, 장애인은 118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년실업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98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지수준 및 사회문제와 관련한 복지영역별 평가와 전망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청년실업과 교육비(초중고/대학등록금), 중고령층(조기퇴직/재취업/노후준비)는 현재의 평가보다 미래의 전망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영역은 1년 전과 비교한 현재에 대한 인식(평가)보다 현재와 비교하여 향후 1년 동안의 변화에 대한 전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심리적 동향지수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가계의 생활형편과 1년 후의 생활형편 전망, 가계수입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소비지출 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목적별 소비지출 규모는 광열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식비에 대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둘째, 현재의 경기에 대한 판단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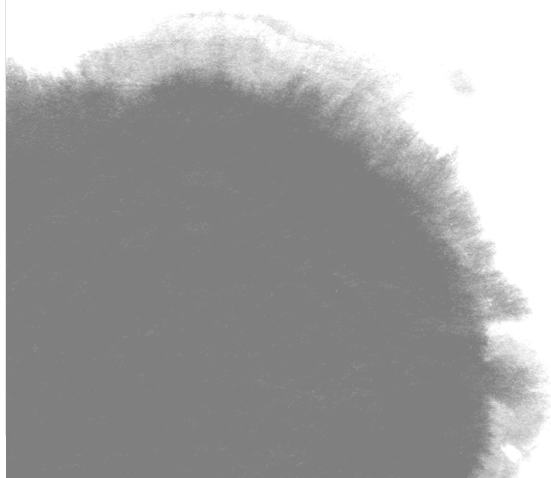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후 1년간의 경기 전망 또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물가수준과 금리수준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취업기회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가계의 저축에 대한 평가 및 전망은 줄어들 것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평가 및 전망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산가치에 대한 전망도 금융저축보다는 주택 및 상가, 토지 및 임야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복지영역별 평가 및 전망은 가구의 생활과 관련하여 생계, 취업(일자리), 문화·여가는 현재에 대한 평가보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나아질 것으로 분석된 반면, 주거, 의료(건강), 보육은 현재에 대한 평가보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더 낮게 나타났다. 한편, 복지수준 및 사회문제와 관련한 복지영역별로는 청년실업, 교육비, 중고령층은 현재에 대한 평가보다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훨씬 나아질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노인, 장애인은 1년 전과 비교한 현재에 대한 인식과 현재와 비교한 향후 1년에 대한 전망이 모두 긍정적이었으나 후자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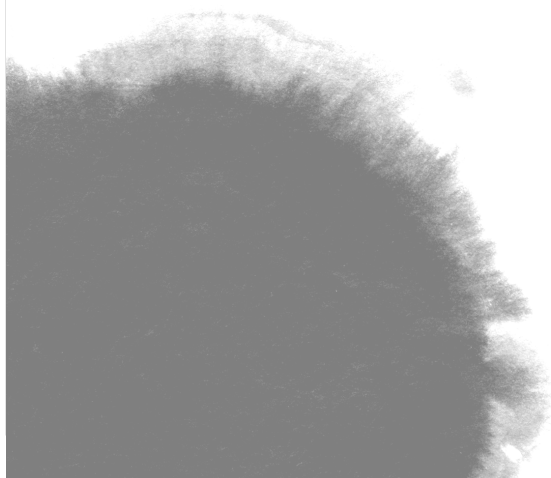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3부

질적 태널조사 자료공측 및 기초분석



05

저소득층 질적 패널조사 표본추출 및
가구 특성



제5장

저소득층 질적 패널조사

표본추출 및 가구특성

한국복지패널과 연계된 질적 패널자료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질적 패널조사 자료구축을 위한 표본 추출 과정 및 질적 패널조사 영역별 조사내용 및 조사과정과 기초분석 결과가 제시된 3부이다. 여기서는 앞서 2부에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구성된 양적 패널가구(2,960가구) 가운데 제6차 한국복지패널 조사과정에서 질적 패널조사 대상가구로 참여(녹취 및 자료제공)하는데 동의한 362가구 중에서 다양한 가구특성 분포를 반영하여 최종 질적 패널조사 대상 표본가구로 100가구를 추출한 과정과 가구의 특성을 제시한다.

제1 절 저소득층 질적 패널가구 표본추출

앞서 3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한국복지패널과 연계하여 전체 표본가구 중 1차 패널조사 기준으로 평균소득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2,960가구)를 구축하여 주요 특성에 대한 역동적 변화와 경제상황 및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과 전망에 대한 심리적 동향지수를 분석하여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서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패널자료 구축을 위하여 이러한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를 대상으로 2011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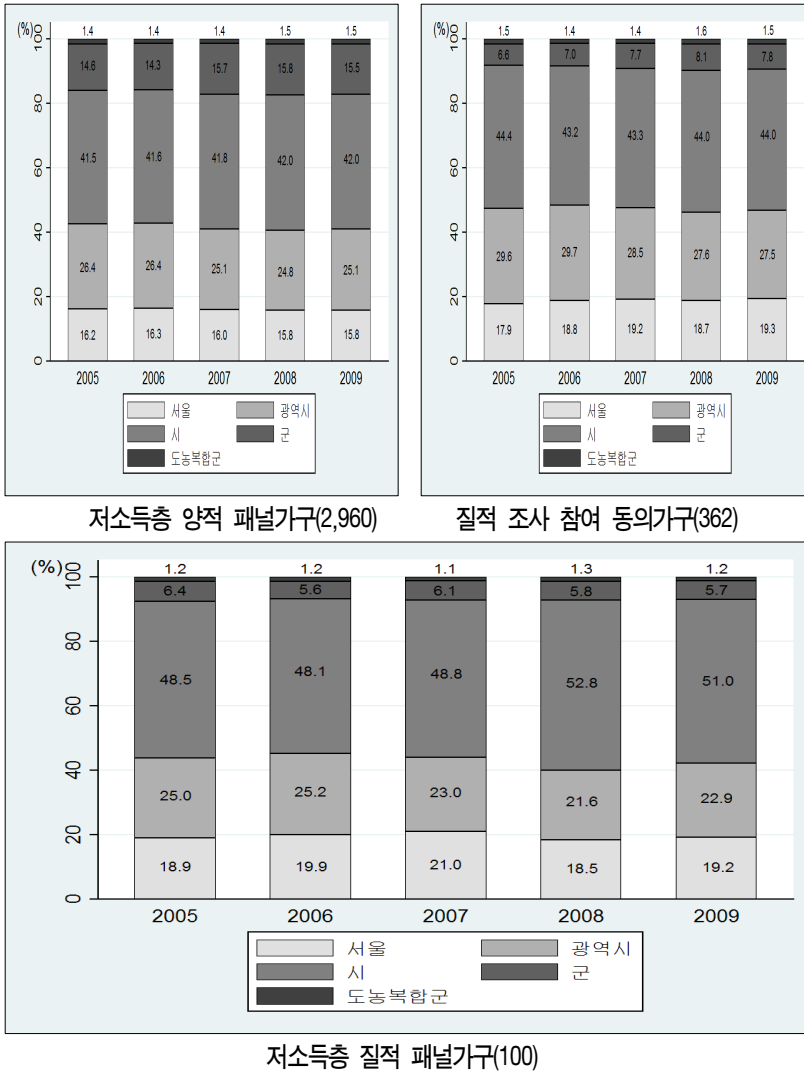
실시된 6차 한국복지패널 조사기간 중에 질적 패널조사 참여(심층 면접 내용 녹음 및 녹취자료 제공)에 대한 동의여부를 사전에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표본추출을 실시하기 전에 질적 패널조사 대상가구로 심층 면접에 참여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한 362가구를 확인하여 이들 가구의 특성을 중심으로 최종 질적 패널가구 표본추출을 위한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이처럼 질적 패널조사 참여의사가 있는 362가구의 주요 특성과 앞서 구축했던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의 주요 특성 및 가구구성(지역분포, 가구주 연령, 가구유형, 소득지위, 기초보장 수급여부, 가구원 중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유무 등)을 비교함으로써 최대한 유사한 분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유의하며 최종적으로 질적 패널조사 대상 표본가구로 100가구를 선정하였다. 최종 질적 패널가구로 선정된 100가구에 대해 1번부터 100번까지 질적 패널가구 고유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가구의 특성 및 자료수집과정에서 심층 면접대상 가구원의 결과와 실제 조사내용별 면접 가구원의 확인, 심층 면접횟수 및 전체 면접시간 등을 파악하는데 활용하였다.

제2절 저소득층 질적 패널가구의 특성 분석

여기서는 한국복지패널과 연계하여 구축한 저소득층 질적 패널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앞서 3장에서 살펴본 저소득층 양적 패널 2,960가구와 질적 패널조사에 참여 의사를 표시했던 362가구의 특성별 분포를 서로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각각의 집단별로 1~5차 한국복지패널 조사기간 중의 변화 추이 역시 비교하여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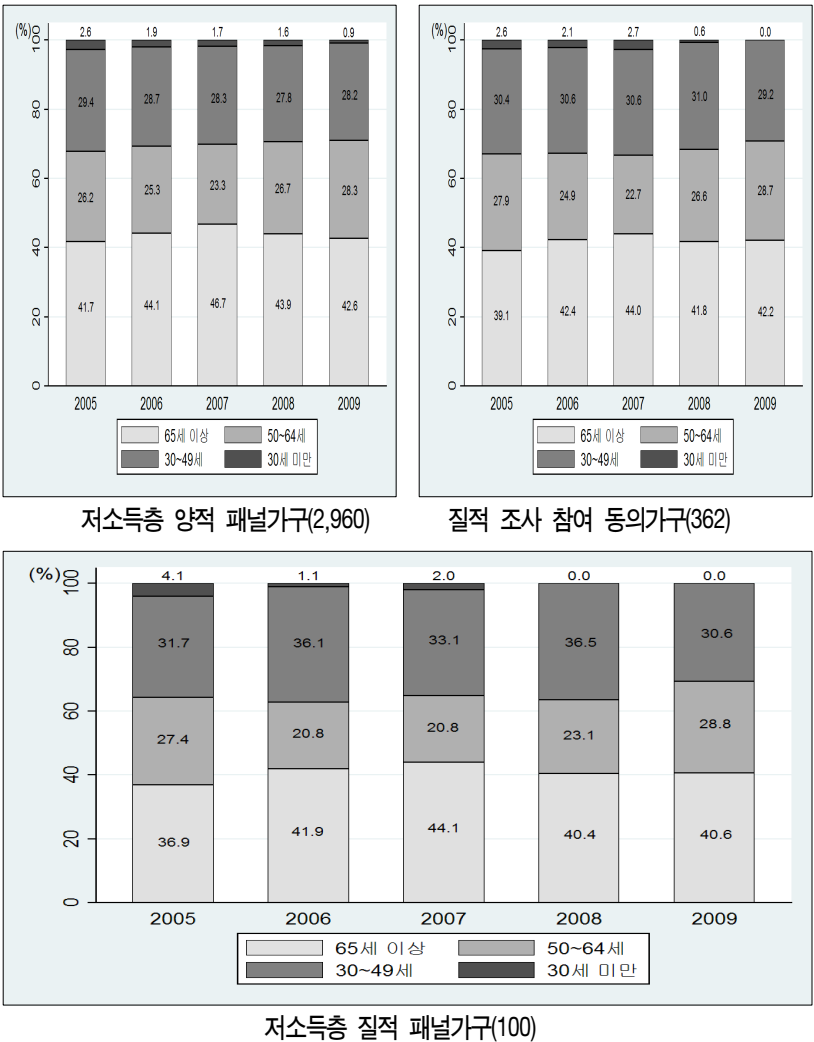
[그림 5-1]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지역별 분포 비교



먼저, 저소득층 질적 패널가구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시 지역이 50%를 약간 상회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광역시, 서울, 군 지역 순서로 나타났다. 이를 양적 패널가구의 분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시와 서울 지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농어촌 지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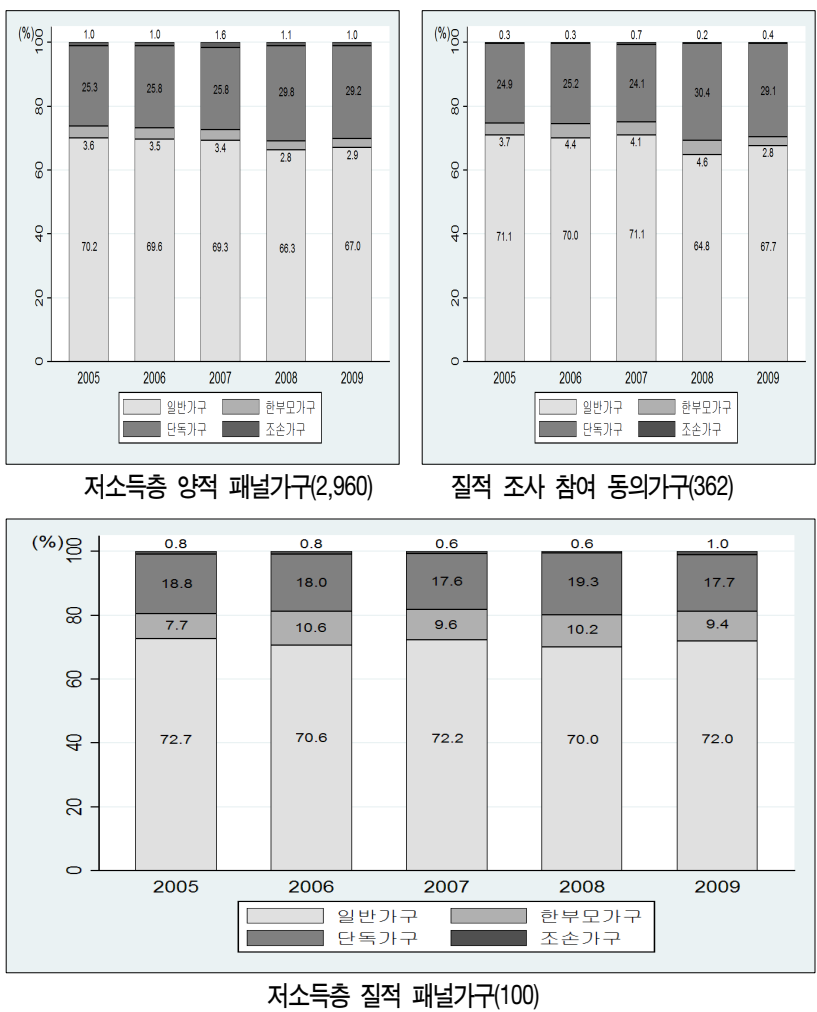
군이 10%p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질적 조사 참여의사를 표시한 가구가 노인가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에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질적 패널가구의 지역별 분포는 질적 조사 참여 동의가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림 5-2]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가구주 연령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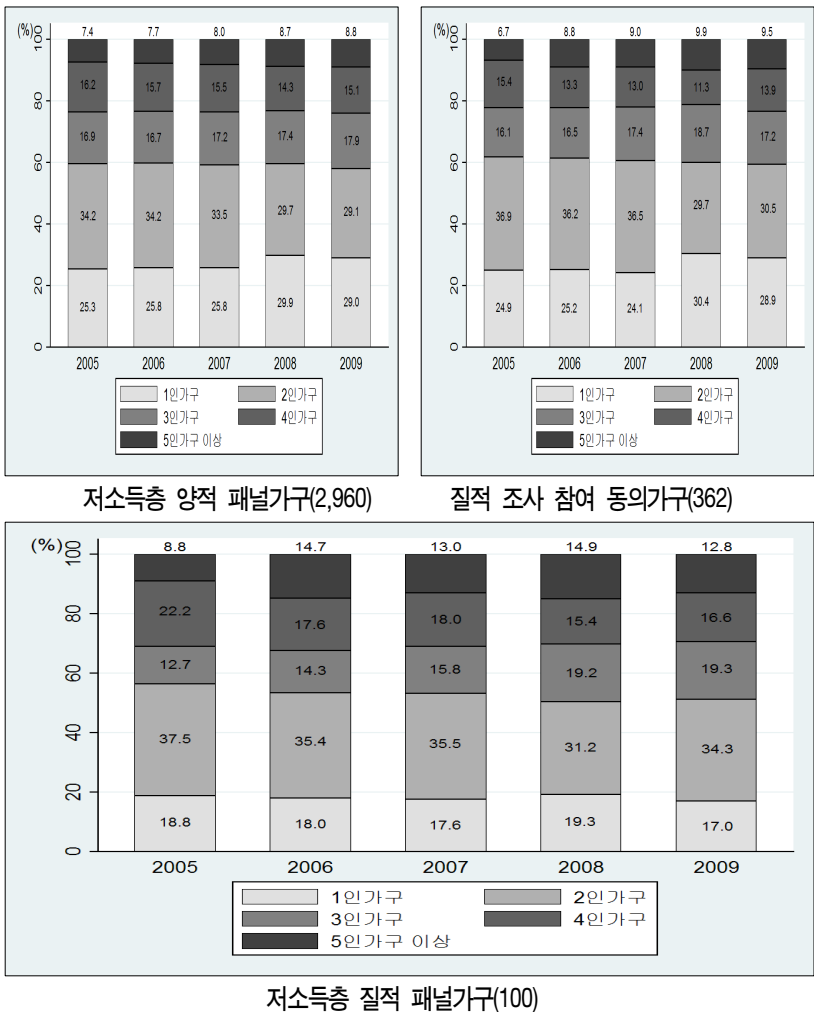
다음으로 질적 패널가구의 가구주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가구가 약 40%로 가장 높으며, 30~49세와 50~64세인 경우가 약 30%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를 양적 패널가구와 질적 조사 참여 동의가구와 비교할 경우 노인가구가 2~3%p 정도 낮았고 30~64세인 경우는 다소 높았지만 전반적으로 유사한 분포를 나타냈다.

[그림 5-3]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가구유형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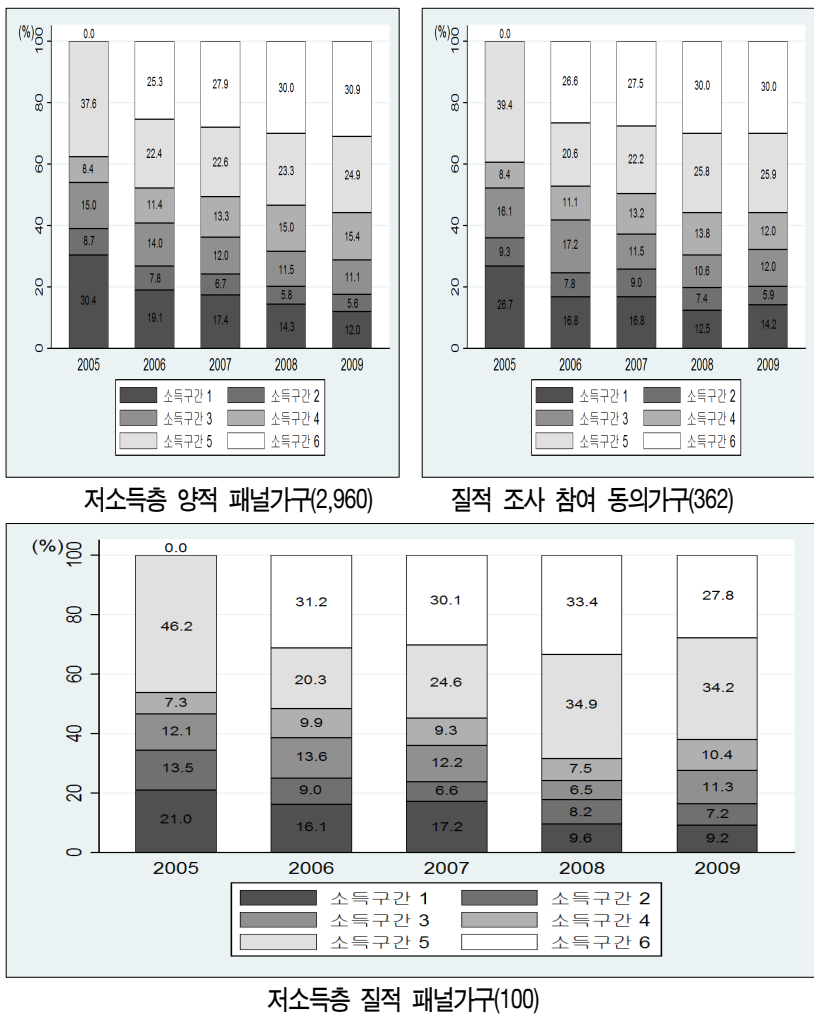
다음으로 가구유형 분포를 살펴보면, 저소득층 질적 패널가구의 경우 단독가구의 비중이 양적 패널가구 및 질적 조사 참여 동의가구에 비해 약 10%p 이상 낮았고 일반가구와 한부모가구의 비중이 각각 5~7%p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질적 패널조사 영역과 가구원별 조사내용을 고려하여 단독가구보다 30~50대 가구주와 아동으로 구성된 일반가구 또는 한부모가구를 상대적으로 많이 추출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5-4]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가구원수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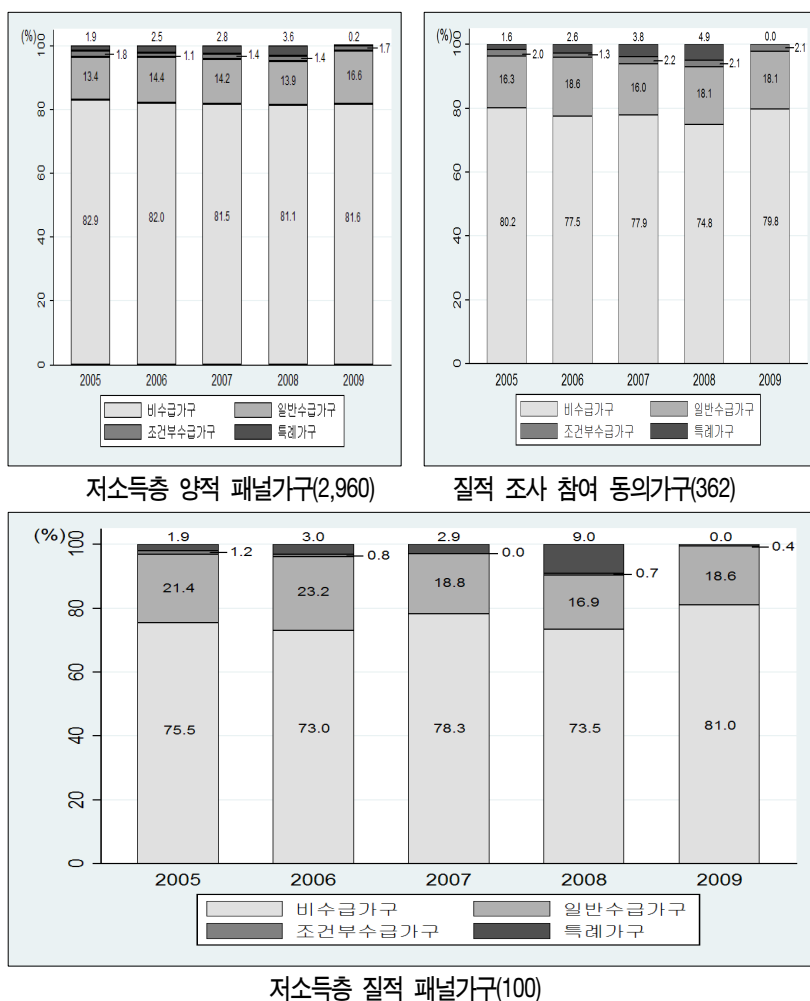
한편, 이와 같은 가구유형 분포에 따라 가구규모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질적 패널가구의 1인 가구 비중은 20%에 미치지 않아 양적 패널가구 및 질적 조사 참여 동의가구의 분포에 비해 약 10%p 이상 낮게 나타났다. 반면, 2인 가구는 3~5%p, 3인 이상 가구는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5-5]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소득지위 분포 비교



다음으로 질적 패널가구의 소득지위¹³⁾ 분포를 살펴보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는 약 2~3%p 낮은 반면, 중위소득 50%~평균소득 60% 구간에 해당하는 가구는 상대적으로 높고 평균소득 60%를 초과하는 가구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질적 패널가구의 소득지위 분포는 나머지 두 집단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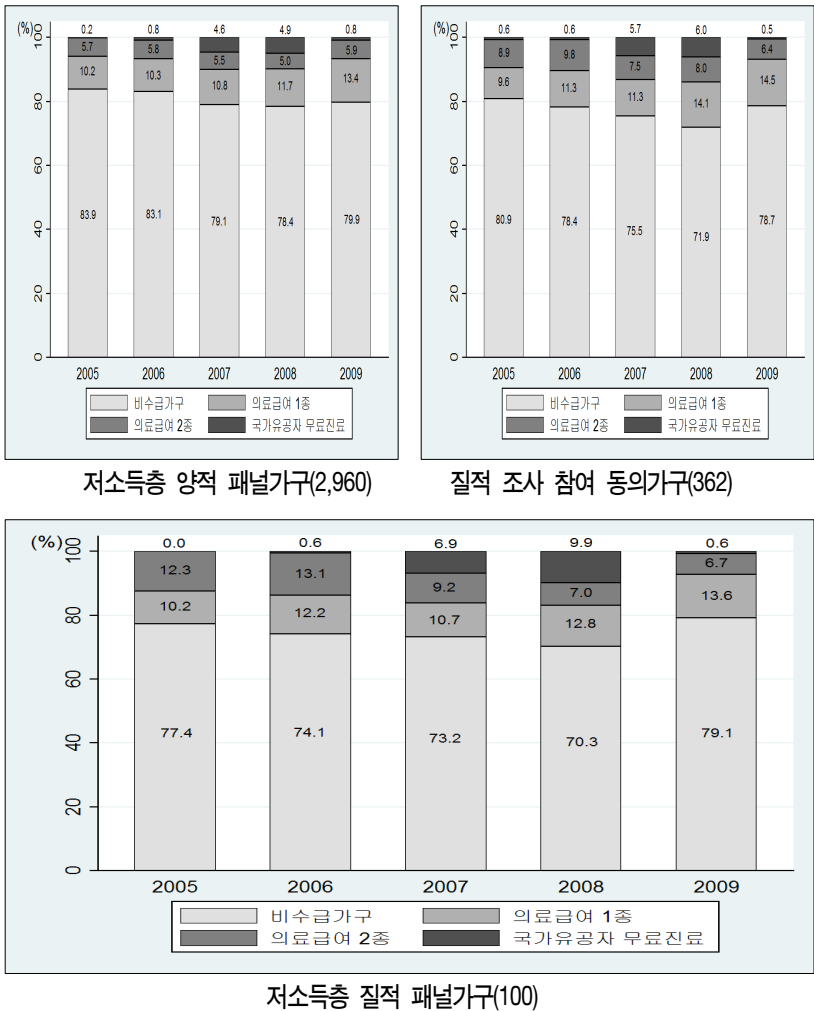
[그림 5-6]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기초보장 수급여부 분포 비교



13) 앞서 3장에서 제시한 소득구간에 따른 소득지위 구분과 동일한 구간으로 나누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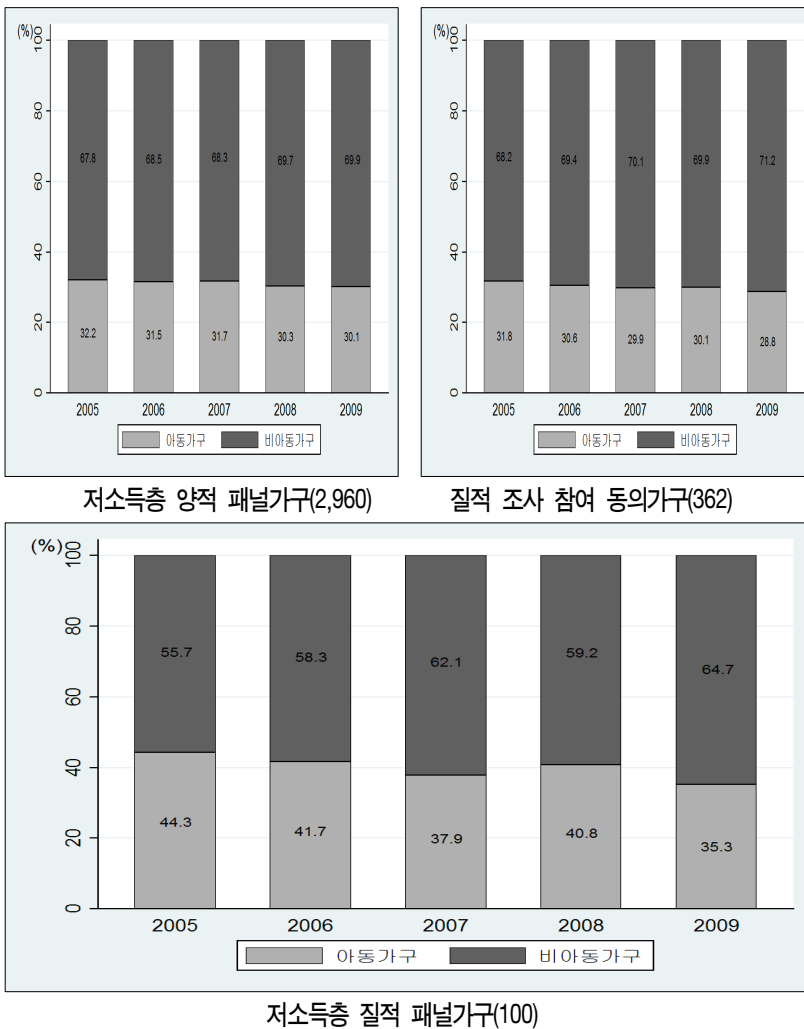
다음으로 저소득층 질적 패널가구의 기초보장 수급여부와 의료급여 수급여부의 분포를 각각 양적 패널가구 및 질적 조사 참여 동의가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두 가지 분포 모두 세 집단이 거의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질적 패널가구의 약 19%가 기초보장 수급가구이며, 의료급여 수급가구 역시 약 20%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7]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의료급여 수급여부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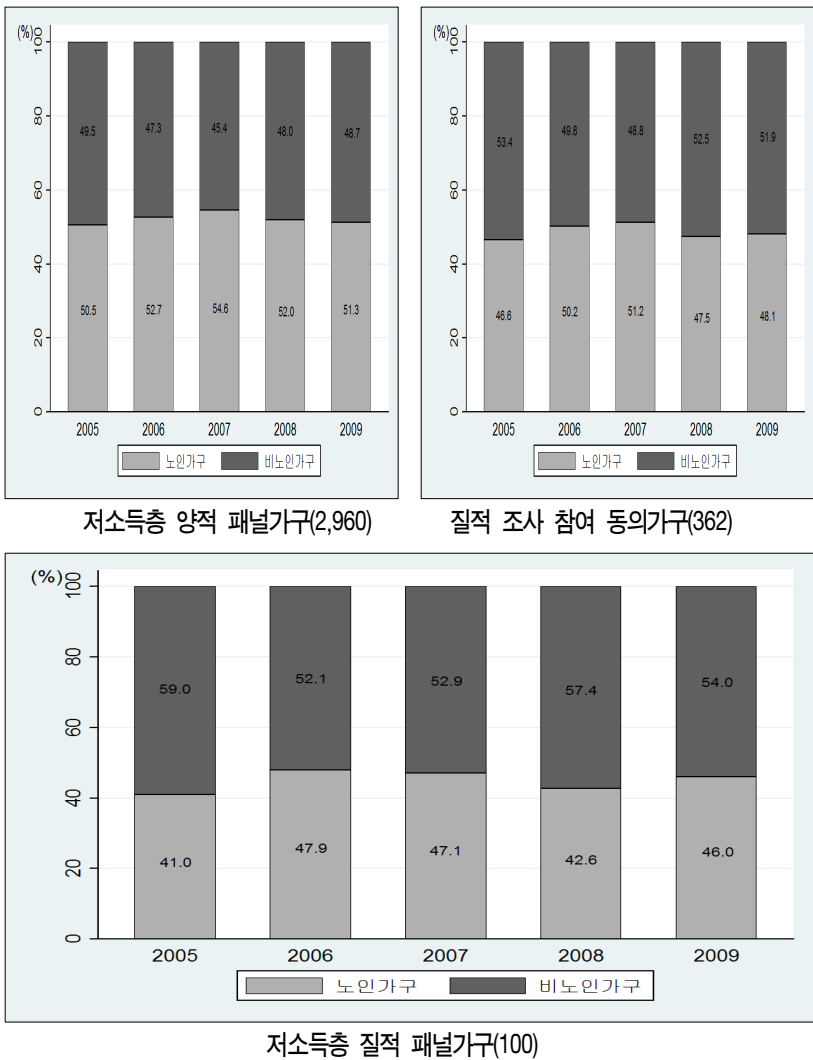
다음으로 아동가구원이 있는 가구 비율은 약 40% 내외로 양적 패널 가구와 질적 조사 참여 동의가구에 비해 약 8~10%p 높게 추출되었다. 질적 조사 참여 동의가구 분포는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와 거의 유사하지만 이동과 청소년 가구원에 대한 질적 조사대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가구를 다소 높게 추출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8]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아동가구원 유무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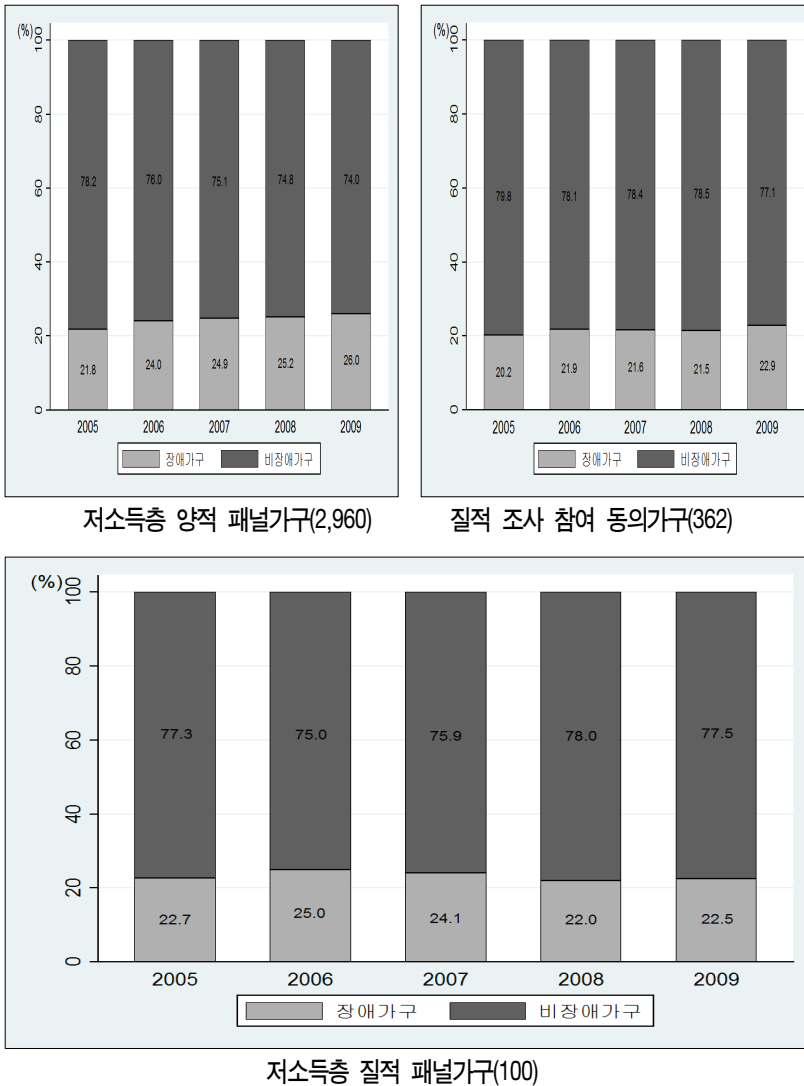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질적 패널가구(100가구) 중 노인 및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각각 약 47%와 22%에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노인가구의 경우 양적 패널가구에 비해 약 5%p 낮은 것이며, 장애인가구의 경우 나머지 두 집단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그림 5-9]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노인가구원 유무 분포 비교



[그림 5-10] 저소득층 양적 & 질적 패널가구의 장애인가구원 유무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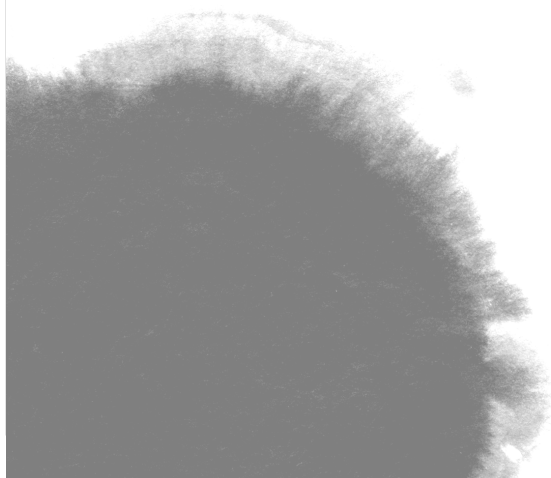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이상에서 한국복지패널과 연계하여 구축한 저소득층 질적 패널가구의 특성 분포를 저소득층 양적 패널가구(2,960가구)와 질적 패널조사 참여 동의가구(362가구)와 비교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양한 조사내용에 대한 심층 면접을 수행하여 질적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인 가구주인 단독가구를 상대적으로 적게 표본 추출한 반면, 아동이 있는 30~50대 가구주의 일반가구를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추출한 부분을 제외한다면 최종적으로 선정된 저소득층 질적 패널가구 특성별 분포뿐만 아니라 1~5차 한국복지패널 조사기간 중 나타난 변화 추이 역시 나머지 두 집단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06

저소득층 질적 태널조사 자료수집과정 분석

제6장

저소득층 질적 패널조사

자료수집과정 분석

여기서는 저소득층 질적 패널조사 대상 100가구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질적 자료가 수집된 전 과정 및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질적 패널조사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구직/근로경험), 빈곤 및 탈수급 관련 역동성, 가족에 대한 인식, 배우자와의 부부관계, 부모-자녀간의 관계 등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 정신건강 및 심리상태, 생활만족도 및 행복 체감정도를 공통적으로 조사했으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빈곤 및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학교생활, 꿈과 희망을, 여성 가구원을 대상으로 성차별 경험, 출산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참여와 노화에 대한 인식 등을,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한 영향 및 주변의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질적 패널가구별로 1~3회 방문을 실시하여 총 3~6시간 정도의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녹음파일과 약 5,000 페이지 분량에 이르는 녹취록으로 구축하고 개방형 코딩 및 기초분석을 실시하여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특히, 질적 패널조사 수행을 위한 연구 설계 및 조사내용 구성과 면접지침서 작성, 심층 인터뷰 수행을 위한 조사원 교육, 그리고 조사영역별 주요내용과 기초분석 방법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질적 패널자료 구축과 조사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윤리적 이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제1 절 질적 패널자료 수집과정

본 연구에서 진행한 전체적인 질적 패널자료 수집절차와 과정을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설계와 면접지침서 작성 등 준비 과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인 질적 패널조사를 위해 구성된 연구진은 10명이었다. 10명의 연구진이 질적 패널자료 구축 및 관련 연구수행을 위하여 처음 회의를 개최한 것은 7월 19일이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초 별도의 양적 조사를 통해 저소득층 중심의 양적 패널을 구축하고자 했던 계획이 6월 중간보고를 통해 변경되어 한국복지패널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양적 패널과 질적 패널을 구축하는 것으로 결정된 직후, 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와 공동으로 질적 연구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심으로 연구진을 구성함에 따라 시작된 것이다. 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저소득층 질적 패널 구축을 위한 연구 설계의 틀을 구성하였고, 이에 따라 각 연구자들이 세부 연구 및 조사영역을 분담한 후에, 각자 질적 조사에 필요한 연구 질문들을 만들고 몇 차례의 상호 논의의 과정을 통해 조사영역별 내용 및 면접 지침서를 작성하여 확정된 것은 10월 6일이었다.

이러한 면접 지침서를 확정하기 이전에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 교육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질적 조사의 내용과 면접 지침서가 확정된 이후에 다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사원 교육을 마친 뒤 곧바로 사전에 추출된 질적 패널가구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이 시작되었다. 심층 면접을 통해 질적 자료의 수집이 이루어진 기간은 10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총 33일이었다. 심층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면접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자료수집 수준을 조율하며, 조사원들에게 면접에 대한 슈퍼비전을 주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면접조사 코디네이터를 별도로

배치한 상태에서 조사를 수행하였다. 면접조사 코디네이터는 조사원들이 심층 면접 진행과정에서 올린 녹음파일을 듣거나 면접내용에 대한 요약 자료를 읽고 검토한 후 개별 조사원들에게 다음 면접에 대한 의견이나 조언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모든 심층 면접은 녹음이 가능한 전용기기를 활용하여 녹음되었으며, 조사원들이 면접을 수행한 뒤에는 바로 녹음파일을 업로드하고 녹취록 작성 작업을 별도로 진행하였다. 녹취록 작성 기간은 10월 10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47일이 소요되었으며, 전체 질적 패널가구(100가구)에 대한 녹취록은 약 5,000페이지의 분량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자료로 구축되었다. 순차적으로 작성된 녹취록은 일관된 양식에 따라 재편집된 뒤에 연구진에게 다시 전달되었다. 연구자들은 11월 25일 회의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기본적인 사항 및 주요 특성을 공유한 후 역할 분담을 실시하였고, 제공된 녹취록을 바탕으로 각각의 조사영역별로 12월 16일 까지 3주간 개방형 코딩을 중심으로 기초분석을 실시하였다.

제2절 질적 패널자료 수집방법

1. 심층 면접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질적 패널자료 수집방법은 심층 면접이다.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기술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조사원들이 연구 참여가구(질적 패널가구)와 사전에 연락을 취하고 방문일정을 확인한 후 개별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반 구조화된 면접 지침서를 가지고 개별 가구당 1~3차례에 걸쳐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방법과 관련하여, 여기에서는 질적 자료 구축을 위해 투입된 조사원, 개별적인 가정 방문,

반 구조화된 면접, 심층 면접의 수행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질적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조사원들은 크게 두 집단으로 구분된다. 한 집단은 질적 패널조사를 위해 모집된 질적 연구에 대한 강의 및 조사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원생 11명이며, 다른 집단은 1~6차까지 수행된 양적 패널조사에서 조사 및 조사원에 대한 지도를 수행했던 경험이 풍부한 기존 조사원 5명이다. 전자의 경우 모집 단계부터 질적 연구 수행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므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전에 질적 조사를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후자의 경우 질적 조사를 수행한 경험은 없지만 기존에 이미 여러 차례 패널 가구(연구 참여가구)와 함께 다양한 패널조사를 수행하여 왔으며 이 연구에서 활용한 면접 지침서가 반 구조화되었기 때문에 질적 조사를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결과적으로 전자에 해당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원생들은 최소 2사례부터 최대 10사례까지 총 74사례를 맡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후자에 해당하는 기존 한국복지패널 조사원은 최소 4사례부터 최대 6사례까지 총 26사례를 대상으로 질적 조사를 수행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현장은 주로 연구 참여가구들의 집이었다. 조사원들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였고, 응답자들과 1대 1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다만, 조사원들 중에 남성이 유일하게 한 명 있었는데 이를 불편하게 여긴 연구 참여가구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사원을 교체한 경우도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반 구조화된 면접 지침서를 활용하여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들이 반복적인 논의를 통해 면접 지침서를 구성하였고, 조사원들은 개별 가구방문을 하러 가기 전에 이 면접 지침서를 숙지하고 가져가서 대체로 면접 지침서에 충실하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다. 이처럼 반 구조화된 면접 지침서를 활용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론에 의해 질적 패널 구축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복지패널이라는 기존 양적 패널자료와 연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연구 설계도 저소득층의 양적 패널연구 설계와 병행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설문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고려하여 연구영역 및 조사내용들을 구성하다보니 전체 조사영역이 광범위해졌고 이 때문에 전통적인 질적 연구에서의 깊이보다는 넓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질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질적 패널 구축을 시도하면서도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여 제한된 시간 내에 자료수집과 분석을 마쳐야 한다는 한계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100가구에 이르는 연구 참여가구들을 대상으로 16명의 조사원들이 자료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면접 내용을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정해둘 필요가 있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 구조화된 면접보다는 반 구조화된 면접 방식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시도하였다. 결과적으로, 전체 연구대상가구(100가구) 중 65가구는 2회 면접을 실시하였고, 32가구는 1회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3가구가 3회에 걸쳐 장시간 면접을 수행하였다. 대부분의 질적 패널가구가 2회만 면접을 수행하였고, 상당수는 1회 면접에 그쳤기 때문에 어떠한 점에서 심층 면접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의미와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중심으로 질적 조사영역별 조사내용 및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즉, 비 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질문 - 답변 - 세부 질문’ 형식으로 진행하기보다 처음부터 조사영역별로 질문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광범위한 질적 패널가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해서 다양한 답변을 듣고 이를 통합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표 6-1〉 질적 패널 참여가구별 특성 및 심층 면접 응답자

패널 참여 가구 ID	지역	가구주		응답자			가구 원수	가구원 구성	가구형태	수급
		성별	연령	가구주와 관계	성별	연령				
1	광역시	남	60세	본인 자녀	남 여	60세 17세	2	중고등	부자가구	기초보장
2	광역시	남	68세	본인	남	68세	4	노인	일반가구	
3	광역시	여	83세	본인	여	83세	1	노인	단독가구	
4	광역시	남	71세	본인	남	71세	2	노인	일반가구	
5	광역시	남	65세	본인 배우자	남 여	65세 63세	2		일반가구	
6	시	여	41세	본인	여	41세	1		단독가구	
7	광역시	여	54세	본인	여	54세	2	중고등	모자가구	기초보장
8	광역시	여	69세	본인	여	69세	1	노인	단독가구	
9	광역시	여	70세	본인	여	70세	1	노인	단독가구	기초보장
10	광역시	여	72세	본인	여	72세	1	노인	단독가구	
11	광역시	여	72세	본인	여	72세	1	노인	단독가구	기초보장
12	광역시	남	38세	배우자	여	38세	3	미취학	일반가구	
13	광역시	여	43세	본인 자녀 배우자의 모	여 여 여	43세 15세 78세	3	노인/초등	일반가구	
14	광역시	남	53세	본인	남	53세	4		일반가구	
15	광역시	남	80세	본인	남	80세	2	노인	일반가구	
16	광역시	남	59세	배우자	여	52세	3		일반가구	
17	광역시	남	71세	본인 배우자	남 여	71세 61세	2	노인	일반가구	
18	시	여	75세	본인	여	75세	1	노인	단독가구	기초보장

패널 참여 가구 ID	지역	가구주		응답자			가구 원수	가구원 구성	가구형태	수급
		성별	연령	가구주와 관계	성별	연령				
19	시	여	44세	본인 자녀 자녀	여 남 남	44세 13세 11세	3	초등	모자가구	
20	시	남	44세	배우자 자녀	여 여	40세 11세	4	미취학/초등	일반가구	
21	시	여	50세	본인 자녀 자녀	여 여 남	50세 19세 13세	4	초등/중고등 장애인	일반가구	
22	시	여	79세	본인	여	79세	1	노인	단독가구	기초보장
23	시	여	89세	본인	여	89세	1	노인	단독가구	
24	시	여	46세	본인 자녀 자녀	여 남 남	46세 15세 10세	3	초등/중고등	모자가구	기초보장
25	시	여	78세	본인	여	78세	5	노인	일반가구	
26	시	여	78세	본인	여	78세	2	노인	일반가구	
27	시	여	47세	본인	여	47세	2	중고등	모자가구	의료급여
28	시	남	40세				5	미취학/초등/ 중고등	일반가구	
29	시	남	36세	배우자 자녀	여 남	33세 13세	4	미취학/초등	일반가구	
30	시	남	54세	본인 배우자	남 여	54세 60세	7	미취학/초등	일반가구	
31	도농복합	남	63세	본인 배우자	남 여	63세 66세	3	장애인	일반가구	기초보장
32	도농복합	남	55세	배우자 자녀	여 여	49세 10세	5	초등/중고등	일반가구	
33	도농복합	남	82세	본인 배우자	남 여	82세 70세	3	노인 초등	소년소녀 가구	
34	도농복합	남	72세	본인 배우자	남 여	72세 70세	2	노인	일반가구	

패널 참여 가구 ID	지역	가구주		응답자			가구 원수	가구원 구성	가구형태	수급
		성별	연령	가구주와 관계	성별	연령				
35	도농복합	남	76세	본인 배우자	남 여	76세 73세	2	노인	일반가구	
36	광역시	남	50세	본인 자녀 가구주의 모	남 남 여	50세 17세 80세	4	노인 중고등	일반가구	
37	광역시	남	53세	본인 가구주의 모	남 여	53세 71세	2	노인	일반가구	
38	광역시	남	87세	본인 배우자	남 여	87세 80세	2	노인	일반가구	
39	광역시	남	64세	배우자	여	55세	3		일반가구	
40	광역시	남	50세	배우자 자녀 자녀	여 남 여	50세 18세 8세	5	미취학/중고등	일반가구	
41	광역시	여	70세	본인 손녀	여 여	70세 18세	2	노인	소년소녀 가구	기초보장
42	광역시	남	75세	본인	남	75세	2	노인	일반가구	
43	군	남	67세	본인	남	67세	3		일반가구	
44	군	남	75세	본인	남	75세	2	노인	일반가구	
45	군	남	72세	배우자	여	65세	2	노인/장애인	일반가구	
46	시	남	42세	본인 자녀 자녀	남 여 여	42세 14세 9세	4	초등	일반가구	
47	군	여	70세	본인	여	70세	3	노인 중고등	소년소녀 가구	기초보장
48	군	남	76세	배우자 손자	여 남	66세 18세	3	노인 중고등	소년소녀 가구	
49	시	여	83세	본인	여	83세	1	노인	단독가구	기초보장

패널 참여 가구 ID	지역	가구주		응답자			가구 원수	가구원 구성	가구형태	수급
		성별	연령	가구주와 관계	성별	연령				
50	시	남	53세	본인 자녀 자녀	남 남 여	53세 19세 13세	4	초등/중고등	일반가구	
51	시	남	73세	본인 배우자	남 여	73세 70세	2	노인	일반가구	
52	광역시	여	34세	본인	여	34세	2	초등	모자가구	
53	광역시	여	58세	본인	여	58세	2		일반가구	기초보장
54	광역시	남	76세	본인 배우자	남 여	76세 75세	2	노인	일반가구	
55	광역시	여	65세	본인	여	65세	1		단독가구	기초보장
56	광역시	여	73세	본인	여	73세	2	노인/장애인	일반가구	기초보장
57	광역시	여	83세	본인	여	83세	1	노인	단독가구	
58	광역시	남	37세	본인 배우자	남 여	37세 33세	3	미취학	일반가구	
59	도농복합	남	71세	본인 배우자	남 여	71세 62세	3	노인	일반가구	
60	시	남	70세	본인 배우자	남 여	70세 65세	2	노인/장애인	일반가구	
61	시	남	47세	배우자 가구주의 모	여 여	44세 70세	5	노인 중고등	일반가구	
62	시	남	81세	배우자	여	75세	2	노인/장애인	일반가구	기초보장
63	군	남	65세	배우자	여	55세	2		일반가구	
64	군	남	73세	본인 배우자	남 여	73세 64세	2	노인/장애인	일반가구	
65	군	남	72세	본인 배우자	남 여	72세 71세	2	노인	일반가구	
66	군	여	63세	본인 손자	여 남	63세 16세	2	중고등	소년소녀 가구	기초보장

패널 참여 가구 ID	지역	가구주		응답자			가구 원수	가구원 구성	가구형태	수급
		성별	연령	가구주와 관계	성별	연령				
67	광역시	남	51세	본인	남	51세	2		일반가구	
68	광역시	남	57세	본인 배우자	남 여	57세 51세	3		일반가구	기초보장
69	군	여	74세	본인	여	74세	1	노인	단독가구	
70	광역시	남	73세	본인 배우자	남 여	73세 70세	2	노인/장애인	일반가구	
71	광역시	여	39세	본인 자녀	여 여	39세 13세	2	중고등	모자가구	기초보장
72	광역시	남	42세	배우자 자녀 자녀	여 남 남	39세 9세 9세	4	초등	일반가구	
73	시	여	57세	본인	여	57세	1		단독가구	
74	광역시	여	73세	본인	여	73세	1	노인/장애인	단독가구	
75	광역시	남	84세	자녀	여	50세	5	노인 미취학	일반가구	
76	광역시	여	36세	본인 자녀	여 여	36세 10세	2	초등	모자가구	기초보장
77	광역시	여	47세	본인	여	47세	3	미취학	일반가구	기초보장
78	시	남	78세	본인	남	78세	2	노인	일반가구	
79	시	여	64세	본인	여	64세	1		단독가구	기초보장
80	군	남	59세	본인	남	59세	1		단독가구	의료급여
81	광역시	남	38세	본인 배우자	남 여	38세 38세	4	미취학	일반가구	
82	군	남	76세	본인 배우자	남 여	76세 76세	2	노인/장애인	일반가구	
83	시	여	65세	본인	여	65세	2		일반가구	
84	군	여	77세	본인	여	77세	1	노인	단독가구	

패널 참여 가구 ID	지역	가구주		응답자			가구 원수	가구원 구성	가구형태	수급
		성별	연령	가구주와 관계	성별	연령				
85	시	남	77세	본인 배우자	남 여	77세 77세	2	노인/장애인	일반가구	
86	시	남	36세	배우자 자녀	여 여	33세 10세	5	초등	일반가구	
87	군	남	80세	본인 배우자	남 여	80세 79세	2	노인/장애인	일반가구	
88	광역시	남	63세	본인 배우자	남 여	63세 61세	2		일반가구	기초보장
89	광역시	남	70세	본인 배우자	남 여	70세 65세	2	노인	일반가구	
90	광역시	남	41세	배우자 자녀 자녀	여 남 여	37세 11세 9세	5	초등	일반가구	
91	광역시	남	70세	본인 배우자	남 여	70세 65세	2	노인/장애인	일반가구	
92	시	남	53세	본인	남	53세	3	정신장애	일반가구	
93	시	여	83세	본인	여	83세	3	노인/장애인	일반가구	
94	군	남	73세	본인 배우자 자녀	남 여 남	73세 68세 40세	3	노인	일반가구	
95	군	남	74세	본인 배우자	남 여	74세 70세	3	노인/장애인	일반가구	
96	시	남	64세	본인 배우자	남 여	64세 59세	3		일반가구	
97	시	여	76세	본인 자녀	여 여	76세 53세	2	노인/장애인	일반가구	
98	시	여	39세	본인 자녀 자녀	여 여 남	39세 14세 11세	4	초등/중고등	모자가구	
99	시	여	70세	본인	여	70세	1	노인	단독가구	기초보장
100	시	남	79세	배우자	여	75세	2	노인	일반가구	

2. 조사영역별 주요내용 및 심층 면접 지침서 구성

면접지침서에 포함된 조사 영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 영역을 대분류하면, 크게 6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여기에는 근로, 빈곤과 탈수급 관련 역학적 특성, 가족, 생활습관과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생활실태 만족과 의식, 인구특성별 가구원 조사가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조사영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사원과 연구참여자의 편안한 관계형성과 위밍업을 위해 일상생활 패턴에 대한 도입질문을 하도록 하였다. 소분류된 하위영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 영역은 크게 직장경험/구직과정과 고용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직장경험/구직과정은 직장경험과 이직경험 유무로 구분한 뒤, 직장유형과 이직사유, 실직경험, 구직과정의 어려움, 현재 일자리, 구직의사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고용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먼저 참여 경험을 물어본 뒤, 참여한 적이 있을 경우 그 경험에 대해 물어보고, 없을 경우 참여의사나 간접경험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둘째, 빈곤, 탈수급 관련 역학적 특성은 빈곤의 경험(History, 원인, 생활에 미친 영향, 인식), 빈곤에 대한 대응(주위의 반응, 개인의 노력, 국가의 도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경험, 수급의 유용성, 탈수급), 빈곤에 대한 인식/비전/제도개선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하위영역인 빈곤의 경험에서는 과거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경험과 지금의 경제적 상태, 미래의 경제상황 전망, 돈의 사용처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였고, 두 번째 하위영역인 빈곤에 대한 대응에서는 주위 사람들의 반응과 본인의 노력, 친지의 도움, 국가의 도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해결노력 등을 물어보았다. 세 번째 하위영역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권 신청여부를 물어본 뒤, 신청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선정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차이, 간접경험을 질문하였고, 수급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관련 경험과 혜택,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경제적 어려움 극복 방법, 이웃에 대한 간접경험을 물어보았으며, 현재 수급권자인 경우 수급탈피 생각, 벗어나기 힘든 이유, 국가의 추가 지원, 탈피 전망, 필요한 혜택 등에 대해 물어보았고, 수급경험이 있으나 현재 탈수급인 경우에는 그 경험과 이유에 대한 생각, 자립노력, 탈수급 후 변화와 어려움 등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신청에 탈락하여 수급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경험, 탈락이유에 대한 생각, 필요한 혜택, 탈락으로 인한 생활변화와 예상되는 차이, 간접경험 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네 번째 하위영역인 빈곤에 대한 인식/비전/제도개선에서는 빈자와 부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생각과 빈자가 부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 5년후 전망에 대해 질문하였다.

셋째, 가족 영역은 가족을 소개하는 표현을 제시하도록 하는 질문과 가족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질문으로 간단하게 구성하였다. 이 영역은 아래에 제시될 구체적인 가족내 관계들과 차별화하여 가족에 대한 주관적 정의를 파악하도록 한 것이다.

넷째,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영역은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전반적인 정신건강,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등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부부관계의 변화와 노력, 만족하는 부분과 불만족하는 부분, 만족(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만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것, 부부갈등과 대처, 갈등해결을 위한 지혜, 가족생활에서 부부관계와 생활의 중요성, 가족의 범위(의미), 가족애를 느끼는 친척 구성원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부모와의 관계는 동거 여부, 만족과 불만족, 분리 기간과 이유, 왕래 경험, 친밀 또는 갈등 관계, 세대차이 경험, 바라는 점 등에 대해 물어보았다. 자녀와의 관계는 자녀의 수와 나이, 동거 여부와 만족 또는 불만족 부분, 관계 변화와 의미, 갈등해결 노력, 분리 기간과 이유, 왕

래 경험, 만족(불만족) 영향 요인, 만족(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 기대하거나 바라는 것, 부모역할, 갈등과 해결, 폭력적 대처 경험, 자녀들과 친밀 또는 갈등관계,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 등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전반적인 정신건강 하위영역은 정신건강 수준, 노력, 일상생활에서 정신적 어려움,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 등을 물어보았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하위영역에서는 정신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다.

다섯째, 생활실태 만족 및 의식 영역에서는 현재 행복 수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 경제적 수준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그를 위해 필요한 것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 영역은 행복의 정의와 연구참여자들의 주관적 경험에 근거한 영향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하였다.

여섯째, 인구특성별 가구원 조사는 조사대상 가구에 해당되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 그 가구원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포함된 가구원 유형은 여성, 아동/청소년, 청소년(중고생), 노인, 장애인 등이었다. 여성 가구원에게는 배우자 관계에서 차별과 경제활동, 직장 내 성희롱, 불평등, 문제발생 이유, 저출산 정책 등 출산에 대한 인식, 자녀 돌봄 경험, 자녀 양육과정에서의 남녀 차별, 출산과 양육 경험의 영향, 가족관계에서 폭력 경험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아동/청소년 가구원에게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주관적 빈곤 인식, 미래의 꿈과 부모의 기대 등에 대해 물어보았다. 청소년(중고생)에게는 일상생활, 생활의 어려움, 강점, 생활영역, 미래, 과거의 어려움과 그에 대한 극복에 대해 질문하였다. 노인 가구원에게는 사회참여와 정신건강, 노화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였으며, 장애인 가구원의 경우 생활의 어려움, 장애의 영향, 의미 있는 사람들의 태도나 반응, 장애인 친구나 동료와 교류, 장애인 복지 혜택 경험, 장애의 의미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6-2〉 질적 조사영역별 주요내용 및 심층 면접 지침서

번호	영역	문항수	하위영역	쪽수
	도입 질문		일상생활 패턴	1
1	근로	A:1-3 B:4-5	직장경험/구직과정 고용지원프로그램	1
2	빈곤 &, 탈수급	A:1-6 B:7-12 C:13-43	빈곤의 경험 빈곤에 대한 대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
3	가족	1) 2)	가족 소개 가족 정의	11
4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배우자와의 관계	1)-12)	부부관계, 부부생활, 부부생활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영향요인, 만족을 높이기 위한 필요요인,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것, 부부 갈등, 갈등해결 지혜, 폭력, 영향, 가족생활에서 중요성, 가족의 의미, 가족에 유지 친척 구성원	12
	부모와의 관계	13)-18)	부모 동거 여부, 만족/불만족, 분리 기간, 부모 왕래 경험, 관계, 세대차이, 바라는 점	15
	자녀와의 관계	19)-34)	자녀 실태, 동거 여부, 관계, 갈등, 분리 기간, 왕래 경험, 관계 영향요인, 필요요인, 기대, 갈등 상황, 해결 지혜, 폭력, 친밀도, 중요성	16
	전반적 정신건강	35)-38)	정신건강 정도, 노력, 구성원의 어려움,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	19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39) 1-7	상담, 치료 서비스 이용 경험	20
5	생활실태 만족 및 의식	1) 2) 3) 4)	행복 상태 영향 요인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 경제적 변화	21
6	인구특성별 가구원 조사			
	1) 여성	1) 2) 3) 4) 5) 6) 7) 8) 9)	배우자 관계에서 차별 경제활동 직장내 성희롱, 불평등 문제발생 이유 저출산정책 자녀 돌봄 경험 자녀 양육과정에서 남녀차별 출산양육경험의 영향 가족관계에서 폭력경험	22
	2) 아동/청소년	1)-7) 8)-10) 11)-16)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주관적 빈곤 인식 미래의 꿈과 부모님의 기대	25
	3) 청소년(중고생)	1)-6)	일상생활, 생활 어려움, 강점, 생활영역, 미래, 과거 어려움과 극복	30

번호	영역	문항수	하위영역	쪽수
	4) 노인	1)-4) 5) 6)-10)	사회참여: 일상생활, 경제적 활동, 여가활동, 추가 활동 정신건강 노화의 의미: 노화 경험, 잘 늙어감, 호상, 사회 인식, 정책개선	31
	5) 장애인	1) 2) 3) 4) 5) 6)	어려움 장애의 영향 의미 있는 사람들의 태도, 반응 장애인 친구나 동료 교류 장애인 복지 혜택 장애의 의미	33

제3절 질적 패널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100가구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구축된 질적 자료에 대한 분석방법은 질적 연구방법론에서 주로 활용하는 개방형 코딩방식으로, 연구자들은 녹취록으로 작성된 심층 면접내용을 읽으면서 조사영역별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담은 단어, 어구, 어절, 문장, 문단 등을 파악하였고 이를 의미 단위의 형태로 전환하였다. 녹취록의 분량이 약 5,000여 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여 모든 연구자가 전체 녹취록을 읽고 분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자신이 맡은 연구영역들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의미 단위를 파악한 이후 연구자들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위들을 묶어 하위범주를 구성한 뒤 이러한 의미 단위를 포괄하는 이름을 붙이고, 다시 유사한 의미를 가진 하위범주들을 묶어 상위범주로 통합하고 이와 같이 통합된 범주에 적합한 이름을 붙이는 범주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연구영역별 상위범주와 하위범주, 의미 단위들이 구성되었으며, 이를 각 영역별로 7~9장에서 기초분석 결과로 제시함으로써 연구자들의 이해와 질적 패널자료의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제시에 있어서 영역별로 개별 연구자들의 분석결과를 가능하면 그대로 담으려고 하였다. ‘상위범주-하위범주-의미단위’라고 하는 분석의 수준은 일치시키고, 인용문 제시 등의 형식은 통일시키되, 결과 제시 방식에 있어서는 개별 연구자의 방식을 최대한 존중하였다. 예를 들면, 배우자와의 관계 및 여성영역에서는 인용문 대신 응답자의 진술들에서 도출된 코드를 예시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생활실태 및 청소년 영역에서는 주제 분류표를 제시하였다.

제4절 질적 패널조사 수행 및 자료 활용 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고려한 것은 윤리적 이슈들이었다.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방법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윤리적 이슈들로는 연구에 대해 밝히기/속이기, 고지된 동의, 자발적인 참여, 연구 참여로 인한 피해,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비밀보장 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조사와 연계되어 진행됨에 따라, 기존 패널 조사 대상 가구 중에서 저소득층 중심으로 질적 패널가구를 표본 추출하여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연구과정에 대해 밝히게 되었다. 또한, 표본으로 추출된 질적 패널가구(연구 참여가구)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질적 조사 및 본 연구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한 뒤에 질적 패널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에 한해 동의서를 받고 심층 면접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와 고지된 동의와 관련된 이슈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참여에 대한 보상은 주어진 예산 안에서 한국복지패널 조사에 참여할 경우에 대한 보상과 균형을 맞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제공하였다. 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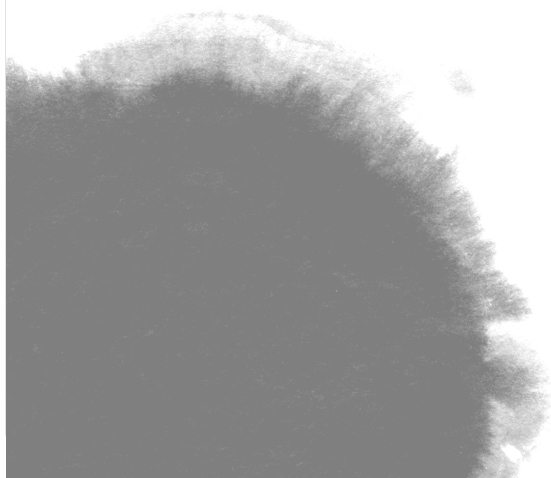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통해 이미 일정 기간동안 조사 참여에 따른 보상체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 있어 보상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특히 논의가 필요한 윤리적 이슈로는 연구참여로 인한 피해와 비밀보장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본 연구에 참여한 질적 패널가구들은 모두 불과 몇 개월 전에 한국복지패널 조사에 응답하였기 때문에 유사한 질문을 다시 받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연구 참가자들이 면접 과정 중에 피로감이나 거부 반응을 느낄 수 있었다. 이와는 달리 한국복지패널 조사 설문지의 경우 분량 자체도 많지만 조사 범위도 방대하고 구체적이므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질문들 때문에 사생활을 침해받는다는 느낌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측되었고 실제로도 이로 인한 부정적 반응은 적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비밀보장 이슈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연구 참가가구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 본 연구는 패널연구로서 자료를 축적해야 하고 연구공동체에 원자료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질적 연구들에 비해서도 비밀보장을 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원자료에서 연구 참가가구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거하였으며, 개별 녹취록이 아닌 가공된 자료를 공개하기로 하였고, 연구보고서에서는 더 나아가서 범주화 결과만 제시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참가가구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07

저소득층 질적 생활조사 결과 기초분석Ⅰ:
알과 빈곤, 탈수급



제7장

저소득층 질적 패널조사 결과 기초분석 I : 일과 빈곤, 탈수급

제1 절 근로

본 영역에서는 직장 및 구직과정에 관련된 경험, 그리고 고용지원프로그램의 경험을 다룬다. 직장 및 구직과정에 관련된 경험으로서는 직장경험, 실업의 원인, 실업과 우울, 구직의 어려움을 하위 영역으로 도출하였다. 고용지원 프로그램의 경험의 하위 영역으로는 자격증 교육경험, 공공근로 경험,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경험, 고용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각 하위 영역별로 분석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직장경험/구직과정

가. 직장경험

다수의 응답자들은 안정적이지 못하며 주변적인 일자리를 맴돌고 있다. 이는 저소득, 고연령, 여성층이라는 응답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들은 안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노력해도 “여자별이 뻥하잖아요”와 같은 진술처럼 체념적인 경험들을 갖고 있기도 하다.

나. 실업의 원인

이들이 제시한 실업의 원인들은 나이, 장애, 건강, 부양가족, 기술부족이나 자격증, 아이 양육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이 그들에게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대개의 경우 시간조절이나 맞춤형 일자리, 부양 서비스가 제공되면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배운 것도 없지, 하여튼 그때 진짜 절실하게 느꼈어요 아, 좀 배웠으면 좋은 직장 얻었으면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머릿속에. 그거 외에는 다른 건 없더라고 막상 나가보니까 (패널참여가구 7, 54세, 여)

오라캐서 이력서가 됐다고 하니까 내 가니까 내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 됐어요 안되요 해서 또 쫓겨왔지. 나이 73인데, 내가 볼 때는 아파트 경비도 젊은 사람.. (패널참여가구 70, 73세, 남)

다. 실업과 우울

실업의 경험은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쳤다. 나중에 다룰 빈곤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실업 역시 사회생활 단절로 인한 우울감을 유발한다.

정신적으로 우울감 우울증이 생길뻔 했죠 사람을 사이에서 살아가다가 갑자기 집안에서 틀어박혀 있다 보니깐 할 일이 없으니깐 (패널참여가구 77, 47세, 여)

라. 구직의 어려움

실업의 원인은 곧 구직의 어려움이 되기도 한다. 이 점에서 특히 노인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전향적인 사고를 요구하기도 한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정부에서 노인네들을, 공장에서도 노인네들을 안쓰니까 그건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 (패널참여가구 5, 65세, 남)

취업을 장벽을 넘고자 자영업을 생각해본 사람들은 창업이 쉽지 않음을 토로한다. 밑천도 없고, 구하기도 쉽지 않다.

장사 할라 그래도 밑천이 있어야하지 (패널참여가구 9, 70세, 여)
차상위에 필요한 그런 대출은 없더라. 요 근래에 오니까 얼마 전에 대출이 생겼어요 미소금융 이런 것도 그죠. 그런 게 생겼는데 막상 가면 제제가 많더라 (패널참여가구 67, 51세, 남)

2. 고용지원 프로그램

가. 자격증 교육경험

각종 자격증 교육은 참여자에게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은둔하던 사람들을 사회로 내딛게 하는 활동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긴 교육기간에 마땅한 수입이 없거나,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나타났다.

일단은 다양해야죠 한 종목하면 딱 끝이잖아요 그거 끝날 때
까지 다른 것을 못하잖아요.. 만약 2, 3개 다니면서 자기한테
맞는 것을 찾으면 더 좋을 텐데 (패널참여가구 81, 38세, 남)

나. 공공근로 경험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엇갈린 경험들을 제시하고
있다. 근로를 통해 성취욕구가 높아지고 활력을 주었으며, 스트레스나
중압감 없이 일자리가 있는 것이 행복하다는 경험들은 긍정적인 측면을
잘 보여준다.

생활에 보탬도 되고 나 자신부터 활력을 좀 찾을 수 있잖아요
그거지. 우선 생활도 해야 되니까 하여튼 간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야(패널참여가구 7, 54세, 여)

도움이 안 되진 않았어요 우선은 성취 욕구는 있을 거 같긴
해요 왜냐면 자기가 벌여보지 못한 애들이 스스로 벌었는데
(패널참여가구 12, 38세, 여)

이에 비해 공공근로는 전문성도 떨어지고 젊은 층에게 권할 수 없는
일자리이며, 주위에서 열심히 하지 말라는 소리 듣는 자리라며, 부정
적인 측면도 제시되었다. 참여자들은 “등어리 땀나게 하면 3대가 빌어
먹는대”, “저소득층 이런 사람이 하지”, “많이 한다고 잔소리 들었지”
와 같은 반응을 나타냈다. 이 외에도 무시당하는 느낌, 일자리를 다 외
국 노동자들에게 빼앗긴다는 느낌 등도 고용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도출된 경험이었다.

다.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경험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엇갈린 경험들이 도출되었다. 긍정적인 경험들과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나갈 곳이 있다는 것”, “어머 내가 돈 벌 수 있구나”, “용돈 벌어 쓰라고” 등이 응답을 하였다. 이들은 경제적인 도움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점을 기뻐하였다.

아~그럼, 아침에 나간다는 것이 나갈 곳이 있다는 것이 그제 늙은이들한테는 얼마나... 기다려지고 그래요 (패널참여가구 42, 75세, 남)

반면,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이 라는 것이 예산이 남아서 하는 전시 효과 사업이라며 실효성이 없다는 견해나, 오히려 노인층이 많이 배제되어 있어 정부가 노인을 우롱한다는 시각도 제시되었다.

근로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근로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죠 만 드는데, 또 돌아가면 뭐냐, 만든다고는 하는데 전부 전시 효과야 하는 척 하고 사람만 끌어모았다가 별거 없는데 사진만 찍고 말 이불고 실제 하는 건 없더라 (패널참여가구 70, 73세, 남).

라. 고용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

앞서 제시된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 시각들은 문제점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 외에 응답자들이 제시한 문제점으로 부실한 상담, 무안당한 경험, (취)창업과 연계되지 않는 교육 등이 제시되었다.

그 배우면 좋은데요 근데 이제 일단 그것을 창업교육을 받게

되면 일단 어느 정도 여력이 있어야 저기를(창업) 하는데 그렇게 배웠다가 나중에 돈 생기면 한다는 것은 조금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연계가 안되면 (패널참여자구 36, 50세, 남)

제2절 빈곤, 탈수급 관련 역학적 특성

이 절에서는 빈곤의 경험과 빈곤에 대한 개별 대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험, 빈곤에 대한 인식과 비전, 빈곤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을 다룬다.

먼저 빈곤의 경험으로는 빈곤의 원인, 가장 힘든 경험, 현재의 경제적 상태 점수, 향후 가계 전망, 경제 상황이 나아진다면? 을 하위영역으로 제시하였다. 빈곤에 대한 개별 대응으로는 대응 못하는 현실, 가족/친척 도움, 대물림 막기를 하위영역으로 제시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험으로는 비수급권자, 수급경험자, 탈수급자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였다. 먼저 비수급권자들로 부터는 수급신청 안한 이유, 수급 신청해도 안 된 이유, 수급권자가 되었다더라면 이라는 하위영역을 도출하였다. 수급경험자들로부터는 수급의 가장 큰 혜택, 탈수급을 하게 된다면, 탈수급 하고 싶은 이유, 탈수급 계획, 탈수급 못하는 이유라는 하위영역을 도출하였다. 탈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는 탈수급의 이유, 탈수급 후 힘든 점이라는 하위영역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인식하는 수급신청/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빈곤에 대한 인식과 비전에서는 돈의 의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 가난한 사람이 부자될 가능성, 5년 뒤의 모습을 하위영역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빈곤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을 제시하였다.

1. 빈곤의 경험

가. 빈곤의 원인

빈곤의 원인은 실업, 혹은 실업의 원인과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 이외에도 이혼, 배우자의 무능(여성 응답자의 경우), 빚, 경제 위기처럼 한번 들어서면 굴레를 벗기 힘든 원인들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빈곤의 여성화란 말처럼 이혼은 여성 가장들에게 힘든 경제적 경험을 가져왔다. 한편으로 남들에게도 “추락하는 경험”과 추스릴 수 없는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내 술 먹을 때지.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이 추락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건 돈보다 더. 돈이야 나가면은 뭐 내가 아직 노인네 몸도 아니고 나가면 반찬값이야 못 벌겠어요 내 사는 게 큰 의미를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다 추스르고 일어서 있지만 그 당시엔 내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그 때가 제일...(패널참여가구 67, 51세, 남)

생계비를 위해 신용카드를 쓰다가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 처한 경우의에는 무분별한 카드발급으로 발생한 신용대란의 일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카드 값이죠 지금, 지금도 그렇겠지만 별만큼 써야하는데 쓰고 나서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게 거꾸로 되니까...그거죠...결국에는 이자라는 거예요 (패널참여가구 81, 38세, 남)

나. 가장 힘든 경험

빈곤과 관련된 가장 힘든 경험은 생계비, 병원비, 아동 양육, 늘어나는 빚, 빈곤한 삶 그 자체, 자살 충동이나 불면 등의 심리적 경험들이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바깥에 내얹게 생겼는데”(생계비), “아픈 경우가 제일 어려워”(병원비), “못해주니까, 애들한테”(아동양육), “요즘 세상에 밥 굶을 수 없으니까”, “하루살이”(늘어나는 빚), “닥치는 대로 그냥 그렇게”(빈곤한 삶 그 자체), “해결 못하면 자살 내지 죽음”, “막 조바심 나는 거”(심리적 경험) 등의 표현들을 하였다.

특히, 중산층의 삶을 누리다가 노년에 빈곤에 처한 한 여성 참여자의 경우는 극한의 경험 끝에서 삶과 죽음을 고민했던 심리를 잘 나타내고 있다.

아. 진짜 어려웠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죽고 싶어서 지하철 타고 왔다갔다 한 적도 있어요 혼자.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남한테 빌려 쓰는 것도 어렵고 옛날에는 진짜 집 가 지고 살다가 이렇게 저기 되가지고 남의 집 사글세 사는데 (패널참여가구 11, 72세, 여)

다. 현재의 경제적 상태 점수

자신의 현재의 경제적 상태를 10점 만점으로 하여 점수를 주도록 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빚이 있는 경우는 1-2점 혹은 “마이너스”라고 응답하거나, 때로는 점수 자체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되었다. 3-5점을 제시한 경우는 “아예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 경우가 많았고, 6점으로 제시한 경우는 기본생활은 할 수 있는데 “품위 유지를 못하는” 경우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라. 향후 가계 전망

대부분이 향후의 경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응답자의 진술들에서 도출된 코드를 예시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돈벌이 없지, 나이먹지”, “세상 그만 뒀으면 하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들은 특히 노인층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젊은 층에서 일부 긍정적인 견해들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제가 벌거니까” “애 컸으니까”처럼 앞으로 일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믿거나, 자식이 성장하면 가계 전망이 좋아질 것으로 내다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개인적 전망 말고도, 빈부격차가 심한 현실을 반영한 체감 GDP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 가면 더해. 앞으로 살아서 더하지. 내년에 3만불 떨어진다지 강남구 이런 데가 비인기 동네가 3만불은 무슨 3만불이야 2015년 되면 국민소득이 3만불 신문에 났어. 3만불 강남 같은데는 산다지만 여기는 할머니들이 새벽같이 파지에 눈이 시뻘건게 지는데. 그제 무슨 3만불이야 만불도 안되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는 머리가 나빠서 모르지만 이게 무슨 3만불이야 이런건 아니야 (패널참여가구 4, 68세, 여)

마. 경제 상황이 나아진다면

앞으로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응답자들은 자녀의 건강과 교육, 주거, 자산 등에 사용하고 싶다고 한다. 응답자의 진술들에서 도출된 코드를 예시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고쳐주고 싶고” “이사 다닐때가 제일 힘들어” “내거만 챙기면 안돼” “가차없이 이웃을 위해”. 특히 어려운 경험을 한 응답자들의 다수가 남들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고 하

였다.

만 사람들은 내 자식 대대로 잘 먹일라고 하는 거잖아. 대대로 잘 먹일라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사는 날까지 먹고살고 나머지는 국가에 내놔야지. 기업들도 자식들은 자식들이 먹고 살게 놔두고 내가 모은 재산들은 그래야 나라가 잘살지. 내거만 챙기면은 안돼. 내 사상은 그건데 내 손에 돈이 안주어지니까 못 하는거지 (패널참여가구 9, 70세, 여)

2. 빈곤에 대한 개별 대응

가. 대응 못하는 현실

당면한 빈곤의 현실에 대해 일어설 수 없는 현실에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노력할래야 뭐가 있어야 노력을 하는 거지.. 빈 손 들고 노력으로 안 되거든.. 다만 얼마래도 쥐고 뭐. 노점장사라도 포장마차도 옛날에는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뭐가 그래도 사람이 손에 뭐가 있어야 내가 뭘 한다는 의욕이 생기고 뭐래도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생기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패널참여가구 12, 38세, 여)

나. 가족/친척 도움

어려운 경제 형편에 대해 가족이나 친척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드물게 있었다. 노인층의 경우 자녀들에게 도움을 조금씩 받기는 했지만,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 아예 기대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오히려 사이가 소원해질까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 이전에 도와주었던 친척들이 이제는 등돌리는 경우, 자녀들도 살기 힘든 현실 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응답자의 진술들에서 도출된 코드를 예시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오히려 (얘기를) 꺼내다가 멀어진다”, “엄마, 우리들도 죽겠소”, “친척부르지 말라는 유언”, “형제가 많아도 도움이 안돼”.

그런데 내가 지금 친척을 안 만나요... 아이 꼴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친척 부르지
말라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 저 유언이었어요(패널참여가구 1,
60세, 남)

돈 좀 도라 우리 아들 보고 그러는데. 엄마 우리들도 죽겠소
그래 (패널참여가구 4, 68세, 여)

다. 대물림 막기

주어진 환경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한 것 역시 자녀를 키우는 응답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대응전략이었다. 이들은 없어서 못 배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자신의 자녀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에 현실이 짜증스럽기도 하다. 애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애는 적게 나아야 되고, 대신 교육은 매우 엄하게 시켜야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가족 갈등을 경험한 자녀들에게 정서적 지원이야말로 불행한 가족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경제적으로 발달이 안 되니까 부부싸움하죠 그럼 아이가 마음이 다치잖아요 그럼 바른 아이 같으면 자기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아이들이 누구랑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지 혼자 스스로 해결해 그 어린 머리로 그럼 뭐 있어 친구 만나면 전부 그 머리에요 즈그끼리 해결할라 하는데 그거 안되거든 그럼 그 가정은 이 애가 또 결혼하면은 또 그 자식한테 또 대물림 되는거예요 ... 경제적 그것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는 해줘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해주는 거는 멘 투맨 대화 내 생각이 그런 거지. 아이의 마음을 정서를 어루만져주고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게 되면 거의 대부분 그 마음을 어루 안만지면은 가난이 부자가 됐다 해도 그거는 또 가난이야 안 돼 (패널참여가구 67, 51세, 남)

네 그래서 가난이 대물림 된다는 게 눈에 딱 보이더라구요 엄마 아빠가 교육열도 없지만 그렇다고 제가 또 세 돌부터는 시간나면 애를 때리면서 가르쳤어요 너 엄마가 이렇게까지 너를 붙잡고 하는데 너 어떻게 엄마 진짜 세돌 네 돌 아이를 두고 할 짓이 아닌데 지금도 그래요 일곱 살짜리 애를 두고서 매일 한 번씩 혼나고 청소부나 이런 거 하고 싶냐고 그런 다음에 공부 끝나면 같이 울어요 (패널참여가구 12, 38세, 여)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험

가. 수급신청 안한 이유(비수급권자)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아예 수급신청도 안 해본 경우는 수급권에

대한 선입전이나 주위로부터 나이나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기준에 비추어 해당사항 없다고 조언을 받는 경우, 혹은 아예 정보가 없었던 경우도 있었다.

오히려 이혼이라는 걸 나 스스로 좀 당당히 받아들이고 그래 나 이혼했어 이라고 대시를 했으면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7살 때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유치원에 처음 가는데 유치원 교육비가 좀 비싸잖아요 근데 그때도 한 가구, 아니 한부모 자녀 뭐지. 그런 혜택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신청 못하겠는 거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아이한테도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선입관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쓸데없는 걱정과 조바심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도 못하고 여러 가지 찾아보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엄두를 내지 못한 거 같아 (패널참여가구 13, 43세, 여)

나. 수급 신청해도 안 된 이유(비수급권자)

신청해도 탈락한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재산·소득,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라고 응답하였다. 이들 중에는 주변의 사람들은 편법을 사용했는데 자신은 “그런 거 몰랐다”는 것이 억울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연락도 안 되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했는데 떨어졌어요 왜냐면 제가 빚이 없어요 근데 그 때가 제가 급여 소득자였는데 급여소득자여가지고 거의 됐는데 그.. 조금 부족했대요 그니까 이제 녹취되니까 말해도 되나? 이런

거? 사실은 그 때 편법들이 많잖아요? 금계 아는 사람만 있으면 누가 소위 그러더라고 없는데 차용증 같은 거 해가지고 빚 있는 것처럼 감면이 된대요 근데 전 그런 거 몰랐죠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아.. 조금 차이로 떨어졌데 (패널참여가구 98, 39세, 여)

다. 수급권자가 되었다라면(비수급권자)

만일 비수급권자가 수급을 받을 수 있었다면 어떠했을까라는 질문에 특히 아동 양육과 관련하여 정말 절박할 때 요긴했을 것이라는 응답이 나왔는데, 이는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하는 통합급여보다 절박한 수요에 부응하는 개별급여가 효과적일 수 있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네, 이게 하나가 꼭 뭐, 물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는 그게 맞는데, 지속적으로 보장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뭐 이런 걸로 자살하는 사람, 자살할 그 시점에 살짝 터트려주면 다시 또 정상적으로 하는데, 보통 때 일을 하다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게 물론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상황이 좀 달라지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니까 그 당시 때는 원채 어려우니까 한 번 정도는 이런 게 뭔가 있는가 싶어서 기웃거려봤는데 안된다라는 통보를 받고 그러니까 그것도 수급 지원 받는 것도 크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마. 아이 급식비 정도였습니다. 초등학교 급식비 그 때가 아마 만원인가, 2만원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그걸 갖다 이제 기초수급자든 그거 있으면 해당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뭐 그거 있는가 해봤는데 뭐 솔직히 만원, 2만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아닌 거고 돈을 수령 받는 것도 아니고 (패널참여가구

46, 42세, 남)

또한, 제때 수급 했더라면, 자녀교육을 제대로 시켜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 역시 제시되었다.

대학이라도 좀 보낼 수 있었을지... (웃음) 지금도 직장이 자꾸
끊기고 저거 하니까는 하나는. 상고 나오고 하나는 공고 나오
고 근데. 아이고 힘들더라고. 애들이 직장 그렇게 자꾸.. 제대
로 된 직장 그렇게 길게 가지를 못하고 자꾸 그만 났다 또 어
디 났다 그러니까. 힘들어가지고.. 글썄.. 뭐 아쉬운게 공부도
아주 못하지 않았는데 지내들이 알아서 엄마가 혼자 키우니까
지내들이 알아서 대학도 안가고 그렇게 그랬던 것 같아 (패널
참여가구 8, 69세, 여)

라. 수급의 가장 큰 혜택(수급경험자)

수급을 경험한 응답자의 경우 의료, 교육, 주거와 관련된 혜택을 매
우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심리적으로도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노인
층이 의료 급여에 만족을 보였다면, 젊은 응답자들은 특히 교육 급여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수급혜택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진술들에서 도출
된 코드를 예시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일로 내가 고마운 것
은 병원”, “(교육비)이건 진짜 고마운거야”, “(주거)누가 나가라 하지
않아”, “자존심 정도는 지킨다”

마. 탈수급을 하게 된다면(수급경험자)

의료급여가 필요한 노인층의 경우 탈수급은 곧 죽음이라고 여기기도

하였다.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급여는 경제적 도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렵지. 중간에 없어졌을 때는 젊었으니까 몰랐는데 꿈쩍없어 죽지. 요즘에는 현찰내고 병원예를 땡길라면 힘들어 (패널참여 가구 99, 70세, 여)

바. 탈수급 하고 싶은 이유(수급경험자)

드물긴 하지만, 비교적 젊은 층의 수급권자 들 중에는 자녀의 성장 환경이나 사회적 낙인, 그리고 스스로의 자존심 등을 위해 탈수급 동기를 갖기도 하였다.

아무래도 세상을 좀 알고 사회생활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면 저는 사회적으로 외면 당할까봐서요.. 여기 놀이터 같은데 애를 데리고 가서 보면 저층 여기 이런 너무나 못 살고 그런 데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막 피고 폭폭 피고 거기서 있고 막 욕하고 욕지거리 하고 그런데서 안 살고 싶고 그래서 뭔가 좀 교육수준이 있는데 그런 곳으로 떠나고 싶어요 (패널참여자 가구 77, 4세, 여)

사. 탈수급 계획(수급경험자)

소득이 200-300 정도 되면 탈수급 할 수 있겠다는 응답도 있었지만 대개 탈수급 계획은 자녀의 성장과 관련이 있었다. 드물게 창업을 꿈꾸는 경우도 있었다. 체계적인 탈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경험들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별 계획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아. 탈수급 못하는 이유(수급경험자)

나이, 건강, 능력 등의 이유로 탈수급 후에 생계가 막막한 경우도 있었고 자포자기한 경우도 있지만, 현재 받고 있는 의료/교육 급여가 너무도 절실하여 탈수급이 어려운 경우도 나타났다. 창업을 해서 탈수급을 시도하려해도, 자본이 없는 경우 그냥 수급에 머무는 경우도 있었다. 즉 제도적으로 탈수급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응답자의 진술들에서 도출된 코드를 예시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돈주고 병원에 댕긴다면 못 살거여”, “없어서 못 배웠다는 얘기는 안 들어야”, “애들 클 때까지는 여유가 잘 안돌아”, “힘든 사람은 죽어라 해도 안돼”, “(창업자본) 돈 나올 구멍이 없다”.

자. 탈수급의 이유(탈수급권자)

응답자들이 다수 제시한 탈수급의 이유는 부양의무자 등의 기준 적용이었다. 자녀의 성장, 부양의무자의 근로활동에 따라 탈수급을 하게 된 경우,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은 “자식들도 품안에 자식이지” 라고 하면서, 보다 현실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요구한다.

차. 탈수급 후 힘든 점(탈수급권자)

탈수급을 경험한 응답자들 중에는 탈수급이 단순히 소득이 줄어드는 것 말고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근본적인 건 아닌데, 자존심적으로는 많이 달라졌지 않느냐
사람이 고생을 해봐야 정신차리겠지만은 그래도 남들 화장지
갖고 닦을 때 이래 같은 재질로(웃음) 자존심 정도는 지킬 수

준은 안 돼 있겠나. 인자 그게 없기 때문에 자존심도 버려야 되는 그런 수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포기하면 되니까. 포기하면 되잖아요. 대학갈 거 안 가고 먹을 거 안 먹고 다 포기하면 돼요 (패널참여가구 67, 51세, 남)

카. 수급신청/제도의 문제점

응답자들이 제시하는 수급신청/제도의 문제점은 형식적인 서류절차로 이루어지는 선정, 남들과 비교하여 공정하지 못하다는 느낌, 부양의무자나 재산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것, 근로유인이 저하된다는 것, 이혼을 조장한다는 것, 도덕적 해이가 가능하다는 것, 낙인이 있다는 것 등이었다. 이와 관련된 응답자의 진술들에서 도출된 코드를 예시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무조건 서류”, “재산 다 돌려놓고”, “안 받을 사람이 받는 사람”, “그거 다 잡아내가지고”,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 “난 왜 그런걸 모르지?”, “자식있다고 한번도 안나오는데”, “(집)팔아서 생활해라”, “수급을 못하죠”, “누가 5만원 더 받고 (일) 다니냐”, “애들이 상처를 만나봐요”.

4. 빈곤에 대한 인식과 비전

가. 돈의 의미

자신이 쓸 만큼의 돈만 있으면 돈이 행복은 아니지만, 돈은 또한 자유를 의미한다. 응답자들은 돈이 부족하면 고립과 단절을 경험한다.

그래서 돈이 많아서 행복하지는 않아요 내가 쓸만큼만 있으면
되요 내가 꼭 써야하는데 돈이 없었을 때 그때가 불행하지
(패널참여가구 82, 76세, 남)

나오는 돈만 쓰니까 그니까 갈데도 못가고 집에만 주로 있는
날이 많고 친구들도 안 만난게 다 떨어지고 돈이 있어야 친
구들도 만나지, 우리 같이 돈 없는 사람들은 자꾸 만나가고
싶고 그런게 있어... 그리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나가기 싫어
서 만나간게, 그때 자존심 겁나게 상하지, 내 자존심 (패널참
여가구 99, 70세, 여)

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

응답자들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행복과 불행을 경험하고
돈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점을 공통점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부자의 경
우 특히 기회나 활동범위가 넓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응답자에 따라서는
빈부차이를 팔자나 윤리적 문제로 보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된 응답자
의 진술들에서 도출된 코드를 예시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공통점: “비싼걸 먹으나 싼걸 먹으나 똑같은
사람”, “돈이 있어도 불행”, “욕심엔 끝이 없다”, “돈 귀한 걸 생각”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점: “해보고 싶은 경험하기”, “돈이 없으
면 상상도 말자”, “쪼들리면 부정적으로 보인다”, “없는 사람은 없는
쪽으로만 땅을 파니까”, “하늘과 땅 차이”,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
어진다”, “팔자”, “공덕”, “정직한 부자는 못봐서”.

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될 가능성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일부 노인층의 응답자들은 노력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불가능하거나 설사 가능하더라도 매우 힘들다고 하였다. 이들은 전쟁나기 전에는 안된다는 식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노력을 해도 호황기가 지나서 부자되기 어렵고 무엇보다 설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응답자의 진술들에서 도출된 코드를 예시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개천에서 용 안난다”, “중년 이후는 힘들어”, “저기 경마장에 가봐”, “전쟁나기 전에는 안돼”, “복권이나 당첨되면 몰라”, “자기집과 세사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기반이 조성되야”, “대물림 될 수 밖에”

라. 5년 뒤의 모습

향후 5년 뒤의 모습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개의 경우 구체적인 변화에 대한 생각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응답들이 제시되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부터, 기대는 해도 큰 변화 없을 것, 애들이 크니까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 장사라도 해볼까 하는 의욕도 나타났다. 단, 노인층의 경우, 다수가 5년 뒤를 경제적 측면이나, 건강 측면에서 절망적인 모습으로 그리며, 좀 “처참”해질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도, 집이 있거나 자식이 있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기도 한다.

인자 그거는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노동력이 줄고 저기 없기 때문에 첫째 경제가 다운되면은 좀 처참하다 그럴까. 그런 쪽으로 안 흘러 가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패널참여가구 59, 71세, 남)

자녀들이 주는 것까지 먹고살고. 만약에 아이들도 상황이 그렇지 못할 형편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사는 집을 팔아서.. 한 이억정도 되니까 팔던지 아니면 주택연금.. 주택연금에 들어서 생활하는 한 달에 백만원씩 받으면 우리 죽을 때까지 늙은이들 먹고는 살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렇게 걱정하거나 의심하지 않아요 (패널참여가구 42, 75세, 남)

5. 빈곤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

응답자들은 인터뷰 곳곳에 빈곤 제도 개선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나타냈는데, 이들은 크게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공정한 제도 적용, 일자리를 통한 복지, 생계유지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각종 제도 운영, 창조적인 교육, 노력하면 성공하는 구조 등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빈곤에 대해서 단순히 소득만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특성과 빈곤경로를 잘 파악하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문화적인 측면도 제공해야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응답자의 진술들에서 도출된 코드를 예시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보릿고개가 아니니까”, “집집마다 사연 달라요”, “문화생활”, “멘토링”

공정한 제도 적용은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급여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엄격하게 잘 적용하되, 서류절차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수급자 돈을 정부에서 지급해 주려면 그 집 하나하나 힘들더라도 그 집 가정방문을 하나하나 낱낱이 잘해가지고 불법으로 비공식으로 되어 있나 아닌가 잘 알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급자 돈을 쥐야지 그냥 서류상으로 딱 봐서 그렇게 되는 사람이 수두룩해. 왜냐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정부 돈을 빼서 쓸라고 편안하게. 부부가 살면서 이혼하는거야 합의 이혼을 하는 거야. 그래 놓고는 내가 애들 데리고 살려니까 힘들잖아 (패널참여가구 4, 68세, 여)

또한 젊은 층에서도 “돈만 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젊은 사람들에게 지속가능한 복지의 방법으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한다.

네 일자리 밖에 없죠. 그래야 거기에 다가 그나마 자기가 번거 갖고 생활을 할 수 있는거잖아 그나마 벗어 날 수 있는 거지, 그런 자리도 안주고 그냥 나라에서 맨날 그냥 돈만주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죠. 노인들한테는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도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는게 제일로 현명한거 같아요 (패널참여가구 98, 39세, 여).

이 외에도, EITC 급여 지급시에 체납 세금을 제하고 준 것에 대해 “빵이 제일 급한” 사람에게는 “납득”이 안되고 “체념”하게 되었다는 경험, 미소금융 신청시 제제가 많았다는 경험 등을 들어 생계유지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각종 제도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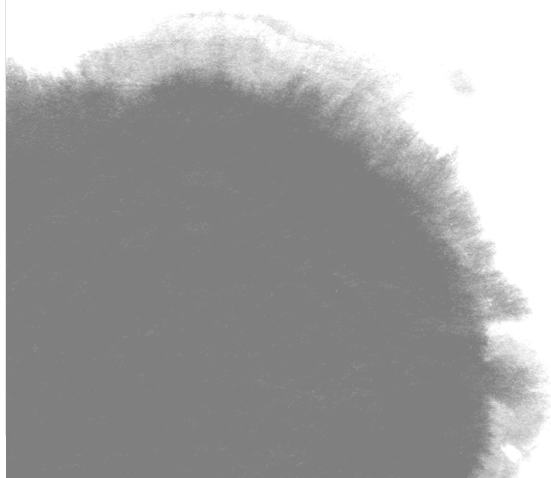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또한 각종 교육도 가볍게 보지 말고, 보다 창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며, 가난한 사람들이 길을 몰라서 가난해진 것인 만큼 국가가 길을 제시해야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무엇보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원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물람을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부모의 제안이었다.

그러니깐 학원비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배울 수 있을 만큼 능력되는 만큼 머리가 있어서 머리가 있어서 머리로라도 그래도 세상 좋은 세상 이제 머리가 있어서라도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지 능력껏 살다보면 지가 좀 그래도 나은 형편에 살아가지 않을까 중산층 계열까지 올라가보질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학원이나 그런거 사교육 쪽에도 조금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개인적으로 집에서 가정방문 같은 가정에서 공부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사교육 말고 학원을 나라에서 운영하는 학원 있잖아요 그런 거 (패널참여자 77, 47세, 여)

08

저소득층 질적 생활조사 결과 기초분석Ⅱ: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제8장

저소득층 질적 패널조사 결과 기초분석Ⅱ: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제1 절 가족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이며, 가족 성원들은 일차적으로 가족을 통해 필요한 욕구를 충족하며 가족의 지원과 양육을 통해 발달해 간다. 한편, 오늘날의 가족은 보호 및 양육, 교육 등의 기능이 다양한 사회제도를 통해 보완되고 대체되고 있어, 전통적인 가족 기능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에 본 영역에서는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가족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였다. 첫째는 “우리 가족은 000이다”라는 질문을 통해 자기 가족을 소개하도록 하였고 둘째는 연구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정의, 즉 “가족은 000이다.”에 대해 답하도록 하였다.

1. 자기 가족 소개 : “우리 가족은 000이다”

가. 평범한 가족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평범함”이라는 단어로 가족을 소개하였다. 그런데 이 “평범함”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 어떤 가족에게는 “평범함”이 “자랑할 것이 없음”, “내세울 것이 없음”

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고 어떤 가족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옴”, 혹은 “자녀들이 말썽을 피우지 않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즉, “자랑할 것도 없고 흉잡을 것도 없는” 이런 의미로 평범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가족을 표현하였다. 때로는 “남들과 다르지 않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족이지만 이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그래서 평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그러하다.

똑같이 “평범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랑할 것이 없음”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불행함이라는 감정이 수반된다. 딱히 자랑할 것이 없어 평범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불행하고 남이 자랑하는 얘기를 들으면 속상하고 듣기 싫다.

“평범함”을 “나쁜 짓하지 않고 살아감”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준 자식들에 대한 고마움과 대견함의 감정이 동반된다. 대학도 못 보내고 자식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뒷바라지 해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속 썩이는 자식이 없어 다행이고 고마울 뿐이다.

뭐 아들이 같이 이제 이렇게 저거 한다면은, 누가 애들 이야기 하면 난 속상해서 안 들어 안 듣는 게 편하고 손주사랑하고 아들사랑, 딸 자랑하면은 나는 그런 건 듣기가 싫더라고 남이 이야기하면 행복을 서로 줘야 하는데 속이 상하니까, 나는 그 걸을 못하고 사니까 듣기 싫어한다고 나는 그저 남한테, 자랑하는 사람한테 표현을 안 해도 그냥 나는 나 자신이 듣기 싫더라고 (패널참여가구 11, 72세, 여.)

우리가정은 이렇게 평범하다. (면접자: 아 평범하다? 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그 나 어떤 사람한테는

저기 나쁘게 한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생각을 그렇게 해보는 거지 (패널참여가구 31, 63세, 남)

나. 지켜낸 가족

“지켜낸 가족”은 가정폭력 혹은 가족 위기 상황으로부터 가족을 지켜내고 이혼하지 않고 자식들을 길러낸 것, 가족에 헌신한 경우이다. 남의 손 빌리지 않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자식을 키워낸 불굴의 가족이다.

정말 힘들게, 정말 힘들게 살아서 나는 그래. 다른 사람들은 나 같은 삶을 안 살았지만 정말 나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헌신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중략) 그래도 내가 새끼를 지켜야 된다는 신념으로 여태 살았어. 그래서 내가 손이 이렇게 발이 되도록 일을 많이 하고 산거야. 나는 손을 어서 쉰피해서 내 놓지를 못해 하도 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보고 손보면 아유, 얼굴은 참 그렇게 이쁜데 얼마나 일을 많이 했길래 손이 그러냐고 그래. 그래도 하나도 난 안 쉰피해. 왜 내가 일을 많이 해서 먹고 살았는데 손이 고우면 뭐 할 거야 이 나이 먹어서. 그래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는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없이 살아도 쉰피하다 어쩌다 이런 거 얘기는 안 해. (패널참여가구 16, 52세, 여)

다.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족

힘들고 어렵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가족이다. 사실 객관적인 조건을 매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부모 의견을 잘 따르고 착하고 예쁘게 자라주는 지식들을 보면서
오늘은 즐겁게, 오늘과 다른 내일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족”이다. 돈은 없어도 몸은 아파도 서로를 위한 마음이 힘겨움을 이겨내는 원동력이다.

그냥 안쓰러운 데도 그냥 뭐 엄청 그냥 가족끼리는 사랑하고 좋아하는 행복해요 우리끼리는 앓아있으면 우리끼리 놀면 재밌어요 우리는 (중략) 우리는 재밌게는 살아요 이제 우리 아들자고 있을 때 안쓰럽고 미안하고 그런거 뿐이지 지금 실상은 재밌게 살아요 내일을 걱정하다 보니깐 애들한테 미안해서 그런 거지 그래도 내가 돈이 벌어야지 모아놔다 뒷받침이라도 해주고 군대갔다고면 방이라도 넣어주고 직장 나가면 방이라도 얻어주고 해야 밑천이 있어야겠어요 그런 거 때문에 걱정이지 지금 사는 데는 행복해요 (패널참여가구 77, 47세, 여)

우리가족은 성심성의껏 열심히 사는 가족 (면접자: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요?) 아이들도 착하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애들이 보는 저희 부부도 사치 같은 것도 안하고 될 수 있으면 저희는 아이들도 그러지만 남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거든요 애기 때서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거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행복하다 생각해요 (패널참여가구 90, 36세, 여)

한편, 몇몇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 구성원으로 가족을 소개하였다. 이들 중 대부분 함께 살고 있는 성원들을 중심으로 가족을 소개하였는데 간혹 친척과의 왕래나 연락이 이루어지는 경우 친척을 가족 범위에 포함하기도 하였다.

2. 가족의 정의 : “가족은 000이다”

가족과 함께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살아왔던 연구 참여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가족을 “울타리”, “공동체”, “동행”, “비밀 언덕”, “뿌리” 등으로 묘사하였다. 실제로 “울타리”로 가족을 정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족이 있어 의지가 되고 또한 가족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이다. 남이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가족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였다.

(면접자: 어머니가 가족을 정의한다면 가족은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서로 울타리에요 (면접자: 울타리. 의지하고?) 응응. 맞아요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힘의 원천이고 (면접자: 근데 가족은 또 힘이 되기도 하지만 일정 부분 되게 짐스러운...) 짐? 그렇게 생각하면 못살죠 내가 그때 당시 짐이라고 생각했으면 못견디지. 너무 무겁잖아. (웃음) (패널참여가구 40, 50세, 여)

제2절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1. 배우자와의 관계

본 영역에서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서, 크게 배우자 관계와 관련된 위험요인, 배우자 관계와 관련된 보호요인, 배우자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경험이 도출되었다. 응답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응답자가 여성 노인(70세 전후)이며, 다음으로 40-50대 중년 여성, 30대 기혼 여성 응답자는 소수를 차지하고 있다. 배우자와 사별하신 어르신들도 많았으므로 과거 배우자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응답한 경우도

많았다. 전반적으로 빈곤한 상황적 현실로 인해 어르신들이 노동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건강상의 불편함과 괴로움, 나아지지 않는 경제적 현실에 대한 불안과 우울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많았다.

가. 배우자 관계와 관련된 위험요인

많은 응답자들이 배우자 관계에서 갈등을 초래하거나 배우자 관계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현실은 ‘경제적 불안정, 상대 배우자의 음주 혹은 도박, 가정폭력, 소통의 부족과 단절, 시대과의 불화 등’과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들(stressors)이며 이로 인해 응답자들은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 실망감, 자존심 상함, 안타까움, 미움 등의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이러한 위험요인들은 각각 독립적이라기보다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응답자들이 배우자 관계에서 레질리언스를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로서 작용한다. (가정폭력 요인은 ‘여성 영역’에서 별도로 기술하고 있으니 참고 바람) 구체적인 하위주제와 응답자의 진술들에서 도출된 코드를 예시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불안정 (남 녀 응답자 모두)

배우자의 소득이 감소되거나 없어지는 경우, 배우자의 도박·음주 습관으로 인해 재산이 손실되면서 부부 갈등 발생하게 된다.

“돈 없으면 더 싸우게 되지”, “집에 있어도 불만 집안 일 안 하고 나간다고 불만”, “이제 와서 그런 말 한게(돈 안 벌어들인다고) 미안해, 못해주는 사람 마음은 더 아팠을 텐데”, “돈 못버는 남편 사람 취급도 안하고”. “가정이 조금은 그래도 풍

요로워야지, 너무 그렇게 뽀뽀하니까, 마음이 너그러워지지 않아.”

2) 음주 혹은 도박(여성 응답자)

배우자(남)의 잦은 음주와 중독성 도박은 가정 경제를 위축 혹은 파탄에 이르게 하여 부부 갈등 발생하게 된다.

“술이 문제지” “돈이 좀 생기면 갖고 나가 까먹고(도박), 나야 어떻게 되든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있는 걸 까먹는 거지(음주), 새끼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술 먹으면 내가 대꾸 안한다고 잠들 때 까지 소리 지르고 힘든 거야 말할 수 없지”, “도박해서 결혼 1년만에 빚이 뽐뽐 터지니까 정신이 없어”, “새벽에 술 먹고 들어와 다 깨우고., 자기 밖에 모르죠”, “도박 빚으로 보험 저축 나 몰래 다 해약해서 찾아 먹고 나 중에 들통 나고 난 화병 걸리고 결국 이혼”

3) 소통의 부족과 단절

여성 배우자들은 남 배우자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슬플 때나 기쁠 때 서로 위안과 격려를 주고받길 원하지만 상호 대화하는 습관과 기술을 학습할 기회도 부재하고 부부간 소통의 부족과 단절이 만성화되어 부부 갈등의 해소가 어려웠다.

“무슨 얘기를 하면 나 원래 그랬다, 옛날부터 그랬는데 뭐가 문제냐”, “그저 조용히 사는 걸로 감지덕지 하지”, “속으로만 그러면 뭘해, 껍데기는 내 보이지 않고(남편의 침묵, 표현 부

죽”, “내가 아프면 말을 못해 인해 엄청 서운해”, “여자니까 포기 하고 사는 거예요 남편하고 파트너쉽은 아니예요”

4) 시댁과의 불화

여성 응답자 중 시댁 어르신이 배우자나 자신에게 보여주는 차별적 처사와 대우에 대한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남편이 나를 무시하니까 시댁도 나를 무시하죠”, “시댁이 남편을 배려하지 않고 형제간 차별하고”, “본인 자식만 소중하고”, “살림 할 때만 며느리로 생각”

나. 배우자 관계와 관련된 보호요인

많은 응답자들이 배우자 관계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현실로서 ‘경제적 안정, 자녀 양육의 보람, 동반자로서의 시간 나눔, 상호 존중과 양보 등의 보호요인들을 보고하였다. 이 현실은 응답자들이 경험하는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 기쁨, 재미, 평화로움 등의 정서적 반응들을 포함한다. 아래 요인들은 각각 독립적이라기보다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응답자들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레질리언스를 유지하는 것을 돕는 대처자원으로 작용한다. 구체적인 하위주제와 응답자의 진술들에서 도출된 코드를 예시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안정(남녀 응답자 모두)

맞벌이로 가구 소득이 증가하면 배우자간 상호 존중 및 이해가 증가

하고 가족생활의 여유를 더 즐길 수 있어 배우자간 관계스트레스가 완
화되었다.

“여자는 돈을 벌어주면 좋아해요”, “제가 맛벌이 하면서 관계
가 더 좋아졌어요 좀 더 여유가 생기니까”, “돈 벌어주고 가
정을 잘 이끌어야 좋은 거죠”

2) 자녀 양육의 보람

응답자들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지켜보며 배우자 관계를 더 긍정적
으로 평가하게 되고 자녀로 인한 기쁨과 재미로 배우자 관계 스트레스
가 완화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아이가 아니었으면 아마 죽자 살자 많이 싸웠을 거예요”,
“아이들 재롱 보면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다 보면 서로
에 대해 풀어지게 돼요”, “어려운데 자식 다 공부시키고 키워
준 거 고마워”

3) 동반자로서의 시간 나눔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으신 어르신들은 시간이 흐를수록(자녀는 결혼
하여 분리되고) 배우자가 동반자로서 마지막까지 함께 하고 있다는 의
미를 재발견하게 되었다.

“그래도 같이 있으니까, 심심하지 않으니까, 혼자 밥 먹기 싫
은데 같이 먹으니까 좋지”, “이제 내가 아프면 밥도 차려주고
빨래도 자기가 다 할 줄도 알아 고맙지”

4) 상호 존중과 양보

어르신 응답자들 중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의 모습과 입장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돈 없어도 서로가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래야”, “돈도 중요하지만 서로 마음 편하게 위로 해주고”,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더 이해하고 그래지면서 지금은 서로 편해졌어요”, “서로 막 같이 하려고 안하면 싸울 일 없어”

다. 배우자 관계의 중요성

응답자들 중에는 자녀와의 관계가 배우자와의 관계 보다 중요하다고 대답한 경우와 모두 중요하다고 대답한 경우도 있었지만 더 많은 응답자들이(남녀노소 모두)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는 부부관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구체적인 하위주제와 응답자의 진술들에서 도출된 코드를 예시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부관계가 자녀관계 보다 중요

응답자들 중 부부관계가 자녀관계 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부부가 자녀에게 가장 기초적 역할모델이 된다고 보았고, 자녀들은 결혼으로 떠나지만 부부는 끝까지 함께하는 동반자임을 강조하였다.

“부부관계가 화목하면 가족이 다 화목”, “부부관계가 좋아야 자식도 잘 키우는 거지”, “나이가 들수록 부부관계가 더 중요하지”, 자식들은 짝 맞춰서 사니까, 이 양반 안 계시면 내가 참 겁나게 허접하겠다 싶어서”

2) 자녀관계가 부부관계 보다 중요

응답자들 중 자녀관계가 부부관계 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배우자는 성인이 되어 만났지만 자녀들은 부부관계에서 태어나 성장하는 존재이므로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부부는 성인되어 만나서 이해해가는 것이고 애들은 돌봐주어야 할 존재니까 더 중요하지”, “자녀가 더 중요하지요 제가 책임져야 하는 저에게 의지하는 존재들이니까”

3) 부부관계와 자녀관계 모두 중요

가족 관계이므로 부부관계와 자녀관계는 상호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

“부부가 불안한데 애들이 잘 될리 없고 애들이 속썩이는데 부부가 좋을 리 없고”

2. 부모와의 관계

본 영역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서, 크게 4가지 질문이 이루어

어졌다. 첫째, 부모와 따로 살게 되면서 불편하거나 좋은 점, 둘째, 부모님과 왕래 경험 및 관계, 셋째, 부모와의 세대차이, 넷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이다.

본 영역에서의 응답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미혼에서 기혼, 30대에서 80대, 남, 여성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했을 때 대부분 자기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답변하였고, 여성응답자가 많은 이번 조사의 특성으로 인해 결혼으로 인해 맺어진 시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 답변한 경우가 많았다. 젊은 세대일수록 부모가 생존해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갈등이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60대 이후 응답자들의 경우 부모들이 모두 생존해계시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모의 사망 이후 부모에 대한 생각이나 관계에 대한 의미부여 등이 젊은 세대와는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만족 또는 불만족하는 부분/ 부모의 의미

응답자들에게 부모와 동거하면서 또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만족 또는 불만족했던 부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미들이 도출되었다.

- 부모로부터 사랑과 지원을 많이 받지 못했음 VS 사랑을 많이 받음
- 정이 없음
- 아들만 편애하는 부모로부터 차별받음
- 공부를 안 시켜줘서 불만이 많았음
- 시촌과 비교하여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에게 서운함

그때는 옛날이잖아요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자식이 많아서 그런가봐. 지금처럼 하나 놓으면 사랑을 줬을 건데,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거 같아 자란 환경이 그런 걸 제가 느끼더라고.. 지금 같으면 하나나 둘이니까 사랑 얼마든지 주는데 그런 것도 못해. 넉넉한 집안도 아니고 옛날엔 어려웠잖아요. 그런데서 자란거야 그냥.. (패널참여가구 7, 57세, 여)

공부를 못해서 그게 상당히 불만이 많았어요. 지금 저기, 웬만해도 요즘은 그런게 좀 드물지만 적어도 고등학교는 시켜줘야 대학은 못시켜도 촌에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도 고등학교는 시켜줘야 만이 맞는데, 아.. 그것도 어려워서 못하고 뭐 참 그게 불만이었어요 (패널참여가구 51, 73세, 남)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의 질병 등으로 부모를 모셔야 할 때 갈등이나 심리적, 물리적 고통은 더욱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질병이 중할수록 부모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의무감으로 모시게 됨
- 부모가 부담스러움
- 아픈 부모 수발이 고통스러움

저는 전화는 정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필요가 있으면 해요. 언니나 동생한테는 오히려 쓸데없는 일로도 전화를 하는데 엄마야빠한테는 사실 전화하기가 겁나요. 안 좋은 소식 듣는 게

싫어. 왜냐하면 해결을 못해 줄 거는 아예 듣고 싶지가 않아.
(패널참여가구 12, 38세, 여)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엄마 아버지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면 좀
않지 말고 조용히 주무시듯이 하루라도 한분이라도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한분만 안계시더라도 진
짜 편하겠다 그렇게 변했어요. (패널참여가구 75, 50세, 여)

패널참여가구 75의 경우는 부모의 치매가 심해지면서 부양 부담이 더
욱 커지게 되고, 이러한 문제가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수발이나 지원의 부담은 동거 또는 근거리에서 거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를 요양원으로 모신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오히려 원거리에 계시기 때문에 더 자주 찾아가지 않게 되고
이후 거의 찾아가지 않게 되는 경우도 생겼다 (패널참여가구
71, 39세, 여).

이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과 달리 부모를 떠나 결혼에 접어든 응답자
들은 오히려 결혼 후 부모의 심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됨으로써 부모에
대한 생각이 변하게 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의 부
부관계의 좋고 나쁨이 부모와의 관계나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 후 본인의 부부관계가 어려우니 부모를 더 의지하게 되는 경우
도 있었고,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다보니, 부모의 심정이 무엇인지 이해
하게 되며, 늙어가는 부모의 모습에 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부모의 관계가 좋지 않아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던 엄마를 생각하면서 같은 여자로서 엄마를 측은하게 생각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 부부관계가 힘들어 부모님이 더 의지가 됐음
- 결혼하고 나니 부모 심정을 알게 되어 더 애뜻해짐
- 늙어가는 아버지 모습에 더 짝한 감정을 가지게 됨
- 엄마가 여자로서 안쓰럽게 생각됨
- 부모님은 나에게 든든한 존재

아무래도 저는 신랑하고 부부사이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느낄 때마다 우리 엄마는 참 불쌍하다 생각 들었어요. 여자가 좀 남편한테 사랑받고 이런 게 있어야지 좀 행복할 텐데, 우리엄마는 우리아빠하고 평생 저렇게 사이가 안 좋게 사시는 데, 그런 재미는 참 모르고 사셨겠다. (패널참여가구 20)

부모님은 없어서는 안 되죠. 제가 제일 기대고 사니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기댈 수 있는 물질적으로는 아닌데 정신적으로 제 이야기를 편하게 들어주시고 저를 제일 많이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패널참여가구 90, 37세, 여)

이 외에도 아버지의 두 집 살림으로 원망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아버지가 늙어가는 모습에 안쓰러움을 느끼는 양가감정의 정서를 가진 참여자(66), 부모와의 나쁜 관계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참여자(75),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 부모가 큰 의지가 되었는데, 부모가 돌아가시자 큰 쇼크를 받은 참여자(16)등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 매우

다양한 양상이 드러났다.

나. 부모로부터 독립했을 때의 장, 단점과 의미

본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결혼을 기점으로 부모와 물리적으로 독립하여 살게 되었는데, 부모로부터 독립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그것의 의미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미들이 도출되었다.

- 간섭받지 않음에서 오는 자유로움
- 경제권을 가지게 된 기쁨
- 내 살림을 가지게 되었다는 만족감
- 홀로서기

연구참여자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했을 때 가장 많이 느끼는 만족감이 나 장점이라고 생각한 것은 역시 “간섭받지 않음에서 오는 자유로움”이었다. 부모의 통제나 간섭, 그들의 생활방식에 맞춘 생활에서 이제 자기만의 독립된 공간과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느끼는 자유로움은 독립생활의 가장 큰 장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제까지 부모에게 의존하던 삶에서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홀로서기를 하게 된 것에 대한 만족감과 동시에 부담감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자 : 그렇게 따로 살게 되면서 좋은 점은?) 암만해도 자유가 있으니 좋지. 같이 살때는 불편하지 암만해도. (패널참여자 10, 72세, 여)

(면접자 : 혹시 부모님과 딸로 살게 되면서 불편하거나 좋은 점 있을까요?) 저는 좋았어요 (면접자: 어떤 점들이요?) 그냥 형식적으로 부모님을 싫어하는 것을 떠나서 저는 개인플레이를 좋아해요. 피해를 주지도 받지도 말자 주의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생활방식이 저하고는 조금 안 맞았었거든요 (패널참여가구 12, 38세, 여)

좋은 점은 간섭 덜 받아서 좋은 것 같아. 결혼을 했는데도 부모가 아직 부모다 보니까 매 잔소리에 매 어찌라 저찌라. 이런 간섭을 안 받아서 이게 이 결혼했으면 내 살림이잖아요 내 살림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간섭을 들으면 싫더라고 근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있으니까 그게 좀 덜 받으니까 그거 하나 마음 편해요 (패널참여가구 20, 40세, 여)

(면접자 : 그럼 따로 살게 되면서 혹시 좋은점은 무엇이었나요? 부모님하고 따로 살게 되서 좋은점?) 이게 마음대로 안되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금방 돈도 벌어지고 그래 되겠다 싶었는데 사실 이거 한해 벌면 둘이씩 얼마 벌이는, 얼마씩 모으는 그게요 모으다가 집 사는 그거 아주 즐거웠어요 집장만 한 거. (패널참여가구 51, 73세, 남)

따로 산다는 의미는 나도 이제 한 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적인 거, 내 홀로서기? 홀로서기 해서 한 집안에 가정으로서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건가? 그렇게 말하면 맞나? 하하(웃음) (패널참여가구98, 39세, 여)

그러나 부모로부터 독립했을 때 장점보다는 단점, 어려움이 더 많다고 느끼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이러한 내용에서 드러난 의미 있는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 분가 후 할 줄 아는게 없어 힘이 들었음
- 양육에서의 도움이 절실함
- 일상생활이 모두 불편함
-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큼

분가 후 할 줄 아는게 없어 힘이 든다는 것은 많은 것을 부모님에게 의존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든 걸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에서부터, 새로 배워나가야 하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또한 양육의 문제 등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데에서 오는 어려움과 관련된 것으로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에서 오는 어려움 중의 하나로 드러났다.

(면접자 : 그렇구나. 부모님과 따로 살게 되면서요 어떤 의미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모든게 새롭지 뭐 내가 모든걸 해나가야 되니까 그냥.. 어렵고 힘들고.. (패널참여가구 7, 54세, 여)

그러니까 이제 누구라도 있으면 내가 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제 애들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누구라도 있으면 애들 돌봐주고 챙겨주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늦게까지 하고 올 수도 있는 건데 (패널참여가구 19, 44세, 여)

어머님한테 얹혀사니까 모든 걸 할 때, 그런대로 살아 왔는데,

내가 따로 살아보니까 모든 게 다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도 뭐든지 다 어려운 과제가 나오죠.(패널참여가구 25, 78세, 여)

(따로 사니까) 그렇게 좋은 점 있다기 보다 불편한 점이 더 많던데요(면접자: 어떤 점이 많이 불편한가요?) 빨래해 줄 사람도 없고 밥 챙겨줄 사람도 없고 뭐.. 그래 노니까 방청소도 제가 해야 되고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패널참여가구 58, 37세, 남)

항상 애 같아서 같이.. 그러니까 돌봐주시던 것도 많이 의지하고, 거의 다 커서도 항상 부모님이 계신다는게 서로 애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결혼하면서 제가 제 살림을 하게 되고 더 책임감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게 한동안은 힘들었죠 제 스스로 해야 된다는게. (패널참여가구 61, 44세, 여)

연령이 높은 한 응답자의 경우(패널참여가구 94) 대가족 제도에 익숙해져 있었고, 따라서 부모와 따로 사는 것이 전혀 좋을 것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살게 될 때에는 주로 물리적인 어려움(식사, 청소, 빨래 등의 일상생활 관련), 양육에서의 어려움(직장생활 병행시 양육 도움이 절실함), 심리정서적인 어려움(문제해결이나 과업의 주책임으로 인한 부담감 등)이 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부 참여자는 부모와 분리세대로 근접해 사는 것 또는 함께 사는 것이 매우 장점이 많다고 진술하였다. 물리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수시로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유대관계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직장생활을 해도 어머님을 보잖아요. 뚝 떨어져있으면
그래도 심적으로 그러는데 지금 같으면 아프시면 얼른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 면도 있죠. 무슨 일 있어도 어머님한테 얼른
부탁할 수도 있고 빈번하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패널참여가구 40, 50세, 여)

다. 부모 중 더 친밀한 관계와 그 이유

부모 중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부모가 누군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주로 엄마와의 관계가 더 긍정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엄마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경우 같은 여자라서 더 친밀함이 생
기는 것 같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지만, 반대로 엄마와 매우 나쁜 관
계를 가진 응답자들도 있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엄마가 어렸을 때부
터 자신을 냉정하게 대하거나, 아들만 편애한 경우, 끊임없이 무엇인가
를 요구하는 엄마인 경우에 해당되었다. 또한 서로 성격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우리 사회 아버지들이 가부장적인 권위와
태도를 유지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표현력의 부족이나 정을 주지 않음에
서 오는 문제로 인해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아버지가 무뚝뚝하거나 거의 대화를 하지 못한 경우 어머
니와 애착관계를 더 강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어머니
대신 아버지와 더 끈끈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결국 부모 중 어떤 특정성과의 관계가 유독 친밀하게 형성 된다고 보다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준 부모와 더 친밀함을 유지하고, 더 많이
의지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 같은 여자라서
- 성격이 맞지 않음
- 아버지의 무뚝뚝함
- 사랑을 많이 준 부모와 더 친밀함

아니요, 같은데요, 전화를 해도 엄마한테 하게 되지, 아버지한테는 잘 안하게 되더라고 (면접자: 그럼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 그 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아버지 몰래 내가 애길 하면은 엄마는 들어줘요, 아버지는 안 들어줘. 그러니깐 아무래도 엄마하고 더 속 저기 하는 거지, 딸하고 엄마하고 (패널참여가구 19, 44세, 여)

(면접자: 그러면 아버지하고 조금 덜 친한거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그런거예요?) 그런건 없구요 그러니까 잔정이 별로 없으세요, 아버지가.(면접자: 아.. 아버지가?) 네 . 뭐 자상하게 얘기하시거나 그런 편이 아니세요 좀 무뚝뚝하시니까 그래서 좀 말을 안하게되죠 (패널참여가구 61, 44세, 여).

계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저희하고 지금도 친구처럼 지내는데 아버지는 옛날부터그냥 저 어렸을적 아버지는 엄격하고 가까이 하기엔 좀 옛날에 그랬잖아요 좀 무섭고 그러다보니까 아빠하고는 별로 형식상 인사 이야기 그런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패널참여가구 90, 37세, 여)

아무래도 그냥 엄마라는 거는 친했던 이유. 무조건 엄마는 다 그러잖아요. 엄마하고는 다 엄마잖아요. 다 해줄 거 같고 그

냥.. 지금도 저는 엄마 생각하면 울거든요 벌써 엄마 돌아가
신지가 거의한 13년? 됐는데도 지금도 울어요 제사 때 되면
지금도 보고 싶고 너무 그럽고 (패널참여가구 98, 39세, 여),

라. 부모와의 세대차이

부모와 세대차이를 느끼는가, 느낀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런한가에 대한 질문에 있어 다양한 응답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세대차이를 느낀다고 응답했고, 젊은 세대일수록 그런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의 방식에서부터 생각이나 인식, 문화나 소비방식의 차이에 이르기까지 세대차이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세대차이를 느끼는 것에 있어 남녀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일상의 소소한 일처리 방식에서의 차이를 느낌
- 생각과 인식의 차이가 큼
- 문화의 차이
- 소비방식의 차이

예를 들면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처리하는 방식-음식, 빨래 등-에서 차이를 느끼고, 버려야 할 물건을 버리지 않고 모아두는 생활방식 등, 젊은 세대가 소유하는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차이, 부모가 자기의 생각이나 옛날 방식만을 고집할 때 세대차이를 느낀다고 하였다. 한 참여자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잘 해드리기 위해 큰 돈 들여 어렵게 구한 좋은 음식 사갔으나 오히려 큰 꾸지람을 들었을 때 세대차이

를 느꼈다고 응답하였다(패널참여가구 94).

어머니하고는 많지요. 이제. 지금 뭐 이제 생활하는 자체도 그러니까 음식이나 모든 걸 조리할때나 세탁할 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쉽게 쉽게 하는데. 지금들은 방법이 다 틀리고 그런데 그걸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하고 노인네는 또 영어를 안 배우신 분이라. 그런 쪽에 많이 떨어지고 조금 그러니까 뭐 노인네가 병원에 몇 군데를 다녀서 해도 약을 드시는 것도 얘기를 해도 노인네들은 그 지금 이런 양약보다 이제 뭐 구전으로 전해들은 그런 민간요법 이런 걸 선호하고 그러다보니까 결국에 다시 원상복귀 되는데도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아직까지는 좀. (패널참여가구 36, 50세, 남)

그런 거를 뭐 문화차이라고 그럴까, 의견차이라고 그럴까, 세대차이나 뭐 그거죠 뭐. 솔직히 정보를 뭐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은 단순히 뉴스나 신문 정도를 생각하지만 저는 인터넷 사용하고 하는데 이제 애들은 보면 이제 뭐 다른 인터넷의 상위개념의 것을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뭐 트위터 그걸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나도 애들한테 느끼듯이 나한테 부모한테 느끼는 거는 많이 느끼죠. (패널참여가구 46, 42세, 남)

그러니까 큰일이 다가온다던가. 뭐 이런 일일 때. 우린 이렇게 해야되는데. 아버지는 나름대로 이견 아니다, 그 의견이 안맞잖아. 자꾸 틀리니까. (패널참여가구 66, 63세, 여)

부모 중 어머니와는 세대차이를 못 느끼지만, 아버지와는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저희 엄마는 그런거 없는데, 아빠가 좀 아빠가 좀 어른이라고
뭐든지 당신 위주로만 하려고하고 그런 게 세대차이인 것 같
아요 근데 저희 엄마는 편한대로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너희
편한대로 이야기도 편하게 사위를 보나 며느리를 보나 그냥
편하게 다들 다가가기가 편한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도 잘하시
고 (패널참여가구 90, 37세, 여)

결국 부모와 세대차이를 느끼고, 실제로 그것이 존재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의 생각을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된다고 하였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엄마하고 저하고 동등한 관계는 아니
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보호해 드려야 하는 약자잖아요 정
말 약한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세대차이라기보다는 지금 엄마
의 생각을 바꾸는 거 자체가 무리인거 같거든요 그냥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려니 해야 되는 거 밖에 없는 거 같아요. (패
널참여가구 13, 43세, 여)

마.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할 점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
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를 많이 하며, 자
주 찾아뵙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공통된 의견이 도출되었다. 이

러한 의견에 남녀 응답자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화 많이 하기
- 서로 이해하기
- 부모 말에 토 달지 말기
- 안부 자주 묻고 자주 찾아뵙기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었다. 대화를 하다보면 차이를 많이 느끼기도 하지만,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자녀를 키우면서 본인 자신도 세대차이를 느끼게 되고, 이러한 깨달음이 자신이 부모에게서 느꼈던 세대차이를 돌아보게 된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글쎄 생각하면 그냥 다 대화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애들 하고 보니까 그냥 이렇게 처음엔 나도 욱박지르다가 말을 하다가 보면 “아, 그렇지구나” 이제 그렇게 되요. 아 저거는 또 안맞지, 나는 예전에 무조건 했는데 애네들 의견을 말하니까, 솔직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 저도 있어요. 제가 만약 그랬었다면 “아, 나도 그랬지?” 이렇게 있을텐데 그런 건..(패널참여자 98, 39세, 여)

정신적인 노력으로 따지자면 안부라도 자주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하는 것이 으뜸이고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문제는 결혼 후 절대 손을 벌리지 말아야. 줄 것이 있으나 없으나 간에 자녀 된 도리로써 부모한테 손을 벌린다는 것은 그것은 효도가

못 된다는 것이지. (패널참여가구 94, 73세, 남)

바. 부모에게 바라는 점

부모에게 바라는 점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부모님의 건강’을 꼽았다. 특히 나이든 응답자일수록 고령의 부모가 생존할 경우 부모의 건강을 가장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하시기만을 바람

바라는 거 건강한 거.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거 바라는 거지.
(패널참여가구 17, 61세, 여)

저는 지금 바라는 건 건강했으면 치매 같은 거 안 걸리고 건강하시다 사시다 돌아가셨으면 그런 거 바래. 나이 들어서 그런 거 바라는 거 같아 아프지 않게 계시다가 돌아가셨으면 그냥 쉽게 그냥 누워서 똥오줌 받아내고 이런 거는 내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더 괴로우니까, 그거 안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이런 마음이 두 분 다 70넘으셨으니까. (패널참여가구 20, 40세, 여)

3. 자녀와의 관계

본 영역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서, 크게 5가지의 질문이 이루어졌다. 첫째는 부모-자녀 관계의 만족/불만족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

적인 만족/불만족 영역, 갈등해결 방법, 부모-자녀 관계의 만족(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 등이 해당된다. 두 번째는 자녀 성장에 따른 자녀와의 관계 변화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자녀가 주는 의미, 네 번째는 자녀에 대한 기대, 다섯 번째는 노부모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이유와 같이 살지 않아서 어떠한지에 대해 경험이었다.

응답의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들의 연령대는 30대에서 8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30-40대의 경우는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고 50대의 경우 대학생, 미혼 자녀와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그 이상의 연령에서는 독거노인, 노인부부, 조손가정 등으로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연구 참여자의 연령이 다양하다보니,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경험도 상당히 이질적이다.

가. 만족/불만족 영역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어릴 때와 달리 커가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 불만족스럽고 특히 학교 공부 부분에서 갈등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사춘기를 지나면서는 자녀의 친구관계도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고 이에 따라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도 차이가 있었다.

부모-자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찾지 못해 답답해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한 어떤 참여자는 부모-자녀 갈등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부분에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외부의 지원(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받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갈등해결 방법으로 체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주로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해당된다. 이야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경우에 다른 대안이 없어서 체벌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며, 체벌의 효과가 짧지만 그래도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물론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특히 남자 아이인 경우 더 엇나갈 것을 걱정하여 체벌을 하지 않고 내버려두거나 달랜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갈등해결 방법으로 “대화 - 체벌 - 내버려두기/달래기” 등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부모 가정에서 모 혹은 부와 자녀가 갈등할 경우에는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 혹은 부와 자녀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중간자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한편, 자녀들이 독립한 경우의 노부모는 특별히 만족하거나 불만족한 것이 없고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각자 잘 사는 것을 바란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노부모의 경우 부모-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따뜻한 대화를 이야기하였다. 관계 개선을 위해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공부만 없으면 행복해. (중략) 그런데 공부할 때만 전쟁이에요
(패널참여가구 12, 38세, 여)

그 만족스럽다고 할 적에는 어떤 부모든지 자녀들이 저 스스로 자기 앞길을 잘 헤쳐 나가는 사람이, 자녀가 있는 경우는 부모가 참 만족스럽다 할 것이고 부모가 생각할 적에 헤쳐 나가지 못할 정도로 괴로움을 주는 자녀라면 불만족스럽다 그

렇게 보겠지. (패널참여가구 94, 73세, 남)

근데 그것(체벌)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뭐 애들
잡을 때, 잡는다고 표현을 쓰지만 우리는 근데 그렇게 뭐 물
론 없는 집에 제일 좋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으니
깐 (참여자 81, 38세, 남)

막고 있는 건 없는데, 애가 말을 안 하니깐 대화를 해야 되는
데. 이걸 본인이 안하는데 그거 어떡해요? 하라고 할 수도 없
고 둘 사이를 막고 있는 건 특별하게 없는데 (면접자 : 그럼
두 분이 관계가 좋아지고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
던...) 누가 옆에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중략) 예, 쉽
게 얘기하면 중간역할 제가 못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하면
엄마하고 얘기해라. 좀 그러면 들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죽은
못해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들을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될 것 같아. (패널참여가구
7, 54세, 여)

이제 부모들도 잘해야지. 자식들한테만 바랄게 아니라 부모들
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야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그래, 어른이 됐다고 자시하고 애들한테 그러면 되
나,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줘야. (패널참여가구 17, 61세, 여)

나. 자녀 성장에 따른 자녀관계의 변화

아이가 커감에 따라 점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어느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에서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한결같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부모-자녀 간의 갈등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갈등 해결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과도기적 상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한편 노부모의 경우는 자녀 성장에 따른 자녀관계의 변화에 대해 동의하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노부모의 경우에 자녀관계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갈등상황을 이미 다 거쳐 왔고 그래서 현재는 이러한 변화가 주요 관심사가 아님을 반영한다.

(면접자: 그럼 혹시 자녀관계 시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세요?) 달라지죠 지금 6~7살 때는 2, 3살 때는 한참 이쁘고 6,7살 때는 잡아줄 건 잡아줘야 되고 옛날에 민정이 어렸을 때 8살 땀가 아는 언니한테, “언니, 민정이 말 안 들어 죽겠어”. 그랬더니, 언니가 날 보더니 “야 지금이 시작이야. 점점 더 안 들어” 그러더라고요. 그게 딱 실감이 나요. 그니까는 같은 여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는 잘해요. 학교 갔다 와서 이랬어, 저랬어. 이게 어느 순간부터 5학년인데 아직까지 제가 잡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통제를 벗어나려고 이게 지금 슬슬 트림을 해요. 애가. 엄마의 철저한 통제 하에서 시간 이런 거 지켜가면서 했는데 친구들한테 놀 때도 그렇고 얼마 전에 수지 여기 공원에 가수들 공연할 때 10시에 들어왔어요. 나한테 진탕 혼나긴 혼났는데 이제 슬슬 엄마한테서 엄마의 이 통제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애기아빠랑 심각하게 의논을 해봤는데 확 잡자니 애하고 사이가
 곧이 깊어질 것 같고 안 잡고 애를 확 놔두자니 애가 너
 무 방탕하게 흐를 것 같고 이게 부모로서 어느 선까지 이걸
 잡아줘야 되는지(패널참여가구 20, 40세, 여)

다. 자녀가 주는 의미

자녀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의지가 되는 존재, 삶을 이끌어가는 동
 력이다. 기쁨과 노여움, 행복과 불행, 만족과 불만족, 희망과 원수 등
 자녀와의 관계에서 상반된 경험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의미는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애들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
 (패널참여가구 86, 33세, 여)

나한테는 기쁨이고 희망이고 나한테는 행복이죠 물론 그게 맨
 날 맨날 행복은 아니지 전쟁 같은 때도 있지. 아유, 저 왜수
 같은 것 내가 저걸 왜 놓아갔고, 그럴 때도 있죠 그치만 보
 면 좋아요 내가 놓았다 생각하는 게 더 좋고 뭘 해도 이쁘잖
 아요 그래서. (패널참여가구 20, 40세, 여)

자녀는 있으면은 좀 서로 좀 외롭지 않고 낫지요 없는 사람
 들 보다 무자식이 상팔자라 하지만 애들 태워도 자식이 있으
 면 (패널참여가구 17, 61세, 여)

라. 자녀에 대한 기대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삶, 행복한 생활과 같은 다소 추상적인 기대와 함께 취직했으면,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소리 듣지 않게 자랐으면 하는 등의 보다 구체적인 바람을 드러냈다.

저는 기대나 이런 거 보다는 그냥 정말 아프지 않게만 본인들 하고 싶은 거 하면 즐겁게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패널참여가 구 86, 33세, 여)

마. 노부모의 경우,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삶의 의미

이 꼴 저 꼴 안보고 사니 편안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자유롭게 드나들고 친구와 어울릴 수 있어 좋다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몸이 아프고 할 때는 죽이라도 끓여다줄 수 있는 자식 생각이 간절하다는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따로 사니까 편하기는 편하지. 아무래도 편해. 왜 편하냐면은 한집에 살면 술을 한잔 먹어도 늦게 들어오면은 저 부부간에 있으면은 상관없지만 혼자 살게 되면은 걱정이 많잖아. 이게 부모 맘이라는게 그렇잖아, 아 뭐 술을 한잔 먹을때는 뭐 어떻게 되나, 뭐 누구랑 싸움을 안하나, 부모맘은 걱정이 되잖아. 그래도 같이 안사니까 일단 눈으로 안보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거지 뭐. (패널참여가구 66, 63세 여)

편한게 좋은거지.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힘들지. 밥을 한번 해먹일래도 힘들고 힘들지. 육신이 편한거지.(면접자: 불편한거는? 안좋거나 불편한거는?) 몸이 불편하고 그럴때는 애들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따로따로 다 건강하게 잘 살면은 감사하지. (패널참여가구 9, 70세, 여)

4. 전반적인 정신건강 및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정신건강 영역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질문이 이루어졌다. 첫째, 심리적 혹은 정신적 건강 수준에 대한 내용으로, 10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그 이유와 정신건강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둘째, 본인이나 가족구성원이 경험한 심리적 혹은 정신적 어려움이 무엇이며, 그로 인한 일상생활의 영향과 해결 노력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셋째, 심리적 혹은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있다면 서비스의 내용, 도움 정도, 효과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를 통해 드러난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가. 정신건강 인식

1) 정신건강에 대한 낮은 이해/관심

정신건강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많은 참여자들이 심리적 혹은 정신적 건강이라는 질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면접 과정에서 여러 번 반복질문을 해야 하거나, “잘 모르겠다”, “별 문제없

다'라며 넘어가는 경우들이 빈번하였다. 특히 노인의 경우 몇 번의 반복질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신체적 건강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아직까지 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심 혹은 이해가 부족함을 보여준다. 더불어 정신건강에 대한 질적 인터뷰에서 보다 풍부한 질문내용의 개발, 대상자에게 익숙한 용어의 사용 등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2) 중간 정도

참여자의 약 3분의 2 정도가 5점 혹은 중간정도라고 응답하였다. 자신의 정신건강에 대해 그리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상태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앞서 제시한 정신건강에 대한 낮은 이해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인식에는 자신이 특별한 정신과적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자신이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하다고 보기에다 확신이 없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 그렇죠 뭐. 도파한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보통이기는 해요. 그렇게 만족하는 정도도 아니고 여유가 있는 정도는 아니니까 그렇게 뭐 5점.. 어차피 지금 복잡하기는 뭐 맨날 복잡하니까 머릿속으로 정신적으로도 편안할 정도는 아직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뭐 술을 술에 의존한다던지 우울증 그 정도까지 벗어나고 싶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면접자: 음, 제일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게 스트레스 같은 거 세요?) 그렇죠 광범위하죠 그냥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바쁜거죠.. 문제라기보다. 그런거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위치가 아니니까. 애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패널참여가구 81, 38세, 남)

3) 0점 수준을 경험함

참여자들은 현재는 아니지만 살아오면서 한번 정도는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0점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태를 경험한 적이 많았다.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상황, 가정폭력으로 인한 고통, 가족의 상실로 인한 슬픔, 신체적 질환과 치료로 인한 고통, 산후우울증 등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 생각해도 그 힘들어 밀려오는,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경험을 안고 있었다. 그 시기의 경험은 현재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현재를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어서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며, 잘 극복해온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인자 잠을 안자고 이러니까 입이 마르고 잠을 못자니까 힘들었죠 근데 그게 안정제인가 잘 모르겠어요 잠 많이 자고 밥 먹고 그래서 이제 나왔죠 잠을 안 잤어요 잠을 이틀 썩도 안자고 삼일썩도 안자고 첫 췌 잠을 안 잤어요 안 먹고.... 너무 힘든 고비를 겪어서 그런지 지금은 예. 그래도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과거를 생각하면 목이 메이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극복했나. (패널참여가구 73, 57세, 여)

나. 정신건강 촉진요인

1)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고 있음

정신건강에 대해 긍정적인 점수를 주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 내가 기

대하는 대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것, 하고 싶은 봉사 및 여가 등의 활동을 하는 것, 사람들과 원만하게 대인관계를 이루는 것, 삶의 목표를 향해 하나씩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 등은 자신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2) 희망을 가지고 있음

참여자들은 현재 자신의 정신건강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그래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앞으로 잘 될거라는, 좋아질거라는 삶에 대한 희망과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를 정신적 건강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3) 가족이 있어서 버팀

가족의 건강, 안정, 화목 등은 정신 건강의 매우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어도 가족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서로 지지해준다는 것은 자신의 정신 건강에 중요한 촉진 요인이 된다. 때로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상쇄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더불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견디게 만드는 힘, 그래도 내가 무너질 수 없게 만드는 힘은 가족을 위해서라고 하는 동기가 가장 컸다.

애들은 표현을 안해줘도 잘 자라주니까 좋고 하야. 맨날 돈 애기밖에 안 하게 되네. 시이가 나쁘거나 애들이 속썩이거나 그런게 없는 상황이니까. 그나마 그런 관계가 있는 상황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그나마 버티는 거 같아요. 안그리고 서로

가 그러면은 진짜 못살 것 같아.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도 그
게 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버팀목이 되 주는 거지.(패널참
여가구 40, 50세, 여)

다. 정신건강 저해요인

1) 경제적 어려움

대부분의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정신건강의 점수를 낮게 만드는 주요
한 요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다. 빈곤으로 인한 생활의 피폐함, 불안
과 스트레스, 상대적 빈곤으로 인한 좌절감 등은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
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과거에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회고할 때에도 우울, 자살 시도, 불안의 경험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
다.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진다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정신적으
로 보다 편안하고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였다.

뭐 내가 나이가 들어 60넘도록 이렇게밖에 못 살고 돈도 좀
열심히 그거 해갖고 그랬으면 그거 할킨데 싶고 그리고 맨날
아파트도 전세라도 더 내놔라 이러면 어짜졌노 이런생각 막
그런생각 이런생각 그러면 벌떡 일어나고 어쩔 때는 바깥에
저 창문이라도 한참 서 가 있다가 그래 찬물 끼얹고(패널참
여가구 55, 65세, 여)

2) 신체적 질병

참여자들 중 신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통증, 생활의 어려움, 경제적 부담, 타인에의 의존 상황 등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신체적인 질병은 곧 정신적인 건강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더불어 정신적인 고통이 신체적인 증상과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신체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였다가 정신과로 의뢰되거나 정신과 약물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었다.

3)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정신건강 요인이었듯이, 미래에 대한 불안은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미래에 대한 막막함, 나아질 것이 없는 삶, 노인부양이나 자녀양육에 대해 점점 커져갈 부담감 등은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있었다. 현재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일상적인 불안과 우울의 요인이 되고 있었다.

그냥.. 맨.. 뭐.. 내가.. 내가 느껴도 한 60대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것도, 저번에는 좀 막 이제 우울증이 좀 와가지고 내 스스로가.. 신경정신과 가서 약을 처방받으려고 했는데 거기가 쉬드라고.. 토을날 그래가지고.. 못갔어요..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40대가 들어가고 또 뭐 그런거.. 근데.. 돈은 이제 많이 벌어야 하는데 애들은 커가니까.. 불안감? 막 밀려오더라고.. 내 스스로.. 조금 그게됐었는데 (패널참여가주

4) 스트레스적 사건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적 사건, 즉 가족의 죽음, 폭력의 경험, 경제적 위기, 질병이나 장애 등은 정신적 건강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심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힘든 것이 이러한 구체적인 사건들로 인한 계기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라. 정신건강을 위한 노력

1) 마음을 터 놓고 이야기함

참여자들은 정신건강을 위해 타인과의 관계를 활발히 하고자 노력하였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사람들을 만나서 술을 먹거나 수다를 떨어서 해소하거나,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찾아 마음의 고통을 표현하고 위로받음으로써 해결하고 있었다.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시기를 회고해보면 아무에게도 표현하지 못했을 때, 혼자서만 감당하려고 했을 때, 속으로만 껍썩 눌러서 참으려고 했을 때라고 하였다. 타인과 소통함으로써 정신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은 종교활동, 봉사활동, 전문적인 서비스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우울증이 수시로 와요 엄청 자주와요 그때는 너무 기분이 우울... 우울증이 오면 첫째는 만사가 귀찮고 꿈쩍을 하기가 싫고 또 살고 싶지가 않고... 언니한테 내 속을 거의 얘기를 해요 언니한테 해소를 다해 그러니깐 언니가 어떤 때는 진짜 아

파도 저 때문에 와요 언니가 이제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주고~
상당해주고~ 안쓰럽게 생각... 이제 우리 오래된 친구 30년
친구는 모임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얘기하죠 그 친구하고
는..(패널참여가구 75, 50세, 여)

2) 신체적인 운동과 활동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하고 있는 노력은 신체적 건강을 위한 활동이었다. 등산, 정기적인 운동, 동네 산책, 혹은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먹는 것 등은 신체적 건강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 있어서도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하였다. 몸을 움직이는 것, 일상의 활동을 의식적으로 활발히 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만들며 정신적인 나약함과 나태를 극복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3) 긍정적인 생각

많은 참여자들은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괴로웠던 생각은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좋은 생각만 하려고 하고”,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욕심을 비우고”, “내 자신을 다스리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4) 종교 활동

종교 활동은 정신적인 건강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참여자들은 종교적인 믿음을 가짐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교회 혹은 절에 정기적으로 나가거나 기

도나 탐돌이와 같은 종교활동은 일상의 중요한 활동이자 활력소가 된다. 무엇보다 종교를 통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상호 교류하며, 심리적 혹은 경제적 지지를 얻음으로써 정신적 건강에 큰 기여가 되었다.

마. 심리적 혹은 정신적 어려움

1) 알콜 문제, 가정폭력, 그리고 우울

정신적 문제가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태는 남편의 알콜 문제와 가정폭력, 그로 인한 아내의 우울이었다. 남편의 알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가족과의 갈등이 생기고,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대해 아내나 가족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문제가 반복적이고 심각해지면서, 우울, 불안, 자살시도 등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우울증 온 거 몇 년을 앓았지. 내가 힘드니까 경제적인 것도 그렇지만 가정적으로 남편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되잖아. 남편 잘못만나면 평생고생이라고 남편 허구헌날 술 먹고 술주정하고 허구 헌날 또 두들겨 패고 하니까 정신적으로 내가 병이 온 거지. (패널참여가구 16, 52세, 여)

2) 가족내 복합 문제

참여자 혹은 가족 중 우울,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과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경우에는 타 가족 구성원 즉, 부모나 자녀, 친척 중에 정신과적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참여자 중 엄마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딸도 소아정신과를 다니고 있는 경우이거나, 자

녀가 주의력결핍장애로 치료받던 중 엄마도 권유받아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등이 있었다. 이는 정신적·과적 문제가 가족내 소인이거나, 가족 관계 역동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신과적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3)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불안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정신과적 질병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은 보편적으로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마음이 답답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고”, “모든 게 귀찮고”, “즐겁지 않고 멍멍하고”, “잠을 잘 못자고, 자도 금방 깨고” 등의 일상적인 호소들을 하고 있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제가 어머니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뭐랄까 우울증 비슷하게 오는 것 같아, 그냥 누구한테 얘기, 남편 있으면 남편한테 화풀이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해 남은 한계가 있잖아, 남편한테 갖다 화풀이 할 수 없잖아. 이런 게 조금 그게 스트레스로 오는 것 같아.....그래서 여기서 조금 뼈뼉하게 나가고 누가 뭐라 그러면 화가 그냥 순간적으로 확 나. 그게 스트레스 쌓여서.....조절이 안 되고 쌓여서 그런지 어쩐지, 조금만 저기하면 확 막 폭발할 것 같고 참고 있으니까 (패널참여가구 71, 54세, 여)

4) 주요 정신질환

지금까지 본인이나 가족 중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례는 약 15사례 정도였다. 가장 많은 경우가 우울증으로 인한 것이었고, 그 다음이 알콜중독, 그리고 정신분열증과 조울증도 1~2사례가 있었다.

바.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경험

1) 전문적인 서비스 이용경험이 없음

참여자들은 살아오면서 스트레스적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였거나, 현재 그러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적인 도움을 생각해 보지 못하거나, 그러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는 스스로 극복해야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 또한 경제적 지원이나 신체적 질병의 치료와 같은 일상의 지원이었으며 심리적 혹은 정신적 도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었다.

2) 완치가 아닌 제한된 도움

심리적 상담이나 정신과적 치료를 경험해본 경우에도 지속적인 치료 보다는 일시적인 입원이나 치료가 많았다. 이들은 치료를 통한 효과에 대해 부정적 혹은 제한적인 평가를 하였다. 약물치료의 경우 증상을 완화시켜주거나,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정도의 효과는 있지만 그것이 완치를 시켜주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정신과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한 불편감으로 약을 중단하기도 하였다. 중요한 것은 극복하려는 자신의 노력이나 주변 사람들의 지지였으며 살아오면서 나름의 대처능력이 커지는

것이였다. 치료를 통해 받은 가장 큰 도움 또한 따뜻한 조언, 관심, 위로였다고 한다.

그렇죠 가면 맨날 우리 선생님 맨날 코치하고 충고 막.. 그런 것들이 많아 생각이 많이 빠졌을 때는 밖에 좀 나가라 집에 앉아 있지 말고 초창기에는 이 자리에서 나 스스로 생각에 빠져가 몸을 못 움직이는 그라. 다른 사람은 이해가 안 되지만 선생은 알거든. 선생과 이야기를 하면서, 내 증상을 내가 말하면서 각인이 되는기라. 그러니 그런 증상이 다시 반복될 때에는 이렇게 행동을 했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또 바뀌주고 (면접자 : 아, 선생님과 자주 말씀 나누시고 치료받고 하는 과정에서 증상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는거죠?) 내가 볼 때 정상이 되는 건 아닌데, 대처하는 능력이 달라지는겨. 다른 사람들은 약먹고 2급 정도 되면 약 먹고 밥 먹고 집에 있어야 되는겨. 근데 나는 오 선생이 자주 코치해주고 불교 공부하고 이러면서 대처능력이 되지. 증상은 잘 안 바뀌어요(웃음).
(패널참여가구 68, 57세, 남)

제3절 생활실태 만족 및 의식

본 영역은 생활실태 만족과 의식에 대한 것으로서 크게 네 가지 질문을 제기하였다. 첫째, 현재 자신의 행복한 상태를 1에서 10까지 숫자 중에서 고르도록 했다. 둘째, 이러한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로서 행복하게 하는 요인과 불행하게 하는 요인을 알려달라고 하였고 그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셋째, 지금보다 더 행복한 상태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지 묻고 그렇게 되기 위해 또는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문도록 하였다. 넷째, 범위를 좁혀서 경제적 수준이라는 차원에서 더 나은 수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묻고 그렇게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답변해달라고 하였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하위영역을 구분하고 각 영역 내에서 의미단위-개념-범주-주제 순으로 분석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결과를 간결하게 제시하기 위해 의미단위는 생략하였다. 각 하위영역별로 분석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1〉 생활실태 만족과 의식

하위 영역	주 제	범 주
행복 수준	평균 6.4	10점에서 1점까지
	더할 나위 없음	건강하고 친구들이 많아 좋음. 불행하다는 생각 안 해 봤음. 내 기분이 좋으니 행복함. 마음 편함.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은 없음. 더 바랄 게 없었음. 더 바라는 게 없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이 이대로 가 좋음	지금은 행복할 것도 불행할 것도 없음. 이대로만 갔으면 좋겠음. 이렇게라도 살게 해주어 감사함. 더 떨어지지 않게 붙들어주어 고맙음.
	2% 부족한	행복하지만 나쁜 불만이 있음. 없다고 몸살 나지는 않지만 있으면 좋은 그런 것을 못함. 경제적인 것만 빼면 불행한 게 없음. 쓸만큼 넉넉하다면 10점이 될 것임. 가족, 돈, 건강이 따라줘야 행복함. 집이라도 사서 살면 더 행복하겠음.
	어쩔 수 없음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음. 그냥 사는 것. 지금은 다 포기하고 마음을 비워서 불행하다는 생각도 안함. 이라고 하는데 뭐가 행복하겠는가.
행 복 요인	소소한 일상의 기쁨	좋은 것을 싸게 샀을 때 짜릿함. 아름다운 것을 볼 때 행복함. 순간순간.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려고 애씀.
	건강한 몸	건강하게 살다 죽는 것이 행복. 아프지 않아야 함. 애들 안 아프고 건강하면 행복한 것.
	감사하는 마음	좋은 마음이 살아가는 데 중요함. 하나님이 계시니 행복함.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게 소중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함.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임. 내가 볼 수 있는 게 감사함. 맘을 비워놓으면 됨. 감사함으로

하위 영역	주 제	범 주
		바뀌어짐.
	튼튼한 가족	형편을 이해해줘서 자녀에게 고마움. 자녀들이 사랑해 줌. 며느리와 손주들 때문에 행복한. 가족관계는 100% 만족함. 애들 때문에 행복함. 부담도 되면서 고맙기도 하고 의지도 되고 버텨주기도 함.
	여유 있는 삶	똑바른 집에서 살아서 감사.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더 행복해질 것임.
	걱정거리가 없음	걱정 없이 사니까 행복함. 괴롭히는 것은 없음. 불행한 것은 없음. 두루두루 좋은 것이 행복.
	더불어 사는 삶	여러 사람과 어울리다보면 행복함. 혼자 있다 보면 불행함. 사람 반겨주는 건 매일 행복함.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만 해도 행복함.
	내게 닿아 있는 복지	혜택을 받고 있어서 감사함. 복지정책이 행복에 도움이 됨. 생활에 도움이 됨. 복지혜택도 행복의 조건 중 하나임.
불행 요인	욕심	더 바라는 것 자체가 불행의 씨. 모든 문제가 욕심에서 생김. 없는 것을 생각하면 안좋고 가시로 남는 악순환.
	무기력함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불행함. 잘 안되니까 즐겁지 않음. 스스로 마음에 안드는 것들이 있음. 하고 싶은 거 안했으면 불행했을 것임.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나 자신.
	돈돈돈	경제적으로 힘들니까 불행하게 느낌. 돈을 많이 못 벌고 고생하며 삶. 경제적인 것이 20의 불행.
	늘 아픈 몸	홀로 아픈 몸. 건강이 불행의 요인. 몸이 아파 서러움. 사는 것이 고통스러움. 혼자 있을 적에 치매가 왔음.
	가족은 애물단지	안 좋게 생각해도 참고 있음. 가족관계에서 중재해 줄 사람이 필요함. 자식들 때문에 신경을 써서 덜 행복함. 남편을 안보고 살고 싶음. 혼자 살고 싶음. 불행을 주는 사람이 없어지는 게 행복임. 이들이 죽고 나서 아주 불행했음.
	홀로 버티기	내가 왜 혼자 이려고 사나 싶은 생각. 주변 친인척들이 불행하게 만듦. 고민해봤자 알아주는 사람도 없음. 어떤 때는 외로움. 혼자서 아플 때 보호자가 없어서 곤란하고 치료도 못함. 마음도 닫고 문도 닫고 퍼주는 것도 없고 내주는 것도 없음. 구급시설에 다녀와서 사회생활이 제한되는 것이 힘들.
	나와 상관없는 복지	받은 적이 없어 체감하지 못함. 복지정책이 영향을 주지는 않음. 서비스를 받는 게 없어서 모르겠음.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으므로 체감하기 어려움.
필요한 것	안정된 삶	임대아파트만 되면 더 원할 것이 없음. 어디서 살아야 할지 늘 머릿속에서 돌며 걱정됨. 수급자 선정만 되면 불행할 것이 없음. 이사를 가거나 가게를 얻는다면 더

하위 영역	주 제	범 주
		행복하게 느껴질 것임. 우선 경제적 안정이 필요함. 집안의 분위기가 안정되어야 함. 편안하게 살게 해주면 좋겠음. 안정적인 수입. 애들이 자기 자리 잡아가는 것.
	기본은 건강	건강이 더 좋아지기를 바람. 건강하면 더 바랄 것이 없음. 기본적으로 가족의 건강.
	나 스스로의 변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됨. 내가 노력해야 행복해 질 수 있음. 내가 움직이는 것 따라서 행복이 올 것임.
	나보다는 자식	자신보다는 자녀들이 돈 벌고 잘 사는 것이 행복임.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자녀들이 노후에 고생 안하고 편하게 살았으면 함.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최고임.
	그래도 필요한 건 돈	더 나아지려면 돈이 필요함. 돈이 없으면 인간관계에서도 밀림. 돈이 없어 자신감도 잃게 됨. 더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건 경제적인 것.
	이웃과 소통하는 삶	이웃 간에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삶을 바람.
	아대로 살다 죽는 것	건강하게 고통 없이 죽는 것이 원. 일을 할 수는 없고 쪼들리지 않게 편하게 살고 싶음. 혼자 편안하게 사는 것이 행복.
경 제 적 변화	새로운 돌파구	다른 직업을 통해 경제적 수준이 나아지기를 바람. 직장 있어서 돈을 더 벌 필요가 있음.
	희망 없음	현실은 나아질 기미가 없음. 목돈이 없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음. 나이 들어 한계가 있음. 돈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노력할 게 없음. 맞벌이를 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음. 행복해 질 게 없어 기대도 안함. 사람인데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안되니까 누르고 삶. 지금 처해있는 현실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음. 수입도 없고 부업할 것도 없음.
	나의 노력	노력해서 일하는 수밖에 없음. 정신적으로 노력해야 함. 절약해야 함. 더 노력해서 기본적인 생활수준까지 이끌어주는 것.
	더 바랄 것이 없음	더 풍족하길 바라는 건 욕심임. 크게 불평불만이 없음. 현상유지에 만족함.
	더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 일자리가 많아지면 좋겠음. 어려운 사람은 못 받고 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은 타고 경제적 수준이 나아지려면 공공요금 등이 내려가야 함. 없는 사람을 줘야 함.

1. 행복 수준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현재 상태를 가장 행복한 상태 10점에서부터 가장 불행한 상태 1점에 이르기까지 숫자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그 숫자가 의미하는 행복의 수준에 대한 경험을 분석한 결과, 5개의 주제가 나타났다. 그것은 ‘6.4’, ‘더할 나위 없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이 이대로그 좋음’, ‘2% 부족한’, ‘어쩔 수 없음’ 등이었다. 각 주제들과 그 안에 포함된 범주들은 다음과 같다.

가. 평균 6.4

‘6.4’는 연구참여자들이 선택한 행복 수준 점수들을 평균한 수치다. 그러니까 기초보장패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행복 수준은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정도라는 것이다. 물론 이 수치는 패널 구성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고 전체 기초보장패널로 확대할 경우 더 달라질 수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빈도로 보자면 5점이 최빈치였고, 그 다음이 7점, 그리고 6점과 8점, 10점 순이었다. 4점 이하는 많지 않았다.

연구참여자들이 제시한 숫자와 각 숫자에 해당하는 빈도의 분포는 다양했지만, 이들이 그 숫자에 담고 있는 의미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아래 네 가지 범주인데, 첫째는 현재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더 좋은 것도, 더 나쁜 것도 없이 이대로그 좋다는 반응이었으며, 셋째는 대체로 행복하지만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류였고,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불행한 인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이었다.

나. 더할 나위 없음

대부분의 노인 참여자들이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낮은 소득수준에 머물러 있고 다른 물리적 환경도 좋지 않지만, 지금 수준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이 안에도 다양한 경험과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 어떤 이는 기분 이 좋으니 행복하다고 느끼고, 어떤 이는 마음이 편해서 행복하다고 하며, 어떤 이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없기 때문에 행복해 하고, 어떤 이는 지금 생활만 해도 무척 행복하게 느끼기 때문에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한다.

다.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이 이대로가 좋음

이 주제는 ‘지금 상태 이대로가 좋다’는 면에서 위의 주제와 같다고 할 수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상당한 의미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된다. 위의 주제는 자신이 충분히 행복한 상태에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 다루는 주제는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에서 이대로가 좋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물론 뭔가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 자신의 처지에서 더 바라기는 어렵고, 그저 지금 수준이라도 계속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행복할 것도 불행할 것도 없다’거나 ‘이렇게라도 살게 해주어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다.

라. 2% 부족한

위의 두 범주에 속한 사람들에 비해서, 이 범주에 포함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뭔가 부족한 형편이라는 것을 경험한다. 그럭

저녁 먹고, 자고, 입으면서 살고 있지만 어딘가 조금씩 부족하게 느끼는 것이다. ‘행복하지만 나름의 불만이 있는’ 것이다. 그 ‘2%’가 부족하다고 해서 몸살이 나지는 않지만 있으면 좋은 그런 것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주로 돈이다. 경제적인 그 부분만 채워진다면 불행할 게 없을 것으로 느껴진다. 쓰기에 넉넉할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다면 10점 만점이 될 것이다. 가족관계나 건강, 집도 종종 부족함을 느끼게 한다.

마. 어쩔 수 없음

위에서 살펴본 사람들과 실제적인 생활수준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도 주관적인 행복 수준에서는 크게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바로 이 범주에 속한 참여자들이다. 이들 중에는 아예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선언하는 이들도 있다. 죽지 못해 그냥 사는 것이다.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모두 포기하고 마음을 비워서 불행하다는 생각도 안 드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게 되기도 한다. 한마디로 ‘이러고 사는데 뭐가 행복하겠는가!’ 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으로 경험한다.

2.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들

연구참여자들의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소소한 일상의 기쁨’, ‘건강한 몸’, ‘감사하는 마음’, ‘튼튼한 가족’, ‘여유 있는 삶’, ‘걱정거리가 없음’, ‘더불어 사는 삶’, ‘내게 닿아 있는 복지’ 등 8개 주제가 나타났다.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소소한 일상의 기쁨

더할 나위 없는 삶을 살고 있거나 특별히 행복하거나 불행할 것이 없는 삶이라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큰 기쁨을 주고 그것을 행복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 할인마트에서 좋은 물건을 싸게 샀을 때, 평소에는 스쳐 지나가다가 문득 발견하게 되는 아름다운 사물들을 볼 때 짜릿함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려고 애쓴다.

나. 건강한 몸

건강이 최고라는 이들도 많다. 특히 어르신들에게서 또는 큰 병을 앓고 난 사람들에게서 건강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된다. 어르신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건강하게 살다 죽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였으며, 무엇보다 아프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도 행복을 위한 조건이 되었다.

다. 감사하는 마음

상당수의 연구참여자들은 경제적인 조건들이나 상황보다 그것에 대한 태도,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며, 그것 때문에 자신은 행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고 말한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요인들을 갖고 있는 것이다. 좋은 마음이 살아가는 데 중요하며, 평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려고 한다. 맘을 비워놓으면 그럴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절대자에게 의지하면서 그 신의 존재 자체를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기도 했다.

라. 든든한 가족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가족을 중요한 행복 요인으로 들었다. 물론 가족 자체라기보다는 건강하고 평안한, 그래서 늘 든든하게 여겨지는 가족과 그 구성원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손자녀일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볼 때, 배우자 때문에 행복하다는 경우는 매우 적었고 주로 자녀들 때문에 행복하다는 경우가 많았다. 같이 살지는 않더라도 자주 연락하고 챙겨주고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해주는 사랑하는 자녀와 손자녀들 때문에 행복하다. 설령 자신에게는 잘 해주지 못하더라도 자녀와 손자녀들이 잘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만 봐도 행복하게 느껴질 수 있다.

마. 여유 있는 삶

물론 경제적 조건들도 행복의 요인이 된다. 우선 그래도 먹고 살만큼의 소득이 유지되고 있고, 문화생활을 즐길만한 여유가 있는 경우도 있다. 아직 좁고 불편하지만 똑바로 된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도 고마운 일이다. 경제적 여유가 조금 더 생긴다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바. 걱정거리가 없음

경제적인 여유도 행복의 요인이 되지만 걱정거리가 없는 것도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생계도 유지되고 조금씩 일도 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다른 관계도 평안하고, 건강하다면 걱정할 것이 없고 그것이야말로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자신을 특별히 괴롭히는 것도 없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없다. 그저 두루두루 좋은 것이 행복이다.

사. 더불어 사는 삶

그런데, 위에서 제기한 모든 조건들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혼자만 행복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리고 혼자 있다 보면 불행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족 이외에도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과 어울리다보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그들이 자신을 반겨준다면 매일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저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아. 내게 닿아 있는 복지

사회복지정책도 행복의 조건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그것은 자신과 맞닿아 있어야 한다. 나 자신이 그 정책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그것으로부터 일정한 급여나 서비스를 받고 있어야 그것이 행복의 조건으로 실감될 수 있다. 그렇게 받게 된 돈이나 각종 혜택들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며 그것들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다.

3. 불행하게 하는 요인들

연구참여자들을 불행하게 하는 요인들은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요인들과 대체로 짝을 이루고 있다. 즉, 이 요인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지만, 돈이 적으면 불행해질 수 있다. 건강이 좋으면 행복해질 수 있지만, 병이 생기면 불행해질 수 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행복해질 수 있지만, 욕심을 부리거나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면 불행해질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연구참여자들을 불행하게 하는 요인들로는 ‘욕심’, ‘무기력함’, ‘돈돈돈’, ‘늘 아픈 몸’, ‘가족은 애물단지’, ‘홀로 버티기’, ‘나와

상관없는 복지’ 등이 나타났다. 각각의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욕심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것들을 ‘더 바라는 것 자체가 불행의 씨’가 될 수 있다. 모든 문제가 ‘욕심’에서 생긴다. 없는 것, 부족한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아질 수 있고 그것이 자꾸만 ‘가슴을 찌르는 가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반응들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는 사람들에게서도 나왔지만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도 많이 나왔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처럼 자족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더 나은 삶을 적당히 포기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나. 무기력함

무기력함은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결과일 수도 있다. 무기력해져서 불행해질 수도 있고, 불행한 삶을 살다보니 무기력해 질 수도 있는 것이다. 어쨌든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불행하고, 하는 일들이 ‘잘 안되니까 즐겁지 않고’,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나마 하고 싶은 것을 안했다면 더 불행했을 것이다. 그런데 무기력함은 나 자신의 심리적 상태이므로 결국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바로 나 자신이다.

다. 돈돈돈

조금 부족하든, 많이 부족하든, 돈이 없으면 불행하게 느낄 수 있다.

어떤 이는 불행의 전부가 돈 때문이라고도 했고, 어떤 이는 그것이 다
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하게 느낄 때가 많다고 했다. 10점 만점
에 7점, 8점, 9점이라고 답한 사람들 중에서는 그 모자란 점수들이 돈
때문이라고 말한 경우가 많았다. 1점이나 2점, 혹은 3점이라고 답한 사
람들 중에서는 가난 때문에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서 결국 이렇게 불행
하게 되었다고 회고하는 이들도 있었다. 또한 늘 돈을 벌기 위해 고생
하고 애를 쓰지만 변변치 못한 돈을 벌고 더 나아질 희망도 없이 살아
가야 한다면 가난한 삶 자체가 불행한 삶이라는 등식도 가능한 것이다.

라. 늘 아픈 몸

몸이 아프다면, 거기에다가 ‘늘’ 몸이 아프다면 행복하다고 느끼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질병과 그로 인한 고통은 많은 연구참여자들에게 불
행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직접적으로 건강(질병)이 불행의 원인인
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몸이 아파 서럽고, 더군다나 홀로 사는 처지
라면 그 서러움이 더하다.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는 생각에까지 이
르도록 한다.

마. 가족은 애물단지

가정이 유복하고, 건강하고, 서로 잘 지내고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
의 원천이 되지만, 그와는 반대로 매사에 박복하다고 느껴지고, 아픈 가
족구성원들이 많으며,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면 그 가족은 불행의 요인
이 된다. 그런 배우자, 자녀, 사위와 며느리, 손자녀들은 늘 애물단지다.
‘자식들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덜 행복하다’는 이도 있고 ‘남편을 안보
고 살고 싶다’는 이도 있다. 나아가서 ‘불행을 주는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이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자녀

의 죽음으로 불행을 경험하는 이도 있었다. 가족 관계가 행복의 주요 요인이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갈등을 ‘중재해줄 사람이 필요’하다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지, 있다 하더라도 회복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바. 홀로 버티기

가족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 많지만, 가족이 없이 홀로 살아내야만 하는 사람들도 불행해지기 쉽다. 이 주제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이 있지만 본인만 고립되어 홀로 사는 경우와 아예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다. 전자의 경우 가족이나 주변 친인척들이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고민해봤자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스스로 멀리하기도 한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만 어떤 때는 외롭고, 특히 혼자서 아플 때에는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곤란을 겪으면서 다시 한 번 불행감을 느끼기도 한다. 마음도 닫고 문도 닫고 퍼주는 것도 없고 내주는 것도 없는 그런 상태다. 어떤 이는 ‘구급시설’에 다녀온 이후로 사회생활이 제한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아예 가족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홀로 버텨내야 하는 경우도 힘들기는 하지만 전자보다는 덜 불행하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사. 나와 상관없는 복지

스스로의 삶을 불행하게 느끼는 사람들 중에서 다수는 사회복지제도로부터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 그것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사회복지정책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알고 느끼겠지만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체감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4. 더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

연구참여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사실 앞의 질문과 답변들을 통해 이미 답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필요한 것 자체보다는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알고자 했다.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다음과 같은 7가지 주제들로 구성되었다. ‘안정된 삶’, ‘기본은 건강’, ‘나 스스로의 변화’, ‘나보다는 자식’, ‘그래도 필요한 건 돈’, ‘이웃과 소통하는 삶’, ‘이대로 살다 죽는 것’.

가. 안정된 삶

연구참여자들의 입장에서 지금처럼 또는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안정’이었다. 우선 물질적인 안정이 필요하다. 꾸준히 소득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이다. 집도 떠돌아다닐 필요 없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임대아파트 같은 곳이 필요하다. 집안의 분위기, 가족관계도 안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이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도 보고 싶다.

나. 기본은 건강

돈만 있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은 건강이다. 몸이 건강해야 거동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관계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몸의 건강은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또한 나 혼자 건강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도 모두 건강해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다. 나 스스로의 변화

행복이 내 마음에 달린 것이라면, 더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도 결국 나 자신의 변화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고, ‘내가 노력해야 행복해 질 수 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올지 말지가 결정된다. 그런데, 정말 행복은 내 마음에 달린 걸까? 내가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행복이 주관적인 것뿐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객관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것이라면, 연구참여자들의 이러한 진술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라. 나보다는 자식

자신의 행복에 대해 물었는데, 자식의 행복에 대해 답했다. 물론 모두 부모인 연구 참여자들이고, 그중에서도 어르신들이었다. 자녀가 장성하여 자연스럽게 떠나보낸 노인들은 이제 더 나아질 것이 없는 자신의 삶보다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자녀들의 행복을 바랐으며, 그 자녀들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졌으면 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자녀들의 행복인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돈 많이 벌고, 잘 살기를 바라며, 그래서 저들의 노후에도 걱정 없이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마. 그래도 필요한 건 돈

모든 것이 다 좋은데, 2% 부족한 것이 있고, 그것이 바로 돈이라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덜 행복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더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돈’이

될 것이다.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많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결국 필요한 것’은 돈이다. ‘더 나아지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이 없으면 인간관계에서도 밀리게’ 된다. 자신감도 잃게 된다. 그래서 결국 더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건 경제적인 것이다.

바. 이웃과 소통하는 삶

지금까지 언급된 조건들이 다 채워진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복을 관계에서 찾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내 행복, 가족의 행복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웃과 마음을 열고 소통하며 함께 잘 살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다.

사. 이대로 살다 죽는 것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지금 이대로도 좋으니, 더 필요한 것은 없고, 그냥 이대로 살다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다. 어차피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수도 없고,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기도 힘들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더 쪼들리지만 않는 선에서 적당히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죽기를 바란다.

5. 경제적인 수준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

앞의 질문들이 포괄적인 행복의 개념에 대해 다룬 것이라면, 이번 질문은 범위를 좁혀서 경제적인 수준에 대해 물어본 것이다. 현재 상태보다 경제적으로 더 나은 상태로 변화되기를 바라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 답변에 이어지는 연구참여자들의 해석과 거기에 담긴 의미들 간에는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의미들은 경제적인 수준 변화를 위해 앞으로 필요한 것들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돌파구’, ‘희망 없음’, ‘나의 노력’, ‘더 바랄 것이 없음’, ‘더 살기 좋은 나라’ 등 5가지 주제로 나타났다. 주제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새로운 돌파구

일부, 엄밀하게 말하면 아주 소수의 연구참여자들의 입장에서 경제적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돌파구’였다. 그리고 돌파구로 삼을 수 있는 대안은 단 한가지였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준의 직업과 직장을 얻는 것이다. 이들은 ‘다른 직업을 통해 경제적 수준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직장을 얻어 돈을 더 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싶지 않아서 안한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서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면서도 그것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기기보다는 하나의 꿈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나. 희망 없음

위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시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꽤 긴 시간 동안 희망을 버리는 연습을 해왔기 때문이다. 좀처럼 ‘현실을 나아질 기미가 없고’, ‘목돈이 없어 아무 것도 시작할 수 없다’. 어르신들에게는 나이 자체가 한계로 인식된다. 이들에게는 ‘돈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고’,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안

되니까 누르고 사는' 삶이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 왔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행복해 질 것이 없어 기대도 안하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

다. 나의 노력

새로운 직업, 새로운 직장을 통해 경제적인 수준의 도약을 이루어내기 힘들다면, 순전히 나의 노력으로 더 잘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자면, '더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다. 정신적으로도 마음을 다잡고 노력해야 한다. 지금보다 더 절약해야 한다. 더 노력해서 기본적인 생활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나의 노력으로

라. 더 바랄 것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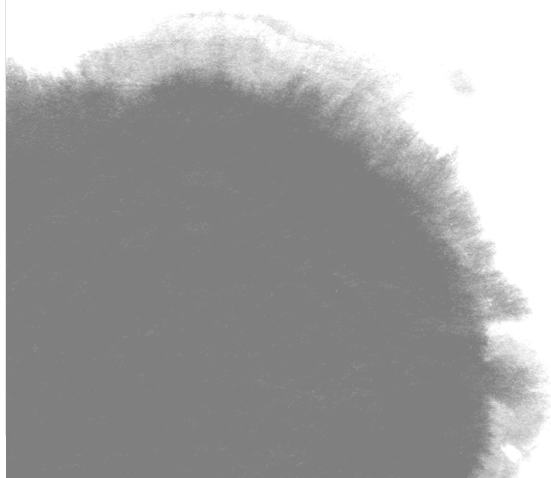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위의 하위질문들에 대해 일관적으로 '더할 나위 없고, 그러저럭 지낼 만하다'고 답한 이들은 여기에서도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더 풍족하길 바라는 건 욕심'이라는 것이다. 현실에 대해 '크게 불평불만이 없고', '현상유지에 만족'한다.

마. 더 살기 좋은 나라

경제적인 수준 변화를 위해서는 거시적으로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도 많이 있었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 개선되어야 할 점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지만 모두 연구참여자와 같은 어려운 형편에 놓인 사람들의 경제적 수준 변화와 연관된 것들이었다. 예를 들자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 것,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원이 집중되도록 하는 것, 공공요금 인하 등이다.

09

저소득층 질적 태널조사 결과 기초분석 Ⅲ:
가족구성원별 조사



제9장

저소득층 질적 패널조사 결과 기초분석 III: 가족구성원별 조사

제1절 여성

본 영역에서는 여성에 대한 내용으로서, 크게 4가지 질문이 이루어졌다. 첫째, 여성이 경험한 남녀차별 및 양성평등, 둘째,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의견, 셋째, 여성과 자녀양육, 넷째, 여성의 가정폭력 경험이었다. 본 영역에서의 응답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응답자가 여성 노인(70세 전후)이며, 다음으로 40-50대 중년 여성, 30대 기혼 여성 응답자는 소수를 차지하고 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응답자들 대부분이 여성 영역에 대해 응답하였으므로 여성 노인이 많았으며 그들은 과거 삶의 사건들을 회고하여 대답하였다.

1. 여성이 경험한 남녀 차별, 양성 평등

어르신 응답자(65세 이상)들은 남녀 차별 혹은 양성 평등 개념에 대한 보편적 관점을 학습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많은 경우 “차별 잘 모르겠는데” 혹은 “여자니까 다 그런 줄 알고 참고 살았지”로 응답하였다.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발생하는 남녀 차별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어르신들의 보고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어르신 응답자들은 ‘여자로 살아온 인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음을 보고하면서도 자신들의 욕구를 억압하고 살아온 인생에 대한 “회환과 후회”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30-50대 여성 응답자들의 경우 여성이기 때문에 겪었던 스트레스적 삶의 사건들(stressful life events)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응답하였다. 대표적 예로, 남자는 ‘가사일이나 자녀양육’에 있어 가능하다면 여자를 도와주는 개념으로 그러나 여자는 반드시 ‘가사일과 자녀 양육’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불평등한 현실을 보고 하였다. 또한 부부가 서로 사위로서 며느리로서 가족 관계를 맺을 때 여성이 시댁에 대한 특정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남편이 친정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제공하는 것은 선택적이고 감사할 일로 받아들이게 되는 편견에 대해서는 ‘억울함, 속상함’ 등의 감정을 보고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응답자들이 전형적 여성 직종에 해당하는 직장이나 독립적 근로(예: 청소부, 판매직, 개별 학습지도)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직장조직의 경험이 없고 동료나 고객들이 여성인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직장에서의 성희롱 및 성폭력과 관련된 경험적 인식에 대한 보고가 많지 않았다. 더불어 어떤 여성 응답자들의 경우 남자들의 ‘성희롱’은 너무 일상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현실이므로 굳이 그러한 ‘성희롱’이 남녀차별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남자들은 그러려고 여자한테 다가오니깐, 그런 동물적 욕구가 여자보다 크니까”). 그러나 공통적으로 경제적 궁핍을 벗어나기 위해 오랫동안 경제활동에 참여해 왔으므로 ‘일과 자녀 양육을 동반하는데서 오는 힘듦과 어려움’을 보고 하였으며, ‘가사 전담 혹은 분담에 참여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남편과의 관계에서 ‘여자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생활을 지속하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구체적인 하위주제와 응답자의 진술들에서 도출된 코드를 예시적으로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여자는 남자 위해 살아야 하는 인생(어르신 응답자)

어르신 응답자들의 경우 우리사회 남존여비의 뿌리 깊은 전통과 관습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았지만 회한과 설움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일편단심 여자로 살았지, 지금은 왜 그렇게 했나 후회 돼, 너 무 배우고 싶은게 있었는데”, “남편은 애 키우는 거 관심 없어도 불평하지 않고 내 할 도리는 하면 살았지”, “신랑이 죽 으라면 죽는 시늉도 하고”, “시댁과 친정 식구들이 여자는 무 조건 남자 위해 살아야 한다고 지금은 그렇게 살면 바보라는 데..”내가 아파서 빨래 좀 넣어 달라고 해도 안해, 쥘로 서운 하지“

나. 여자는 가사일, 자녀양육 전담하고 일도 동반해

여성들은 맛벌이로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가사일과 자녀양육에 대한 우선적 책임을 동반하는데 따르는 어려움과 좌절을 표출하였다.

“일편단심 여자로 살았지, 지금은 왜 그렇게 했나 후회 돼, 너 무 배우고 싶은게 있었는데”, “여자로서 힘든 거는 집에서도 밖에서도 일하고”, “여자는 오만 거 다 챙기는게 여자지”, “아이 낳아도 남편이 큰 아들이 되니까 돌보는 애들이 늘어나 지는 거지”, “남편은 그저 도와주는 거지 전담하거나 똑같이 분담하지는 않지요”, “남편은 애 키우는 거 관심 없고”

다. 친정과 시댁에 대한 공평하지 않은 배려와 대우

여성응답자들은 시대적 추이에 따라 가사와 자녀 양육을 남편과 분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시댁 어르신들이 못마땅하게 반응한다는 점과 친정과는 달리 시댁이 남녀 차별적 사고를 유지하고 있거나 시댁 부모에게 보여주는 며느리서의 배려와 대우만큼 남편배우자가 사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가사분담하면 시부모가 안 좋아해요”, “바쁜 와중에도 전화해서 ‘우리 부모한테 얼마 보냈어’ 물어도 친정 부모 생일은 모르고 챙길 줄도 모르죠”, “친정에서 난 아들 딸 구별 않고 키워주었는데 시부모는 아들 안 낳았다고 싫어 하셨죠”

2.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의견

저출산 현상과 대책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어떤 대책과 지원이 제공되면 출산률이 높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자들은 공통적으로 “자녀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비용 수준”이 너무 높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일과 자녀양육에 대한 이중 부담으로 힘들어 하는 여성 증가” 등으로 인해 “정부 저출산 대책으로 지출되는 소규모 예산 지원”만으로는 출산율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진단하였다. 현재는 일정 소득 이하인 가구에게만 지원하는 자녀 출산 및 보육 지원금을 확대하여 ‘전면 무상 지원’을 실시하고, 자녀 교육열이 높은 한국인 부모들에게 “빈부의 격차와 상관없이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만으로 자녀양육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개혁 방안”이 저출산의 예방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더불어 각

지역사회(모든 자치구에 골고루)에 주민 욕구수준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자녀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더불어 응답자들은 현재 한국 교육제도의 목표가 각 개인의 고유한 재능과 기술을 발굴하고 양성하기 보다는 좋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만 설정되어 부모의 자녀교육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비판하였다. 또한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에 대한 부적절한 잣대(가치관)와 사회적 분위기가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모들의 사치와 과소비를 부추기고 빈부차이에 대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30-40대 응답자들의 경우 어머니들의 현실적 여건에 맞는 보육시설(전면 무상지원, 24시간 보육)을 확충하여 어머니들의 자녀양육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하위주제와 응답자의 진술들에서 도출된 코드를 예시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자녀 출산시 보육과 교육에 드는 경제적 비용이 너무 높아 자녀 출산의 기대감이 낮았다.

“새끼 키우는 일이 보통이 아녀”, “돈 벌어야 아이를 낳지”,
“지방이라 보니 좋은 학원이 가까운데 없어 힘들어요”

나. 국가의 저출산 대책 실효성 낮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선별적 지원 형태(가구 소득이 일정 수준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자녀 출산, 보육, 교육 지원)를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해야한다.

“돈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데 돈 없는 사람만 무상지원 (출산 지원금, 보육비) 하면 뭣해”, “첫째 아이를 위해 둘째 아이를 낳고 싶은 엄마들은 많을 거예요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들에 대한 보육과 교육비용을 대폭 감소시켜 준다면 당연히 낳겠지요”, “학교 외에 아이에게 들어가는 실제 비용이 많거든요”

다. 부모들의 잣대,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

공부 잘하는 아이, 좋은 대학 가는 아이로 만들어야 하는 우리 사회와 부모의 가치관과 과열된 사교육 풍조가 자녀 출산 및 양육의 부담감을 증가시켰다.

“학원 그렇게 다 보낼 필요 없는데”, “국가 지원보다 부모들의 잣대와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 아이에게 필요 없는 비싼 옷과 명품에 투자하는 엄마들”, “대학 안 나온 사람들 쳐주지도 않으니까”, “자기 재능대로 가르치면 되는데 할 줄 모르는 것을 밀어 붙이고 가르치니까”, “학원 다 보내면서 돈으로 버무리는 것이지”,

라. 보육 환경의 문제

맞벌이를 하는 여성들의 경우 현재 운용되고 있는 보육제도는 경제활동과 자녀 돌봄을 동시에 수행하는 여성들의 실제적 현실과 맞지 않았다.

“보육시설이 시간이 현실적이지 않아”, “24시간 열려 있는 보육시설을 찾기 어려운데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

3. 여성과 자녀 양육

응답자들은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체적·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면 지치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은 자녀 양육의 실제적 보람과 결실이 그들의 개인적 삶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앞서 제시한)응답자들의 배우자와 관계 위험요인(스트레스)에서 비롯되는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여성들에게는 “자녀의 존재” 자체가 삶의 큰 도전과 희망으로 경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어떤 응답자들의 경우 국가가 부모들에게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학습을 보다 많이 제공해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혼이나 재혼의 욕구를 가지고 있었던 여성응답자들의 경우, 자신의 삶을 끌어가는 우선적 에너지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원하지 않는 이혼 혹은 재혼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였고 후회한 적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인 하위주제와 응답자의 진술들에서 도출된 코드를 예시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보람

여성 응답자들은 경제활동, 가사일, 자녀 돌봄을 수행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녀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에 대한 보람과 기쁨이 자신의 삶의 활력소임을 보고하였다.

“애들이 재롱떠니까 피로가 풀리지”, 애들이 재롱 떨 때 그때 애들은 효도 다 한 거래” “애들이 구구단이라도 알아서 외우는 걸 보면 신기하고 기특해요”,

나. 자녀는 나 자신의 변화와 성장의 동력

여성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한 인간으로서 과거와 다른 ‘나’를 발견하고 자녀의 존재가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고 가는 주요한 동력임을 깨달았다.

“애들은 제 삶의 너무 큰 부분이에요”, “애들한테 배우는 게 많아요 제가 변화는 걸 느껴요”, “자녀 키우면서 제가 많이 변했어요 여자나 남자나 자녀양육 경험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4. 여성의 가정폭력 경험

어떤 응답자들은 가정폭력 경험에 대해 매우 상세한 수준으로 보고하였으며, 가정폭력의 현실과 상황이 자신과 자녀의 삶에 미친 지대한 영향에 대해 진술하였다(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수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의 응답자가 가정폭력경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제공해주었다). 현재 남편과 살고 있는 어르신 응답자들 중에는 심각한 수준의 가정폭력이 현재 까지 지속되고 있는 경우는 없었고, 사별하거나 이혼한 응답자들 중 과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경험을 회고적 차원에서 보고하였다. 구체적인 하위주제와 응답자의 진술들에서 도출된 코드를 예시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현실

배우자의 가정폭력은 피해자 여성들에게 한 인간으로서, 여자로서, 엄마로서의 기본적 욕구와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싶은 좌절감과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폭력 있을 땐 살기 싫었어”, “여자로서 사랑 받은 적 없어,
남편이 때리고 무시하니”, “내가 마음의 병이 들어(폭력으로
인해), 애들도 눈에 안 들어와, 그냥 죽고만 싶지” “나는 멧
힌 한이 많아(폭력으로 인해),

나. 남편의 폭력에 대한 대처

응답자 대부분은 가해자 남편의 폭력은 음주 문제와 동반되어 발생한다고 보았고 가해자 남편의 일방적인 폭언과 폭력에 대한 대처 방안은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참고 견디거나”, “도망 혹은 이혼”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시작하면 나는 그냥 참아야지, 맞다가 죽더라도”, “결국 살
수가 없어 헤어졌지”

다. 자녀에게 미안함

자녀들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차원의 피해(남편 폭력) 경험은 자신과 자녀 모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좌절을 안겨주었다.

“이들을 때릴 때 이들이 차라리 아빠한테 죽여달라고 애원하
고 그랬지요, 그 아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라. 가정폭력의 후유증

가정폭력의 경험은 피해여성들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상호 정서적 물리적으로 고립· 단절되어지고 건강의 에너지를 극도로 소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지금도 용서(남편) 안돼”, “결혼 하자마자 때리기 시작해서
각방 쓴지 30년”, “너무 많이 몸이 망가져”

제2절 아동/청소년

본 영역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빈곤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이루어진 질문은 크게 3가지 영역에 걸쳐있다. 첫 번째 영역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부분이다. 이 영역에서는 부자 및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인식, 부자가 부자인 된 이유와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이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두 번째 영역은 주관적인 빈곤 인식 부분이다. 이 영역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형편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친 영향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지막 영역에서는 미래의 꿈, 희망하는 직업, 본받고 싶은 어른의 존재, 부모와의 대화 및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등을 질문하였다.

1.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부자를 “돈이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돈이 없는 사람”으로 묘사하였다. 돈이 많은 부자는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며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어

편 연구 참여자는 높은 지위에 있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부자를 재물의 양으로 묘사하는 것과 달리 성격상의 특징으로 기술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성격이 나쁜 사람, 짐승 같은 인간, 못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리고 이러한 부자에 대한 이미지는 교과서 혹은 책에서 나온 부자의 이미지, 예를 들어 ‘홍부와 놀부’의 놀부 이미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 “냄새 맡은 값”이라는 옛날 이야기가 실려 있다. 실제 교과서에서는 고약한 구두쇠 영감과 최서방이 주인공으로 이 둘 사이에는 부자, 가난한 사람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같은 내용이 동화책에서는 구두쇠 영감과 최서방이 욕심 많은 부자와 성실하고 가난한 사람이라는 관계로 설정되어 학생들로 하여금 부자는 욕심 많은 사람, 나쁜 사람의 이미지를 심고 있다.

반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거지, 하고 싶은 것을 못해서 불쌍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돈이 없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사람으로 묘사하였다. 부자를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과 달리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해서 도와줘야 하는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자와 달리 보다 우호적으로 인식하였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객관적인 가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난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가난한 것이고 가난을 핑계로 대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였다.

(면접자: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랬거든 누구를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해?) 돈이 많은 사람. (면접자: 돈이 많은 사람? 왜 그렇게 생각해?) 돈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집도 좋고 차도 좋고 그러니까. (패널참여자 32, 10세, 여)

(면접자: 자, 00은 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성격이 나쁜 사람이에요 (면접자: 성격이 나쁜 사람? 왜 그렇게 생각해?) 부자가 되면은요, 지가 짱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안 돕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또 돕는다고 해도 지보다 안 되니까 그저. 막 그러니까 주는 거지. 지하상가 가면서도요, 제가 언제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리면서 제가 돈을 살짝 넣어줄 때도 있어요 10원씩. 그리고 딱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넣어 주더라고요. 친구들은 가져가는 친구도 있었고 (패널참여자 50, 13세, 여)

나. 부자가 부자인 이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이유

연구 참여자들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돈이 많고 적음, 그로 인해 갖고 있는 물건의 차이, 성격 등에서 차이가 난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공통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사는 집이 다르고 먹는 것이 다르고 입는 것이 달라도 다 집에 살고 먹고 입기 때문이다. 또한 열심히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도 비슷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부자로 살아가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태어나는 순간 부자, 가난한 사람이 결정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부잣집에 태어나면 부자, 부모가 돈이 많으면 부자라는 이야기, 부자와 달리 가난한 사람은 끝까지 노력을 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해서 가난하다는 이야기, 이에 반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여건이 좋지 못해서(예를 들어 장애가 있거나 사기를 당함) 가난하다는 이야기 등이 나왔다.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한테 태어나서, 처음부터 부자인 사람한테

테 태어나서? (패널참여가구 24, 10세, 남)

(면접자: 음, 그렇구나.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부자고 왜 어떤 사람은 가난해?) 부자는 일을 많이 하고 끝까지 노력해서, 가난한 사람은 대충 다 미루고 다른 데로 다 정하기 때문에 (면접자: 다른 데로 다 막?) 아, 다른 다른 날로 오늘 해야 할 것을 다른 날로 미루기 때문에 (면접자: 아, 다른 날로 미뤄서?) 네 (면접자: 그럼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될까?)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 (면접자: 그럼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될까?) 끝까지 안하는 사람 (면접자: 끝까지 안하는 사람. 그러면 끝까지 하는 사람은 왜 부자가 돼?) 노력을 했으니까 (면접자: 어떤 노력?) 자기가 할 일을 끝까지 다해서 (면접자: 그럼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해?) 자기가 할 일을 끝까지 못하고 그러니까 (면접자: 가난한 사람이 자기가 할 일을 다 못하면 왜 가난해져?) 돈을 못 벌고요 그리고 다른 날로 다 미루기 때문이에요 (패널참여가구 19, 11세, 남)

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빈곤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 연구 참여자들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간혹 되기 어렵다는 이야기,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 등도 있었지만, 많은 학생들은 절약해서 돈을 모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가능하다고 대답하였다.

(면접자: 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죠 (면접자: 당연하다. yes,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자기 노력만 하면은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 있잖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가 자신감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으니까 힘내자 그런 것만 가지면 할 수 있어요 (면접자: 그 마음가짐을 일단은 가지고 또 그 마음가짐만 가진다고 부자가 되냐?) 아니요 (면접자: 응. 그럼 마음가짐을 첫 번째로 가지고) 실천을 해야 (패널참여가구 50, 13세, 여)

2. 주관적 빈곤 인식

빈곤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 연구 참여자들은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대해 “가난함”, “보통임” 이렇게 나뉜 반응을 보였다.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이야기한 연구 참여자들은 그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다른 집에는 있는 물건(예: 노트북, 카메라 등)이 없어서 그리고 집에 돈 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등을 제시하였다. 경제적 형편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연구 참여자들은 자고 먹는데 있어 큰 불편이 없고 집에 다른 집에 있는 물건(예: 컴퓨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이 있어서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이지도 않은 딱 중간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면접자: 그런 이유가?) 일단은 제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 뭐 여기 집에 돈 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가난한 거는 맞죠 (패널참여가구 66, 16세, 남)

앞으로 우리 집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했을 때, 고등학생의 큰 아이들은 자기가 취업을 해서 돈을 벌면 지

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런데 고등학생의 경우 졸업 후에 대학에 진학하고 싶으나 돈을 벌어 생계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부담감)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어린 학생의 경우는 부모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부모의 상황이 달라진다면(예를 들어 부모가 취업, 부모의 월급이 오르는 것 등), 앞으로 형편이 달라질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면접자: 앞으로 우리 집의 경제적 형편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뭐. (면접자: 지금 생각은 언제 달라질 것 같아?) 달라져야죠 당연히. (면접자: 응 그러면 어떻게 달라져야 돼, 그 이유는? 어떻게 하면 달라진다고 생각해?)(중략) 일단은 제가 ..꿈을 안 버리면 일단 직업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든 돈 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난하게는 살지 않고 그래도 그렇게 부자처럼은 살지 않아도 보통적으로는 살겠쥬, 뭐. (패널참여가구 66, 16세, 남)

많이 가난한 것 같지도 않고 많이 부자인 것 같지도 않고 딱 적절해서 (면접자: 적절한 것 같아? 가장 적절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 것 같아?) 엄마 근심하지 않고 사주고 내가 원할 때는 사주고 많이 걱정 안하고 사주고 그럴 때 (면접자: 그러면 앞으로 좀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좀 달라질 것 같아?) 네 (면접자: 어떤 부분에서?) 아빠가 월급도 좀 오르고 그럴 때 (패널참여가구 20, 11세, 여)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연구 참여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질문에서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고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살 수 없고 친구와 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따라간 경험들을 이야기하였다. 일부 참여자는 경제적 형편과는 달리 부모의 이혼을 보면서 어른이 되었을 때 이혼하지 않고 집을 나가지고 않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하였다.

뭐... 응... 친구들이 사는데 못사는 것도 있고 응... 친구들이
랑 놀러갈 때에 그런 적도 있고 (면접자: 놀러 갈 때 00이는
못 놀러가고)

(중략) 돈을 별로 못 가져가가지고 (중략) 음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따라 간 적도 있고 (패널참여가구 24, 15세, 남)

3. 미래의 꿈과 부모님의 기대

연구 참여자들은 직업과 관련 없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서 평범한 사람, 노력하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등이 되고 싶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잘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였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이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한다는 점이다. 공부를 잘 못하고 공부하기가 귀찮고 아주 많이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일이 참 힘들다고 얘기한다. 하고 싶은 일(직업)도 마찬가지로이다. 이 경우도 일단 성적이 제일 걸린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공부를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한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결과 기대’라고 하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결과 기대가 낮은 경향이 있다.

(면접원: 우리 00은 앞으로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요?)(중략) 아까 말했듯이 성실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면접원: 성실한 사람.) 그러니까 일이 있으면 한다는 그런거. (면접원: 응: 그러면 그 이유는 꼭 성실한 사람. 일이 있으면 꼭 성실히 게으르지 않고 일을 해야되겠다는 이유는? 경제적인 극복인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자녀한테 좀 미안하지 않을까 (패널참여자 50, 19세, 남)

한편, 본받고 싶은 어른의 존재에 대해서는 ‘없다’고 대답한 연구 참여자가 많았다. 그 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자식들을 잘 키우는 보통 엄마(연구 참여자의 엄마와는 다른 엄마),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를 잘 키워준 부모라고 답한 경우도 있었고 본인 스스로가 본받을만한 어른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제일 본 받고 싶은 어른 어.. 저는 막 뭐지 이거 면접 준비하는데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생각하고 가고 싶은 나라가 뭔지 생각을 해보래요 근데 저는 존경하고 싶은 인물이든. 저는 존경받고 싶은 인물이 되고 싶거든요 근데 존경하고 싶은 인물을 찾으래요 그러면은 엄마예요, 아빠예요, 언니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 똑같잖아요. 낳아줬으니까, 언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 존경받고 싶은 인물이 되고 싶은데 왜 자꾸 존경하는 인물을.. (웃음) (패널참여자 21, 19세, 여)

부모님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주로 하는 이야기는 여느 가정과 마찬가지로 공부에 대한 이야기,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 등이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중고등학생인 경우 부모와 대화를 원하

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게임을 할 때 그냥 내버려두면 좋겠다는 연구 참여자가 많았다.

그런데 보통 가정과 달리 빈곤 가정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착하게 살아라” 라는 점이 인상적이다.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해서든 경쟁에서 살아남기를 희망하는 보통의 부모와 달리, 빈곤 가정의 부모들은 자식들이 손가락 받을 만한 짓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 이유는 부모로서 크게 뒷바라지해주지 못한 자녀에 대한 가장 소극적인 기대일 수 있다.

(면접자: (중략)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많이 얘기하셔?) 어떤 사람이요? 음, 그냥 착하게만 살라는데 (면접자: 착하게만 살라고 하셨어?) 네 (면접자: 음, 그러면 왜 엄마가 00한테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 같애?) 나중에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되지 말라고 (패널참여가수 19, 13세, 남)

제3절 청소년(중·고등학생)

이 영역은 일상생활 패턴과 생활의 어려움, 강점,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경험, 앞으로의 삶에 대한 바람, 과거에 경험한 어려움과 극복 등 6가지 하위영역들로 구성되었으며, 각 하위영역들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즘 일상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둘째, 요즘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나 고민거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귀하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장점, 자원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귀하의 가족관계, 동성친구관계, 이성관계, 교사관계, 진로, 학업,

취미여가, 신체건강, 정신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 평소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귀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여섯째, 귀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어려움들 중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영역에서의 응답 특성을 살펴보면, 청소년(중고등학생) 영역에 답변한 청소년 참여자는 모두 15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10명, 여자가 5명이었다. 연령 범위는 최저 13세부터 최고 19세까지였으며, 평균 연령은 15.9세, 약 16세였다.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범주화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9-1〉 청소년(중고등학생)의 경험

영역	하위 영역	주 제	범 주
일상 생활	평일	일어남	6시 10분부터 7시 30분까지
		등교	6시 40분부터 8시 30분까지, 아침식사
		하교	4시 전후 / 밤 9-10시
		특별활동과 학원	안다님 / 직업학원, 중국어 반, 태권도 등
		집에 돌아온 후	공부 / 놀이(친구와 또는 홀로) / 컴퓨터와 TV / 직업준비 / 운동 / 밥 먹음, 씻음, 낮잠
		취침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말	일어남	7시30분
		학교 감	일찍 끝나서 옴, 8시 20분 등교, 5시 하교
		집에서	컴퓨터, 폭 잡
		학원이나 교회	재즈댄스, 태권도 사합, 교회
		알바	알바
		놀이감	친구들과 함께 얘기하며 놀러 다님, 친구들과 PC방, 친구들과 놀음, 시골 감
		과제	수행 내준 거 함
요즘 고민과 해	요즘 고민	경제적 어려움	미술학원 다니고 싶는데 돈이 없음, 요리과학고 가고 싶는데 학비 너무 비쌌, 스마트폰 사고 싶다, 비싼 거 못사는 거
		학업	성적 올리고 싶음, 공부 모를 때 알려줄 사람 필요함, 방과후 교실 잘 안맞음
		관계	사람을 쉽게 잘 믿음, 애들이 나한테 장난을 쳤, 친구들과 사이 안좋음, 엄마와 사소한 일로 다툼, 선생님이 조금만 잘못해도 혼을 냄

영역	하위 영역	주 제	범 주
결 방 법		대학과 진로	직업이 나한테 좋은지, 대학 고민, 가고 싶은 과를 이 근처 학교로 갈 수 있을지, 대학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남한테 끌리진 않을지
		잠	잠 많은데 학교 때문에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함, 학교 갈 때 일찍 일어나야 함, 잠 부족
		외모	여드름
		없음	고민 없음
	해결 방법	어른들과 얘기	고민 있으면 엄마와 얘기함, 교회 선생님과 고민 얘기, 학교 선생님께 물어봄
		혼자 해결	혼자 생각함, 장난으로 생각하고 넘기려 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함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에게 고민 얘기,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며 스트레스 풀, 친구들과 노래방, 그냥 놀고 풀
		인터넷	인터넷으로 해결
강 점	능력	재능	그림 잘 그림, 기계 잘 만짐, 축구, 야구, 중국어, 만들기, 조립능력
	강점	성격	성격이 재미있음, 활발함, 잘 웃음, 낙천적, 즐거워 보임, 밝아 보임, 해맑음
		관계	친화력, 다른 사람을 헤아릴 줄 앎, 대인관계 원만,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듦, 고민을 잘 들어줌, 부탁을 잘 들어줌, 모르는 사람에게 말 잘 붙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어르신을 잘 생각함
		자기통제	감정 조절 잘 함, 하고 싶은 거에 있어서는 끈기 있음, 한 가지 일에 열중할 수 있음
	자원	자원	누나가 모르는 부분 도와줌, 삼촌과 숙모랑 친함, 주변 가족과 친함, 엄마가 성적 스트레스 안줌
	기타	없음	잘하는 건 없음
다 양 한 영 역 에 대 한 생 각	가족 관계	가족 분위기	가족과의 관계 좋음, 가족과 편하고 얘기 잘 통합, 가족관계 화목함 / 가족이랑 놀러가고 싶음, 평일에 가족들과 대화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아쉬움 / 우리 가정은 보통, 다른 애들과 비슷한 가정인 것 같다 / 돈 때문에 가족관계가 그냥 다 안 좋다
		부모	엄마아빠보다는 자신의 태도가 바뀌어야함 / 부모님과 모든 걸 다 얘기함 / 부모님과 사이 좋음 / 엄마 아빠는 이혼하심
		아빠	아빠랑 같이 살고 편하고 친함 /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음 / 아빠를 대할 때 무뚝뚝하고 애교 없음 / 아빠가 없어서 다른 가족들과는 좀 다르다/ 아빠가 기복이 심해서 가끔 때리심 / 아빠는 싫어하고 본받고 싶지 않음
		엄마	엄마랑 관계 좋음, 엄마와 친구 같음 / 엄마랑 얘기 많이 함, 근데 주로 받듯게 / 잔소리 할 땐 엄마와 애

영 역	하위 영역	주 제	범 주
			기하기 싫다 / 엄마는 만나지 않음, 엄마와 연락도 안 함 / 어머니는 7살 때 돌아가심
		형제	누나와 고민 나눔 / 동생이 먹을 거 사줄 때 좋고 심부름 안할 때 화남 / 형은 도움 많이 줌, 그런데 형이 귀찮음 / 오빠하고는 잘 지내고 동생들과는 많이 싸움
		할머니	할머니와 관계 좋고 할머니가 잘해주심 / 할머니가 일상적인 대화로 먼저 말을 거시는 편 / 할머니에게는 고민 많이 말하지 않음, 걱정하실 것 같아서 /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 거 힘들다
	동성 친구	두루 친함	반친구들 다 친하고 잘 논다 / 친구들과는 동성과 이성 다 두루두루 다 친함 / 친구들과 같이 놀러 다니거나 집에서 공부하고나 얘기하거나 가끔 노래방 감 / 먼저 다가감, 동성친구들과 친할 땐 친함
		친구와 친함	친한 친구도 있고 안친한 친구도 있음 / 친한 친구 많음, 진짜 친한 친구 6명 정도, 나머지 애들도 다 나쁘지 않은 관계, 매년 같은 반 친구들이랑은 진짜 안 친한 관계 / 싸워도 내가 먼저 화해하려고함
		관계의 어려움	한번 빠끗하면 서운한 게 너무 큼 / 친구들과 말을 좀 안하는 편
	이성 친구	이성친구가 있어 좋은 것	남자친구 있음, 남자친구와 동갑이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음, 남자친구 있고 관계 좋음, 남자친구가 나보다 나이 많아 어리광 부릴 수 있음, 남자친구가 배려심과 이해심이 있음, 특별한 갈등 없음
		그저 그런 관계	남자친구 중1때랑 고1때 2번 있었음, 두번 다 한달 정도 밖에 안사귀고 남자가 헤어지자고 함, 헤어졌을 때 별 느낌 없었음
		없음	이성친구 없음 / 이성에 대한 관심 없음 / 남교라서 이성친구 없음
	교사	친구 같은 관계	선생님들하고 관계 다 괜찮음, 담임선생님과 친구 같음, 6학년 때 선생님은 특별히 더 친함, 그 선생님 집에 아직도 놀러감 / 담임선생님과 아주 친함, 담임선생님께 고민도 얘기하는 사이 / 담임선생님이 좋으시고 관계도 좋다 / 대화를 많이 하시는 선생님이라 관계는 좋음, 선생님은 착함, 담임선생님이 제일 착하고 좋음, 참아주심 / 담임선생님과 장난도 칠 정도로 친한 사이 / 다른 선생님들은 안 친함
		보통 먼 관계	선생님들과의 관계는 그냥 보통 / 담임선생님 너무 담배냄새 남 / 선생님이 야자 빼주시는데 까다로워지심, 학원 보충이 있는데 안 빼주셔서 불만 / 담임선생님이 너무 반애들에게 신경써주지 않아서 대학진학이 힘들

영역	하위 영역	주 제	범 주
		나를 싫어함	선생님들은 나를 말 잘 안듣는 학생이라 평가
	진로	하고 싶은 일	진로는 나전칠기 하고 싶음, 스튜어디스 하고 싶음, 사회복지사도 괜찮음, 수학교수 하고 싶음, 기술자가 되고 싶음, 상담사 하고 싶음, 초등학교 선생님 되고 싶음, 남들을 꾸며주는 일, 스타일리스트 같은 거
		대학 또는 취업	대학은 컴퓨터 쪽 가고 싶음, 기계보단 프로그램 쪽, 컴퓨터공학과가 목표 컴퓨터공학과 생각함, 유아교육과 가고 싶음, 사회복지과도 수시 넣었음, 국문학과 가고 싶음, 요새는 과학도 좋음 / 대학보단 취업생각
		선택 계기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집에서 봐와서 하고 싶었음, 언니가 스튜어디스를 보고 멋있다고 해서 되고 싶어짐, 언니한테 뿌듯해 보이는 사람 되고 싶음, 요리에 관심 있어서 요리과학고 가고 싶음, 프랑스로 이사 되고 싶음
		필요조건	그걸 위해 키 커야 하고 수영할 줄 알아야 함, 어떤 상황에도 웃으면서 대처할 수 있어야함, 몸매관리와 자기관리 필요
		언젠가 하고 싶은 일	여행 다니고 싶음, 파리 가보고 싶음
		뒤로 미룸	진로에 대한 생각 없음, 나중에 생각해도 될 듯
		자신이 없음	자신은 없음
	학업	과목 선호	영어와 국어가 싫음, 체육이 좋음, 수학 싫어함, 과학은 좋아함
		공부와 성적	공부는 열심히 함, 노력하는 것에 비해 성적 안나옴
	취미	운동	배드민턴과 농구함, 야구를 좋아함, 축구 좋아함, 한번 나가놀면 10시 이후에 들어와서 이제 엄마가 나가지 못하게 함, 구기종목 좋아함
		컴퓨터	컴퓨터 게임, 컴퓨터가 취미, 인터넷
		TV, 만화	TV, 만화책 보기
		친구들과 놀기	한달에 한두번 친구들과 논다(당구장, pc방, 노래방)
		음악	기타, 피아노
		시간 없음	취미를 갖기엔 고3이라 시간 없음
	신체	건강함	신체는 매우 건강
		건강보조제	건강을 위해 약 먹음, 홍삼과 영양제를 먹음
		건강하지 못함	체력 안 좋음, 달리기를 못함, 꿈을 위해 살을 더 빼야 하는 상황
		아픈 데가 있음	빈혈 있음, 건강한데 눈은 나쁨, 감기 자주 걸리고 자주 체함
	정신	건강함	제일 행복하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편
		평범함	정신적으로는 평범하고 남들과 똑같다, 특별히 정신적 문제 없음
		정체성 고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함, 나는 나다, 나와 똑같은

영역	하위 영역	주 제	범 주
			사람 없으니까, 나 자신을 인정하면 조금은 행복해 질 것 같다
		힘들어 함	공부 때문에 힘들면 나는 왜 살지 이런 생각 함, 대학 가서도 똑같이 힘들 것 같음,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 많이 받음, 대학에 대한 고민 때문에 스트레스, 자살생각은 해본 적 없고 학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해봄, 가끔 외로울 때 우울함, 스마트폰 때문에 소외감 느끼면 외로움
앞으로 삶	노력하는 삶		앞으로 노력하며 살고 싶다, 체력을 기르자, 공부, 노력하고 싶음
	눈앞의 그림		대학가면 알바 해보고 매일 친구들 만나고 성인이 되어야 갈 수 있는 곳도 가보고 남자들도 많이 만나보고 선배들 만나고 외국인 친구도 만나고 싶다. 여행가고 싶다.
	직업 전망		공부 잘해서 앞으로 대학가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살고 싶음, 유치원선생님하면서 빨리 결혼해서 주부로 살고 싶음, 하고 싶은 일 하며 살고 싶다, 컴퓨터하면서 게임 만들고 재밌게 살고 싶음, 태권도도 하고 싶고 다른 것도 하고 싶다, 요리고 졸업해서 레스토랑에 일하고 싶음, 나전칠기를 위해 시골에 살고 싶다
	여유로운 삶		돈 벌고 외국가고 싶다, 그 시기는 일단 대학마치고, 노후엔 축구 보러 다니고 싶다, 나중에 영국 가서 살고 싶음
	강한 사람 배우는 사람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화목한 가정 이루기		가족들도 좋고 친구들도 좋아서 지금 행복,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싶고 엄마랑도 같이 살고 싶음, 일하면서 가정 일구고 집 있고 편안하게, 가족 중심의 삶, 지금처럼 가족들이랑 화목하게 지내고, 부모님께 돈 벌면 돈도 드리고, 꿈을 이뤄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고 싶음
	돈이 필요해		돈이 있으면 1점 올릴 수 있을 듯
		동화속 해피엔딩처럼	행복하게 해피엔딩 동화처럼 살고싶다, 지금보다 1점 정도 더 행복해서 보통정도로만 행복했으면 좋겠다 / 대학진학하고 군대 갔다와서 하고 싶은 일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음 / 돈 많이 벌어서 저축하고 결혼하고 아이 돌보는 삶, 평범한 삶 / 남들처럼 편하게 살고 싶음 / 뒤떨어지지(못살고 머리 안좋고 잘하는 것도 없고) 앓을 정도로 살고 싶다 / 앞으로 즐기면서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고 싶다
살	가족	부모 이혼	어렸을 때는 부모님 이혼 힘들, 초등학교 때 자기가

영역	하위 영역	주 제	범 주
면 서 겪 은 어 려 움 과 극 복 방 법		형제 장애	엄마랑 같이 안사는걸 보고 깨달았음, 엄마아빠 이혼한 거 힘들었음, 아빠 안 만난지 꽤 됐음, 별로 보고 싶진 않음
		형제 사이	언니에 대한 고민 있음, 친구들에게 언니를 어떻게 말해야할지 모름, 남자친구한테 언니에 대해 숨김, 정말 친한 친구들에게는 언니를 보여줌
		부모 사망 더부살이로 위 축된 삶	초등학교 때 동생이랑 싸워서 힘들었음, 옛날엔 동생과 매일 싸움, 싸우면 엄마에게 혼나고 기분 안 좋음, 요즘은 안 싸움
			7살 때 어머니 병으로 돌아가신 것 매우 힘들었음, 이모집에서 살았을 때가 가장 힘들, 이모가 이해를 못 해주셨다, 적응이 잘 안되었고 너무 애로만 취급했다, 따뜻하게 대해주시지 않았다, 소심하고 위축된 삶이었다.
		숨기기	친구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아무 일 없는 척
	관계	세월이 약	지금은 그걸 별거 아니라 생각, 세월이 지나니 괜찮아지는 것 같다,
		사회적 지지	어머니 역할까지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미래를 보면서 산다, 그때의 어려움은 학교 친구들과 잘 지냄으로써 위안 얻음
		적극적으로 대 처하기	당당하게 언니를 공개하면서 고민을 풀어나감, 언니와 일부러 밖에도 다님
		다툼	그냥 짜잘한 거, 친구들이랑 싸운 거, 같은 반 애랑 크게 싸운 거, 집착하는 것 때문에 싸움,
		화해	수련회 이후로 서로 화해하고 잘 지냄
	몸	작은 키	키가 좀 더 크고 싶음, 키 크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땐 이미 늦었음, 키가 이제 안클 것 같음
		신체 기능	달리기 할 때 어려웠다, 달리는걸 제일 못 달려서
		살빼기	살빼는 거 어려웠다 너무 안빠져서
	가난	없어서 힘들	돈 없어서 힘들, 남들 다 있는 물건 없을 때 힘들, 그런 거 엄마가 해준다고 기다리라고 하셔서 기다림
	사건	사고	초3때 교통사고 남, 귀만 다침
		전학	전학 온 거, 초등학교 2학년 때랑 4학년 때 전학, 친한 친구들이랑 헤어져야 해서 힘들었음, 지금도 연락하고 지냄, 전학 와서 새로운 친구 사귀는 게 힘들었다, 2학년 때보다 4학년 때 더 힘들었음, 아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서 혼자다님, 옛날 친구들이랑 전화 많이 했음, 같은 학교로 전학 온 애들과 친해지기 시작
	성적	공부가 힘들	방학숙제 많이 내줄 때 힘들, 성적으로 공부하는데 안 오르니까 힘들고 스트레스다
		후회	중학교 때 공부안한게 제일 아쉬움, 후회됨 학교 좀 잘 다니고 싶다

영역	하위 영역	주 제	범 주
		노력함	어려움이 찾아오면 노력함
	없음, 싫음	있음	긍정적이고 금방 잊어버려서 기억나는 어려움 없음,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성격이라 특별한 어려운 점 없었다.
		싫음	얘기하기 싫음

1. 일상생활

이 연구에 참여한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은 평일과 주말로 크게 구분된다. 평일은 일어남, 등교와 하교, 특별활동과 학원, 집에 돌아온 후의 생활, 취침 등으로 이루어진다. 주말에는 일어나서 학교에 가거나 집에 있거나 학원이나 교회에 가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놀러가거나 과제를 수행한다.

가. 평일

연구참여자들은 평일 6시10분부터 7시30분 사이에 일어나서 6시 40분부터 8시30분 사이에 등교한다. 하교 시간은 학교 일과가 끝나는 4시를 전후로 하교하는 경우와 학원 등에 가서 밤 9시나 10시 정도에 하교하는 경우로 크게 나뉜다. 특별활동과 학원에 안다니는 경우도 있고, 다니는 경우에는 직업학원, 중국어반, 태권도 학원 등에 다니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이후에는 공부를 하거나 친구와 또는 홀로 놀았으며, 컴퓨터와 TV, 운동 등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면접 등 직업준비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일과 중에는 저녁식사와 씻기, 낮잠 등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꽤 큰 시

간 차이를 두고 잠자리에 들었다.

나. 주말

주말에는 집, 학교, 학원 등에서 시간을 보냈고,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는 경우도 많았다. 집에 있을 경우 컴퓨터를 하거나 밀린 잠을 자기도 하였으며, 학교에서 내준 과제도 했다.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2. 요즘 고민과 해결방법

가. 요즘 고민

연구참여자인 청소년들이 요즘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민거리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학업, 관계, 대학과 진로, 잠, 외모 등이 있었다. 고민이 없다는 답변도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의 경우 학원에 다니거나 전문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은데 경제적 형편 때문에 어렵다는 고민과 스마트폰이나 다른 생활물품 등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살 수 없다는 고민들이 포함되었다. 학업의 경우 성적을 올리고 싶고, 공부하다가 잘 모를 때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점, 방과후 교실이 자신과 잘 맞지 않는다는 것 등을 제시했다.

관계 면에서는 사람을 쉽게 잘 믿는 경향이 있는데 그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친구들과 관계에서 사이가 벌어지는 것, 부모와 다투거나 교사에게 혼이 난 경험들을 언급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어려움은 진로에 대한 것이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직업이 자신에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 맞는 대학과 전공, 대학과의 공간적 거

리, 대학 진학 자체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 진학했을 때 예상되는 비교의식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잠이 많아 걱정이라는 경우와 잠이 부족해서 힘들다는 경우도 있었고, 외모를 큰 고민거리로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나. 해결방법

이러한 어려움과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른들과 얘기하는 것, 혼자 해결하기, 친구들과 함께 해결하기, 인터넷 등이 있었다. 고민을 털어놓는 대상은 엄마, 교회 선생님, 학교 교사 등이 있었다. 청소년들은 혼자 생각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고, 장난으로 생각하고 넘기려 하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했다. 친구들과 함께 고민을 해결하는 경우에는 친구들에게 직접 고민거리를 얘기하거나 그보다는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며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도 있었고, 같이 놀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다. 구체적인 정보와 관련된 고민들은 인터넷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

3. 강점

연구참여자인 청소년들이 가진 강점은 능력, 강점, 자원 등으로 구분되었다. 능력은 재능으로 표현되었는데, 여기에는 그림 그리기, 기계 다루기, 축구나 야구 같은 운동, 중국어 같은 언어, 만들기나 조립능력과 같은 손재주 등이 포함되었다. 강점은 성격 측면과 관계 측면, 자기통제 등으로 구성되었다. 성격은 주로 밝거나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었는데, 재미있음, 활발함, 잘 웃음, 낙천적, 즐거워 보임, 밝아 보임, 해맑음 등

이 포함되었다. 관계의 경우 친화력,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림, 원만한 대인관계,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줌, 고민을 잘 들어줌, 부탁을 잘 들어줌과 같이 공감 능력이나 관계형성 능력 등이 중요한 강점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로는 감정 조절, 끈기, 몰두 등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원을 강점으로 든 경우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누나, 삼촌, 숙모, 친척, 엄마 등이 거론되었다. 잘하는 것이 없다고 답한 경우도 있었다.

4. 다양한 생활영역에 대한 경험

여기에서는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생활영역에 대한 경험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하위영역들에는 가족관계, 동성친구, 이성친구, 교사, 진로, 학업, 취미, 신체건강, 정신건강 등이 포함되었다.

가. 가족관계

가족관계는 전반적인 가족의 분위기와 부모, 아빠, 엄마, 형제, 할머니에 대한 경험들로 구성되었다. 가족 분위기는 네 가지 하위범주로 이루어졌는데, 가족 관계가 좋고 편하고 화목하다는 경우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고 더 자주 놀러가고 싶다는 경우, 자신의 가족이 보통 수준이라는 경우, 마지막으로 가족관계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는 경우였다.

가족 분위기는 부모에 대한 경험과 연결되는데, 부모에 대해서는 부모와 모든 걸 얘기하고 사이가 좋다는 경우도 있었지만 부모가 이혼한 경우도 있었고, 부모보다 자신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진술한 경우도 있었다. 아빠에 대해서는 아빠와 같이 살고 편하고 친하며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긍정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아빠가 없거나 있

더라도 관계가 좋지 않고 학대를 당하는 반대 경우들도 있었다. 엄마의 경우, 아빠의 경우와 관계 맺는 방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수준의 차이는 유사했다. 어떤 청소년들은 엄마와 관계가 좋고 친구처럼 느껴지며 애기도 많이 하는 반면에, 다른 청소년들은 엄마와 얘기하기 싫을 때도 있고 이혼한 상태라서 만나지 않거나 어릴 때 사망한 상태여서 상실을 경험하기도 했다.

형제들은 라이벌일 때도 있고 도움을 주고받을 때도 있다. 누나와 고민을 나누고 형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경우도 있었지만, 종종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고 동생들과 싸우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사례의 경우 할머니가 주요 보호제공자였는데, 이런 경우에 할머니와 관계가 좋은 청소년들도 있었지만,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불편해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동성친구

동성친구들과 맺는 관계는 두루두루 친하게 지낸다는 사례들과 일부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사례들, 친구들과 사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반 친구들과 다 친하게 지내고, 동성과 이성을 가리지 않으며, 같이 놀러 다니고,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는 청소년들이 있는 반면에, 친한 친구 무리들끼리만 친하게 지내면서 다른 아이들과는 그저 그런 관계를 유지하거나 소원한 관계를 갖는 청소년들도 있고, 고립되어 있거나 다툼 뒤에 갈등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다. 이성친구

연구참여자인 청소년들 중에는 이성친구와 교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 동갑이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나 관계가 좋고 자신보다 나이가 많아 어리광을 부릴 수 있으며, 배려심과 이해심이 있어 좋다는 등 좋은 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성친구가 없는 경우에 아예 관심이 없다거나 남고라서 사귄 기회가 없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라. 교사

교사와 맺고 있는 관계의 수준도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친구 같은 관계라고 표현하며 친근감을 드러내는 사례들도 있었고, 그저 그런 보통 관계라는 사례들도 있었으며, 싫어하거나 거리가 먼 것으로 표현하는 사례들도 있었고, 다른 차원에서 교사들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진술한 사례도 있었다.

마. 진로

진로에 대한 경험은 가장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는데, 이 하위영역은 ‘하고 싶은 일’, ‘대학 또는 취업’, ‘선택 계기’, ‘필요조건’, ‘언젠가 하고 싶은 일’, ‘뒤로 미룸’, ‘자신이 없음’ 등의 범주들로 구성되었다. ‘하고 싶은 일’은 이른바 ‘장래희망’과 같은 직업들이었다. ‘대학 또는 취업’은 이러한 직업들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서 언급되었고, 대학에 가기보다 바로 취업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직업을 ‘선택한 계기’는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들을 보았거나 특정한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경우 등이었다. 청소년들은 이들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 이들도 있었다. 당장의 진로를 넘어서 언젠가 하고 싶은 일로 여행을 다니고 싶다는 경우도 일부 나타났으며, 진로에 대한

생각 자체를 뒤로 미루는 경우들도 있었다. 어떤 청소년들은 하고 싶은 일은 있지만 자신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바. 학업

학업에 대해서는 일부 과목에 대한 선호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공부와 성적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노력하는 것에 비해 성적이 안나온다는 진술도 있었다.

사. 취미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취미와 활동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크게 나누면, 운동, 컴퓨터, TV와 만화, 친구들과 놀기, 음악 등이 있었으며, 취미를 갖기엔 시간이 없다고 토로한 경우도 있다.

아. 신체 건강

신체 건강 하위영역은 건강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매우 건강하다는 경우들이 있는 반면에 자주 아프다는 경우들이 있었고, 아프지는 않지만 체력이 약한 사례들도 있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약이나 건강보조제를 먹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자. 정신 건강

정신 건강 하위영역은 신체 건강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편이고 행복하다는 사례들도 있었지만, 정신적으로 평범하거나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경우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민

거리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감을 느끼거나 소외감을 갖는 등 힘들어 하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일부 청소년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형성과정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5. 앞으로의 삶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반응은 8가지 범주들로 분류되었다. ‘노력하는 삶’, ‘눈앞의 그림’, ‘직업 전망’, ‘여유로운 삶’, ‘강한 사람, 베푸는 사람’, ‘화목한 가정 이루기’, ‘돈이 필요해’, ‘동화속 해피엔딩처럼’이 그것이다.

첫 번째 범주인 ‘노력하는 삶’에는 앞으로 노력하며 살고 싶다는 일종의 다짐과 체력을 기르겠다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구체적인 노력의 형태들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범주인 ‘눈앞의 그림’은 대학에 진학하여 성인으로서 자유롭게 다양한 경험을 하며 살고 싶다는 바람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 범주인 ‘직업 전망’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바로 취업하는 등의 경로를 통해 어떤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들이 반영되었다. 네 번째 범주인 ‘여유로운 삶’은 당장 이루고 싶은 것보다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하고 싶은 일들—외국 여행, 이민 등—이 포함되었다.

위의 네 가지 범주가 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면, 나머지 네 범주는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다. 다섯 번째 범주인 ‘강한 사람, 베푸는 사람’에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는 내적인 의지를 표상하거나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외적인 태도가 나타난다. 다섯 번째 범주인 ‘화목한 가정 이루기’는 자기 자신보다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삶의 지향을 보여준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편안하게, 화목

하게, 충족하게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것이다. 일곱 번째 범주인 ‘돈이 필요해’는 저소득가정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어찌면 당연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으로써 돈이 더 있다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보여준다. 마지막 여덟 번째 범주인 ‘동화속 해피엔딩처럼’은 지금까지 위에서 제시된 모든 범주들이 통합된 것으로써 청소년들이 바라는 미래의 행복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행복하게 해피엔딩 동화처럼 살고 싶다’는 진술이 이를 대표한다. 대학에 들어가고 나중에 원하는 일을 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돌보는 평범한 삶, 그렇게 남들처럼 편하게 살고 싶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들의 기대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대한 일을 하고 큰 돈을 벌고 싶은 것이라기보다는 삶을 즐기면서 작은 일에 감사하며 평범하게 살고 싶어한다.

6. 살면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방법

살면서 겪은 어려움들은 가족, 관계, 몸, 가난, 사건, 성적 등의 영역에서 벌어졌으며,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도 같이 다루어졌다. 각 영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가족

연구참여자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족과 관련되어 겪은 어려움에는 부모의 이혼과 사망, 형제의 장애와 다른 형제들과 관계, 친척집에서 더 부살이로 살면서 겪었던 일 등이 있었다. 청소년들은 부모의 이혼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가 사망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부모가 사망했거나 이혼 이후로 같이 살기 힘들어져서 친척

집에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는 친척 어른들의 눈치를 보느라 소심해지고 위축되기도 한다. 장애를 가진 형제자매로 인해 힘들었던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도 있었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장애를 가진 형제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을 힘들어했다. 그런 일 외에도 형제들과 다투거나 싸우면서 사이가 나빠지고 그 때문에 힘들어했던 기억도 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청소년들은 ‘숨기기’, ‘세월이 약’, ‘사회적 지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등의 전략을 사용해왔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친구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아무 일 없는 척 숨겨왔다. 세월이 약이 되는 경우도 있다. 당시에는 큰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니 별일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청소년들 혼자서 이를 극복하기는 힘들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돌아가신 엄마를 대신해서 어머니 역할까지 해주신 아버지, 그리고 친한 친구들로부터 위로를 받아 힘을 얻는다. 가족 구성원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극복해가는 경우들도 있었다.

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화해를 통해 해결하기도 한다. 주로 다투는 대상은 친구들인데, 우연한 기회를 통해 또는 의도된 상황을 통해 화해하고 잘 지내려는 노력을 한다.

다. 몸

자신의 신체 때문에 힘들었던 청소년들도 있다. 일부는 작은 키 때문에 고민이 많았고, 어떤 청소년은 달리기를 잘 못한다던가 하는 운동능력 때문에 힘들었다. 살을 빼고 싶는데 잘 안빠져서 고민하고 있다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라. 가난

연구참여자들이 저소득가정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중요한 어려움으로 언급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가난 자체가 어려움을 주는 조건인 것은 분명하다. 일부 청소년들은 돈이 없어서 힘들었거나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자기만 안가지고 있을 때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이런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은 기다리는 것 외에 달리 찾아볼 수 없었다.

마. 사건

일부 연구참여자들에게는 그동안 개인적으로 겪었던 사건들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 교통사고로 다쳐서 힘들었던 적도 있고, 전학을 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이도 있다. 전학의 경우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헤어져야 하는 어려움과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야 하는 어려움이 이어지기 때문에 더 힘들게 기억되는 것으로 보인다.

바. 성적

일부 청소년들은 숙제를 하거나 공부하는 것 자체를 어려움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다른 일부는 성적이 오르지 않아 고민하기도 한다. 이와는 달리 더 어린 시절에 공부하지 않았던 것을 아쉬워하거나 후회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 없음 또는 싫음

어려움이 없었다거나 그것을 이야기하기 싫다고 답한 청소년들도 있었다. 전자의 경우 긍정적이고 금방 잊어버리는 성격이라 그렇다고 했다. 후자의 경우 개인적인 어려움을 털어놓는 것을 꺼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4절 노인

노인 영역에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의 질문이 이루어졌다. 첫째, 일상활동에 대한 영역으로서 일상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제적 활동과 여가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다. 두 번째 영역은 정신건강으로서 심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세 번째 영역은 노화의 의미로서 노인이라고 느낄 때는 언제이며,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잘 늙어감과 호상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이를 통해 드러난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일상생활

가. 변화 없는 단조로운 삶

참여노인들의 일상적인 삶은 대부분 식사, TV시청, 동네마실, 등산, 교회나 절에 가는 것, 잠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의 반복이었다. 그 외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특별한 여가생활이나 활동은 거의 없었다.

나. 의미 있는 활동

참여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 활동은 일을 하는 것이었다. 일을 하지 않는 참여자들의 경우, 여성은 살림을 하거나 손주를 돌보는 것이며, 남녀 모두 경로당, 교회, 다방 등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꼽았다.

2. 경제활동

가. 마땅한 일자리가 없음

참여자들 중 현재 경제적인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10여명이 채 되지 않았다. 이들 중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일을 하고 싶어 했다. 실제로 일자리를 구해본 참여자들은 노인이라고 아예 대상에서 배제당하거나, 적절하게 할만한 일자리가 없었다고 하였다.

나. 농사일과 살림

나이가 들어가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주로 농사일이었다. 농촌지역의 노인들은 자신의 농사를 직접 짓든, 이웃의 일손을 돕든 얼마든지 자신이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는 일거리들이 있었다. 여성노인의 경우 경제적인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식사준비, 빨래와 청소, 그리고 손주나 배우자를 돌보는 등의 살림을 대부분 하고 있었다.

인제 도시하고는 좀 다른점이 그전데. 도시는 내가 뭘 좀 할

라고 해도 할 데가 없잖아. 근데 시골은 나만 부지런하면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또 품팔이도 할 수 있고 시골은 그냥 나 이 먹은거 안 따져. 일 할수만 있으면 서로 오라고 막 그래. 일이 항상 일감이 밀려왔고 있으니까, 시골은 그래서 시골은 어떻게 보면은 실업자가 없다고 봐야지, 시골은 노인이 늙어서 못하는 사람, 또는 자기가 안할려고 안하는 거지려면 얼 마든지 하지. (패널참여가구 95, 74세, 남)

다. 일은 경제, 건강, 관계를 얻는 것

일을 하는 참여자들에게는 여전히 일이 가장 중요한 일상의 활동이었다. 일차적으로는 일을 통해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더불어 일을 통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또한 일을 한다는 것은 아직 늙지 않았으며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3. 여가활동

가. 건강을 위한 활동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은 건강을 위한 활동들이었다. 등산을 하거나, 동네를 한바퀴 돌거나, 간단한 운동을 하는 등 신체적 건강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노력하였다. 몸을 움직임으로써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활력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나. 사람들과의 만남

참여자들은 시간이 나면 주로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였다. 사람들이 모이는 경로당, 마을 정자, 이웃집, 다방 등에 나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일상의 중요한 즐거움으로 여기고 있었다.

다. 종교 활동

일상의 정기적인 활동은 주로 종교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정기적으로 교회예배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 절에 가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활동이었다. 종교 활동을 통해 마음의 의지와 평안을 얻고, 사람들과 만나는 교류의 기회를 가졌다.

라. 특별히 원하는 활동이 없음

일자리에 대한 높은 요구에 비하여 여건이 주어지더라도 특별히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잘 없었다. 여행이나 활동도 신체적인 한계로 인해 참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4. 정신건강

가. 신체적으로 아픔

정신건강에 대한 질문에 대해 참여노인들은 대부분 신체적인 질병을 호소하였다. 신체적으로 아프거나 불편하기 때문에 마음도, 정신도 힘들다고 하였다. 이는 노인의 정신건강에 접근할 때 신체적 증상이나 불편

함에 대한 호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나. 외로움과 우울

참여자들은 하루 종일 혼자 집안에서 지내거나 자식들과의 연락이 드물어 지면서 외로움을 많이 호소하였다. 혼자 잠자리에 들 때마다 허전하고 외로운 마음이 몰려온다고 하였다. 그리고 점점 자신의 친구와 배우자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나갈 때마다 우울해지는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다. 깜빡깜빡함

정신적인 어려움에 대해 참여자들은 자주 물건을 잊어버리거나, 기억이 잘 안날 때,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는 경험들을 하면서 치매의 초기 증상이 아닌지 염려하였다.

라. 잠을 잘 못 잠

참여자들은 잠을 충분히, 깊게 자지 못한다고 하였다. 잠자리에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밤새도록 TV를 켜놓고 보다, 잠들다를 반복하는 경우, 이른 새벽에 깨어나 잠들지 못하는 등의 수면상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5. 노화로 인한 변화

가. 노인이라고 생각 안함

본 인터뷰에서는 65세 이상 참여자에게 노인영역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하지만 참여자들 중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을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들이 있었다. 내 마음이 여전이 젊고, 뭐든 할 수 있고,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참여자들은 노인영역에 대한 질문을 싫어하기도 하였다. 노인에 대한 정의가 절대적인 나이 보다는 스스로 의미부여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는 아직까지 내가 뭐 노인이다, 내가 뭐 할배다, 이런 생각은 아직 내 한 번도 안 해지 싶거든 내 성질에. 나는 나는 이거 뭐 몸도 아프고 뭐 어깨 자꾸 움직거리잖아. 이게 따가바 그래요, 어깨가. 자꾸 따가바가지고 내가 자꾸 움직거리거든. 이거 때문에 내가 또 그만뒀고 그런데. 내가 이래 아프고 뭐 이래 해도 아, 내가 뭐 할배다, 아 내가 고꾸라지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든다니까요. 어디든지 도전을 하고 싶고, 어디든지 가고 싶고 그렇다니까.(패널참여가구 60, 70세, 남)

나. 몸이 따라주지 않음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신체적인 변화와 한계를 경험하면서 ‘내가 늙었구나’, ‘노인이구나’ 라고 느끼고 있었다. 신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활동에 제한이 있을 때, 그리고 마음과 달리 몸이 따라주지 않았을 때 비로소 노인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마음에는 노인네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안 아플 때 얘기지. 안 아플 때는 할머니 어찌고 하면 그 소리가 듣기 싫었어.(정말요?) 응. 차간에서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이러면 나는 아직 할머니가 아닌데 속으로는 이러는데 지금은 저 아프고 하니까 할머니라고 그러면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아유 고마워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챙겨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는 할머니는 할머니니까는... (패널참여가구 37, 71세, 여)

다. 용기와 자신감이 없어짐

참여자들은 노인이 되면서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도 약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마음에 점점 용기나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신의 주장을 하지 않게 되고, ‘노인이니까 그냥 따라가야겠구나’ 라는 마음들이 들 때 나도 늙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삶의 변화도 변화지만은 특히 생각하는 것이 많이 변화되었어요. 그전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욕을 가지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뭘 하나를 할 때에 앞뒤를 생각하고 한 번생각할 것을 두 번 세 번 생각해서 몸이 사려져요.(면접자 : 아 신중해지고 조심스러워진다는.) 아 그렇지요. 그거는 내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자신감을 가지고 뭘 한다는 시기가 인간적으로 정해져있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요즘에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육신이 따라져야하니까 (패널참여가구 42, 78세, 남)

라. 주변에서 할머니라고 부름

나 스스로는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주변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를 때, 대중교통 이용시 자리를 양보 받을 때 ‘내가 노인 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다. 어디를 가도 나이 먹었다고 제외시키고, 내 자리와 위치가 작아지는 것을 보면서 노인이 되어감을 느꼈다. 65세가 되면 사회적 기준이나 참여기회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몇몇 참여자의 경우 자신에게 노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며 나는 노인이라고 생각 안하고 있다고 하기도 하였다.

마. 일을 할 수가 없음

신체적인 한계로 인해 혹은 사회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될 때 노인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절대적인 연령과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고 없음은 노인됨에 대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바. 사람들과의 관계 변화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제적, 신체적 한계로 인해 먼거리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져갔다. 먼거리를 이동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인해 서로 부담이 되기도 하고, 먼거리를 왕래하는데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점점 만남이나 연락의 횟수가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반해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와의 관계는 매우 돈독해져갔다. 거의 매일 만나서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히려 가족보다 더 의지하고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친구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나가면서 남아 있는 친구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간다.

6. 잘 늙어감

가. 건강이 가장 중요

참여자들은 잘 늙어가기 위해서는 질병 없이 건강한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몸이 아프면 자식이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하고, 보호 부담이나 경제적 비용부담을 주어 피해를 끼치게 되므로 이를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질병으로 인해 일상의 활동에 제한을 받고, 내가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없고, 사람들을 만나러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삶이 무의미해진다고 인식하였다.

나. 반드시 돈이 있어야함

참여자들은 잘 늙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인 여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내 통장에서 내돈 빼서 내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다.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손벌리지 않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는 있어야 잘 늙어갈 수 있다. 자식들도 돈이 있어서 대우하고 한번이라도 더 찾아온다고 생각하였다.

필요한 거는 내가 돈을 더 많이 해야겠단 그 생각 밖에 안들여. 내 수중에 돈이 많이 있으면 한번 안을 것도 오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보소 이거보다도 영 없으면 자식들이 부모를 암만케도 더 안봐. 난 그리 생각합니다도 지금요. 나이가 많으면 돈이 있어야 한다. 돈 없으면 며느리가 영그저하지 싫어. 내가 안죽도 이렇게 있는데도 서운할데가 있으면 내가 이것도 없으면 저들이 얼마나 나를 캄보겠나 싫어. (패널참여가구 74, 73세, 여)

다. 존경받도록 사람 구실하는 것

참여자들은 잘 늙는다는 것이 어른답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나이가 들수록 ‘어른답게’, ‘존경받고’, ‘사람구실’할 수 있도록 잘 행동해야한다. ‘늙을수록 조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지 않고’, ‘주책 바가지다 소리 안 듣도록’ 더 노력하고 신경써야한다고 하였다. 가족과 이웃을 더 이해하고 감싸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이니까 노인 취급받는 거 밖에 없지. 나이들어서도 뭐든 조심해야되고 말같은 거라도 조심해야하고 늙었다고 폐 안끼쳐야 하고 아 주책바가지다 그런소리 안듣고로 더 그거는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러 다니지.(패널참여가구 55, 65세, 여)

라. 곱게 늙어가는 것

잘 늙어가는 것을 참여자들은 ‘곱게 늙어가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신체적인 질환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주름살이 적고 푸글푸글하지 않는 외모에 대한 것, 그리고 옷가짐을 깨끗이 하고 행동거지를 조심하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의미를 가졌다.

7. 호상

가. 나이 많이 먹어서 자연스럽게 죽는 것

호상은 질병이나 사고로 죽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치매나 중풍에 걸리지 않고’, ‘병원신세 지지 않고’, ‘몸에 칼대지 않고’, ‘자식한테 폐끼치지’ 않고 죽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였다.

호상은 그냥 악한 꼴 안 보고 있다가 그냥, 그냥 편하게 죽는 거. 병원에 가 입원 생활 않고 이게 그게 걱정이여. 죽는 것이 저기 가서 병원에 가서 누웠고 막 그 치료한다고 욕보고 할까봐 무서워. 그냥 자다가 그냥 죽었으면 쓰졌어.(패널참여자 97, 76세, 여)

나. 잠자다가 죽는 것

참여자들이 호상에 대해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 중 하나는 ‘저녁 잘 먹고 잠자리 들어서 아침에 깨지 않는 것’ 이었다. 예전에는 급사하는 것이 큰 흥이었지만 이제는 갑자기 죽는 것이 복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누구나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그것이 100% 비슷할 것 인디 아프지 않고 잘 살다가 죽을 때는 아프지 말고 뭐 지금 같이..... 뭐 노망 걸려가지고 새끼들 불러다가 똥 쳐내고 이러고 하면서 일년이. 그런, 그러니 차라리 일찍 죽어 분다고 이렇게 살다가 저녁밥 먹고 딱 잠자리 들어가잖애. 아침에 보니까 죽었더라 이거이 난 가장 좋은 죽음이라고 봐..(패널참여자 89, 65세, 여)

다. 자식에게 폐 끼치지 않고, 자식들 다 있는데서

무엇보다 자식에게 폐끼치지 않고 죽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는

살아서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죽고 나서 ‘상치를 준비를 미리 해놓고’, ‘문힐 자리를 봐두고’, ‘자식들이 뒤치다꺼리 하지 않도록’ 해놓고 가는 것이 좋은 죽음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죽음에 임할 때 ‘자식들이 다 있는데서’, ‘자식들을 다 보고나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호상이라고 하였다. ‘자식이 없는 사람’,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은 좋은 죽음을 맞기 어렵다고 보았다.

8.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제도개선

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음

참여자들은 나라에서 돈도 나오고, 먹을거 주고, 전철 공짜로 태워주고, 구경도 시켜주고, 노인대학 있는 등 예전보다 받는 것이 많아졌다고 느꼈다. 이는 나라에서 무언가 받는 것 자체를 감사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나라도 어려운데 노인도 챙겨준다는 마음, 나라발전이 더 우선이라는 마음들을 담고 있었다.

나. 푸대접 받음

참여자들은 사회에서 노인들이 여전히 푸대접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꼈다. 무엇보다 일자리에서 노인이라고 배제당하는 부당함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함

노인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정책으로서 경제적인 지원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었다. 현재 받고 있는 기초수급이나 노령수당의 수준을 좀 더 올리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하였다.

제5절 장애인

본 영역에서는 크게 6가지 질문이 이루어졌다. 첫째, 살면서 장애로 인해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 둘째, 장애가 삶의 주요 영역에 미친 영향 셋째, 주변에 의미 있는 사람들의 태도나 반응/ 이것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넷째, 장애인 친구나 동료와의 교류 다섯째, 장애인복지 혜택의 경험과 개선해야 할 점 여섯째, 장애의 의미 등이다. 본 영역에서의 응답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30대에서 80대, 남에서 여성, 중도 및 선천성 장애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고, 고연령자(특히 60-7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100가구 중 본 주제에 응답한 장애인은 총 19명(1가구는 장애인 2명)으로 나타났다.

1. 살면서 장애로 인해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

살면서 장애로 인해 부딪히게 된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는 경한 장애를 가진 참여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장애로 인한 신체기능의 제약, 뇌기능의 장애, 감각기능의 장애가 가장 불편하고 힘든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장애로 인해 취업이 어렵거나 유지가 어려워 소득이 불안정한 문제도 언급되었다. 장애인 당사자의 면접이 어려운 경우 부모가

대리응답 하였는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장애자녀를 항시 데리고 다니거나 지원해야 하는 문제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하였다. 분석결과 의미있는 주제들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능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함

여기서 말하는 기능장애는 지체장애, 시청각장애, 뇌병변장애 등 다양한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동작이 어렵거나 불편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물건을 찾거나 이동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일상적으로 ‘남의 손을 빌려야 하는(패널참여가구 31)’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노인성 뇌졸중 등으로 인한 장애는 장애로 인한 영향이나 특별한 문제보다는 장애 자체로 인한 기능장애로 인한 생활상의 문제점이 가장 크게 드러났다(패널참여가구 56).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고 하고자 하는 일도 하지도 못하고 또
누구를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제일 어려운 문제
요, 그..그. 저 농아들은 그래도 보니까는 그 사람들은 지금은
농아들 수화선생이 있어가지고 모든 걸 해결을 잘해 근데 뭐
이 시각은 제일 답답하죠, 뭐 음식을 하나 갖다 먹어도 뷔페
같은데 갖다 줘야 나 뭐 줄때까지 앉아 있고 모든 게 다 어렵
죠 뭐 그래도 개네들은 눈 보니까 갖다 먹을 수도 있잖아요.
(패널참여가구 31, 63세, 남, 시각장애)

장애, 살면서, 내가 걸음 못걸는거.. 뇌가 안돌아가는거는 막
모르는사람은 모르니까 괜찮은데, 다리가 이러니까 죽겠다.
그래서 내가 2가지로 고민들고 있지, 뇌가 안되고 다리가 안

되고, 남은 몰라도 그래서 고민들지. (패널참여가구 56, 73세, 여, 뇌병변장애).

나 마음은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면 하겠는데, 이 다리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하니까, 그런 것이 제일 걸리더만 무거운 것도 못 들어. 마음은 하고 싶은데, 못 해. 못 들어. 조금만 사도 구루마에다 끌어야지 들고 오지도 못해. (패널참여가구 93, 83세, 여, 지체장애)

나. 늘 데리고 다녀야 함

장애가 중한 경우 늘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보다도 부모가 힘든 경우가 많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중 장애자녀를 둔 경우가 있었는데 한시도 눈을 떼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경우라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부모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뭐 거의.. 뭐..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1급이니깐 90프로가 거의 손이 되고 발이 돼야 되고 눈이 돼야 되고 입이 돼야 되죠. 뭐. 말 언어 자체나 뭐 이런 수 개념이나 뭐 한글을 일단은 알아야만이 그걸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데 따라주는데, 전혀 한글도 뭐.. 읽을지를 모르니까. 그렇다고 안 가르킨 게 아니고 특수교육을 또 가르켜 봤는데도 어느 한계에서만 머릿속에 다가 집어넣지 못 집어넣더라구요.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더러. 배우고 나서도 또 1년 있다가 배운 걸 다시 되새겨서 물어보면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거기에 뭐 장애 등급이 있겠쥬. 그런 면에서 또 거의 일단은 눈이 되고 손이 되고 그래야 돼

요.(패널참여가구 21, 50세, 여, 지적장애자녀를 둔 엄마)

아니, 그냥 일일이 다 데리고 다녀야함께. 내가 피곤해 죽겠

어.(패널참여가구 97, 76세, 여, 성인지적장애딸을 둔 엄마)

다. 근로활동 접근이 어려워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자녀를 뒷받침할 수 없어 힘이 듭

장애로 인해 근로활동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경제적으로 불안한 경우도 나타났다. 장애로 인해 물리적으로 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기 보다는 구할 수 있는 직장이 한정되어 있거나, 장애로 인한 기능적 제약을 어느 정도 고려해줄 수 있는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을 할 수 없으니까요. 일을 할 수 없을 때 들어갈 돈은 많은데 돈을 벌수가 없으니까요. 어디가서 한군데서 일을 못하잖아요 허리 아프고 다리아프고 하니깐 한 시간 이상을 서있지 못하고 한 시간 이상을 앉아있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돈 받고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패널참여가구 77, 47세, 여)

이와 같이 직업활동이 어려워니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이는 결국 자녀를 잘 뒷받침해주고 싶은 장애부모의 욕구를 좌절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권도학원도 보내고 싶고, 한마디로 지금 인제 막 머리가 잘 돌아갈 그러할 나이인데, 사교육비 같은게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깐 한글공부 같은 걸 시키고 싶고 다른 애들 학원 보내

는데 학원을 보내고 싶고 한테, 그런 데는 못 보내는 거, 그런 게 안타깝죠. 저도 교육과정을 많이 거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깐 제가 가르칠 수가 없고 옛날방식으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요즘 애들 수준에 맞춰야하는데 그걸 못 맞춰주니깐.. 그런거 때문에 가장 고민이 되요. 힘들고 솔직히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교육비가 다 사교육비 쪽으로 가잖아요. 그런 걸 제가 대체해 줄 수가 없어서.. 그런 거만 보충이 된다면 다른 거는 뭐.. (패널참여가구 77, 47세, 여)

라. 자녀양육에 있어 장애로 인해 응급 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함

장애로 인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로 자녀양육에 관한 문제가 언급되었다. 자녀가 아프거나 응급상황일 때 부모의 장애로 인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자녀가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 될 때가 가장 마음 아프고 힘든 경험이라고 진술하였다.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하면 애가 병나고 그럴 때, 빨리 병원에 가야되는데 그걸 빨리 내손으로 못하니까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야. 난 살면서 그것밖에 생각이 안나 우리 아기 아플 때 얼마나 혼났는지, (패널참여가구 31, 66세, 여)

마. 장애로 인해서는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옴

한편 장애로 인해 큰 어려움이나 문제를 느끼지 못해왔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제가 이제 친화력이 좋은 편이 돼서, 누구하고 그렇게 뭐 크게

저거 하는게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 사회적으로, 그런 거는 크게 못 느꼈어요 (패널참여가구 1, 60세, 남)

또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수술 후 장애를 입게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고, 비장애인으로 살아온 세월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나 불편함은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장애가 삶의 주요 영역에 미친 영향

장애가 삶의 주요 영역(교육, 직업, 여가, 가족생활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학교생활을 활발하게 하지 못함’, ‘자괴감과 우울함’, ‘취업에 대한 두려움과 실제로 구직이 어려움’,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과 결혼해야 했음’ 등의 의미들이 도출되었다.

가. 학교생활을 활발하게 하지 못함

선천 또는 생애주기 초기에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는 학교생활에 적극성을 띠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패널참여가구 24의 경우 학교에서 기가 많이 죽은 듯 지내다가 집에서 스트레스를 풀게 되었다고 하였다.

학교생활은...그냥 학교생활 그렇게 활발하진 못했어요.(중략).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선생님이 그러든가 말든가 나 죽었소 하고 아마 산 거 같아요... 그니까 집에서는 막 큰소리치고 그니까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서 푼 거 같아요 우리 어머니 막 식구들한테. 지금 생각해 보면...(패널참여가구 24,

46세, 여)

나. 자괴감과 우울함

장애를 입은 후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장애를 입게 되었나’하는 감정에 자괴감과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는 내 삶에 뭐 완전히. 처음에는 내가 무슨 죄를 많이져 가지고 아무 형제도 아무도 그게(류마티스) 없는데 무슨 죄를 많이져가 이래 병까지 왔나 카고. 진짜로 속상했지요.(패널참여가구 60, 70세, 남, 류마티스 장애인)

내가 보자 대구 서울 가서 해보니 서울서 또 해가지고 또 뭐.. 이제 해보니.. 세상살이가.. 이렇구나. 눈이 이래 없으니까 이런 마음.. 해봤죠 내가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 이러는데 내가 저렇게 하면 아하 눈이 한쪽이 필요하니까 내가 이렇게 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패널참여가구 64, 73세, 남, 중도실명)

패널참여가구 91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손가락을 잃게 되었고, 자괴감이나 우울함 정도는 아니지만, 마음대로 손을 내놓거나 보이기가 창피했다고 하였다. 또한 만나던 친구들과의 교류를 끊거나 정기적으로 나가던 모임에 발을 끊는 경우도 있었다.

다. 취업에 대한 두려움과 실제 구직이 어려움

실제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중도에 장애를 입게 되면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이는 현실로 나타나 구직이 매우 어렵게 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도(패널참여가구 24, 70, 87) 장애로 인해 삶의 주요영역인 직업영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아래 복지공단에서 그랬지요. 금년 4월인가 1년 몇 개월만에 연락이 와서 가니까 내일 이력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니까 날 앉혀놓고 전화를 하는데 분명히 누구 들어갔다고..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항의를 하고 그럴텐데 사람이 또 점잖아야지 다음에 날 잘봐주시오 했는데 없어..(패널참여가구 70, 73세, 남)

패널참여가구 87은 어렸을 적 질병으로 청각을 잃지만 앉았어도 공무원에 도전할 수 있었을거라 생각하고 있었다.

아~ 어려움, 내가 이거는 외정 때 학교 다니다가, 6학년 때 안 그랬으면 공무원을 해먹을 건데 공무원을 못 해먹은 거 그 게 안됐더라고 (면접자 : 아버님 이거 귀 다치신지 오래 되신 거예요?) 그럼 (면접자 : 언제 다치셨어요?) 이것만 안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농사를 안 지었지 중학교 다니다가 그랬대. 중학교 다니다가 (면접자 : 중학교 다니다가 왜 그러셨어요?) 외정에 국민학교 다니다가 그랬어. 외정 때, 일제시대 때 (패널참여가구 87, 77세, 남)

라.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과 결혼해야 했음

그거야, 물론 장애니까 뭐, 그렇지. 결혼을 한다고 그래도 똑

같은 사람들끼리 해야 하고 원래 그렇게 태어나서. 원래. (패널참여가구 97, 76세, 여, 성인지적장애인의 모)

3. 주변에 의미 있는 사람들의 태도나 반응/ 이것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장애로 인해 주변에 의미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거나 태도를 취하는지, 이것이 본인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가족지 말라고 부모가 최선을 다해 키워줌

부모가 경제력이 있었던 경우 특히 장애로 인해 자녀가 기죽거나 힘 들어하지 않도록 최선의 물리적, 정서적 지원을 했던 경우가 있었다.

(면접자: 가족들이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해주셨나 봐요?) 그런 것도 있겠쥬 어. 신경도 많이 썼고 옛날에 가정부였던 사람을 몇 십년 만에 만난 적이 있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엄마한테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뭘 소린가 했더니, 병원비로 쓴 게 키보다 돈이 싸놓으면 많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거의 하루도 생각 안 나는 적이 없을 정도로.. (중략) 그런게 참 나 기 안 죽일려고 그러니까 나중 생각에 그런 게 느껴지쥬 부모생각하면 기 안죽일라고 그런게... (패널참여가구 1, 60세, 남)

나. 의사표현이 어려워 주변의 반응이 부정적인 경우가 많아 본인이 괴로워 함

아이가 지적장애나 자폐장애로 인해 자기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변의 반응이 부정적인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해 본인도, 부모도 괴로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은 뭐 아이가 뭐 어떤 언어 차이로 뭐 대화를 해주면은 거기에 대한 거를 이야기도 다시 자기도 이제 가다듬어서 대변을 해줘야 되는데 친척들이든가 뭐.. 주위의 동생.. 동생 같은 그런 친구들 다 이렇게 대화를 해는 데도 별 받아들여 주지를 않으니까는 안 좋죠 뭐. 그런 거로 보면 저 혼자 해소시키고 그냥 그러다보니까 스트레스 저도 스트레스가 또 있는지 머리가 부스럼이 날 정도로 끓어요 머릿속을 막 끓더라구.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머리가 막 피가 흘릴 정도로 끓더라구요. 그런 거로 그냥 아유. 속상하죠 뭐. 어디다가 뭐 하소연도 못 하고 어떤 점에서 그 화를 내는 건지 저도 어떤 때는 또 파악도 못 할 때가 많아요.(패널참여가구 21, 50세, 여, 장애아동 모)

그래서 이 부모는 자기가 장애자녀를 먼저 귀하게 여겨야 남들도 귀하게 여겨줄 것이라 생각하여 의도적으로 장애자녀를 우선으로 모든 일을 맞추는 식의 생활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다. 병원에 데리고 가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으나 본인이 거부해 부모로써 답답함

패널참여가구 95의 경우도 딸이 정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떤 문제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받지 못했다. 유난히 화장실에 가서 오래 앉아있는다고 했는데 보통 초저녁에 들어가서 다음 날 아침에 나오고, 이럴 때 화장실에서 얼어죽지나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작 딸 본인은 병원에 절대로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병원에 가면 화장실에 그렇게 오래 앉아있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병원에 가지 않아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가족의 반응이 장애인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기보다, 장애인당사자의 태도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애 병원이라도 가서 치료를 좀 했으면 쓰겠는데 병원에 안갈라고 하니까 그것이 제일 어려움이 크고 또 내가 보니 안쓰럽고.. 그게 병원을 무서워 해 가만히 보면 그리고 대소변을 오래 보니까 병원에 가서 그 짓을 못한다 이거야 그런 것이 어렵고(패널참여가구 95, 74세, 남, 장애인 부)

라. 장애가 있으니 무시한다는 생각을 함

주변의 이웃이나 친구, 지인들의 반응에 있어 대체적으로 큰 차별이나 부정적 시각은 느끼지 못했다는 진술이 많았으나, 일부 참여자들은 장애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무시받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때는 뭐 안보이니까 좀 내 생각에는 저렇게 뭐 말이라도 따듯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내가 안보이니까 무시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패널참여가구 31, 66세, 여)

대화를 못한께 무시하는 편 아니래요? 대화를 못한께 서로 만나도 았하고 오고가도 았하고 그게 변화지 뭐 딘 거 있겠으요? (패널참여가구 62, 75세, 여, 언어장애를 가진 배우자를 둔 여성)

다 무시하쥬 감싸주고 좀 이렇게 해 주어야 한다는 사람은 았다고 봐지쥬 한국의 장애인들은 불쌍하다고 봐지쥬 장애인을 떼떼하게 대우를 안 해주고(패널참여가구 92, 53세, 남, 정신장애부인을 둔 배우자)

마. 안쓰러워하고 편하게 대해쥬

그치. 언니가 많이 걱정해요 언니가 제일 많이 걱정해. 전화 자주 오고 (패널참여가구 60, 70세, 남)

(면접자: 주변 사람들이 있잖아요? 000씨 주변 사람 중에서 의미있는 사람들 예컨대 가족 친구 또는 알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혹시 김수남씨 장애에 대해서 어떤 태도 또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안쓰러워 하쥬 안쓰러워 하고 웬만 하면 내 몸에 맞춰서 같이 행동해주고 그렇게 해쥬 (패널참여가구 77, 47세, 여)

4. 장애인 친구나 동료와의 교류

장애를 입게 된 후 장애인 친구나 동료를 사귀게 되었는지, 교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특정한 계기(봉사활동, 직업훈련 등)를 통해 장애인 동료나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렇지 않고 특정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한 장애인 친구를 사귀거나 교류하게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 성당출석이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 친구를 만나게 됨”(패널 참여가구 24, 패널참여가구 77)
직업훈련(안마)을 통해 장애인 친구를 만나게 됨”(패널참여가구 31)
장애인단체활동을 통해 장애인 동료를 만나게 됨”(패널참여가구 31, 가구주의 배우자)

제가 허리가 아파도 한 시간 한 몇 시간 정도는 가서 식당에 가서 봉사를 할 수가 있겠다 싶어서 봉사활동을 했었어요(패널 참여가구 77, 47세, 여)

네 또 내가 인제는 그전에 봉사하다 보니까 지금은 봉사를 안 하지만 성당에서 봉사를 하다보니까 많이 더 알게 된 거죠(패널 참여가구 24, 46세, 여)

그러나 한 참여자는 장애인단체가 지나치게 기득권과 이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 장애인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와의 교류를 중단했다고 하였다.

나. 장애인단체가 기득권과 이권에만 관심 있고, 장애인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함

(면접자: 그니까 거의 (장애로) 지장을 안 받으시고 사신거나 마찬가지로시네요, 그리고 이제 친구, 혹시 같은 장애 모임이라든가 그런 거는요? 없으세요?) 없어요, 내가 장애인협회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참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원받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특히 노인네들 무슨 뭐, 요새 가끔 보면 가스충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장애인 단체가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몇만원씩 주고 어디가서 뭐 으쌔으쌔 하고 돈 빼먹을 거 없나 공리하는 단체예요, 실지 장애인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 놈도 본적이 없어요, 그 쪽은 내가 아주 경멸을 해요, (패널참여자구 1, 60세, 남)

5. 장애인복지 혜택의 경험과 개선해야 할 점

장애인복지 혜택의 경험과 향후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장애연금, 활동보조인에서부터 전화비, 전기세, 수도세, 자동차세 등의 세금감면 혜택에 이르기까지 장애등급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각종 제도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각종 할인제도로 인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됨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장애등급과 재산 및 소득수준에 따라 수급자 혜

택, 장애연금 또는 각종 할인 혜택 등을 누리고 있어 작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정도면 만족하고, 더 이상은 욕심이라고 생각함

또한 이 정도면 만족하고 더 이상은 욕심이라고 생각한다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다. 특히 한 참여자는 더 이상 하면 나라 경제가 망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후~ 그만하면 그만하면 됐다고, 더 나아지면 경제가 망가지지, 경제 생각하면 그만하면 된다 (패널참여가구 87, 80세, 남)

그 정도로 만족해야지 그런 거를 갖다가 나 하나만을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패널참여가구 31, 66세, 여)

장애인복지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이동 및 편의시설 개선과 자립을 촉진할 수 있는 고용정책과 제도가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또한 지역적 특성이나 수혜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장애등급제도의 개선, 인식의 전환 등의 의미주제들이 도출되었다.

다. 이동 및 편의시설 개선이 필요함

음.. 시설이 좀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역에는 괜찮지만 중앙역 같은 경우에는 계단 있잖아요 (패널참여가구 24, 46세, 여)

라. 자립을 촉진할 수 있는 고용정책과 제도가 가장 시급함

직장인들 이렇게 목도 뺏뺏하고 운동량 부족이나 그런 사람들 안마 받고 편해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정작 그런 사람들 위해서 시나 구에서 한 개 서너개, 네다섯 개 해갖고 업소 하나 임대해서 장소 마련해 주고 그러면 좀 싸게 판데 3만원하면 2만원에 이렇게 해갖고 자활할 수 있는 것 시에서 구에서 할 수 있어요, 큰돈 안 들어 가요, 조그마한 상가 임대해서 3-4층 조그맣게 하나 침대 몇 개놓고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패널참여가구 1, 60세, 남)

마. 지역이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는 문화바우처 혜택

저 뭐 1년에 문화바우처 왜.. 문화바우처라고 저소득층하고 장애인들한테 주는 거 1년에 5만원 짜리 있거든요. 그런 보조도 좀 그렇지. 예. 촌에 문화바우처라 카드를 주니 그 동네에 극장이 있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노인네들 그렇잖아요. 버스를 타기 극장을 간다 카는 거도 그거도 말이 안 되고 또 그니까 이 안에 문화 공간이 없잖아요. 이 흥해읍 안에는 극장도 없지, 또 올바른 뭐 도서관 그것도 없지 그러니까는.. 다 그렇다니까요. 안 그래도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데..(패널참여가구 60, 65세, 여성, 가구주의 배우자)

바. 장애등급제도의 개선

역시 개선은 장애 급수죠. 장애 급수는 이거는 재산이 있고 집이 있으면 안되요. 자식이 있고 이거는 장애 기준이 아닌란

말이지. 장애가 있고 생활이 되면 이걸 복지의 문제지...지 집
이 장애가 있지만 집이있고 생활이 되면 이거는 장애 제외다
하는 것은 백번 개선되어야지. (패널참여가구 70, 73세, 남)

사. 인식의 개선

저도 장애인 마누라가 있으니깐, 우리 국민들이, 장애인이라고
취급 안 하고 어떻게 같이,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 들어요. 장애인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패널참여가구 92, 53
세, 남, 정신장애부인을 둔 배우자)

6. 장애의 의미

패널가구참여자들에게 있어 장애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약간의 불편함이다

(면접자: 음...네. 본인한테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장애에 대해
서는, 장애가 어떤 의미가 있으신 건가요?) 그니까 거기가 약
간 불편한 거뿐이지.(패널참여가구 24, 46세, 여)

나. 답답함

난 무조건 답답한 거야 난 못 보는 게 얼마나 답답한데...(패널

참여가구 31, 66세, 여)

다. 바닥으로 떨어졌다

장애는 완전히 뭐 삶의 그거지 뭐야. 완전 바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애가 오니까 이거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나는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렇지만은 TV보나 여기 누가 휠체어 타고 가는 거 보면 저게 진짜로 나도. 잘못했으면 저 정도까지 됐을까 싶은 거지 진짜로 진짜 슬퍼요. 그 이만큼 내가 저거 했는 것도 의사선생님 말따나 빨리 서둘러가 그 했는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 정도로 그렇다니까요. 장애라는 거는(패널참여가구 60, 70세, 남)

라. 장애 때문에 겸손하게 살게 됨

그것(장애) 때문에 내가 더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사람이 참 자기를 알고 사는구나 내가 이것이 아니었더라면은 내가 이제 말 하는 걸 딱 들어보면 알겠지만 나는 내대로 뭐 아는 것이 있다. 참 내 기를 다 펴고 싶어서 온갖 짓을 다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도 나라카는 존재가 있구나. (패널참여가구 70, 73세,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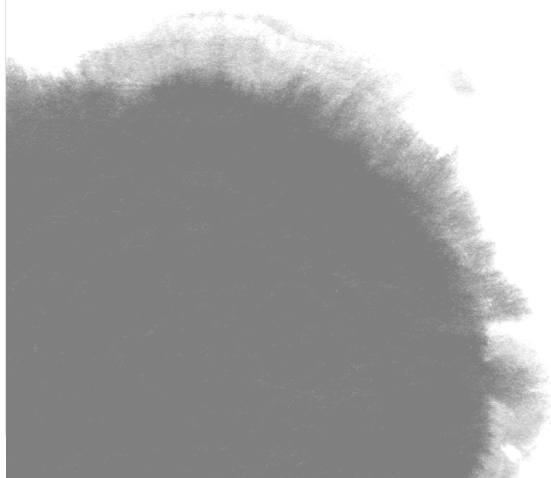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마. 새로운 인생의 계기

지금은 장애, 참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 같아요. 장애를 가지면서 세상의 어두운 구석을, 어두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되고, 아 이렇게도 사는 세상이 있구나 라는 거, 지금은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조금 옛날만큼 쓰지를 못한다는 거, 그런데 그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안 쓰면 되니까요. 그래도 정신적으로 더 맑아진 거 같아요. 지금. (패널 참여가구 77, 47세,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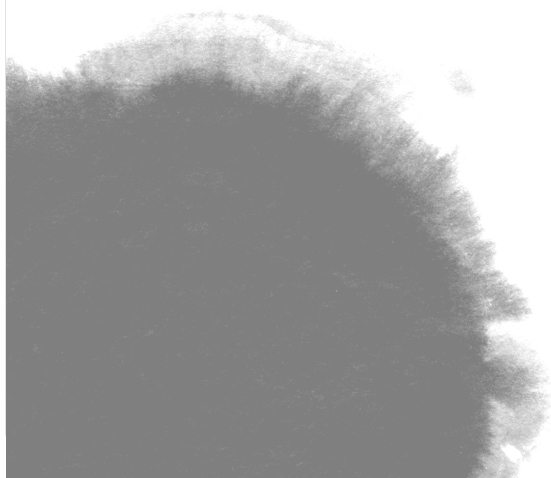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4부

양적 & 질적 연계 패널공측 및 활용방안



10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자료 구축계획 및
활용방안



제10장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자료 구축계획 및 활용방안

본 연구는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일상적 생활모습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근로 및 탈수급 등 저소득층의 자활과 역동성과 관련된 수급자의 인식과 행태의 변화 양상에 대한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의 상호보완적 활용을 위해 질적 패널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수행되었다. 2011년 처음으로 시도된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설계에 기초하여 구축한 한국복지패널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질적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양적 & 질적 연구방법론의 연계를 통한 혼합 연구 방법론을 소개하고, 빈곤 역동성과 가족관계 등 저소득층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이러한 연구방법론의 활용과 이를 가능하게 만들 질적 패널자료의 구축 필요성과 의의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한국 복지패널 표본가구 중에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양적 패널가구를 추출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상황 및 복지수준 관련 인식 및 전망에 대한 심리 동향지수를 분석하였으며, 이 가구 중에서 다시 질적 패널 조사대상 100가구를 추출하여 그 표본 가구 구성원들과의 심층면접 과정을 수행하였다. 근로 및 탈수급, 가족관계, 정신건강 등 저소득층 가구 구성원의 심리사회적 욕구와 관련된 총체적 현실을 심층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최근 강조되고 있는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의 이해와 사회복지학계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질적 연구방법론의 수행 및 양적

연구에서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질적 패널자료를 구축 및 제공하였다. 특히, 이러한 질적 패널자료의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주요 조사영역별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1. 질적 연구 자료로서의 활용

본 연구는 한국 복지패널 자료와 연계된 질적 패널자료 구축의 첫 단계로서, 기존 패널 조사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양적 패널 자료를 통해서는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주제 영역과 이슈들을 선별하여 질적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저소득층 삶의 복합적 현실을 심층적 차원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와 활용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는 이번 연구 결과가 앞으로 연구자, 복지현장 전문가, 관련 학문 전공 학생들에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질적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은 이번에 구축된 질적 패널자료와 관련된 아래 특성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질적 연구의 분석자료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첫째, 본 자료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일과 빈곤과의 관계를 탐색하여 직장 및 구직과정, 고용지원프로그램 참여, 실직, 수급 등의 삶의 사건들에 관한 구체적 상황과 현실들에 대한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어 그들의 경제적인 현실을 통합적 관점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본 자료는 삶의 가장 기초 사회화 영역에 해당하는 가족관계(‘배우자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차원에서)의 상호작용적 특성들을 당사자들의 주관적 인식에 근거하여 살펴봄으로써 빈곤이 가족 관계의 역동과 경험의 주관적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분

석에 활용될 수 있다.

셋째, 본 자료는 저소득층 가족 구성원(특히, 어르신)이 경험할 수 있는 정신 건강, 장애, 알콜중독, 가정폭력 이슈들에 대한 현실적 맥락과 상호 연관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제공하고 있어, 빈곤과 동반되어 당사자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삶의 사건들의 복합적 현실에 대한 탐색적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질문의 주제영역을 구분하여 조사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구주 및 그의 배우자, 자녀(아동, 청소년 등),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에게 해당되는 중심 주제를 가지고 자료를 수집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주제에 대한 세대 간 관점의 차이 혹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한 세대간 차이 등에 대해 탐색할 수 있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 가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구원이 거주하면서 겪게 되는 삶의 이야기들을 각자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해석하며, 의미를 부여해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게 됨으로써, 빈곤과 연관된 다양한 주제와 관점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시도된 최초의 전국 단위 빈곤관련 질적 패널조사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다양한 삶의 영역과 주제에 관한 현실들을 종단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향후 생애과정 관점을 반영한 조사대상자 삶의 고유한 추이와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앞서 지정한 바와 같이, 최근 빈곤 역동성 혹은 빈곤의 동태적 변화를 보여주는 연구 성과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구축되는 질적 패널자료들을 종단적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패널 자료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초보연구자들을 위한 학습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질적 연구는 그 특성 상 본인이 연구 주제와 연구문제를 정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해야 하는데, 질적 연구 초보자들에게는 이러한 학습의 기회를 갖는 것이 현실적

으로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특정 연구자가 수집한 질적 자료들은 자료 개방과 보관에 대한 윤리적 이슈 때문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없는 제약이 있으므로, 제3자가 타인의 질적 자료에 접근하여 질적 자료 분석방법을 학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가 구축한 질적 패널자료는 제 삼자에게 개방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어 보급될 수 있다면, 학교나 실천현장에서 질적 연구방법론을 학습하고자 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질적 연구자료 분석의 기술을 훈련할 수 있다.

2. 양적패널 자료의 보완과 연계로서의 질적 패널자료의 활용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양적 패널자료와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1차년도 질적 패널조사는 양적 패널자료의 근간이 되었던 주요 질문 문항들 중 질적 연구과정으로 연계하여 보완할 수 있는 조사영역과 주제들을 선별하여 심층면접 질문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자료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성격은 연구 질문의 설정이 전형적 질적 연구 설계 구도에서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질적 패널자료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그동안 양적 패널자료를 찾았던 많은 이용자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된 질적 패널자료의 성격과 가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질적 패널자료에는 양적 패널자료의 성격을 규정하는 단순화, 수량화된 응답들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각 설문문항에 대한 조사응답자들의 답변 뒤에 숨겨진 그들 현실의 맥락과 배경을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로, 양적 패널 조사 질문지에는 다양한 차원의 만족도(서비스 만족도, 생활 만족도

등)를 묻는 문항들이 있는데, 하나의 문항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만족도를 일괄 평가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며, 응답자가 만족과 불만족을 느끼게 되는 이유와 관련된 다중적 차원의 상황과 맥락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결과 해석상의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반면, 질적 패널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만족도’와 관련된 질문의 응답 내용에는 응답자의 만족을 구성하는 상황적 배경과 원인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차이, 주관적 관점 등에 관한 복합적 사실들이 담겨 있다. 따라서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면 분석 결과를 기술 할 때 해석상의 민감성과 정교성을 보여줄 수 있어 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과론적 관점에서 특정 변수들간의 관계나 경로를 설명하는 양적 패널 자료의 통계 분석은 때로 실제 현실과 괴리된 이론과 모델을 제시하여 분석결과와 사실성과 설득력에 있어 큰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이 때 연구자들이 기존 연구 모형을 새롭게 구상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실에 근거한 사례와 이야기들이 필요하다. 즉 질적 패널 자료가 포함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기술들은 조사 주제와 관련된 실제적 현실의 맥락, 배경, 과정들을 동태적 차원으로 보여주고 있어 양적 패널 자료 분석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차원의 기설들을 실험해볼 수 있는 도전과 자극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질적 패널자료는 질적 연구 분석에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적 패널자료처럼 계량적 통계 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변환시킬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질적 패널자료를 분류화·코드화 하여 수량화 한다면 양적 연구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 영역에 대한 통계 분석을 수행하여 양적 패널자료 분석을 보완할 수 있다.

넷째, 한국복지패널 자료가 중요한 복지정책의 수반과 개편을 위한 실증적 자료로 활용된다고 전제할 때, 질적 패널자료의 검토는 한국복

지패널 자료의 구축을 위한 조사 설문지 문항을 새롭게 개발하고 보완하는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질적 패널자료에 나타난 응답자들의 실제 현실을 참고하여 이에 보다 접근할 수 있는 문항들로 조사 질문지를 발전시켜 구성할 수 있을 때 저소득층의 복지적 욕구와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부합한 복지정책들을 계획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질적 패널자료의 활용 상 한계점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론에 의한 접근을 시도하면서 제한된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방대하게 수집된 자료를 제한된 시간 내에 분석해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특히 각 가구마다 다양한 가구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면접을 수행해야 했고, 응답자 중 노인 대상자가 많았다는 특성 때문에 심층적인 면접 수행이 매우 어려웠던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염두에 둘 것을 제안하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활발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첫째, 본 자료의 수집과정에 있어 훈련된 조사원들을 투입, 면접을 수행하게 하였으나, 면접질문을 심도 있게 질문하고, 답을 얻는데 있어 경험이나 기술상의 미숙함이 많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충분한 자원과 시간이 뒷받침되어주지 못한 점에서 기인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질적연구의 특성이 잘 반영된 자료수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는 몇몇 문제들이 발견될 것이다.

예를 들어 더 탐색해야 할 질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른 주제로 넘어갔던 경우이다.

조사원 : 혹시 일을 안 하는 동안 힘들었던 가장 힘들었던 기억같은 거 있나요?
 응답자 : 일을 안 하는 동안 최근에는 별로 없었던 거 같은데...신랑이 교육비 안줄 때 그 때가 제일 힘들어.
 조사원 : 그럼 일자리 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뭔가요?

일례로 위의 사례에서는 일을 안 하는 동안 힘들었던 경험을 묻는 것이었는데, 남편이 교육비를 안 줄 때가 가장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런데 조사원이 이에 대해 ‘교육비를 안 줄 때는 주로 어떠한 사정이 있었던 건가요?’라거나, ‘교육비를 안주게 되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나요?’ 등의 질문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해 조금 더 탐색을 한 후 다음 질문을 진행했다면 더 의미 있는 진술이 확보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각 주제영역별, 대상별로 수집된 면접자료는 질적 연구에서 추구하는 현상의 본질이나 의미탐색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나, 패널조사 대상 가구의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주제와 영역에 있어서의 기초적인 질문을 그들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는 데에 의미를 둔다면 자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경우는 질문을 상황에 맞게 수정, 변경하여 했다면 더 나은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이다.

응답자 : 아홉 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조사원 : 아홉 살 때, 음.
 응답자 : 예.
 조사원 : 음. 그래, 아버님은?
 응답자 : 아버님은 스물.....: 둘에 돌아가시고
 조사원 : 아. 그러면 인제 짧은 기간이지만, 인제, 부모님하고 같이 사셨잖아요?
 응답자 : 예.
 조사원 : 그 때, 어떤 점이 가장 만족스러우셨는지?
 응답자 : 만족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홀애비 되가지고 또 동네 이렇게 보게 되는 양반이 되가지고 맨날 나가있고..

어머니가 9살 때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같이 살면서 어떤 점이 가장 만족스러웠냐고 묻기보다(이것이 본래 의도된 질문이었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땠는지, 어머니의 존재가 어떻게 느껴졌는지, 어머니의 부재가 본인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주었는지 등을 물었다면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탐색이 더 심도 있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주 응답자 평균연령이 60세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질문내용에 있어 다소 연령부합성이 낮은 경우가 있었고, 때로는 응답자의 거주 환경이나 문화와 동떨어진 질문 문항들도 있었다. 연구자들이 사전에 심사숙고하여 질문 문항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의 다양한 지역, 도시, 농촌을 망라하고, 학력이나 직업 등의 기본적인 인구학적 배경이 치밀하게 고려되지 않은 채 연구참여자 선정이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정보의 소외나 격차가 심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면접질문의 적절성이나 부합성이 낮아 좋은 자료수집이 어려웠다는 한계가 나타났다.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주제를 다른 방식으로 탐색할 수 있는 조정된 예비 질문 등을 준비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내용 면접을 생략하는 방식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표본 추출에 있어서도 보다 다양한 연령층과 성별을 포함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질적 패널조사에 사용된 질문문항이나 주제 영역, 그리고 각 조사내용별로 기초적으로 분석된 결과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다면 질적 연구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존의 한국복지패널 등을 활용하여 양적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관련 연구주제와 연관된 통찰과 후속 연구의 아이디어 또는 영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 질적 패널 구축의 기대효과 및 연계 활용방안

본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구축된 질적 패널자료는 향후 한국복지패널과 더불어 질적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자료로 학술적 연구 및 정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국복지패널 연계 저소득층 중심의 양적 & 질적 패널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에서 질적 연구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여 질적 연구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양적 & 질적 연구방법론의 연계 및 활용을 통한 학문적 교류와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은 통계청의 전국 가계동향조사 및 여타 국책연구기관에서 구축하고 있는 양적 패널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매년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는 각종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을 확대하여 양적 연구방법론과 함께 질적 연구방법론의 연계 및 혼합을 통해 다차원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하도록 패널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복지정책에 대한 체감도 및 정책수립을 위한 심층조사 표본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문헌

- 강민아, 손주연, 김희정(2007). 통합 연구 방법 적용 가능성에 대한 탐색 연구: 지역 보건 정책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 조사에 설문 조사와 포커스 그룹 방법의 통합적 적용. 한국행정학보, 41(4), pp. 415-437.
- 강신욱(2009). 빈곤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한 빈곤정책의 방향. 경제발전연구, 15(2), pp.263-286.
- 강철희, 김미옥(2003).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방법론에 대한 분석과 고찰 -질적 연구방법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논의. 한국사회복지학, 55, pp.55-81.
- 구인회(2005). 빈곤의 동태적 분석: 빈곤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 한국 사회복지학, 57(2), pp.351-374.
- 권지성(2008). 쪽방 거주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문화 기술지. 한국사회복지학, 60(4), pp.131-156.
- 권지성(2010). 저소득층 자산형성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평가연구: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2(3), pp.193-218.
- 금재호, 김승택(2001). 빈곤의 규모와 이행과정. 연세경제연구, 8(2), pp.511-539.
- 김교성(2011). 사회정책 빈곤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사회정책, 18(1),

pp.43-82.

김교성, 노혜진(2011). 빈곤의 세대간 탈피 경험. 사회복지연구, 42(1), pp.243-278.

김미숙(2006). 양적방법과 질적방법의 통합에 대하여. 교육사회학연구, 16(3), pp.43-64.

김영모(1989). 빈곤 연구의 동향과 과제. 사회과학연구, 3, pp.31-61.

김은하(2009). 근로빈곤층 여성의 빈곤탈출 결정요인: 인적자본, 가구특성, 노동시장 지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6(3), pp.239-268.

김인숙(2007).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 동향과 의미. 한국사회복지학, 59(1), pp.275-300.

김황기(2005). 미술교육에서 질적, 양적 연구 방법의 통합. 미술교육논총, 19(3), pp.1-18.

노혜련, 유서구, 박화옥, 윤민화(2007). 우리아이희망네트워크 지원사업 성과 평가. 한국사회봉사협의회·숭실대학교

노혜진, 김교성(2010).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 사회복지연구, 41(2), pp.159-188.

박순일(1994). 선진경제의 문턱에서 본 한국의 빈곤현실과 사회보장. 서울: 일신사.

백학영(2006). 저소득 독거노인의 빈곤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31(가을), pp.5-39.

백학영, 고미선(2007).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과 노동시장 진입 전망에 관한 연구-여성가장의 자활사업 참여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0, pp.83-114.

서병수(2007). 한국의 다차원적 빈곤 분석: 실현능력접근. 사회복지정책, 28, pp.199-232.

석상훈(2007). 빈곤의 지속·상태의존성 검증. 사회보장연구, 23(3),

- pp.79-99.
- 석상훈(2009). 노인빈곤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보장학회, pp.159-179.
- 석상훈(2011). 자산과 빈곤지속. 사회보장연구, 27(2), pp.163-186.
- 성준모(2010). 소득수준별 가구 경제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62(1), pp.109-132.
- 심준섭(2008). 행정학 연구의 대안적 방법으로서의 방법론적 다각화 (triangulation):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의 결합. 한국행정연구, 17(2), 3-31.
- 안서연, 구인회, 이원진(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탈출 결정요인: 근로능력자 집단별 분석. 사회복지정책, 38(1), pp.199-226.
- 양옥경(2000). 한국 가족개념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 pp.69-99.
- 오정수(1997). 사회복지학 접근방법의 이중구조와 정합적 접근 전망. 상황과 복지, 2, pp.131-158.
- 오정수(2002). 한국 사회복지학계 연구방법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상황과 복지, 13, pp.33-46.
- 유태균, 이선정(2011).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탈수급 전·후 의료서비스 이용수준 차이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7(1), pp.185-215.
- 윤석범(1994). 한국의 빈곤. 서울. 세경사.
- 이상록, 이순아(2010). 빈곤지위의 변화에 정신건강이 미치는 영향: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1(4), pp.277-311.
- 이은주(2008). 근로빈곤층의 삶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근거이론 분석. 사회복지정책, 34, pp.331-356.

- 이종원(2009). 2009 세대간 사회의식 비교 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주하(2011). 빈곤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이해. 한국사회정책, 18(1), pp.11-42.
- 이태진, 김태완, 최현수, 김문길, 우선희, 박경희, 박은영, 전세나(2008).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기반조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수급자 및 전담공무원 대상 질적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태진, 홍경준, 김태완, 최현수, 김문길, 김선미, 김사현, 최옥금, 우선희, 김효진, 강성민(2007).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수급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 질적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 안서연, 박경희(2009). 가난한 사람들의 일과 삶-심리사회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희연(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지 연구. 사회보장연구, 25(1), pp.281-315.
- 임세희(2010).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2(4), pp.377-402.
- 임재현(2011). 주거빈곤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2(1), pp.279-304.
- 정선영, 정현숙(2011). 복지서비스 이용이 저소득가구의 가족갈등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어려움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고찰. 사회복지연구, 42(1), pp.5-30.
- 정원오, 이선정(2011). 빈곤계층의 소비패턴에 관한 연구: 2007년과 2008년의 변화 비교. 사회복지연구, 42(1), pp.305-331.
- 진선미, 오영삼, 임란(2011). 요보호 가구원의 부양이 가구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2(1),

pp.139-158.

천희란·강민아(2011). 여성 노인의 건강불평등 현황과 측정: 통합방법론 (Mixed Methodology)의 적용. 노인복지연구, 51, 247-276.

최균, 서병수(2006). 빈곤 연구의 대안 패러다임으로서 Sen의 가능성접근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 측면과 측정 측면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5, pp.333-362.

최균, 서병수, 권종희(2011). 차원계수방식에 의한 다차원적 빈곤 측정. 한국사회복지학, 63(1), pp.85-111.

홍경준(2002). 한국 사회복지학계 연구방법론의 동향. 상황과 복지, 13, pp.13-32.

홍경준(2004).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4, pp.187-210.

홍현미라(2011). 사회복지 거시실천에서의 질적 평가연구,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한 탐색.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3), pp.292-318.

황덕순(2001).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에 대한 동태분석. 노동정책연구, 가을, pp.31-59.

Adato, M., Carter, M., and May, J.(2006). Exploring Poverty Traps and Social Exclusion in South Africa us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ata.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2(2), pp.226-247.

Alcock, P.(2004). The Influence of Dynamic Perspectives on Poverty Analysis and Anti-Poverty Policy in the UK. *Journal of Social Policy*, 33(3), pp.395-416.

Barrett, C.(2004). *Mixing Qualitative and Qunatitative Methods of Analyzing Poverty Dynamics*. SAGA Working Paper, March 2004.

- Bryman, A.(2007). Barriers to integrat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of mixed method research*, 1(1), 8-22.
- Bryman, A.(2006). Integrat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How is it done? *Qualitative Research*, 6(1), 97-113.
- Bryman, A.(1988). *Quantity and quality in social research*. 홍동식, 조정문, 고승한 공역(1992). 사회연구에 있어서 양적방법과 질적 방법. 전문출판사.
- Carvalho, S. and White, H.(1997). *Combining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 to Poverty Measurement and Analysis*. The Practice and the Potential. Papers 366, World Bank - Technical Papers.
- Corden, A., and Millar, J.(2007). Time and Change: A Review of the Qualitative Longitudinal Research Literature for Social Policy. *Social Policy & Society*, 6(4), pp.583-592.
- Creswell, J. W. and Plano Clark, V. L.(2011). *Designing and Conduction Mixed Methods Research(2nd)*. Sage Publications.
- Creswell, J. W.(2007).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2nd ed.)*. 조홍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2010). 질적 연구방법론-다섯가지 접근. 학지사.
- Denzin, N. K., and Lincoln, Y. S.(Eds.).(1994).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Sage.
- Edin, K., and Lein, L.(1997). *Making Ends Meet: How Single Mothers Survive Welfare and Low-Wage Work*.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Erzberger, C., and Prein, G.(1997). Triangulation: validity and

empirically-based hypothesis construction. *Quality & Quantity*, 31, pp.141-154.

Farrall, S.(2006). What is Qualitative Longitudinal Research? LSE Methodology Institute. Papers in Social Research Methods, *Qualitative Series*, Paper 11.

Fry, G., Chantavanich, S., and Chantavanich, A.(1981). Merg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Toward a New Research paradigm. *Anthropology and Education Quarterly*, 12, 145-158.

Greene, J. C., Caracelli, V. J., and Graham, W. F.(1989). Toward a conceptual framework for mixed-method evaluation design.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11(3), 255-274.

Hatch, J. A.(2002). *Doing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setting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Henwood, K., and Lang, I.(2003). *Qualitative Research Resources: A Consultation Exercise with UK Social Scientists*. A report to the ESRC.

Holland, J., Thomson, R., and Henderson, S.(2006). *Qualitative Longitudinal Research: A discussion paper*. Families & Social Capital ESRC Research Group.

Jick, T. D.(1979). Mix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Triangulation in Ac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4(4), Qualitative Methodology, pp.602-611.

Johnson, R. Burke, Onwuegbuzie, Anthony J., and Turner, Lisa A.(2007). Toward a definition of mixed methods research. *Journal of mixed method research*, 1, 112-133.

- Lawson, D., Hulme, D., and Muwonge, J.(2008). Combin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to Further Our Understanding of Poverty Dynamics: Some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ple Research Approaches*, 2(2), pp.191-204.
- Lawson, D., McKay, A., and Okidi, J.(2006). Poverty Persistence and Transitions in Uganda: A Combin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2(7), pp.1225-1251.
- LeCompte M.D., and Schensul, J. J.(1999). *Designing and conducting ethnographic research(Ethnographer's toolkit, Vol.1)*. Walnut Creek, CA:AltaMira.
- London, A. S., Schwartz, S., and Scott, E. K.(2007) Combin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in welfare policy evaluations in the united states. *World Development*, 35(2), 342-353.
- Marshall, C., and Rossman, G. B.(2006). *Designing qualitative research(4th ed.)*. Thousand Oaks, CA: Sage.
- Millar, J.(2007). The Dynamics of Poverty and Employment: The Contribution of Qualitative Longitudinal Research to Understanding Transitions, Adaptations and Trajectories. *Social Policy & Society*, 6(4), pp.533-544.
- Molloy, D. & Woodfield, K. with Bacon, J.(2002). *Longitudinal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es in Evaluation Studies*.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Working Paper No. 7. London: HMSO.
- OECD(2001).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

Guidelines-Poverty Reduction. Paris. OECD.

Padgett, D. K.(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유태균 역(2001). 사회복지 질적연구방법론. 나남출판.

Padgett, D. K.(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Inc.

Pollard, A., and Filer, A.(1996). *The Social World of Children's Learning: Case-studies of Pupils from four to seven*, London: Cassell.

Rossmann, G. B., and B. L. Wilson.(1985). Numbers and words: Combin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in a single-large-scale evaluation study. *Evaluation Review*, 9(5), 627-643.

Ruspini, E.(1999). Longitudinal Research and the Analysis of Social Change. *Quality & Quantity*, 33, pp.219-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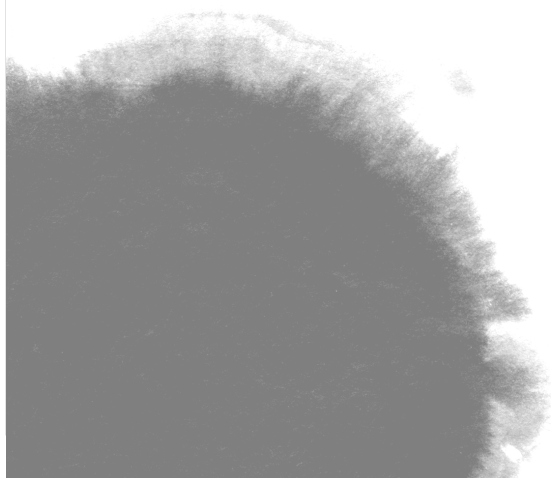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Saldana, J.(2003). *Longitudinal Qualitative Research: Analyzing Change through Time*. Walnut Creek, CA: AltaMira Press.

Secombe, K.(1999). *So You Think I Drive a Cadillac?: Welfare Recipients' Perspectives on the System and its Reform*. Boston: Allyn & Bacon.

Tashakkori, A. and Teddlie, C.(2003)(eds.) *Handbook of mixed methods in social & behavioral research*. Thousand Oaks, London: Sage Publications.

Wolcott, H. f.(2002). Writing up qualitative research. *Better.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2(1), 91-103.

부 록



저소득층의 인식 및 전망에 대한 조사

※ 조사목적: 가구의 소비심리 및 경제상황, 복지영역별 상황과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전망을 조사함으로써, 일상생활과 밀접한 경제상황 및 복지수준에 대한 체감정도와 복지욕구를 파악하는데 활용함

머기								응답자	연락처1	연락처2

6차년도 조사원	6차년도 조사지도원	7차년도 전화조사원

I. 저소득층의 경제인식에 대한 조사

문1. 현재 **귀댁의 생활형편**은 1년 전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이 나아졌다 ② 약간 나아졌다 ③ 비슷하다 ④ 약간 나빠졌다 ⑤ 많이 나빠졌다

문2.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는 1년 전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이 좋아졌다 ② 약간 좋아졌다 ③ 비슷하다 ④ 약간 나빠졌다 ⑤ 많이 나빠졌다

II. 저소득층의 경제전망에 대한 조사

문3. **귀댁의 생활형편**은 현재와 비교하여 지금부터 1년 후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이 나아질 것이다 ② 약간 나아질 것이다 ③ 비슷할 것이다
④ 약간 나빠질 것이다 ⑤ 많이 나빠질 것이다

문4. **우리나라의 경기**는 현재와 비교하여 지금부터 1년 후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이 좋아질 것이다 ② 약간 좋아질 것이다 ③ 비슷할 것이다
④ 약간 나빠질 것이다 ⑤ 많이 나빠질 것이다

문4-1. 우리나라 1년 후의 **경기에 영향을 줄 주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택1)

- ① 국내소비 ② 유가 등 물가수준 ③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의 가치
④ 고용사정 ⑤ 수출, 환율 등 대외적 요인 ⑥ 기타

문5. **물가수준**은 현재와 비교하여 지금부터 1년 후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크게 상승할 것이다 ② 약간 상승할 것이다 ③ 비슷할 것이다
④ 약간 하락할 것이다 ⑤ 크게 하락할 것이다

문6. **취업할 수 있는 기회**는 현재와 비교하여 지금부터 1년 후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이 좋아질 것이다 ② 약간 좋아질 것이다 ③ 비슷할 것이다
④ 약간 나빠질 것이다 ⑤ 많이 나빠질 것이다

문7. **금리수준**은 현재와 비교하여 지금부터 1년 후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크게 상승할 것이다 ② 약간 상승할 것이다 ③ 비슷할 것이다
④ 약간 하락할 것이다 ⑤ 크게 하락할 것이다

III. 저소득층의 소비지출 전망

문8. 귀댁의 **가계수입**은 현재와 비교하여 지금부터 1년 후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이 증가할 것이다 ② 약간 증가할 것이다 ③ 비슷할 것이다
④ 약간 감소할 것이다 ⑤ 많이 감소할 것이다

문9. 귀댁의 **소비지출**은 현재와 비교하여 지금부터 1년 후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이 증가할 것이다 ② 약간 증가할 것이다 ③ 비슷할 것이다
④ 약간 감소할 것이다 ⑤ 많이 감소할 것이다

문10. **아래 항목에 대한 귀댁의 지출규모는 현재와 비교하여 지금부터 1년 후**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5개 중에서 선택하여 항목별 괄호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 ① 크게 증가할 것임 ② 다소 증가할 것임 ③ 비슷할 것임
④ 다소 감소할 것임 ⑤ 크게 감소할 것임

- | | |
|-----------------------------------|------------------------------|
| 1) 승용차 ,TV, 냉장고 등 내구재 구입액 () | 6) 보건의료비 () |
| 2) 의류비(옷, 신발 등) () | 7) 교양, 오락 및 문화생활비 () |
| 3) 식비(외식 포함) () | 8) 교통·통신비 () |
| 4) 주거비(전세보증금, 월세) () | 9) 광열비(난방, 취사, 상하수도) () |
| 5) 교육비(학원비, 과외비 포함) () | 10) 이자 상환 () |

IV. 저소득층의 자산가치 전망

※ 문11과 문12는 보기 5개 중에서 선택하여 항목별 괄호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 ① 크게 증가할 것임 ② 다소 증가할 것임 ③ 비슷할 것임
④ 다소 감소할 것임 ⑤ 크게 감소할 것임

문11. 귀댁의 **가계저축 및 가계부채(금융기관대출, 카드할부대금 및 현금서비스 등) 규모**는

1) **1년 전에 비해 현재** 어떠하십니까?

- ① 가계저축 () ② 가계부채 ()

2) **현재와 비교하여 지금부터 1년 후**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계저축 () ② 가계부채 ()

문12. **귀댁의 자산가치**는 **현재에 비해 1년 후**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주택 및 상가(임차한 주택 및 상가의 전세금, 보증금도 포함) ()
2) 토지 및 임야(현재와 1년 후의 부동산 시세차익에 대해 평가) ()
3) 금융저축(저축원금에 대해 발생하는 수익 변동 평가) ()
4) 주식 ()

V. 저소득층의 복지영역별 인식

문13. 아래의 복지영역별 항목과 관련하여 1년 전에 비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많이 나아졌다 ② 약간 나아졌다 ③ 비슷하다 ④ 약간 나빠졌다 ⑤ 많이 나빠졌다

※ 귀댁의 생활과 관련하여

- | | |
|-----------------|--------|
| 1) 생계 | () |
| 2) 의료(건강) | () |
| 3) 주거 | () |
| 4) 보육 | () |
| 5) 교육 | () |
| 6) 취업(일자리) | () |
| 7) 교통·통신 | () |
| 8) 문화·여가 | () |
| 9) 돌봄(노인/장애인수발) | () |
| 10) 부채 및 이자상환 | () |

※ 대상별 복지수준 및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 | | |
|------------------------------------|--------|
| 1) 출산 | () |
| 2) 보육 | () |
| 3) 아동·청소년 | () |
| 4) 교육비(초중고/대학등록금) | () |
| 5) 청년실업 | () |
| 6) 주택 | () |
| 7) 중고령층(베이비붐세대)
(조기퇴직/재취업/노후준비) | () |
| 8) 노인 | () |
| 9) 장애인 | () |
| 10) 빈곤 | () |

VI. 저소득층의 복지영역별 전망

문14. 아래의 복지영역별 항목과 관련하여 현재에 비해 1년 후에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많이 나아질 것이다 ② 약간 나아질 것이다 ③ 비슷할 것이다
④ 약간 나빠질 것이다 ⑤ 많이 나빠질 것이다

※ 귀댁의 생활과 관련하여

- | | |
|-----------------|--------|
| 1) 생계 | () |
| 2) 의료(건강) | () |
| 3) 주거 | () |
| 4) 보육 | () |
| 5) 교육 | () |
| 6) 취업(일자리) | () |
| 7) 교통·통신 | () |
| 8) 문화·여가 | () |
| 9) 돌봄(노인/장애인수발) | () |
| 10) 부채 및 이자상환 | () |

※ 대상별 복지수준 및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 | | |
|------------------------------------|--------|
| 1) 출산 | () |
| 2) 보육 | () |
| 3) 아동·청소년 | () |
| 4) 교육비(초중고/대학등록금) | () |
| 5) 청년실업 | () |
| 6) 주택 | () |
| 7) 중고령층(베이비붐세대)
(조기퇴직/재취업/노후준비) | () |
| 8) 노인 | () |
| 9) 장애인 | () |
| 10) 빈곤 | () |

201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6년부터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양적자료와 연계하여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계층별, 연령별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 욕구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복지정책 수립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와 조사 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댁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10월

※ 본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201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조사’ 참여에 동의하였으며, 가구실태 및 가구원에 대한 조사에 응하는 것을 동의는 바입니다.

가구주와의 관계: _____ 성명: _____(서명)

< 문의 및 연락처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2-380-8273, 8334)

가구 ID			가구주 성명	
조사소요시간	총 _____분		방문횟수	총 _____회
1차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미완사유:
2차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미완사유:
3차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미완사유:
조사원 이름			조사원 연락처	

□ 응답 대상자 및 조사 영역별

○ 조사대상 우선선정 기준

- 30세~59세 가구주 또는 남성가구원을 우선적인 응답대상자로 선정하며, 가능한 가구원과의 관계가 다양한 자(부모, 배우자, 자녀 등)를 선정하여 조사함
 - 예를 들어 59세의 부모와 30세의 자녀가 있을 경우 59세의 부모를 주 대상으로 함
- 만약 여성이 응답을 하게 될 경우 '6. 인구특성별 가구원 조사' 에서 '여성' 에 대한 질문을 가급적 도입질문 후나 가족문항 전에 질문함
- 근로, 빈곤은 응답자 개인의 경험 외, 타가구원의 경험도 함께 질문함
- 가족,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은 응답자 개인의 경험 위주 응답

○ 인구특성별 가구원 조사

- 아동/청소년은 연구원에서 선별하는 기준대상을 우선으로 조사함
- 청소년(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중·고등학생 공통으로 질문함
- 노인의 경우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함
- 장애인의 경우 장애가 있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함. 그러나 만약 본인이 응답하기가 어려운 경우 (예, 언어장애, 지적장애 등) 보호자의 대리응답도 가능함(단, 대리응답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기입)

조사 영역	쪽수	응답자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 도입질문	1				
1. 근로	1				
2. 빈곤, 탈수급 관련 역학적 특성	5				
3. 가족	11				
4.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 배우자와의 관계	12				
- 부모와의 관계	15				
- 자녀와의 관계	16				
- 전반적인 정신건강	19				
-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20				
5. 생활실태 만족 및 의식	21				
6. 인구특성별 가구원 조사					
1) 여성	22				
2) 아동/청소년	25				
3) 청소년(중·고등학생)	30				
4) 노인	31				
5) 장애인	33				

※ 도입질문

요즘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루 일과나 일주일의 생활패턴,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

13

1. 근로

【A. 직장경험/구직과정】

□ 귀하께서는 다니던 직장이나 하시던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습니까?

〈A-1 (if yes) 일자리를 잃은 경험이 있는 경우〉

1-1) 어떤 직장들을 다니셨습니까?

1-2) 그 중 가장 최근에 그만둔 일은 왜 그만두셨습니까?

1-3) 일을 그만둔 실업기간 동안의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1-3-1)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1-4)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1-4-1) 그리고 그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였습니까?

1-4-2) 어떤 도움이 가장 절실했습니까?

1-5) 현재는 일자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인 경우 계속 질문)

1-5-1) 현재 하시는 일에 만족하십니까?

1-5-1-1) 왜 그렇습니까?

1-5-2) 만일 다른 직장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면, 어떻게 일자리를 구해보겠습니까?

1-5-2-1)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14

〈 A-2 (if no) 현재 한 직장에서 계속 일하여 일자리를 잃어본 경험이 없는 경우〉

2-1) 현재 하시는 일에 만족하십니까?

2-1-1) 왜 그렇습니까?

2-2) 현재의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2-2-1) 그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였습니까?

2-2-2) 어떤 도움이 가장 절실하였습니까?

2-3) 만일 다른 직장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면, 어떻게 일자리를 구해보겠습니까?

2-3-1)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

〈 A-3 (if no) 한번도 직장생활이나 자영업 등을 안해 본 경우〉

3-1) 이전에 일자리를 구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3-1-1) 일자리를 갖기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3-2) 직장이나 일자리가 없어서 가장 곤란했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경험입니까?

3-3) 현재 일자리를 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3-3-1) (if yes) 현재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까? 일자리를 구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어떤 도움이 가장 절실합니까?

3-3-2) (if no) 일자리를 구할 의사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도움이 주어진다면 일자리를 구하겠습니까?

☞

[B. 고용지원프로그램]

- 귀하께서 정부가 제공하는 고용지원 프로그램 (예를 들면,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자활, 사회적 일자리, 직장체험연수, 실업자 직업훈련, 창업지원) 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B-1 (if yes)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면〉

- 4-1)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까?
- 4-2)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 4-3)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 4-3-1) 얼마나 오랫동안 참여하였습니까?
 - 4-3-2) 처음에 참여할 때 기대는 어떠했습니까?
 - 4-3-3) 그리고 그 기대는 어느 정도 충족되었습니까?
- 4-4) 그 프로그램이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 4-4-1)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4-5) 그 프로그램이 가장 고쳐야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4-5-1)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4-6) 그 프로그램이 귀하의 장기적인 일자리를 구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까?
 - 4-6-1)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4-7) 그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 4-8) 그 프로그램이 보다 잘 실행되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겠습니까?
- 4-9) 주변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4-9-1) (if yes)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 4-9-2) 왜 이런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4-10) 그 프로그램을 주위의 젊은 분들에게도 권해주시겠습니까?
 - 4-10-1) 왜 그렇습니까?

143

〈B-2 (if no)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다면〉

5-1)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if no, 근로 관련 인터뷰 종료)

5-2) (if yes) 귀하께서도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겠습니까?

5-2-1) 왜 그렇습니까?

5-3)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십니까?

5-3-1) 왜 그렇습니까?

5-4) 만일 귀하께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신다면,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5-5) 이러한 프로그램을 귀하의 주위의 젊은 분들에게도 알리고 권해주시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5-6) 귀하께서는 주위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if no, 근로 관련 인터뷰 종료)

5-6-1) (if yes) 그분들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까?

5-6-2) 그분들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까?

5-6-3) 귀하께서는 그분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5-6-4) 그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그분들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5-6-5) 그 프로그램이 보다 잘 실행되려면, 어떤 점들이 개선되어야 하겠습니까?

5-6-6) 그분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서 주위에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5-6-6-1) (if yes) 어떤 차별이었습니까?

5-6-6-2) 왜 이런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2. 빈곤, 탈수급 관련 역학적 특성

【A. 빈곤의 경험: History, 원인, 생활에 미친 영향, 인식】

- 1) 귀하께서 살아오면서 경제적으로 가장 크게 어려웠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그때의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시기, 기간 등등)
- 2) 왜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3)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

- 4) 지금의 경제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 4-1) 점수로 표시한다면, 매우 가난한 것을 1점이라고 하고 매우 부자인 것을 10점이라고 하면 지금은 몇 점에 해당하십니까?
 - 4-2) 왜 그렇게 점수를 주셨습니까?

※

- 5) 앞으로 귀댁의 경제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5-1)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 5-2)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 6) 경제상황이 나아지면 어디에 돈을 더 사용하시겠습니까?
 - 6-1)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B. 빈곤에 대한 대응: 주위의 반응, 개인의 노력, 국가의 도움]

7) 주위의 사람들이 귀하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어떻게 반응(대처)하였습니까?

8) 귀하께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

9) 귀하께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친지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9-1) (if yes) 그렇다면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시기, 내용 등)

9-2)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까?

☞

10)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국가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10-1) (if yes) 그렇다면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시기, 내용 등)

10-2)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까?

☞

11) 이 외에도 귀하께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하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12) 이상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까?

12-1)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C.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경험, 수급의 유용성, 탈수급]

13) 귀하께서는 수급권을 신청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13-1) (if yes)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3-2) 현재도 수급권자입니까?

14

<C-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한 적이 없는 경우>

14)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을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5) 만일 수급권을 신청하여 수급권자 지정을 받았다면 현재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5-1)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6) 귀댁과 경제적 형편이 비슷한 이웃이 있는데, 귀댁과는 달리 수급권자로 인정받은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16-1) (if yes) 그 분들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16-2) 그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16-3) 그분들이 수급대상 가구에서 탈피하기 가장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16-4)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수급대상 가구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5

<C-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하여 수급 경험에 있는 경우 (수급경험자 전체)>

17) 귀하께서 수급권을 신청과 관련하여 경험하신 일들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유, 과정 등등)

18) 수급권자가 된 후 가장 크게 혜택을 본 것은 무엇입니까?

18-1)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9) 만일 수급권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했을까요?

20) 귀댁과 경제적 형편이 비슷한 이웃이 있는데, 귀댁과는 달리 수급권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20-1) (if yes) 그 분들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20-2) 그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16

〈C-2a 수급 경험 있으며 현재도 수급권자인 경우〉

- 21) 할 수만 있다면 수급대상 가구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21-1) 왜 그렇습니까?
- 22) 지금 현재 수급대상 가구를 벗어나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23)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더 해주면 수급대상 가구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 24) 귀하께서는 언제쯤 수급대상 가구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24-1) 구체적으로 몇 년 정도가 더 걸릴까요?
24-2) 그때는 귀택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수급대상 가구에서 벗어나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25) 현재 받으시는 수급 혜택 중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5-1) 왜 그렇습니까?
25-2) 만일 이 혜택만큼은 계속 유지시켜준다면 수급 대상 가구에서 벗어나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 26) 일반적으로 수급권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수급대상 가구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C-2b 수급 경험 있으나 현재는 탈수급인 경우〉

- 27) 수급대상 가구였다가 탈수급 하시게 된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 27-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27-1) 탈수급이 본인이 원하던 결과였습니까?
- 28) (본인의 의지와 반하여 비자발적으로 탈수급한 경우) 탈수급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납득이 되십니까?
- 28-1)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29) (본인의 의지로 자립하고자 자발적으로 탈수급한 경우) 왜 탈수급하기를 원하셨습니까?
- 30) 탈수급 이후 어떻게 자립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 31) 탈수급을 한 다음 귀하, 그리고 다른 가구원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 32) 수급권자에서 비수급자로 되고 나니 가장 아쉬운 혜택은 무엇입니까?
- 32-1) 그 혜택이 없어서 어떤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 32-2) 그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 33) 만약 계속 수급권을 유지하였다면 현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 33-1)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34) 탈수급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 34-1) 만일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

〈C-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하였으나 탈락하여 수급 경험이 없는 경우(선정이 안 된 경우)〉

- 35) 귀하께서 수급권을 신청과 관련하여 경험하신 일들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유, 과정 등등)
- 36) 신청하였으나 수급자격을 가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36-1) 그 이유에 대해 납득이 되십니까?
- 36-2)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37) 어떤 혜택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셨습니까?
- 37-1) 왜 그렇습니까?
- 38) 수급권을 갖지 못하게 된 이후, 귀하, 그리고 다른 가구원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 39) 만일 그때 수급권자가 되었다면 현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 39-1)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40) 탈락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 40-1) 만일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 41) 귀댁과 경제적 형편이 비슷한 이웃이 있는데, 귀댁과는 달리 수급권자로 인정받은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 41-1) (if yes) 그 분들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 41-2) 그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 41-3) 그 분들이 수급대상 가구에서 탈피하기 가장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 41-4) 어떻게 하면 그 분들이 수급대상 가구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D. 빈곤에 대한 인식/비전/제도개선〉

- 42) 귀하께서는 빈곤한 사람들과 부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42) 우리 사회에서 빈곤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 42-1)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42-2) 그렇다면 나라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 43) 5년 뒤에 귀하의 모습은 어떠한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43-1)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3. 가족

- 1) 귀하의 가족을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우리 가족은 000이다.”
- 1-1)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

- 2) 가족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가족은 000이다.”
- 2-1) 이렇게 정의한 이유는?

☞

4.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배우자와의 관계]

☐ 귀하 부부의 관계, 혹은 부부생활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1) 결혼하신지, 부부로서 얼마나 되셨나요?

1-1) 부부관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1-1-1) 부부관계의 질, 부부관계의 성숙, 부부관계의 만족이라는 부분은 시간에 따라 변화했다고 보십니까?

1-1-2)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2) 부부관계의 갈등을 해결하고 부부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1-2-1) 부부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과 노력도 변한다고 느껴지십니까?

1-2-2)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3) 어떨 때 부부관계, 부부생활이 ‘만족스럽다 혹은 불만족스럽다’ 라고 느끼십니까?

☞

2) 나의 부부생활 중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고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탐색 영역: 상호적 차원의 언어 소통, 성생활, 여가취미생활, 종교생활, 생활습관 및 태도, 교우관계, 친지와의 관계, 직업생활의 지지와 도움, 자녀양육, 부모부양, 식생활, 재산 증식 및 관리 등등)

☞

3) 부부관계, 부부생활의 만족(불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3-1) 무엇이 부부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인가요?

3-2) 부부관계를 돈독하게 혹은 개선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던 조건, 상황, 사건들이 있었다면 무엇 일까요? 관련된 사건이나 상황들(상처, 좌절, 배신 vs. 기쁨/감동/신뢰 와 관련된...)

13

4) 부부관계 부부생활의 만족 (질)을 높이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4-1)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4-2)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4

5) 부부관계, 부부생활의 만족을 위해 상대방(부인 혹은 남편)에게 현재 기대하거나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5

6) 어떤 때 부부사이에 의견이 다르거나 다툼이 발생하니까? 혹은 부부사이의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6-1) 그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십니까?

16

7)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나름의 지혜를 갖고 계신다면 어떤 것일까요?

8) 부부사이에 폭력적 방법으로 상대방과의 갈등에 대처한 적은 있으십니까?

8-1) 언제,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9) 부부관계에서의 폭력발생은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가정폭력에 중점을 두어 보다 탐색적 질문들을 개발해야 할지 고민 필요함)

17

10) 가족생활에서 부부관계, 부부생활은 어떤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을까요?

10-1) 부부관계와 자녀와의 관계 중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10-2) 전체 가족생활(자녀와의 관계/ 자녀간 관계/ 확대가족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

11) 가족이라 하면 누구 누구까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1) 가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12) 정기적 가족 모임이나 만남을 통해 가족애를 유지하고 있는 친척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12-1) 그분들과 어떤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

【부모와의 관계】

13)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함께 살고 있다면 살면서 어떤 점이 가장 만족스럽고, 어떤 점이 가장 불만족스러우십니까?(의사소통, 종교생활, 생활습관 등 기타 함께 살면서 만족 또는 불만족하는 영역을 탐색)

13-1)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시기에 따라 변한 경험이 있습니까?(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등 시기별 탐색). 있다면 그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시요.

13-2) 부모님은 본인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

14)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14-1) 따로 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4-2) 따로 살게 되면서 불편하거나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5) 따로 살고 있는 경우, 부모님과의 왕래(또는 전화)에 관한 경험(빈도, 유형)에 대해 말씀해주시요.

15-1) 따로 살고 있는 경우, 부모님과 자주 왕래(또는 전화)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5-2) 부모님과 자주 왕래하지 않는 것이 본인과 부모님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영향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15-3)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것이 본인에게는 어떠한 의미입니까?(본인이 따로 사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지)

☞

16)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 분과 더 친밀하거나 덜 친밀한(또는 갈등) 관계가 있습니까?

16-1) 더 친밀한 분, 덜 친밀한 분이 있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계기, 언제부터, 특정 사건 등등)

16-2) 부모님과 갈등의 경험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주시요.

16-3) 부모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7) 부모님과 세대차이를 느낄 때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시시오
- 18) 부모님께 바라는 점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시시오.

☞

[자녀와의 관계]

- 19) 현재 자녀를 몇 명 두셨습니까?

19-1) 자녀(들)의 나이는?

☞

- 20)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20-1) 함께 살고 있다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만족스런 부분과 불만족스런 부분은 무엇입니까?

(탐색 영역: 상호적 차원의 언어 소통, 여가취미생활, 종교생활, 생활습관 및 태도, 독립과 자율, 학습과 자기발전, 교우관계, 연애와 결혼, 직업생활, 자녀양육, 부모부양, 양성평등, 재산 증식 및 관리 등등)

20-2) 자녀와의 관계가 시기에 따라 변한다고 보십니까?(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등 시기 별 탐색). 있다면 그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시시오.

20-3) 자녀는 본인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

- 21)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하고 상호 그 관계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21-1) 이 관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노력도 변화한다고 느껴지십니까?

21-2) 어떻게 변화한다고 보십니까?

☞

22)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자녀 중 누구 혹은 다?) 그 기간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22-1) 따로 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2-2) 따로 살게 되면서 불편하거나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3) 따로 살고 있는 경우, 자녀와의 왕래(또는 전화)에 관한 경험(빈도, 유형)에 대해 말씀해주시오.

23-1) 따로 살고 있는 경우, 자녀와 자주 왕래(또는 전화)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3-2) 자주 왕래하지 않는 것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23-3) 자녀와 따로 사는 것이 어떠십니까?(본인이 따로 사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지)

☞

24) 자녀와의 관계의 만족(불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24-1) 무엇이 이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인가요?

24-2) 관계를 돈독하게 혹은 개선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던 조건, 상황, 사건들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관련된 사건이나 상황들(상처, 좌절, 배신 vs. 기쁨/감동/신뢰 와 관련된...)

☞

25) 부모-자녀관계의 만족 (질)을 높이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25-1)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25-2)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26) 자녀와 관계의 만족을 위해 상대방(부모 혹은 자녀)에게 현재 기대하거나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27)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8) 자녀에 대해 기대하는 것 중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

- 29) 어떨 때 자녀와 갈등이 (의견이 다르거나 다툼) 발생하니까?
- 29-1) 혹은 이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 29-2) 자녀와의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십니까?
- 30) 부모-자녀관계 갈등을 해결하는 나름의 지혜를 갖고 계신다면 어떤 것일까요?

☞

- 31) 자녀와의 관계에서 본인이 폭력적 방법으로 상대방과의 갈등에 대처한 적은 있으십니까?
- 31-1) 언제,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 32)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폭력발생은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가정폭력에 중점을 두어 보다 탐색적 질문들을 개발해야 할지 고민 필요함)

☞

- 33) 자녀들 중 더 친밀하거나 덜 친밀한(또는 갈등) 관계가 있습니까?
- 33-1) 더 친밀한 & 덜 친밀한 자녀가 있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계기, 언제부터, 특정 사건 등등)

☞

34) 가족생활에서 부모-자녀관계는 어떤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을까요?

34-1) 부부관계와 자녀와의 관계 중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34-2) 전체 가족생활(자녀와의 관계/ 자녀간 관계/ 확대가족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15

[전반적인 정신건강]

35) 지금 귀하는 심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5-1) 가장 건강한 상태를 10, 가장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0으로 놓았을 때 현재 몇 점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5-2) 귀하의 정신적 건강이 10점 만점보다 낮은 경우, 점수를 낮게 만다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35-3) 그래도 귀하의 정신적 건강을 이 정도의 점수로 주신 것은 어떠한 요인 때문입니까?

36) 귀하는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16

37) 귀하나 가족구성원 중에, 일상생활에서 심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 과도한 스트레스, 불안, 불면, 우울, 정신질환, 알코올, 자살시도 등)

37-1)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37-2)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가장 지장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37-3)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입니까?

17

38) 귀하와 가족구성원이 심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보다 더 건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혹은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입니까?

☞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39) 귀하나 가족구성원 중에, 심리적 혹은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스트레스, 불안, 불면, 알코올, 우울, 정신질환 등)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39-1) 어떠한 어려움에 대해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까?
39-2)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해 보았습니까?
39-3)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였습니까?
39-4) 서비스 이용 경험은 어떠하였습니까?
39-5) 서비스를 통해 어떠한 도움을 받았습니까?
39-6) 서비스를 통해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39-7)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

5. 생활실태 만족 및 의식

1) 지금 귀하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1-1)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 가장 불행한 상태를 0으로 놓았을 때 현재 몇 점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2) 지금의 행복한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2-1) 귀하를 행복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런 요인들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1-1) 최근 복지정책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체감하십니까? 이러한 복지정책들이 귀하를 행복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1-2) (만약 영향을 미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1-3) (만약 영향이 없다고 응답할 경우) 어떤 것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2-2) 귀하를 불행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런 요인들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3) 지금보다 더 행복한 상태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3-1)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는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4) (경제적 수준이라는 차원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4-1)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6. 인구특성별 가구원 조사

1) 여성

- 1)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양성평등관점에서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차별 혹은 불이익, 불만족 현실이 있습니까?
- 1-1) 이 현실은 부부생활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까?
- 1-2) 아래 영역에서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차별 혹은 불이익, 불만족 현실이 있습니까?
(탐색 영역: 의식주, 성생활, 언어생활, 여가취미생활, 종교생활, 생활습관 및 태도, 교우관계, 직업생활의 지지와 도움, 재산 증식 및 관리 등등)
- 1-3) 시댁식구와의 관계 그리고 친정식구와의 관계에서 양성평등관점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 혹은 불이익, 불만족 현실이 있습니까?
- 1-4) 자녀 양육 및 지원 영역에서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차별 혹은 불이익, 불만족 현실이 있습니까?
- 1-5)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위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1-6)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스럽거나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습니까? 왜?

☞

- 2) 경제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직업생활에서 (양성평등관점에서)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차별 혹은 불이익, 불만족 현실이 있습니까? 어떤 영역에서 그런 현실을 가장 힘들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 3) 귀하는 직장에서 성희롱, 불평등 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 3-1) 어떤 경험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 3-2) 과거와 다른 새로운 변화를 느끼십니까?
- 4) 위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2와 3에 대한 응답)

☞

5) 귀하는 저출산 현상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현재 마련하고 있는 저출산정책 및 서비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5-1) 한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결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저출산 대응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2)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영역으로 구체적으로 의견을 주셔요.

(탐색 영역: 가족 / 지역사회/ 국가/ 직장/ 문화 차원의 지원과 변화)

☞

6) 자녀 돌봄의 경험은 어떠합니까?

6-1) 즐거움(보람)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6-2) 어려움(좌절)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6-3) 나 자신의 고유한 욕구를 해결하는 문제와 자녀 돌봄의 문제가 상호 갈등적으로 부딪히는 때가 있습니까? 어떨 때 그러한 갈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자녀돌봄으로 인해 자신이 희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6-4) 자녀 돌봄에서 의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6-5) 국가(사회) 차원에서 당신의 자녀돌봄을 위해 어떤 도움(혹은 변화)이 제공되길 원하십니까?

☞

7) 자녀의 임신,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본인이나 주위 사람들이 남녀(남아/여아) 구분하여 차별(혹은 차이)을 두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

8) 전체적으로 자녀출산 및 양육의 경험은 여성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

9) 가족 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9-1) 구체적으로 폭력의 역사와 사건에 대해 말씀해주시시오. 가장 심각했던 최근의 폭력 경험을 상세히 말씀해보시오.

(폭력의 역사(언제 시작되고 현재는 어떤지/ 특성(얼마나 자주, 폭력의 수준/ 현재 상황/ 가해자 경찰 신고 및 입건 경험, 자살·가출·도주 혹은 쉼터 경험 있는지 등)

(어떤 가족 구성원이 가해자 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피해자가 복수인지) 구분하여 질문)

9-2) 귀하의 폭력 상황을 해결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9-3) 그 폭력이 귀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해주시시오.

9-3) 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어떤 도움이 구체적으로 필요하십니까?

☞

2) 아동/청소년

□ 면접 절차

- (아동) 이름, 학교를 묻고 인터뷰어 방문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학교에서 가을 운동회(혹은 학예회) 같은 것을 하는지, 가을 소풍(현장체험) 다녀왔는지 등을 질문하면서 자유롭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하면 좀 더 친근감을 느낍니다.
- (청소년) 이름, 학교를 묻고 인터뷰어 방문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중간고사는 어땠는지 등을 질문하면서 자유롭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 (아동/청소년 공통) “우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고 생각나는 대로 말해주면 됩니다.”
- (아동/청소년 공통) 녹음에 대해 설명(얘기한 내용을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잘못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녹음을 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을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 우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1)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부자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추가 설명을 요구함)

1-1) 부자에 대해서 OO(아동/청소년 이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13"

2)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가난한 사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추가 설명을 요구함)

2-1)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OO(아동/청소년 이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13"

3) 부자는 가난한 사람과 다른가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3-1) 또 어떻게 다른가요? (여러 가지 차이를 탐색한다. 이해되지 않을 경우 추가설명을 요구함)

13"

4) 부자는 가난한 사람과 비슷한가요? 어떻게 비슷한가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4-1) 또 무엇이 비슷한가요? (여러 가지 차이를 탐색한다. 이해되지 않을 경우 추가설명을 요구함)

18

5) 왜 어떤 사람들은 부자이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가요? (여러 가지 이유를 탐색한다.)

5-1) 어떤 사람은 왜 부자인가요?

5-2) 어떤 사람은 왜 가난한가요?

18

6)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6-1)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여러 가지 방법을 탐색한다. 대답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대답한 경우, '아,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군요.' 그러면서 기다린다)

6-2) 그렇지 않다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여러 가지 이유를 탐색한다)

18

7)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탐색한다)

18

[주관적 빈곤 인식]

8) 우리 집의 경제적 형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지,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지 등)

8-1)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를 탐색한다.)

8-2) 점수로 표시한다면, 매우 가난한 것을 1점이라고 하고 매우 부자인 것을 10점이라고 하면 지금 은 몇 점에 해당하는지?

8-2-1) 점수를 그렇게 매긴 이유는 무엇인지?(상세한 설명을 부탁하고 기다린다)

☞

9) 앞으로 우리 집의 경제적 형편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지?

9-1) 그렇다면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를 탐색한다)

9-2)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를 탐색한다)

☞

10) 우리 집의 경제적 형편이 OO(아동/청소년 이름)에게 미친 영향은?(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아동이 사용한 단어를 사용하여 질문한다. 예를 들어 9)번 질문에서 "우리 집은 가난해요"라고 얘기한 경우, "집이 가난해서 어떤데?" "집이 가난해서 OO은 어때?" 이런 식으로 질문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이상도 질문에 답을 잘 못할 경우 저학년과 비슷한 방식으로 질문함)

☞

[미래의 꿈과 부모님의 기대]

11) 앞으로 어떤 사람(어른)이 되고 싶은지?(직업과 관계 없이)

11-1) 그 이유는 무엇인지?

11-2) 그런 사람(어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어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11-3) 그런 사람(어른)이 되는 것이 쉬운지 어려운지? (쉽다면 혹은 어렵다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12) 본받고 싶은 사람(어른)은 누구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12-1) 본받고 싶지 않은 사람(어른)은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 그 이유는?

13)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어른)이 되고 싶은지?(직업과 관련됨)

13-1) 그 이유는 무엇인지?

13-2) 그런 일을 하는 사람(어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어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13-3) 그런 일을 하는 사람(어른)이 되는 것이 쉬운지 어려운지? (쉽다면 혹은 어렵다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13-4) (하고 싶은 일이 없다면) 어떤 직업이 나에게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13

14) 부모님이나 함께 살고 있는 어른은 OO(아동/청소년 이름)에게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는지?(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지?)

14-1)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어떤 기분이 드는지?

14-2) 부모님이나 함께 살고 있는 어른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14-3) 부모님이나 함께 살고 있는 어른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14-4) 부모님이나 함께 살고 있는 어른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15) 부모님이나 함께 살고 있는 어른은 OO(아동/청소년 이름)에게 어떤 사람(어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지?(직업과 관계없이)

15-1) (이야기를 들은 경우) 부모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 어떤 기분이 드는지?

15-2) 부모님이나 함께 살고 있는 어른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그 이유는?

16) 부모님이나 함께 살고 있는 어른은 OO(아동/청소년 이름)에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어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지?(직업과 관련됨)

16-1) (이야기를 들은 경우) 부모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 어떤 기분이 드는지?

16-2) 부모님이나 함께 살고 있는 어른으로부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그 이유는?

158

3) 청소년(중·고등학생)

1) 요즘 일상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루 일과나 일주일 생활 일정 등

☞

2) 요즘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나 고민거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3) 귀하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장점, 자원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4) 귀하의 가족관계, 동성친구관계, 이성관계, 교사관계, 진로, 학업, 취미여가, 신체건강, 정신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 평소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5) 귀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

6) 귀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어려움들 중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4) 노인

【 사회참여 】

1) 귀하의 요즘 일상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루 일과나 일주일 생활 일정 등

1-1) 요즘 일상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혹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1-2)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2) 최근에 경제적인 목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2-1)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입니까?

2-2) 그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의미 있는 점(좋은 점), 그리고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것입니까?

※

3) 여가시간에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3-1)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입니까?

3-2) 그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의미 있는 점(좋은 점), 그리고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것입니까?

※

4) 만약 여건이 주어진다면, 현재 하고 있는 활동 외에 더 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입니까?

4-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1) 그 활동을 하기 위해 어떤 도움 혹은 지원이 필요합니까?

※

【 정신건강 】

- 5) 일상생활에서 심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불안, 불면, 우울, 자살생각, 정신질환, 알코올 등)
- 5-1)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 5-2)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가장 지장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 5-3)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입니까?

15

【 노화의 의미 】

- 6) 귀하께서는 자신이 ‘노인이다’ 라고 느낄 때는 어떤 때 입니까?
- 6-1) 노인이 되면서 느끼는 삶의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것입니까?
- 6-1) 노인이 되면서 가족이나 친구관계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 7)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잘 늙어간다’ 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 7-1) 귀하께서 스스로 잘 늙어가고 있다고 느낄 때는 어떤 때 입니까?
- 7-2) 잘 늙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8)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호상(좋은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15

- 9) 우리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대우나 인식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0) 노인을 위한 사회 정책 및 제도에 있어 보다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5

5) 장애인

1) OO씨는 살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과거, 현재 모두 포함)

1-1) 그러한 문제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1-2)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문제가 장애와 관련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2) OO씨의 장애가 OO씨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다고(미치고 있는지) 생각하십니까? 말씀해주세요. (교육, 직업, 사회생활, 관계, 결혼 등등 삶의 전 영역)

☞

3) OO씨 주변에 의미 있는 사람들(예. 가족, 친구, 회사 동료 등)이 OO씨의 장애에 대해 어떠한 태도나 반응을 보여 왔습니까?

3-1) 이것이 OO씨의 감정이나 행동,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미치고 있는지)요?

☞

4) OO씨는 주변에 장애인 친구나 동료와의 교류가 있습니까?

4-1) 교류가 있다면 그 계기는 무엇이고, 그 경험은 어떠합니까?

4-2) 교류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5) OO씨는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 혜택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장애연금, 의료비지원, 보조도구 지원, 활동보조인, 세금감면 등등)

5-1) 도움을 받아 본 적이 있다면, 그것이 본인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긍정적/부정적 경험 모두 탐색)

5-2)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정책, 제도, 서비스에 있어 더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6) 본인에게 장애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홍보팀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303)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 2011년

11-01	u-Health 현황과 정책과제	송태민	9,000원
11-02	보건의료분야 여건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자출 및 수입구조 분석	조재국	미정
11-03	친서민 건강관리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활성화 방안	이상영	6,000원
11-04	약제비 자출의 효율화를 위한 고비용 의약품 관리방안	박실마아	5,000원
11-05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야채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정기혜	7,000원
11-06	소비자 중심의 유기식품의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유기농식품 표시제 중심으로-	곽노성	7,000원
11-07	저소득층 아동비만 및 저체중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김혜련	6,000원
11-08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전환에 따른 건강증진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진	6,000원
11-09	인구집단 의료이용 형평성 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해	김동진	6,000원
11-10	통일대비 북한 위기상황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방안	황나미	미정
11-11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재고방안	신영석	7,000원
11-12	노후준비 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윤석명	7,000원
11-13	사회보장제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최성은	5,000원
11-14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미정
11-15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장애·장해·장애인 연금간 효과적인 역할정립 중심으로	신화연	6,000원
비발간	해외사회보장제도 정보서비스 제공	강유구	미정
11-16-1	선진국의 아동사태관리체계비교연구: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김미숙	미정
11-16-2	호주 사회보장체계 연구	여유진	6,000원
11-17-1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 수준에 관한 연구	고경환	6,000원
11-17-2	노인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와 복지경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고경환	8,000원
11-17-3	2011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7,000원
11-17-4	2011 보건복지 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10,000원
11-17-5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미정
11-17-6	사회복지재정 추계모형개발	원종욱	8,000원
11-17-7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	정영호	5,000원
11-18	공정사회를 위한 친서민 정책 개선 방안	이태진	미정
11-1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노대명	7,000원
11-20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여유진	6,000원
11-2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조사-	최현수	10,000원
11-22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김태완	6,000원
11-23	공공부조 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 -TANF의 배경과 그 집행의 특징-	이현주	7,000원
11-24	2011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8,000원
비발간	2011 기초보장평가 및 정책대안 모색	이태진	미정
비발간	2011 기초보장모니터링 및 현장보고	최현수	미정
11-25	사회복지제도 운영체계 국제비교 연구: 호주·뉴질랜드·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강혜규	미정
11-26	중산층가족의 복지제정도 증진방안 연구	김유경	미정

11-27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10,000원
11-28	지역별 건강수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변용찬	5,000원
11-29	장애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김성희	7,000원
11-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6,000원
11-31	사회복지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제공 실태 및 운영구조 연구	강혜규	미정
11-3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분석	이삼식	7,000원
11-33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제고방안	정영철	5,000원
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균	6,000원
11-35	사회복지 통계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도세록	6,000원
11-36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장영식	11,000원
11-37-1	출산율 예측모형 개발	이삼식	6,000원
11-37-2	저출산에 대한 만혼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태홍 (외부)	미정
11-37-3	출산관련 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 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최정수	7,000원
11-37-4	소득계층별 출산 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김은정	6,000원
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 (외부)	미정
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7,000원
11-37-7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6,000원
11-37-8	외국의 이민정책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정덕 (외부)	미정
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경희	9,000
11-37-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모색: OECD 국가별 비교를 중심으로	이소정	미정
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5,000원
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선우 덕	8,000원
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 M시 종적연구기반(1)	오영희	6,000원
11-37-14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김수봉	미정
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8,000원
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폴란드 판	이삼식	5,000원
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경희	7,000원
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쟁점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시각지대 분석	이소정	미정
11-37-19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10,000원
비발간	국제신포자음	이삼식	미정
비발간	저출산고령사회연구관련 학술대회	이삼식	미정
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유지방안에 관한 연구	김기홍 (외부)	미정
11-37-21	북한연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이삼식	미정
비발간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	이삼식	미정
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방안	(미정) (외부)	미정
11-37-23	저출산고령화대응영세자영업자생활실태연구	박종서	미정
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8,000원
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연구	이상영	10,000원
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 지원	김동진	11,000원
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의 정책동향	최은진	10,000원

	11-39-4	건강영향평가 DB구축	김동진	10,000원
	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9,000원
	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8,000원
	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8,000원
	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홍석표	5,000원
	11-42	취약·위험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2차년도)	김승권	11,000원
	11-4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아동분야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김미숙	13,000원
	11-44-1	한국의 복지실태	남상호	미정
	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옥	8,000원
	비발간	한국의 사회복지분석	남상호	미정
	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정영호	7,000원
	비발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보건의료정책방향 모색	박실바아	미정
	비발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보건의료분석	조재국	미정
	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7,000원
	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6,000원
■ 2010년	10-01	지역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상영	5,000원
	10-02	화개난치성질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 방안	박실바아	5,000원
	10-03	해외의료시장 개척의 투자효과 분석과 중장기 발전 전략	조재국	7,000원
	10-04	식품안전분야의 사회적 위험 요인 중장기 관리전략 수립	정기혜	6,000원
	10-05	단체급식의 영양관리 개선을 통한 국민식생활 향상 방안	김혜련	7,000원
	10-06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방안	곽노성	7,000원
	10-07	식품위해물질 모니터링 중장기 추진 계획 수립	김정선	5,000원
	10-08	간담보험 정책현황과 과제	신영식	7,000원
	10-09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신현웅	5,000원
	10-10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 환경 분석을 위한 주요 해외금융시장 비교 연구	원종욱	5,000원
	10-11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이태진	5,000원
	10-12	한국 제3세대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노대명	8,000원
	10-13	기초보장제도 생계보장 평가와 정책방향	김태완	7,000원
	10-14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 연구 : -기초보장제도 시행 10년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이태진	7,000원
	10-15	자활정책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	노대명	7,000원
	10-16	2010년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8,000원
	10-17	OECD 국가 빈곤정책 동향분석: 복지자본주의 체제 변화에 따른 공공부조제도의 조응성 분석	여유진	7,000원
	10-18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방안의 효과성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연계방안 연구	최현수	8,000원
	10-19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김미숙	6,000원
	10-20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최저수준 설정을 위한 연구: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윤상용	8,000원
	10-21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중심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강혜규	8,000원
	10-22	장애인의 통합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 복지분야 중간점검	김성희	8,000원
	10-23	민간 복지지원 확충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의 모색	박세경	7,000원
	10-24	자살의 원인과 대책연구: 정신의학적 접근을 넘어서	강은정	5,000원
	10-25	한국 노인의 삶의 변화 분석 및 전망을 통한 노인복지정책 개발	이윤경	7,000원
	10-26	보건복지통계 발전방안 연구	송태민	7,000원
	10-27	보건복지통계 생산 표준화 방안 연구: 메타정보관리를 중심으로	손창균	6,000원
	10-28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0	장영식	10,000원
	10-29	지역별 보건통계 생산방안	도세록	6,000원

10-30-1	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	이삼식	17,000원
10-30-2	생애주기 변화와 출산수준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교육, 경제활동 및 결혼을 중심으로	이삼식	5,000원
10-30-3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변용찬	5,000원
10-30-4	출산관련 의식변화와 출산율간 인과관계 연구	김나영	6,000원
10-30-5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자녀가치와 출산율 관계 연구	김은정	5,000원
10-30-6	저출산의 가시경제적 효과분석	남상호	6,000원
10-30-7	저출산·고령화가 가족형태 및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김은지 (외부)	6,000원
10-30-8	자녀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	신윤정	6,000원
10-30-9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개편방안	윤석명	7,000원
10-30-10	한국의 인구정책 동향과 전망	장영식	6,000원
10-30-11	임양실태와 정책방안	김유경	10,000원
10-30-12	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	최정수	6,000원
10-30-13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사업 현황과 정책과제	황나미	6,000원
10-30-14	저출산·고령화시대 노동력 부족과 인력활용 방안	염지혜	5,000원
10-30-15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이삼식	5,000원
10-30-16	저출산·고령사회 정보관리체계 및 통계DB 구축방안 연구	송태민	7,000원
10-30-17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정경희	6,000원
10-30-18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정경희	10,000원
10-30-19	에비노년층의 일과 여가에 대한 욕구와 정책적 함의	이소정	6,000원
10-30-20	신노년층(베이비붐세대)의 건강실태 및 장기요양 이용욕구 분석과 정책과제	신우덕	5,000원
10-30-21	신노년층의 소비행태 특성과 고령친화산업적 함의	김수봉	7,000원
10-31-1	2010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8,000원
10-31-2	2010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9,000원
10-31-3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4차년도): DB의 활용성 측면을 중심으로	고경환	7,000원
10-31-4	사회복지 재정지출과 자방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최성은	6,000원
10-31-5	복지경영의 이론적 논의와 과제	고경환	6,000원
10-31-6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7,000원
10-31-7	건강보험 재정평가	신영석	5,000원
10-32-1-1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 지원 제1권	김동진	8,000원
10-32-1-2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 지원 제2권	김동진	11,000원
10-32-2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서미경	5,000원
10-32-3	건강마을의 건강영향평가	최은진	5,000원
10-33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3년차)	오영호	9,000원
10-34	보건사회 기후변화 모니터링센터 운영 (1년차)	신호성	14,000원
10-35	취약위험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1년차)	김승권	10,000원
10-36	아시아 복지국가 자료 및 전략센터 구축 (1년차): 아시아 국가의 사회안전망	홍석표	8,000원
10-37-1	2010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강신욱	14,000원
10-37-2	2009년 한국복지패널 삼층분석 보고서: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분석	김미곤	6,000원
10-38-1	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Ⅱ)	정영호	11,000원
10-38-2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Ⅰ)	정영호	7,000원
10-39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년차)	정영철	7,000원
10-40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년차)	이연희	5,000원